

부산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용역 수행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원: 차철욱[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 원: 김민화[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보조원: 권진오[한국민족문화연구소]

협 조: 오현석[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보고서

학리마을 구술자료

목 차

I.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1
2. 추진 방향	1
3. 과업 방향 설정 및 내용	1
4. 과업진행일정	3

II. 개관

1. 행정구역과 환경	5
2. 역사와 연혁	9
3. 학리마을 현황	14

III. 면담실행

1. 사전 작업	18
2. 면담 방식	18
3. 녹취문 작성 과정	19

IV. 구술 후기 및 성과, 활용방안

1. 구술 후기	21
2. 구술 성과	22
3. 활용 방안	23

V. 구술 대상자 및 사례

1. 김영희	27
2. 권중태	67
3. 김용대	105
4. 한상기	147
5. 신한호	177
6. 윤달금	203
[별첨] 구술 관련 서류	214
[부록] 마을 관련 수집 사진	240

I.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 부산지역 근현대사 관련 자료 발굴 및 보존을 통한 자료 집대성
 - 학리마을의 상업화·관광화로 인해 해체되는 마을 공동체의 기억 보존
 - 마을사의 사료화 작업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
- 부산지역 근현대사 연구 자료 제공
 - 과거 소외되었던 지역의 생활사 자료 구축을 통한 지역 연구의 자료 제공
 - 부산지역의 미시 역사 조망 및 동해안 어촌 지역의 생활사 연구 토대 마련
- 부산지역 근현대사 및 생활사 관련 아카이브 구축과 콘텐츠 개발
 - 주로 연령대가 높은 구술자들의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 복지 방향 설정 및 복지 정책 접근성 향상 도모
 - 해당 마을 기초 조사 및 현황 조사를 통해 학리마을의 발전 가능성 및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

2. 추진방향

- 면담, 구술을 통한 학리마을의 생성 및 변천과정 자료조사, 수집
- 면담, 구술을 통한 학리마을 공동체 축제 및 어업활동에 관한 자료조사, 수집
- 면담, 구술을 통한 학리마을의 주민생활사 자료조사, 수집
- 조사, 수집된 구술 자료를 역사 자료로 체계적 정리, 보존

3. 과업 방향 설정 및 내용

- 마을 형성·변천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한 심층 면담 조사
 - 마을 주민 대상으로 학리마을 명칭유래·형성 등 심층 면담 조사
 - 기장군 학리마을 공동체 축제 및 어업 관련 경제활동 등 구술조사
 - ▷ 만선(滿船) 및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별신굿 등 심층 면담
 - ▷ 미역 및 다시마 종묘 생산과 양식 성공 사례 및 채취 활동 등 조사
 - ▷ 2000년대 이후 주민자치공동체 중심으로 한 환경·문화·교육운동 조사
- 학리마을 주민들의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조사
 - 마을 주민의 출생에서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심층면담 형식으로 조사
 - 미역 등 양식업 종사자의 생활상 변화에 대한 심층 면담, 학리마을 해녀의 역사와 변화 양상에 대한 심층 면담

○ 학리마을 주민이 소장한 마을 관련 문헌자료 조사

- 구술자의 생애사 요약 및 각 내용별 상세 내용 앞에 구술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축약하여 요지문 형태로 작성
- 수집된 구술 자료의 역사적 가치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연구
- 조사, 수집된 구술자료(녹음 파일, 동영상 파일)와 녹취한 녹취록 및 사진 자료(수집·촬영) 등을 수록한 결과보고서 및 외장하드 제작

4. 과업진행일정

일시	경과	내용
2021.04.27.	1차 사전 회의	· 구술조사 방법 및 내용 분석 및 역할 분담
2021.05.11.	사전 현장 조사	· 마을 현황, 시설, 주민 사전 조사
2021.05.17.	2차 사전 회의	· 사전조사 역할 분담(고문서/지도, 기관지, 도서, 논문, 신문기사, 통계 등)
2021.05.18.	착수 보고회	· 사업 계획 및 일정 보고
2021.06.17.	학리마을 관계자 만남	· 기장수협 조합장, 학리마을 어촌계장 만남. 사업 소개, 협조 요청
2021.07.06.	학리마을 현장 조사	· 현장 조사 및 어촌계장 사전 면담
2021.07.14.	인터뷰: 김영희 1차	· 동해안 별신굿 인간문화재 김영희 선생님 인터뷰 1차
2021.07.27.	학리마을 현장 조사	· 현장 조사 및 학리마을 면담자 섭외
2021.07.29.	인터뷰: 권중태	· 어촌계장 권중태 인터뷰
2021.08.05.	인터뷰: 김영희 2차	· 동해안 별신굿 인간문화재 김영희 선생님 인터뷰 2차
2021.08.10.	인터뷰: 김용대	· 미역, 다시마 최초 양식 김용대 선생님 인터뷰
2021.08.18.	인터뷰: 한상기	· 전산가든 한상기 선생님 인터뷰
2021.08.23.	인터뷰 정리 회의 1차	· 면담 내용 정리 및 후속 작업 회의

2021.08.30.	인터뷰 정리 회의 2차	· 면담 내용 정리 및 후속 작업 회의
2021.09.03.	인터뷰: 윤달금	· 학리 노인회장 한현호 면담
2021.09.04.	인터뷰: 한현호	· 학리 해녀 윤달금 면담
2021.09.28.	중간 보고회	
2021.10.31.	동해안 별신굿 공개행사 참석	· 구덕민속예술관
2021.11.12	최종보고회 준비 회의 1차	· 최종보고서 준비
2021.11.19	최종보고회 준비 회의 2차	· 최종보고서 준비
2021.11.23.	최종보고회	
2021.11.27	현장 마무리 조사	· 사진 촬영 및 사실 확인
2021.12.02	최종보고서 제출 회의 1차	· 검독확인과 녹취록 보완 완료
2021.12.06	최종보고서 제출 회의 2차	· 보고서 제작
2021.12.03.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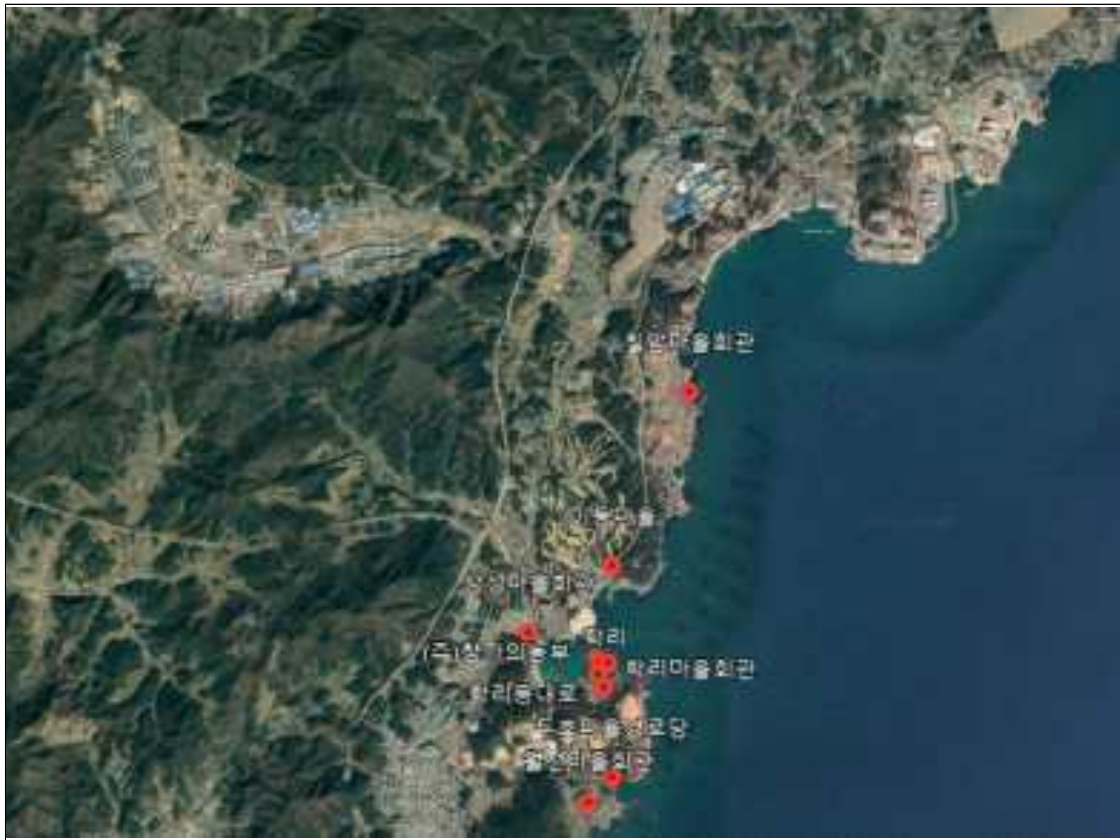
Ⅱ. 개관

1. 행정구역과 환경

1) 행정구역과 지리적 환경

학리마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에 위치한다. 조선시대에는 기장현 동면(東面) 항곶포(項串浦)로 기록되어 있으며, 1867년(고종 4년) 기장군 동면 학리로 지명이 확인된다. 1914년 3월 1일 지방 제도 개편으로 경상남도 동래군 일광면 학리가 되었고, 1973년 동래군이 폐군되면서 경상남도 양산군 일광면 학리에 속하였다가,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마을이 되었다.





학리마을은 자연 마을로 2020년 12월 현재 면적은 1.19km²이며, 법정리와 행정리가 일치한다. 학리는 일광면 동남쪽 해안가 끝인 학리항에 있으며, 북쪽과 남쪽, 동쪽이 모두 동해와 접한 돌출된 곳 형태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남으로는 기장을 죽성리와 접하고, 서로는 삼성리와 접하며, 그 외 지역은 동해에 면해 있다. 마을의 앞에 바다를 기준으로 서쪽과 남쪽으로는 산지가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일광 해수욕장이 바라보인다. 북쪽의 해안은 학리항과 일광 해수욕장이 있는 만입부와 접하고, 남쪽 해안은 죽성천이 동해로 유입하는 죽성항과 접하고 있다. 일부 만입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안은 암석 해안이다. 북쪽 해안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기장을 죽성리와 분수계를 이루는 산지가 동서 방향으로 있으며, 이곳 산지에서 발원한 소하천이 북쪽 해안으로 유입한다. 남쪽 산지 사이에 소규모 분지가 형성되어 있어, 취락이 입지하고 있다. 마을은 북쪽을 바라보며 형성되어 있고, 남쪽과 서쪽의 산지 비탈면은 농경지로 이용된다. 서쪽으로 기장 해안로가 지나가며, 북쪽 만 어귀에는 1999년 축조된 학리등대가 있고, 그 안쪽으로 학리항이 있다.

2) 주요 지명 및 주요지점

학리와 관련된 명칭의 유래는 몇 가지 설이 존재한다. 먼저 해안 지형이 황학의 모습을 닮았다는 풍수설에 따라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이 있다. 다른 유래로는 마을 남쪽 메탄데기산에 있는 해송에 학이 많이 서식하였기 때문에 학 마을로 불렸다는 설이 있다. 또 지형 상 마을 동쪽의 산마루가 잘록하여 예부터 이곳을 황새목이라 불렀으며, 학리의 옛 이름이 향곶이[項串]로 향리(項里)로 부르다가 학리로 바뀌었다는 견해도 있다. 조선 후기 부산 기장 지역의 뛰어난 경치와 유적 등을 소재로 하여 지은 가사 문학 작품인 「차성가(車城歌)」에 향리라는 지명이 확인된다.

지명, 지점	세부내용
마을공동 빨래터	과거 상수도 보급 전 삼성리로 가는 쪽에 마을 빨래터가 있었음
마을이름 비석	학리마을이라는 이정표지석이 마을 입구 갈림길에 있음
강대방	학리 마을 입구 쪽 옛 지명
마을버스 정류소	마을 버스정류장은 전산가든 앞과 어구, 어망 보관창고 앞 두 군데에 있음
밭고개	마을 위쪽 전산가든이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학리 주민들이 밭농사를 짓던 공간을 칭하는 옛 지명
국사당	할매 제당이 있는 마을 뒷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앙촌 철조망 안에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함
상여집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슬레이트 단 칸 건물로 해안 갯바위 위에 있음
미역양식 최초 종묘장	김용대 씨가 미역 양식에 성공한 후 1965년 목조슬레이트 구조로 건축하여 이곳에서 미역 종묘를 배양했음
학리 마을회관, 노인정	학리마을 회관, 노인정은 학리4길 13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남·녀 노인정이 함께 있음
큰막	학리 마을에서 원래 주민들이 과거부터 살았던 곳으로 학리 내에서 주거지가 가장 크게 발달한 곳을 지칭하는 옛 지명
큰샘	큰막에 위치해서 마을 주민들의 식수이자 생활용수를 공급했던 우물로 현재는 폐쇄되었음
할매상회	할매 제당 옆에 있는 마을 상점으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음
당산나무	할매 제당 좌우에 위치한 소나무
할매 제당	풍어제 및 동해안 별신굿을 진행하는 마을 제당
풀막개	큰막과 달리 마을이 확장하면서 주거지로 추가된 곳
청년회, 어촌계 사무실	학리항 바로 앞 어구보관 장소에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사무실
학리 해녀 포장마차촌	학리 방파제 입구에 포장마차로 되어 있는 해산물 판매 가게, 식당. 일부는 실제 학리 해녀가 운영함.
부녀회 사무실	방파제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사무실
미군불발탄 처리장	한국 전쟁부터 1970년대까지 미군 불발탄 처리장으로 이용되었음
신앙촌	1972년 경기도에서 학리 뒷산 넘어 신앙촌이 이주함

2. 역사와 연혁

1) 학리 역사

학리마을은 500여 년 전 황씨, 구씨, 유씨가 정착하며 마을을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학리마을 일대는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기장현 동면(東面) 항곶포(項串浦)로 기록되어 있으며, 1867년(고종 4) 처음 기장군 동면에 속한 학리동으로 지명이 확인된다. 『경상남도 기장군 가호안(慶尙南道機張郡家戶案)』(1904)에는 기장군 동면 학리에 42호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이 1905년에 학리 옆 기장을 죽성리에 포부대를 주둔시키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기능을 했다. 1909년에는 학리 일대의 어장, 포구, 미역바위 등을 기록한 「곽암도」가 제작되어 당시 학리의 어업 현황 및 마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14년에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래군 일광면 학리로 변경되었다. 1919년 4월에는 일광에서 만세운동에 일부 학리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1925년에는 어업조합의 공동판매 수수료 문제로 어업조합간부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49년에 공비가 침입하여 해안 방어가 강화되었으며 한국 전쟁기부터 마을 서남쪽(현재 신양촌 지역)에 불발탄처리장이 운영되었다. 전쟁 이후에도 미군 불발탄처리장으로 계속 운영되다가 1970년대가 되어서 폐쇄되었다. 불발탄처리장이 운영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불발탄처리장에서 신주, 탄피 등 쇠붙이를 주웠는데 이 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어업에서는 1960년대 봉장어를 주로 잡아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으며 이후에는 오징어 등이 많이 잡혔다. 해안에서는 자연산 미역 채취를 통해 수익을 냈다. 자연산 미역은 수확량이 적어 당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었다. 자연산 미역 채취를 위해서 겨울에 자연산 미역이 자라는 해안가 바위를 청소라는 가새 작업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했다. 1960년대 후반 미역 양식이 시작되면서 자연산 미역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점차 사라져 갔다.

1972년에 신양촌이 경기도에서 학리 옆으로 이주해오면서 학리와 죽성으로 이어지는 해안이 끊겼다. 또한 학리에서 기장으로 나가는 길 역시 신양촌 이주로 인해서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1970년대 초부터 학리항을 2종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학리 항 매립, 방파제 건설 등의 정부지원을 통해 항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1973년 동래군이 폐군되면서 양산군 일광면 학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1995년 부산광역시도 생기면서 기장군 일광면 학리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95년에 현재 골매기 할배 제당을 건립했고 1999년에 학리 등대를 축조했다. 2005년부터 풍어제를 5년마다 하기로 하고 기장군의 지원으로 동해안 별신굿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광신도시 개발과 신양촌 공사 등으로 학리 일대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어류와 해산물 수확이 급감하고 있다. 20016년에는 영화 <보안관>을 학리에서 촬영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녀촌 등 식당, 상점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어류 소비 감소로 어선 출항도 감소추세이다.

2) 학리마을의 동해안 별신굿

학리 당산제는 음력 1월 14일 자정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309-12번지에 있는

제당에서 1년에 한 번 동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마을의 유래로 보아 학리 당산제를 지내는 할매·할배 제당은 약 500년 전에 당집이 모셔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제당이 건립된 것은 할매 제당은 미상이고, 골매기 할배 제당 제당은 1995년 9월 6일이다.

학리에는 두 제당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당은 국시당[국수당의 와전]으로서 할매당은 하당(下堂), 할배당은 상당(上堂)이었다고 한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황씨 할배와 유씨 할매가 부부로서 항구포 마을을 창립하고, 120여 년 전부터 마을 이름을 지형이 학처럼 생겼다하여 학리[종전에는 항리라 하였음]라고 하였다. 마을의 제신(祭神)은 쇠고기를 놓지 않으면 신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옛날부터 반드시 쇠고기를 올린다고 한다. 이외에도 학리에는 당산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즉 1985년 무렵에 당산 나무의 가지가 태풍에 의해 부러졌는데 이 가지를 벤 목수가 가지를 베자 곧 눈이 멀었다고 하는 당산 나무 영험담이 전승되고 있다.

골매기 할매 제당은 대지 면적 32.3㎡(9.8평, 앞면 5.4m, 옆면 6m)에 건물 면적은 10.2㎡(3.1평, 앞면 337cm, 옆면 307cm)이며, 방향은 북북서향이다. 기와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여닫이 두 짝 나무문이다. 골매기 할배 제당 제당은 대지 면적 27.4㎡(8.3평, 앞면 6m, 옆면 4.6m)에 건물 면적은 5.9㎡(1.8평, 앞면 304cm, 옆면 200cm)이며, 방향은 동동남향이다. 기와 우진각 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타일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여닫이 두 짝으로 된 알루미늄 새시 문이다.

제단을 보면 골매기 할매 제당의 제단은 □형 합판 제단(앞면 191cm, 양쪽 앞면 111cm, 옆면 57cm, 높이 87cm)이고, 골매기 할배 제당 제당의 제단은 직사각형 시멘트 제단(앞면 264cm, 옆면 46cm, 높이 47cm)이다. 두 제당에는 위패가 없고, 골매기 할매 제당의 오른쪽 벽에 성주 신체인 한지(가로 8cm, 세로 22cm)가 천장으로부터 8cm 아래에 붙어 있다.

학리에서는 당산제와 별도로 6년에 한 번 풍어제를 지내고 있다. 풍어제는 중요 무형 문화재 제82-1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해안 별신굿」 팀을 불러 지내고 있다. 「동해안 별신굿」은 어느 특정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마을 수호신을 모셔 놓은 당이 있어서 여러 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배를 타는 선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곳이다. 2005년부터 5년마다 하며 기장군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학리는 2008년, 2014년도에 풍어제를 올렸다.

3) 학리곽암도

학리 곽암도는 1909년 제작되었다. 지금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마을의 미역바위에 관한 지리적 특징 및 소유자를 기록한 지도이다. 「학리 곽암도(鶴里藨岩圖)」는 지금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마을의 주 소득원이던 미역의 바탕[미역바위(藨岩) 혹은 미역 돌]에 대한 명칭, 수량, 위치, 거리, 구역과 소유자 등을 상세히 기록한 일종의 도면이다. 가로 28cm, 세로 78cm의 지본 채색으로 1909년(순종 3) 3월 24일 제작되었으며, 같은 해 당시 경상남도 소속의 기장군을 경유하여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趙重應)에게 올린 제2종 어업 면허[미역 채취] 청원서의 첨부 자료였다.

그림 상단의 오른쪽에는 그림의 명칭, 미역바위 분포의 거리와 구역을 기입하였고, 왼쪽에는 미역바위의 소유자이자 어업 면허 청원인이 윤규성(尹圭成)과 박수진(朴守辰)임을 명기하였다. 현재 제2종 어업 면허 청원서에는 「학리 곽암도」와 더불어 채곽선(採藨船), 제초 도구(除草機械), 미역 채취 도구(採藨機械) 등을 묘사한 「어구도(漁具圖)」도 함께 전한다.

「학리 곽암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지도의 제작 목적은 물론 제작 연대와 지도 제작의 주문자까지도 명확히 파악되는 그림이다. 제2종 어업 면허 청원서의 첨부물로 제작된 까닭에 기장 학리마을의 미역바위의 명칭 및 분포뿐 아니라 위치와 거리 등을 명확히 측정하여 명기하고 있다. 기장 지역의 해안가와 미역바위는 물론 학리마을 내 박상봉(朴尙奉)과 박봉조(朴奉朝)의 밭과 박달원(朴達源)의 선묘(先墓), 모난포(模難浦)와 망성포(望星浦)의 포구(浦口) 등 학리마을의 여러 지리적 상황을 명기하고 있다.

「학리 곽암도」에 기입된 내용을 보면 국한문을 혼용하고 있는데 국문의 경우 고어인 ‘에서[에서]’와 ‘까지[까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행정 구역의 명칭은 ‘동면(東面) 학리동(鶴里洞)’이고 소유자의 집은 1통 4호와 1통 8호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당시 호구의 추이를 짐작하게 한다. 근대 기장 학리마을에서의 미역 채취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224-2번지에 살고 있는 정연구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4) 학리 미역 양식

학리는 예로부터 질 좋은 해초와 해산물이 많이 나던 지역이다. 특히 자연산 미역이 중요한 소득원이었는데 과거 조선시대에는 궁궐 진상품이기도 했다. 미역 채취와 관련하여 미역돌씻기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 양력 10월 말이나 11월초가 되면 어촌의 부녀자들은 물웃을 갈아 입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허리를 반쯤 물에 담구거나 바위 위에서 자기키보다 1배 반 큰 소나무로 만든 장대에다 납작한 쇠붙이를 단 속칭 실갯대로 일제히 쓰레질을 하는데 이때 부녀자들은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동요를 불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양식미역이 전 어촌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산 미역이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도할 정도여서 이런 돌씻기 노래도 어느 듯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노래는 『기장군지』 참고)

또 학리 미역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학리에서 미역 양식이 시작되었다. 1965년 4월 국립수산진흥원은 김용대 씨에게 미역양식을 위탁, 목조슬레이트조 배양장 건립, 종사를 입식하였고,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비학마을의 장철수와 최재명에게 시험용으로 판매하였다. 1966년 3월경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남도 초도순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도청에서 김용대 씨가 배양장에서 길러낸 양식미역의 샘플을 보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 정책사업으로, 진행되어 김용대씨는 1967년 동래군과 미역 종묘 공급 계약체결하고 본격적인 미역 양식에 나섰다. 일반 어민들은 동래군의 보조와 용자를 지원받아 미역 양식을 시작했다.

5) 연표

시기	사건
1500년 초	황씨, 구씨, 유씨가 정착하여 마을 형성
1789년	기장현 동면 항곶포
1867년	기장군 동면에 속한 학리동으로 지명 확인
1904년	기장군 동면 학리에 42호 거주(박씨 11호 김씨 5호 이씨 3호 신씨 3호 정씨 3호 최씨 3호)
1905년	일제가 포부대를 기장읍 죽성리 사이에 세움
1909년	학리 광암도 제작, 미역 바우에 관한 지리적 특징 및 소유자를 기록
1914년	3월 1일 지방제도 개편, 동래군 일광면 학리
1919년	4월 11일 박영준 등이 만세운동(일광)
1925년	5월 2일 어민대회 어업조합간부 퇴진 운동, 공동판매에 따른 수수료 문제
1928년	2월 15일 어업조합 해산투표 부결
1928년	10월 학리노동 야학교(교원3) 관북 수재동포 위한 모금
1930년	조선의 성 밀양박씨 22세대 동성마을이 있었음
1949년	공비, 서상조 등 1953년에 진압(기장군)
1950년	전쟁 시기 불발탄처리장으로 마을 뒷산 이용
1960년대	붕장어 산적, 일본수출 지금은 오징어등 활어, 협소한 진입도로 현재는 확장
1962년	소설가 오영수 낚시터, 지금의 오영수 낚시터 증언 정형남
1965년	4월 김용대씨 미역양식 위탁
1966년	3월 정책사업 지정
1967년	동래군의 지원으로 미역 양식 계약 체결(학리마을 대표 장차용, 노정용)
1968년	미 609 탄약처리반이 불발탄처리장 다시 사용
1972년	신양촌 이주 및 공장건설

1973년	동래군 폐군, 양산군 일광면 학리
1985년	무렵 부러진 당산 나무 가지 뺀 목수의 눈이 멀었다고 함
1986년	복군추진위원회(기장군) 활동
1994년	반핵운동, 9월 30일 부산편입 찬반투표(기장군)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학리마을
1995년	9월 6일 현재의 골매기 할배 제당 건립
1997년	2월 4일 산신 제당 옆 나무 중 하나가 기장군의 보호수로 지정, 관리자는 윤정영, 떨어진 가지를 시멘트로 보수
1998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지표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 확인
1999년	학리등대축조
2005년	풍어제를 5년마다 하기로, 기장군에서 200만원 지원
2005년	기장군 복천박물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물 채집
2008년	동해안 별신굿 풍어제
2014년	동해안 별신굿 풍어제
2016년	영화 보안관 촬영
2015년	마을회관 겸 경로당 신축

3. 학리마을 현황

1) 마을 현황

학리마을은 일광면에서 가장 큰 지방 어항인 학리항과 접해 있다. 물량장, 선착장, 위판장을 비롯한 공동 작업장과 5동의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마을에는 부산동부수협 학리 지소와 선박 급유소가 있다. 기장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정치망 어장이 있으며, 학리 간이 조선소와 마을 사이에 '오영수 낚시터'가 있다. 인근의 일광 해수욕장과 연결된 해변로가 조성되어 산책 코스가 되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일광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이곳에까지 붐빈다.

전국에서 처음 미역 및 다시마의 종묘 생산과 함께 앞바다에 양식하여 성공을 거둔 곳이다. 주 생산물은 미역, 다시마, 장어, 운단, 넙치 등이다. 최근에는 해안가를 따라 횃집이 늘어나 횃집촌으로 이름을 얻고 있다. 마을에서 기장군의 지원을 받아 5년마다 「동해안 별신굿」을 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 현재 면적은 1.19㎢이며, 인구는 245가구에 총 485명으로 남자가 250명, 여자가 235명이다. 자연 마을로 학리마을이 있으며, 학리는 법정리와 행정리가 일치한다. 학리는 일광면의 동남쪽 해안가 끝에 위치해 남으로는 기장읍 죽성리와 접하고, 서로는 삼성리와 접하며, 그 외 지역은 동해에 면해 있다. 서쪽으로 기장 해안로가 지나가며, 북쪽 만 어귀에는 1999년 축조된 학리 등대가 있고, 그 안쪽으로 학리항이 있다. 이곳의 경관은 일광 팔경의 학포 범선(鶴浦帆船)으로 묘사될 만큼 아름답다.

학리는 일광 해수욕장의 동쪽 외만에 위치해 전형적인 어촌 경관을 보이며, 돌미역이 많이 생산되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역과 다시마의 종묘 생산과 양식에 성공한 곳이다. 남쪽의 기장읍 죽성리 사이에는 1905년 일제가 세운 포부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2) 인구현황

읍면	행정리명(통)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일광면	계	10,738	25,805	12,779	13,026
	학리(1통)	244	470	244	226

학리 인구 현황(2021년 10월 현재 / 기장군청)

3) 주요시설

- 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3길 12-14에 위치한 학리회관에는 남자 경로당과 여자경로당이 같은 건물에 분리되어 있으며 1995년에 준공되었다. 각각 경로당에는 취사시설, 여가시설, 운동 기구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학리 과거 사진과 자료가 일부 보존되어 있다.

- ② 마을 제당과 당산나무: 골매기 할매 제당 주위에는 높이 170cm의 돌담장이 있고, 제당 뒤에 150여 년 된 소나무가 한 그루 있으며, 골매기 할매 제당 제당에는 양옆과 뒷면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높이 168cm의 담장이 있고, 양옆 담장 끝에 200여 년 된 소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있다. 학리 산신 제당 옆에는 수령이 300년 된 두 그루의 소나무가 중앙의 당집을 경계로 좌우에 각각 한 그루씩 있는데, 그중 한 그루가 1997년 2월 4일 기장군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2-16-3-2호이고, 관리자는 일광면 학리 108번지 윤정영이다. 보호수 지정 소나무는 둘레가 4.0m, 높이 25m인데 현재 당집의 우측에 있는 소나무이다.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좌측의 소나무는 둘레가 4m 90cm이다. 양쪽 나무 모두 가지가 떨어져 나가 시멘트로 보수한 부분이 있다. 학리 골매기 할매 제당(아랫당산)은 마을 해변도로 위쪽에 있고, 골매기 할매 제당 제당(윗당산)은 마을에서 서쪽 산 밑에 있다. 제당 관리는 이장이 맡고 있으며, 한 달에 두 번(보름과 그믐) 청소한다. 산 밑의 골매기 할매 제당 제당은 인근 신양촌에서 설치한 높이 3m 50cm 정도의 철조망 내부에 고립되어 있다. 신양촌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마을 사람들과의 합의를 통해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최근에는 제관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두 개 설치하였다.
- ③ 학리 해녀촌: 학리방파제 입구에 포장마차촌이 형성되어 있다. 이 포장마차 가게 중 몇몇 곳은 학리 해녀가 직접 운영하거나 학리 해녀가 물질 후 수확한 해산물들을 파는 가게이다.
- ④ 환경방사능측정소: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 후 인근 지역에 방사능 유출이나 오염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서 감시 장비가 설치되었다. 학리에도 학리 4길 중간 언덕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지 센서와 측정 장비, 울타리로 구성되어 있다.
- ⑤ 미군 불발탄처리장: 한국전쟁 때 미군이 불발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학리마을 뒤편, 현재 신양촌 자리에 미군불발탄 처리장을 만들었다. 전쟁 이후에도 1970년대까지도 불발탄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마을 주민들은 구술하고 있다.
- ⑥ 신양촌 철조망: 신양촌 철조망은 학리마을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신양촌에서 건설한 철조망이다. 서남쪽으로는 일미아구땀 옆 바위부터 마을 뒷산을 거쳐 학리마을 초입 마을 비석이 있는 곳까지 모두 설치되어 마을 주민들이 공동묘지와 제당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 ⑦ 학리 분교: 학리분교는 일광면 삼성리 717-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964년에 개교했으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2006년에 폐교되었다. 2017년에 부산시교육청에서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를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
- ⑧ 미역 종묘 양식장: 학리 출신 김용대 씨가 미역 양식 기술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미역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1965년 학리 입구 바위에 약 40평 규모로 목조슬레이트 건물인 채묘장을 신축했다. 이 시설에서는 35,000미터의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수산진흥원에서 위탁을 받고, 경상남도 동래군에서 미역 양식을 위한 종사 50,000미터 공급 계약을 맺었다. 현재는 건물의 기초 부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⑨ 학리항: 학리항은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의 어항 시설과 급유소, 위판소 등 수협 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방어항이다. 2000년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및 어구 보관창고가 마련되었으며 2001년에 어항진입도로가 폭 10미터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로 개설이 되었다. 1960년대에 봉장어를 일본에 수출하는 동해산 장어 집하소였고 이후 오징어, 갈치 등이 많이 잡히면서 활어차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다.

⑩ 해양경찰서 학리출장소: 해양경찰서 학리출장소는 1981년 경남 경찰국 선박출입항신고소 설치로 시작되었다. 1992년 울산해양경찰서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1995년에 학리 입구에 현재 건물이 준공되었다. 2002년에 울산해양경찰서 학리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마을의 조직

① 어촌계: 학리 어촌계는 1962년 설립되었으며 초대 어촌계장은 박찬식 씨가 맡았다. 어촌계가 주도로 1970년대 학리항 매립과 방파제 사업을 실시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신양촌과의 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현재 어촌계장은 권중태 씨이고 어촌계 사무실은 학리항 서편 포장마차촌 근처이다.

② 청년회: 마을이 노령화되면서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③ 노인회: 학리마을 노인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학리마을회관 노인정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경로회원은 4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경로당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마을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④ 부녀회: 해녀협회: 학리를 포함하여 이동,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 등 7개 마을 해녀가 참여하고 있는 협회이다. 해녀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옹호를 위해서 2005년 창립되었으며, 이후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해양오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영향 등 공동으로 해녀 활동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응하는 단체이다.

※ 참고문헌

1. 인터넷 홈페이지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index>
 기장군청 홈페이지 <http://www.gijang.go.kr/index.gijang>
 국가기록원 내고장 역사찾기 <http://theme.archives.go.kr/next/myhome/viewMain.do>
 내고장 역사알기 <http://theme.archives.go.kr/next/oldhome/viewMain.do>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 <http://www.nl.go.kr/newspape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http://newslibrary.naver.com>
 일제강점기 부산일보 : <http://ffr.krm.or.kr/base/td002/browse.html?searchType=all>
 국가기록원 : <http://www.archives.go.kr/>
 부산역사문화대전 : <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http://www.riss.kr/index.do>

2. 언론사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부산일보」 www.busan.com/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YTN」 <https://www.ytn.c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3. 편찬자료

기장군지편찬위원회, 『기장군지』, 200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8권』, 2002.
 부산광역시 기장군·북천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기장군』, 2005.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200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4권』, 2009.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장향토사 교과서』, 기장군, 201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박경수·황경숙 편저), 『동부산문화권설화(I)』, 201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박경수·황경숙 편저), 『동부산문화권민요(I)』, 2014.
 기장문화원, 『기장의 금석문』, 2017.

Ⅲ. 면담실행

1. 사전 작업

1) 구술자 선정

학리마을 장기거주자 또는 학리마을의 문화, 산업과 관련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하려고 했다. 그리고 마을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증언할 수 있는 구술자를 선정하려고 했다. 그리고 현재 마을 주민이 아니더라도 마을과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마을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물도 열어놓고 대상으로 정했다.

2) 구술자 섭외

최초 일광수협 조합장의 소개로 학리 어촌계장을 섭외하여 구술을 진행했다. 이후 마을 현장 조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약식 인터뷰를 통해 최초 미역 다시마 양식자를 확정하고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섭외하였다. 또 마을 이장이 학리 노인회 회장 섭외에 주요하게 도움을 주어 구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었다. 또 마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전산가든 대표를 섭외할 수 있었고 학리 해녀를 구술자로 추천받았다. 동해안 별신굿 전승자의 경우 울산대 연구자의 도움으로 구술자로 섭외를 할 수 있었다.

3) 사전 작업

- 구술 대상자를 만나 섭외하면서 기본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여 미리 구술 대상자와 공유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도모했다.
- 구술 대상자 섭외 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담은 공문과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여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유도했고, 실제 인터뷰 당일 구술 사업과 관련한 목적, 추진방향 등 역사학적(구술사적) 의의를 2차로 구술 대상자에게 설명했다.
- 녹취를 위한 장비(디지털 캠코더, 카메라, 보이스레코더, 예비 배터리 등)를 준비했다.
- 「구술자료 공개·이용허가서」 등 향후 필요한 서식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2. 면담 방식

- 본 용역은 학리마을의 생성·변화과정과 주민생활에 대한 1차 사료 수집을 그 목적으로 하기에 면담자의 학술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보다는 분석되지 않은 구술자

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는 것에 집중하고자 했다.

-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주민들의 기억과 생활사 또는 알려진 사실인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등을 수집하려고 했다.
- 면담자들의 경험이 다양하고 인터뷰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 진행 시 연구원 전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주 면담자가 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외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보조 연구자가 질문에 참여했다. 이에 구술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 했다.
- 기록은 음성으로 디지털 녹음기와 영상으로 디지털 캠코더, 휴대폰을 사용했다. 실외 인터뷰의 경우 잡음으로 인해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실내 인터뷰의 경우에도 냉방기 소음 등으로 인해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과 영상 자료를 교차확인하면서 전사작업을 했다.

3. 녹취문 작성 과정

- 영상과 음성파일의 텍스트화 작업을 위하여 해당 주 면담자가 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나머지 연구원들이 나누어 작성하였다.
- 녹취문 작성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해독 오류는 연구원 간 의견을 교환하여 최소화 하였고, 2차면담 또는 검수 과정에서 구술자에게 확인하여 고치는 과정을 거쳤다.
- 대화체의 특성상 도출되는 면담자의 중복된 질문 및 맞장구, 감탄사 등은 편집하여 녹취록의 가독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 연구원들이 협의하여 기관에서 제시한 녹취문 작성 원칙에 덧붙여 지침 내용을 정리 한 후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 녹취 작업을 하도록 했다.

《녹취문 작성원칙》

1. 녹음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녹취할 것.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나 사투리도 그대로 옮겨 적을 것. 구술을 임의로 발췌하여 녹취록의 ‘원본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단 구술의 뉘앙스와 관련이 없고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는 어조사, 감탄사, 말을 더듬거나 그로 인해 반복되는 문구 등은 생략할 수 있음. 예) 어, 거[거기], 요[여기], 이제, 아 아 아, 고속도 아 고속도로는
3. 문맥상 혼동을 막기 위해 추가할 내용은 () 안에 기록할 것.
4. 문맥상 필요한 한자는 해당 글자 우측에 ()에 넣어 표기할 것.
5. 구술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주변인의 얘기가 끼어 든 경우에는 [] 안에 상황을 설명하는 지문을 붙여 녹취록 내용에 포함시킬 것.
6. 구술 과정에서 참여자는 구술자1, 구술자2, 면담자1, 면담자2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7.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원칙에 따른다.
8. 구술 본문 중의 숫자는 한글로 풀어쓰고 쓴다. 예) 천구백구십칠 년, 사천 원
9. 구술자의 사투리 중 표준어 사용자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 안에 표준어로 뜻을 달아 둘 것. 사투리 띄어쓰기는 가급적 표준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는 붙여 쓴다.
10. 구술자의 동작이나 감정표현 등 특징적인 상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묘사는 [] 안에 기록할 것.
11. 다만 구술 진행과 관련 없는 면접자의 감정 표현은 기록하지 않는다. 면접자의 추임새나 맞장구, 구술되는 내용을 반복하여 되뇌는 내용도 기록하지 않는다.
12. 명백한 착오나 말실수, 기타 녹취록 작성자의 해석이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를 달아 정정하거나 의견을 첨부할 것.
13. 화젯거리의 변동에 따라 구술자 내용별 상세목록을 작성할 것.
14.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알아듣기 힘든 부분은 눈에 띄도록 ‘★’ 표시하여 이후 윤문 과정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개인의 인명이나 개인의 전화번호나 주소의 번지수 및 아파트 호수 등이 언급될 시 ‘○○’으로 표시할 것. 인명의 경우 정치인이나 공무원, 교사 등 공적인 입장에 있던 인물은 그대로 기록하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마찬가지로 ○○로 기록.
16. 각 녹취 회차별로 별도의 녹취문 파일을 작성할 것.파일명 예시) 대천_1_손열_1.hwp
→ 대천마을 1번째 구술자 손열 1차 녹취
17. 첫 번째 녹취문 모두에 구술 장면 사진과 구술자의 약력을 원고지 10줄 정도로 정리하여 실어줄 것.
18. 각 내용별 상세목록을 작성하고 매 장의 모두에는 3~5줄 정도 내용을 요약하여 실어줄 것.
19. 구술자의 검독을 반드시 거치고 검독확인서를 받을 것.
20. 주 면담자가 반드시 검독하고, 연구자 내에서 교차 검독을 추가로 진행할 것.

IV. 구술 후기 및 성과, 활용방안

1. 구술 후기

- 본 용역의 대상지는 기장군에 위치한 여러 어촌 마을 중에 미역과 다시마, 붕장어 수출, 오징어 집산지 등 1960~1990년대 어업으로 활황이었던 학리마을이다. 학리마을은 다른 어촌마을과는 달리 어선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업, 해녀 활동, 미역 양식 등 다양한 방식의 어업 활동이 가능한 마을이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여건이 여타 농어촌마을보다는 여유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현재 인구 감소로 마을구서원 대부분이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마을의 역사적, 공간적 배경을 기반으로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채록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러한 점에서 마을 장기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마을의 형성과정에 대한 구술 자료를 수집코자 노력하였다. 또한 마을 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주민들을 함께 선정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또한 마을 내부 주민은 아니지만 학리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동해안 별신굿을 연행한 김영희 선생님을 구술자로 섭외하였으며, 또 학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미역 양식에 성공한 김용대 씨도 구술자로 포함했다.
- 다만, 구술 조사사업 초기 어촌계장을 섭외하고 구술 인터뷰를 진행한 후 다음 구술자를 소개 받아 섭외하려고 계획했지만 코로나 상황 등으로 협조가 미온적이라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개별 섭외를 진행하게 되어 구술자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학리마을 구술 조사를 하기 전 학리마을의 특성 상 어업 관련 구술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구술을 진행했던 마을 주민 대부분이 현재 신앙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 표명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구술을 했던 동해안 별신굿 김영희 선생님과 미역 양식을 한 김용대 씨도 마을 내부 주민은 아니었지만 신앙촌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 구술조사 용역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7명 이상 인터뷰 하려고 했으나 결국 6명 정도에 그쳤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확진자 증가와 코로나 백신 접종의 연기 등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이로 인해서 초기 마을 이장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 구술 조사는 구술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구술자 각각이 최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구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술 조사 사업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던 동해안 별신굿 풍어제를 공개행사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곳에 참여하여 별신굿에 대한 내용을 채록, 촬영했다.
-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라서 구술 이후 원고 검독 등을 적극적으로 관

심을 가지지를 않았다. 특히 구술 녹취록에서 어촌마을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 등을 해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 구술 내용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고문서 스캔본 등의 자료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으나 학리마을에는 과거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마을의 역사나 사람에 대한 기억을 기록할 기회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의 행사 등 사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2. 구술 성과


- 학리마을 거주자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구술 자료와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궤적 및 마을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학리마을에서 대외적으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동해안 별신굿과 미역 양식에 대한 실제 연행 모습과 구술자들의 객관적인 구술과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서 동해안 별신굿의 연행 흐름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미역 양식의 원조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현재 학리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신앙촌과의 마을의 갈등에 대한 역사와 숭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이 신앙촌 철조망으로 인해서 이동의 제약이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중재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006년에 제작된 『기장군지』에 학리마을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수 있었고 이후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마을의 변화와 시설물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이번 구술조사에 변화상을 담고자 했다.
- 1970년대 학리항 매립과 방파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의 구술을 통해서 학리항 조성 당시 마을 주민들의 노동력 동원과 협조가 매우 중요했고 이와 함께 학리항 건설 사업이 4H 운동과 새마을 운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양의 변화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신앙촌 이주, 일광신도시 건설 등 마을 주민들은 해양 환경을 변화시키는 각 사건들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터전이 점점 변해가는 상황은 단순히 일회성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어업자원 고갈과 연안 오염에 따른 해양생물 감소는 이들의 생활을 바꾸고 있다.
-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 점점 고령화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현안 참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다른 농어촌마을과 비슷하게 학리마을 역시 마을 주민 감소와 어업경쟁력 약화로 현재 소멸해가는 길목에 놓여 있다.

3. 활용 방안

- 수집된 구술 자료는 1차 사료의 성격과 가치를 가진다.
- 그간 진행된 구술 수집 사업은 도심 속의 자연마을이 주 대상이었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 어촌지역의 근현대 생활상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향후 부산지역 내 어촌지역 구술 수집 사업의 사전 설계와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가 소실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수집된 구술 자료는 좁게는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을사 정리와 계승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며 넓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생생한 사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거시적 관점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난 미시적 관점의 밀착된 역사 사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본 자료를 통해 어촌 지역 공동체의 특징과 유형, 변화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통계자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주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정서변화, 유대관계, 갈등 관계의 원인 등을 직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로 역사, 문화, 관광, 복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다.
-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술 대상자 및 사례

1. 김영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0년 경북 포항 출생 - 부친 김석출(동해안 별신굿 초대 인간문화재) - 곰보무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림 - 동해안 별신굿 인간문화재
---	--

목 차

개 요

상세목록

1-A 자기 소개 및 성장기

1. 자기 소개와 어린 시절
2. 초등학교 시절
3. 무속의 길

1-B 결혼과 무당으로서의 준비

4. 중신과 시집
5. 시어머니의 가르침
6. 학리에서의 첫굿

1-C 무당으로의 삶

7. 독립
8. 무당으로서의 발전
9. 부산의 굿과 무당들
10. 시어머니의 은퇴와 어머니와의 추억

1-D 굿에 대한 여러 이야기

11. 부산굿과 경상북도 굿의 비교
12. 여러 무당들과 김구환 선생
13. 현재

1-E 마무리

14. 학리와 학리굿
15. 무당들의 죽음

1-F 학리마을의 곳

- 16. 학리마을에서 곳을 하게 된 계기
- 17. 학리마을 곳의 현황
- 18. 학리마을 곳의 대강의 모습

1-G 마을주민들과의 갈등

- 19.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불만
- 20. 마을 사람들의 고충
- 21. 해결과 기다림

1-H 학리마을 곳의 변화양상

- 22. 세월에 따른 변화
- 23. 신앙촌과의 갈등으로 인한 변화

1-I 학리마을 사람들의 삶과 곳

- 24. 지원금과 조상곳을 통해 본 곳의 의미 변화
- 25. 학리마을에서의 곳에 대한 회상 : 산바람
- 26. 학리마을에서의 곳에 대한 회상2 : 곳판의 풍경들
- 27. 변화에 따른 아쉬움

1-J 남은 이야기들

- 28. 울산에서의 곳
- 29. 무당으로서의 현재

□ 개 요

- 구 술 자1: 김영희
- 구 술 자2: 첫째 딸
- 면 담 자1: 김민화
- 면 담 자2: 권진오
- 면담주제 : 학리마을과 별신굿, 종교생활
- 면담일자 : 1차 2021년 7월 14일 (수) 14시00분
2차 2021년 8월 5일 (목) 14시00분
- 면담장소 : 학리마을
- 면담차수 : 2차

면담은 기장군의 김영희 선생님 자택에서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14시부터 15시 19분까지 1시간 19분 가량 진행되었다. 김영희는 1940년 6월 7일 경북 포항

남민동에서 출생하였다. 김영희는 4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어릴 때 굿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던 중 김태공의 국악 공연을 보고 굿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17살에 기장 죽성에서 중신이 들어와 역시 굿을 하던 송순택에게 시집을 가 시어머니 밑에서 본격적으로 굿을 배웠다. 이후 학리마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별신굿을 도맡아 오며 부친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다 현재는 건강 상의 문제로 일선에서 물러나 동생들과 후학들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무속 연구의 중요한 산 증인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 상세목록

<1차> 2021년 06월 25일

1-A 자기 소개 및 성장기

김영희는 1940년생으로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 마마를 앓아서 곰보자국이 많아 무당이 되어서 곰보무당으로 불렸다. 그녀의 집안은 세습무를 통해서 동해안 별신굿을 전승해왔던 집안으로 그녀 역시 굿을 배우고 결혼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굿을 바탕으로 평생 동해안 별신굿을 연행하는 삶을 살아왔다.

1. 자기 소개와 어린 시절

면담자 1 : 그 우리 기장 학리 별신굿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면은 예 뭐 고향이, 고향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1 : 예, 저는 경북, 고향은 경북 그 포항, 포항시, 남민동, 거게서[거기서], 저 본 고향이라예. 본 고향이고, 본래 그 고향에 포항 거게서, 있다가, 어 그 또 태어나가지고 큰집도 큰아버지 큰엄마가 포항 거서, 인자[이제] 게가[그래서] 다 인자 아버지 엄마든 어떻도르 도래 그래 살다가, 딱히 모도[모두] 다 그렇게 헤어져가지고 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큰아버지는 큰아버지대로, 뭐 그 한 고장으로서 안 계시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시드라고요, 이사를 다니고, 저 저가 인자 일곱 일곱 살에 그 포항 습십이라 하는 그 바닷가에서 마마를 했어예. 일곱 살에, 일곱 살에 인자 마마를 하고. 그 인자 부산, 그 저 부산진 대저공원이라하는, 그 옛날에 여 부산 여스에

면담자 1 : 진역있는데 있습니까?

구술자 1 : 예, 부산진, 그 대저 공원이라하는 거게, 마을에서, 그 우리 인자 여동생 둘이인데 남동생, 남동생은 손님을 먼저 받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일곱 살 목아가[먹어서] 내가, 그 마마를 할 적, 그때는 마마가 마이[많이] 번졌어예, 동네 마을에 마마가 돌았다하면은, 애들로 씨를 말리는기라고요, 다 죽아빠리고[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동생도 네 살 먹아[먹어] 손님을 받아가[받아서] 죽고, 그 뒤에 내가 손님을

이케[이렇게] 했는데. 그 동네에서 애들이라 하는 애들은 다 죽고, 내 하나만 살았으예. 그래가[그래서] 아버지가 날로 들고 구관역 대저공원에, 거게서 인자 살면서, 포항에 인제 일이 있어가지고[있어가지고] 날로 덮고 포항 인자 그래 갔는데, 다서 저네 살 먹는 우리 밑에 여동생을, 달고 세 살 묵윳은[먹윳는] 동생, 다섯 살 묵은 동생 드고, 세 살 먹은 동생을 들고, 그 저 포항에 이사 가지고 갔거든예. 그랬는데 아버지, 엄마, 큰아버지, 삼촌, 숙모, 삼촌하고 점[전부] 다 저 대구, 어 구환이 저저 구란이라하는 거게, 그 저저 공연을 갔어예. 그 여 아버지는 복을 치고, 우리 큰아버지는 상쇠, 우리 작은아버지도 둘째 상쇠, 뭐 글케[그렇게]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고, 거게서 또 또 여동생을 손님을 해가지고 내가 죽는 것까지 봤거든예, 나이 어려서 인제 그 거 큰아버지 집에다가 다 낳아놓고[놓아놓고], 이래가[이래서], 그 질로[길로], 그래 인자 아버지 엄마가 오니까, 애가 이제 숨이, 떨어졌으예 그래가, 거서르[거기서] 인자, 인자 애도 인자 그 묻고, 그 길로 부산에 느러와[내려와] 가지고 세 살 묵윳은 여동생을 손님을 해가지고, 마저해 죽었으예. 마저해 죽고, 날로 더업고 강원도로 갔으예.

2. 초등학교 시절

구술자 1 : 강원도로 가가지고,[가서] 그 열 살 묵어가가 육이오 사변을 겪우고, 육이오 사변을 겪었다가 보니까네 초등학교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예. 육이오 사변 딱 끝나고 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라하니까 일 학년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나가[나이가] 여가[여기가] 열 살을 먹어가 안된다고 해가, 열 살 먹었는데도 이학년을 바로 들어갔으예. 바로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구구단 가으가부터[가가부터] 배웠으예. 가으가 거어거부터[거거부터] 배워가지고, 기으 니은부터 배워가, 가으가부터 배워가지고, 구구단을 갖다 배울 적에 아버지한테, 그 아를 종아리 그거를 매차리[몇 차례] 또 맞고, 그거를 못 외았다고[외웠다고]. 그래서 안 맞기 위해가지고, 구구단을 갖다가 초등학교 이 학년 가아아 뭐 가자 뒤딸도 모르는 아를[아이를], 학교를 갖다 영어[넣어] 났으니까 뭘 알겠어예. 그래가 구구단 그거를 다 애우고, 그 인자 사 학년 일 학기에, 칠십오 명 중에, 그 저가 이등까지 했으예. 그래가 아버지가 날로[나보고] 재주가 있다고 이래가[이래서], 그 인자 그래가 육이오 사변을 지나고, 지금, 칠십, 내가 나이가, 어 팔십한 살인데, 그 저 저 뭐고 주민등록증에는 사오 년생이 되가 있으예. 그, 그때는 뭐 어른들이 그 뭐 저가 나이가 어려가 놓으니까, 저 그 어렸을 적에 니를 그, 그거를 뭐, 올리야 되는데 뭐 어짜하다보니까는 사오 년생이 되가 있고, 본 나이는 팔십한 살인데, 지금 그 내 밑에 여동생이가, 그 육이오 사변 겪우고, 태어났으예. 여동생,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지금 나이가 내하고 칠십 년 차이거든요. 칠십하나 김동연, 바로 밑에 여동생이고, 고 밑에 또 동생이가 또 저게[저기], 그 강원도서 살다가, 또 부산을 느러와가[내려와서] 충무동에서, 사는데, 그 우리 또 둘째 여동생이가 또 태어났어예. 가가 지금 육십일곱 살 묵았거든요. 육십일곱 살 게[그래] 가지고 먹고 삼 자매가 굿을 하러 다녀예. 옛날에는 뭐 공장에도 갈 수, 공장도 없고, 그 뭐 회사 같은 이런 거 없다가 보니까, 그 뭐 남의 집에 뭐 식모살이를 안 가면은, 애기 업아[업어] 주고 뭐 이래가 하다가 보니까, 암것도[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이 굿을 배웠는기라요, 내가. 그, 굿을 열닷 열네 살 동생들을 업고, 다니면서 그때를 뭐 굿이라고 모르고, 열다섯 살 묵아가가지고, 경북에는 이게, 풍어제가 많고, 별

신긋이가 많다 많다가 보니까, 내한테 긋은 안 들어오고, 밤 인자 그, 한, 열두 시쯤 이리 되믄[되면] 노름긋을 하다가 보니까네, 이자 그, 동생들을 업고 땡기면서로[다니면서] 뭐 노름긋을, 뭐 이거 소리 한 마디씩, 창조타령 한마디씩 하고, 유행가 한 마디씩 요래 하고, 글로써르[그걸로] 뭐 끝인기랴요. 그래가, 그 긋도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배운, 저 배울 사설도 주지도 안하고, 마 배웠었다고 하는거 없이, 동생들 업고, 동생들 다르고[달고] 인자 긋하는데 따라가가지고, 마 이래 보고 듣고 이래가 하니까, 그 긋이가, 저 마음에 게가[거기가] 들드라구요[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긋을 갖다가, 그래인자 여 부산 충무동에 그, 또 와 가지고 살면서 아버지가 날로 인자, 그 강원도서르 전학을 사 학년 이 학기에, 충무동 전학을 해가지고 대신동, 대신동, 그, 초등학교

면담자 1 : 대신초등,

구술자 1 : 거기가, 유명했다 아납니까? 그래서, 거게 입학을 할라꼬, 그 뭐 공책이야 뭐 이래 사났는데,

3. 무속의 길

구술자 1 : 아버지 엄마가 날로 인자 데리고, 그 김태공 그 선생님, 국악을 잘하는데, 거게 날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래가, 거 가가지고, 소리를 그거를, 가는데, 소리 그거 하고 북 치고 뭐 장구 치고 가야금 치고 무용하는, 그게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아버지요, 날 학교로 보내지 말고, 국악에 열여 주세요[넣어주세요], 하니까, 이 공부라는 것에는, 아버지 엄마가 공부를 몬해가지고[못해가지고], 그게 인자 그 마음에 끼[껴] 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초등학,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초등학교 선생을 할 수가 있다, 니가 재주가 있으니까, 얼굴마마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은 인자, 이거 마마가, 마이 없아졌는데기랴요 제가, 이 저 처자때는 마마가 애버법[제법] 있었는데, 지금 요 코픽만[콧등에만] 조금 요케[요렇게] 해가지고, 있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저, 갈켜[가르켜] 줄라 하니까 아버지가, 그 나 안 된다하면서로, 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라 아버지가 국악 그거를 해가지고, 이 긋이가 동생들을 업고 긋방 긋항에 가는데, 긋이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요 내 긋을 배우겠습니다 하니까, 중학교 조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또, 긋을 배아도, 열매든지[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니까 이거를 갖다가 꼭 긋을 몬 배았는거를, 한을 안하겠느냐 아버지요 나는 초등학교 사 학년 내 그 내 이름자만 알아도 갠찮으니까[괜찮으니까], 긋을 가르켜 주세요, 하더라고요. 가르켜 줄라 하니까, 그럼 니가 마 거, 니가 워이[원이] 그렇다면은, 그러믄[그러면] 마 긋을 배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1-B 결혼과 무당으로서의 준비

김영희는 17살에 송순택과 중매로 혼인을 하게 된다. 송순택의 어머니는 당시 죽성에서 무녀로 활동을 했던 인물로 김영희가 결혼 후 시어머니로부터 긋을 하는 기술과 방법을 전수 받아서 학리에서 첫 긋을 하였다.

4. 중신과 시집

구술자 1 :그래도 내 이때 굶이 안 돌아오드라고요. 안 돌아오고 동생들을 업고 뭐 굶판을 인자 따라댕기면서[따라 다니면서], 듣고 보고 마, 저게 굶인갑다 마 이래 생각을 하고, 그래 가 가했다가[갔다], 강구 그 저 저 뭐꼬, 부산서 살다가 또 경상북도 강구 영덕 강구를, 이사를 갔어여. 영덕 강구를 이사를 가가지고, 그서르[거기서] 인자 그 굶을, 인자 이래 하러 댕기면서, 조금씩 인자르 보고, 그래도 뭐 사설도 암 것도 모르고 이러는데, 열일곱 살에 중신이 들어오드라고요, 게 여 부산 기장, 두구동, 두구동 그 마을에서. 두호동에나 그 학리나 대변이나, 두호도이라하면[두호동이라하면] 죽성 기장 죽성이거든요. 마을마다 동네 무당네들이 다 살고 있었으예. 무당네들[무당네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자 죽성에서로, 죽, 저 뭐고, 중신이 돌왔는데[들어왔는데], 그 내가 인자 나이가 열일곱 살을 인자 묵었으니까, 열일곱 살을 먹아도, 뭐 바느질 음식해먹는 거, 굶에 대한 이런 거는 일체 뭐 모르고, 그 엄마가 그때 나이가 서른 몇 살 요래 묵았기 때문에, 서른, 그, 저 뭐고,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이래 먹고 내가, 열일곱 살로, 엄마가 날로 열일곱 살에 날 낳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있는데 중신이 돌와가지고[들어와서], 그 인자 시집을[시집을] 인자 가라하는 거는, 그분 이가 내보다 열여덟 살로 나이가 더 묵았으예. 그런데 본 마누라가, 그, 그, 맹장, 맹장 그거를 해가 세상을 떠나고, 딸이가 둘이 있는데, 시어무이가 있고 하는데, 그 게 시집을 가문[가면] 딸 둘이 시 키아가주[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내면은, 그 살림살이는 마카[전부] 내/네? 끼가[내 것이] 된다, 그분은 내보다 열여섯 살 더 먹았는 그분이가 송순택이라예. 본 영감이, 본 영감이 송순택인데, 그분도 이 얼굴도 인물도 좋고, 꽃에 대하는거[대한 것] 굶에 대하는거 부산에서로 굶에 대하는 거는 다 아는 기라요[거예요]. 그 우리 시어무이가, 그 그래가지고 시집을 내가 안 간다하니까, 우리 사촌, 어 오빠가 참 이래 무서워요, 어렸을 적부터. 그 오빠가, 창고에, 장작이 재 놔났는[놓아놓은]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이놈 가스나 니 마 시집 안 가문 때려 죽인 다하면서, 우급을 주드라구요[주더라고요]. 그래가 큰아버지댁, 아버지댁, 삼촌댁, 오빠댁, 돌아가스[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댁, 다 그 시집을 가그라, 시집을 가면은, 그 이 굶을, 첫째는 배우면은, 무당질라 하면은, 어 문화 저 지금이나 머 문화재를 받아가 무녀 뭐, 문화재 하지마[하지만] 그 이래 부르지만, 옛날에는 무당, 그 업실[없을] 무에 집 가자 이래가지고 무당, 게[그래] 가지고 씨 낱요. 그래 이름을 짓는데, 그래 가지고 무당으는 양주이[양중이] 있어야 된다, 부산에는 양중, 염불따[염불도] 하고, 장구도 치고 하기 때문에 양중이라 부르고, 또, 경상북도에는 화랑, 신랑 낭자, 꽃화자 이래가지고, 화랑이라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까네[그러니까] 화랑이라 안 그라고 할무이들은[할머니들은] 화래이화래이[화랑이화랑이], 마 이래 부르거든요, 그 랐는데, 무당을 할라 배울라 하면은 양분,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짝이 있어야 된다. 짝이 없으면, 홀 무당으는, 아무 소양이[소용이] 없고, 홀 양중으는 소양이[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중신을 해가지고 내가 열일곱 살에 여[여기], 죽성, 우리, 꽃 시집을 오니까네, 딸 둘이에, 고 거 시어무이가 계시드라.

5. 시어머니의 가르침

구술자 1 : 그 시어머니가 등에 난네, 기장 오장원네[오장원네], 저, 대변 분옥이네, 그 저 왜, 나는 인자 이천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이천에도 옛날에 무다이가[무당이가] 있었는

데, 무다이가 뭐 죽고, 비아즈가[비워져가] 있었으예. 그래가지고 열일곱 살에 시집을 오니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이고 뭐 봐, 뭐 사설 담을 것도 없고 이러는데, 이자 우리 친정 아버지가 사설이가 없으니까네, 요만한난[요만한] 책에다가 이래 뚜거븐[두꺼운] 책에, 그 요만한난 그 책에다가 사설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조상, 성주, 굿에 대하는, 그거를 갔다가 말 모르는 저가가 저를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부산의서는[부산에서는] 인자 우리 시어무이한테[시어머니한테] 음식 먹새, 첫째는 여자는, 굿을 배아도 음식 먹새를, 잘해야 된다, 음식 먹새 배우고, 아침은, 얹히며는 첫 하루는, 인자, 그 여 음식 해먹는 거 배우고, 그 이튿날에는, 장 담구는 거를 배우고, 삼일 돼 가지고는 바느질하는 거를 배우고, 그 사 사 일 돼 가지고는, 굿 사설로 가리키는기라요. 그래 부산굿이 틀리고, 경상북도 굿하는기가 틀리거든요, 가가 이 영무이라고. 그래서 부산에는 그때는 무당 화랑이들 양 양중들도 많았어요. 경상북도에도 굿하는 삶이[사람이] 많았고, 그 내가 들은 인제 나이 어렸는 기가[어린 것이] 뭐 사람들 많으니까 구석 수에 오귀굿은 몇 석이다, 이 별신굿는 몇 석이다, 석 수가 있기 때문에[때문에] 무당이고 워낙 많으니까 내 밑에 돌아오는 굿이 없었고, 부산에는 집따묵기, 한 석씩 드가며는[들어가면은] 도이가[돈이] 만어이[만원] 나오든, 십만 원 나오든 자이가[자기가] 하고, 그 인자, 양중, 장구 치는 사람, 화리가 나가고, 징 치는 사람 화리가 나가고, 팽가리 치는 사람은 화리가 없고, 그런 그기가[그것이] 있어야지고, 집따묵기[집따먹기] 원 이래 하는 그런 굿인데, 굿을 잘해야, 굿 한 석에 드가면은, 얼마씩 버는 그기가 숫자가 있는데, 뭐 사설도 없고, 굿복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시어무이한테, 참 그 시어마이, 시어머님가 있으, 등에 난네라하면은, 무다이가 최고고, 기장 오장구라하면은, 그 무다이가 최고고, 구내[군암], 대변으, 또 저, 분옥이 무다이라 하면은, 그 무다이가, 인자 최고고, 그기가 있어야, 그럼 우리 시어무이한테 인자 사설로 갔다가, 내가 글이 일일이 쓰지를 못하잖아요. 가르키주기는, 인자 조상굿에는 어떻게[어떻게] 한다, 그 성주굿은 어떻게한다, 그 저 분옹굿은 어떻게 한다, 손님굿은 어떻게 한다, 심청이 굿이다, 논포 굿이다, 요양굿이다, 부산굿이는 안방 내 우로 이십사 석, 부산 경상북도에는 별신에는, 굿에는 열두 석.

면담자 1 : 다 다른.

구술자 1 : 삼 일로, 삼 일 밖으[밖에] 안하거든요. 그래 인자 오 일 하는데가, 있는데는, 무굿을 치고, 자고, 그 하기 따문에[때문에] 오 일, 저 걸리지마는, 굿에는 딱 삼 일 밖으 안하예, 자고. 여[여기] 부산에는, 이십사 석을 하다 보니, 일주일 걸리는 기라요.[거예요] 하리에[하루에] 몇 석을 하고 자고, 그 이튿날 당마주라, 그 땡기고[다니고] 하는 것도 하고, 당마주라 땡기는 굿에는 내놓고, 굿만 이십사 석이라요. 그래가지고, 첫 굿에 드가는[들어가는] 굿이가, 그 이 저 저 열아홉, 열아홉 살 먹아가지고, 그 인자 이래 사설로 갔다가 배움서[배우면서] 아침에[아침에], 사설 갔다가 굿이 이래한다 이래한다는만 말로하지, 사설 갔다가 쪽 해가 얘기는, 우리 시어무이가 안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상굿, 그 사 아버지가 적아주는 것에 조상굿을 하고, 성주굿에 보니까네, 경상북도에 나가는 축 읽는 것까지 다 배웠다 다 애우는데[외우는데], 저녁 묵고 초저녁에 애우고, 그 다음에, 인자 그 죽성에 있을 적에, 그 살림은 안 나오고 죽성에 있을 적에 저 시어무이한테 배우는, 그래 인자 굿이 인자 이리 이래 하다 하고, 아버지한테, 사설책 가져 온 그거를 배우는데, 초저녁에 애우고, 밤에 자고 아침 새벽[새벽]에 네 시에 눈 떠 가지고 애우고, 고 다음에 인자 아침에 자고 일라가[일

어나가] 재례식에 가가지고, 애우는 기가[것이], 이 머리가 들드라고요. 그래 아침 먹고, 낮에, 대[돼] 가 애우고, 인자 오후 대[돼] 가지고 점심 묵고 애우고, 그래 참 그, 애우는 그는[외우는 거는], 또 애우고, 애우고, 보고 또 애우고, 그래 워낙 내가 재능이가 있다가 보니까네, 조상굿은 어떻게[어떻게] 한다, 머 그래하다가 보니까네, 애우면은 뭐한답니까? 그, 음성을 보고 하는 것을 봐야제.

6. 학리에서의 첫굿

구술자 1 : 그래가 인자, 그 학리 굿을 갖다 열아홉 살에, 학리 굿을 그 우리가 맡았으예. 그 래 인자, 그, 송순택이라하는 그분하고, 저하고, 그 인자 만나가지고[만나가지고], 인자 굿을 궤가 하는데, 이 뭐 음성도, 할 줄도 모르고, 그 인자 저 열일곱 살 먹 아가지고 대변 야루개라 하는 그 마을에, 고서 고 뭐 땃[땃] 동네, 그 바닷가에 오 귀굿을 들았으예. 오귀굿을 돌아가, 그거를, 인자 가서 굿을 하는데, 그 총각이 세상을 떠나가, 인자 굿을 인자 혼례도 올리고, 굿을 하고 이라는데, 그서러[거기서] 내가 요 부산 어물 몽가 하고, 이 저 반 넘가놓고[넘겨놓고] 한다하는 거는 방긔이고, 초침불을 댄다하면은, 초장부터는 학리 꺼고, 그런데 부산 청불을 못 외었으예. 애우다 애우다 너무 어렵고, 뭐 어드메[어디] 가가지고 징이, 카살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마 도저히 안 대가지고[돼서], 아이고 어무이이요[어머니요] 나는 부산 굿으로 몬 배우겠습니더 이래가지고, 경상 청불을 배왔으예. 청불을 배아가지고 했는데, 그곳도[그것도] 사실로 못 애우다 보니까, 이 청부라는거는 사설이가, 마이 들어가야, 청불을 갖다가 일 장다, 이 장, 삼 장, 사 장까지 넘[넘겨] 놓고 해야, 한 시간 두 시간 걸리거든요, 축원하는 것까지. 그러는데, 므[뭐] 사설 배와[배워] 나[나], 애우는기가 없다가 보니까, 부산굿을 또 할 줄도 모르고 이래가, 경상북도 반굿을 넘가놓고, 오귀굿을 가가지고 했거든요. 굿을 이래 하다가 보니까, 총각이 죽았는데, 내가 이 사람 굿을 하면은, 이 사람 굿을 보고, 저 사람 하면은 저 사람 굿을 보고, 하나서부터, 그 사람 마칠 때까지 그 굿을 다 보고 듣고, 그 또 부산 굿은 오구자리 굿을 하면은, 천수칠편을 애와야 되예. 열아홉 살에 천수칠편을 다 땀으요, 내가.

면담자 1 : 진짜 대단하.

구술자 1 : 여 오구장에 가면은, 서가[서서] 굿하고 돌아서가지고, 염불로 하고, 육자대오고, 성자상 대고, 이래 그 해야 굿을 막음이 되는데, 고 뭐, 굿을 갖다가 몬하도[못하고], 염불도 몬 가고 그때는 배우지도 못하고 이라이까네[이러니까는], 청굿, 방굿을 넘가놓고, 뢰시자, 오시자 그 굿을 인자 이래[이렇게] 하는데, 총각 죽어놓은 굿이라, 나도 모르게, 친정 엄마하고 떨어, 떨어져가 얼굴로 몬 보고, 여는[여기는] 기차를 타고, 왕래 하지, 버스도 없고 이래 가다보이[가다보니]. 그 엄마가 참 보고 접드라고요[싫더라고요]. 그래서 굿을 하면서, 예후 [울면서] 그 내가, 사설이 없아가지고, 그 저 엄마 마 울 엄마야 매화같은 울엄마야, 송죽 같이 나를 나서[날아서], 엄마를 언제 보겠나 하고 막 서가 울었으여 내가. 굿을 하면서, 그래 우니깐, 어 성대는, 우리 친정집에 워낙 굿을 잘하다보니, 이 성대는 참 좋았으예, 그때는. 성대는 소리를 하고 이라면은[이러면] 할무이들이, 아이고 이 저 성대가 저그 친정집에, 엄마도 굿 잘하고, 저래, 다 친정집에서 굿을 잘하다보이, 성대는 너무너무 좋다 하문서, 앞으로 무다이 안 되겠나 하는, 여론이가 있드라고요. 그

래 굿을 갖다가 내가 서가 굿을 몬하고 중단을 했어예, 서가 너무 우니까. 쾌자를 입고 그때는 머리를 안 얹었으예. 머리를 이래 길게 내가 땀났거든예. 한 가닥을 땀아가지고, 그래가, 쾌자를 입고 굿을 하는데 굿을, 도저히 몬하고 중단을 해가지고, 거서러[거기서] 돌아가신, 김송희, 그, 그분이, 우리 엄마가, 그분을 보고, 형님이라꼬 이래 부르드라고요, 부르는 답이 있드라고요, 서로 왕래하면서. 경상북도 무당들이 그 부산을 와[와서] 굿을 하고, 부산 무당은 경상북도 가가[가서] 굿으로, 청, 초청도 안하고, 부르지도 안하고, 워낙 우리 친정집에 식구들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 근데 부산 사람으는, 그 경상북도 굿을 잘하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와가지고 굿을 해가 돈을 벌어가 가고 이라는데, 그래가 내가 마 그래 굿을 서 가지고 영영 우니깐, 그래 아이고 마 굿 고만해라 하드라고. 그 인자 그 송기라하는 그분이, 아이고 이 야야 마 굿 고만하고, 그래가 눈물로 이래 닦아주면서로 소리를 한 마디하라 하드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자 청춘가부터, 노랫가락부터, 청춘가부터 창조타령을 해가, 이래 뭐 사설도, 쪼매 인제, 여 몇 마디 인자, 애왔는 그거를 가지고 하니까, 할무이들이 그때는 할무이들이 많애가지고 잘한다면서르, 여 쾌자 앞에다 돈을 갖다가 다 이래, 걸아주드라고요. 굿을 하면 손에 안 쥐켜주고[쥐어주고], 여 쾌자로, 쾌자를 띠를 이래 저 묶으다가 보니깐[보니까는], [숨을 가다듬고 구술자2를 불러 쾌자를 하고 남편분과 찍은 사진을 방에서 가져오라고 함] 교짱.

구술자 2 : 예.

구술자 1 : 거 저저 저 뭐꼬, 사진 요게 니 방에 보면, 느그 아버지하고 내하고, 찍았는 사진이 있다, 좀 갖다 줄래?

구술자 2 : 어디예?

구술자 1 : 요 방에 고 있다, 고 여옆에 봐바라 니 사진 있는데,

구술자 2 : 아 이거여?

구술자 1 : 어 어 그 사진, 이분으은 둘째 만내는[만난] 분이구예. 고 요래 쾌자를 입으면 여 앞에, 예 쾌자 띠를 매거든요. 요 앞에다가 돈을 갖다 걸아 주는기라고요, 그 손에 안 쥐켜주고. 경상북도에 가면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이래 묶아 난 여기에다, 돈을 갖다가, 막 이래 꼬아[꽃아] 주거든요. 그래가 하는데, 그 저게 뭐꼬 부산에는, 머리를 수건을 안 묶으다가 보니까, 머리를 얹으며는, 수건을 안 묶은다고, 머리는 마 저게 섭다꼬, 절대로 머리는 돈을 안 꼬아예 이래가지고, 쾌자 앞에 여게다가 돈을 갖다 이래 걸어주고. 그래 인제 소리를 하니까, 아이고 소리도 그래 참 잘한다하면서로, 그래 뭐 쪼끔 한, 삼십 분도 몬했지 싶어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 굿을 마치고, 그 굿이가 첫 굿이라요. 내가, 무당을 굿을, 한다꼬 나와가, 그가가 그 굿이 첫 굿이라요. 그래가, 그 저 학리 인자 별신을 맡아가지고, 그 저 인자 우리 시어무이도 젊었고, 이래가지고 굿을 갖다가 다 하는데, 날 그 그 조그 굿을 갖다가, 하 할 줄 모른다고 안 시키드라고요, 학리 풍어제. 일주일 하는 별신에, 니는 구경만 하고 배우라 이라드라고요[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굿을 맡아가 이래가지고 무당네들 와가 하는데, 뭐 굿을 이래 하는데 뭘, 아이고 거 경상북도 굿하고, 또 우리 친정집에 굿하는거 하고, 부산굿하고 굿이가 틀리구나, 나으[나이] 저 나이가 어려도 글트라구요[그렇더라고요]. 그래가 이래 보니까, 모[뭐] 굿 해가지고, 돈을 벌아 나온다믄 많이 벌아 나오드라고요, 굿을 뒤통을 찌는데도[쓰는데도], 인자 그 배하는 사람들이가, 그때는 쫄치바리, 칼치팔이 이렇게

했고, 큰 배가 없었으예. 마카[전부] 돛풍배지, 돛풍. 돛풍배를 갖다가 목선배를 해가 그랬지. 요즘으는[요즘에는] 뭐뭐 저 뭐꼬 댐마선, 고 담에[그 다음에] 발동선, 대부리, 이래 배가 꽤가 있었지마는, 옛날에는 마카 돛풍배고, 목선배가 이래니까 배가 적다 아입니까. 그래가지고 콩치바리, 칼치바리 그래도 고기가 마이 났으예. 마이 나고, 사람들도 마이 죽고, 뭐 이레케[이렇게] 했는데, 그래가 그 별신을 갖다가, 다 그래 마치고 나가지고, 그 뭐 곳을 갖다 하마[하면] 저래 하는갑다 마 이레케 해가 마치고, 일주일까지 뭐 심부름만 하고, 드가며, 나오며 뭐 그때는 뭐 저저 저 뭐꼬 이기도 없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 우리 시어무이가, 날로 살림을 내주드라고요. 요 어 저 일광 이천, 일광 그도, 풍어제를 하는데, 그리 풍어제가 십구 일 날이, 풍어제를 저 이천십구 년도에, 이천 년도에 풍어제를 할 차례거든요, 몬했다입니까, 코로나 바람에.

면담자 1 : 코로나 때문에, 예,

구술자 1 : 몬없고, 몬하고. 그리 인자 이천 년도에 별신을 해야, 금년에 이천일 년도에 칠음에[칠암에], 할 차례거든요. 칠암 하고 나면 이천이 년도에 일광, 풍어제를 하는 거 ★ 나도 모르겠다. 고래 풍어제를 하고 나면, 고 다음에 인자 대변하고, 저 죽성하고, 공수하고, 육 개 부락에서로 일 년에 한 번씩 풍어제를, 하계 대가[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바람에 몬했다입니까.

1-C 무당으로서의 삶

김영희는 일광 이천으로 19살에 분가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녀로 활동을 시작하자 학리에서 무녀 활동을 은퇴하여 김영희가 학리, 이천 등의 무녀로 활동했다. 점차 부산 등의 곳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아 연행의 범위를 넓혀갔다.

7. 독립

구술자 1 : 그래서 일광 그 이천에 날로 열아홉 살 묵아가지고, 거 인자 살림을 내 보냈는데, 쪼그마하는 방 하나 얻아가지고, 그때 저 사리호, 사리호 태풍이 마가 마, 사리호 태풍을 갖다 내가 열아홉 살에 겪었거든요, 일광 이천에, 그래 막, ★ 득 뭐 과일이야, 뭐야 막 떠 내려, 물이 막 그 저저저 큰,

면담자 1 : 넘쳐가지고,

구술자 1 : 그게 마 쪽 깨를 해가 내려오드라고요, 마 이래가. 거서 첫 곳, 무엇이 처음에 젤로[제일로] 먼저 들어왔나하면은, 갯굴 물리는 게 들어오드라고요. 그러니까는[그러니까] 내가 개구를 물리[물려] 봤나, 뭐 곳을 해봤나, 뭐 짜들여[굳이] 뭐 이래가 하는 그거를 모리는데[모르는데], 그래 인자 갯구를 갖다가 침에 불러가 몬 와, 두 번째 와가 몬 와, 세 번째 총각이 인제 이래, 좀 허름한 총각이가, 나를 데부러[데리러] 왔으예. 그 세 번째는, 내가 물었으예. 집에 그 누구누구 사느냐고, 사설이 없다 보니, 갯구를 내가 아무도 물러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했는 그건데, 그래 인제 구 그거 사설이가, 이래 곳을 배 풍어제 하고나므는 거리를 맥있거든요[먹였거든요]. 거리 맥이는거 봤습니까?

면담자 1 : 저 못봤습니다, 예,

구술자 1 : 못봤지예. 거리를 맥이며는 귀신들, 이래 밥주는, 그런, 일라서가저가[일어서서] 양중이 일아서가저가[일어서서], 마지막에는 양중이 하거든요. 그게 물리는 그 사설이나, 갯구 물리는 사설이나 비슷해, 해요 똑 같애요 마. 고래가, 그거를 내가 어렸을 적에 경북에서, 하는거를 내가 이래 듣고 이러까 하다가 보니까, 거 인자 가가[가서] 그래 또 사설을 몰래[몰라] 가지고, 그래 엄마하고 두 분만 계시는데, 엄마가 몸이 아파가, 그래 그런데 갯구라는 것에는 먹고, 토하고, 싸고, 토하고, 싸고, 요즘 같은 병원에 가지마는, 그때는 병원이 없고, 그 약이 없다가 보니까네, 그 무당 불러다[불러다] 갯구를 물리면 낫는다, 이런 말이가 동네, 그 여론이 있는가봐요. 그래 가가지고, 그 인자 바깥에다가 가니까는, 창고에 아주 불쌍켜[불쌍하게] 살드라고요[살더라고요]. 이래 그 저저 짚을 깔아놓고, 그 우에다[위에다] 명석자리 깔아놓고, 아부진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고, 마 이렇더라구요. 내가 열아홉 살 먹었으니까네 지금 그 세월이가 몇 년 지났니까?

면담자 1 : 육십 년,

구술자 1 : 사십 년, 오십 년,

면담자 1 : 오십 년,

구술자 1 : 세월이가 넘었지예.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구술자 1 :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그리] 가가지고[가서], 가 바가지에다가 밥을 열고[넣고], 장 좀 열고[넣고], 김치 조금 열어가지고[넣어가지고], 칼로 줄라 했어예, 칼로 가지고 물리는데, 할무이를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아파가[아파서] 있으니까, 늑아가[누워서] 있으니까, 물리는데, 그 인자 그 머리카락을 가 인자, 이 끈 인자 그 하면서, 그 그 인자, 그때는 뭐 이름도, 성도 모르고, 그냥, 암것도 열지도[넣지도] 안하고, 막 그 머리, 묵았는 머리, 꼭대[꼭대기] 거서르, 갯구를 물렸어예[물렸어요]. 그래 천왕사설을 내가 애와[외워] 낫는 게[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천왕사설로 그거를 애와 가지고, 그래 해가 그 칼로 갔다가 밖에 탁 던져가 칼이 칼이가 딱 꼽히드라고예[꽃히드라고요]. 그래 인자 그 칼 빼가 열십 자 해가지고 꼽 북판에다 칼 꼽고[꽂고], 거 인자, 밥, 그 앞에다, 대문 앞에다 쏟고, 물 갖다가, 한 바가지 갖다가, 흘치면서로[흘치면서] 욕을 하라하드라고요, 그래 귀신이 간다고. 그래 욕을 해가지고, 이 인자 이 니깨미 시발 귀신들아, 썩 물라가그라 해가지고 붙고, 바가지를 갖다가 칼 꼭지에다가 얹어놓고, 두 말 없이 왔으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라는 그런 말이가 있드라고요, 그래가 뒤도 돌아보지도 안하고 왔드마는. 그래가 이 그 이튿날에 그 할마이가 나섰으예[날았어요]. 나사가지고, 듬뿍장으로, 이런 추밭이다 한 추밭을 갖다준 데 참 맛있드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저 우리 시어무이한테, 이 저 저저 뭐꼬, 이천에, 일광 이천에 그래 와가 내가 물었으예, 거 어무이요, 처음 돌아니까[들어오니까], 갯구가 돌아왔습니다. 갯구 들었는데, 갯구 사설을 몰라가지고, 천왕사설로 가지고 하니깐, 거, 할무이가 나사가지고 듬뿍장을 한 그릇 갖다줍디다[갖다줍니다] 이라이까네[이러니까], 하이고 그래 야야[애야] 지금부터는 배워라 하드라고. 그 우리 시어무이 같은 사람 없애, 사설이 무궁무궁해요. 이 여게, 더[저] 이천서르 갯구를 물리면은, 기장까지 와도 사설이 남는다고요, 걸어오면서. 사설을 해도 남는다는, 그 어르신이라요. 백 저저 백소녀, 그 이름가 백소녀, 옛날에 이름도 예쁘지요?

면담자 1 : 예

구술자 1 : 그랬는데, 그 시어무님이 갯구를 갖다가 사설로 가르켜 주드라고요, 첨에, 그 그

사설로, 저게 저거 영고[널고], 군, 면, 동네 영고[널고], 그 다음에 성 영고[널고], 나 이 열어가지고[널어가지고], 이름은 할 필요 없고, 성 영고[널고], 나이 열어가지고[널어가지고]. 인자 물리, 물리면서로, 조상굿, 골무이가 할배부터 먼저 들먹거리라[들먹여라] 하드라고요, 그 당산, 그 동네 할배부터, 할배 골무이가 할배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네, 조상님네 다 이래 또 사설르 대가지고, 그래 또 물고 조상네들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인자 그르 조상, 성주, 구릉, 터주, 지신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귀신들, 부르는 기라요, 그래가지고 마카[전부] 그 사설, 가다 죽고, 오다 주아, 앉아 죽고, 서 주[죽어], 칼 맞아, 총 맞아, 옆어져, 자빠져, 목말라, 배고파, 만고 귀신은 송의영 승들을, 총각들을, 몽달이 귀신, 처녀 죽인 사귀 귀신, 분해가 죽은 귀신, 장 체해 죽은 구신[귀신], 목말라 죽은 구신[귀신], 약 묵어, 약 묵고 자랑말로 죽은 귀신, 칼 맞아 죽은 귀신, 이 귀신들로 늦은 개 이케 여 늦은 개 꾸, 된 개꾸, 염질로, 담질로, 귀질로, 토사광란을 욱돌로 말라 죽은 귀신, 총선으로, 흥선으로, 메루치[멸치] 구심으로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이들을 갖다가 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를 다 외었다꾸요[외웠다고요] 내가, 그 사설로, 그 사설로 다 애우고[외우고] 나니까, 그 동네 산다꼬 해가지고, 막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거 무당이 이 동네 살러 왔단다, 무당 들어다가 갯구를 물려라, 갯구를 물리면 뭘 주나 하면은, 그때는 여름에는 보리동냥, 가을되면은 나락동냥, 나락동냥 한 바가지 떠 주는 그기가[그게], 인자 그 뭐십니까, 그 갯구 물려주는.

면담자 1 : 그 값으로.

구술자 1 : 품값, 품이라요, 품삯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자 이 와가지고 열아홉 살에.

8. 무당으로서의 발전

구술자 1 : 첫 딸로 놓고, 스무 살에, 인자 아까 고 딸, 고 인자 일본 가가 삽니다, 일본 가가지고, 고 침이야 뭐야 뭐 한 보따리 해가다 놓고, 집안에 우환이 좀 있어가지고 잠시 이래 왔다가 보니까 몇 달 한, 삼 개월째 넘 아이고 ★ 제가, 그래 인자 자를 스무 살에 그래 인제 이케 해가지고 놓고[날고], 고 다음에 인자 그 또 스물세 살에 또 딸, 이케가[이렇게 해서] 놓고, 그 마 아들, 첫 첫 아들로, 열덟 살에 낳아가 죽아빠리고, 그 그때는 나이가 어려놓으니까는 아고 뭐고 귀찮드라구요. 뭐 가하도 뭐 궁디를 해가 죽고 나니까예, 아이고 뭐 마 잘죽으셨다 싶으드라구요, 나이가 어려놓으니까 네 머, 젓 맥이고 이런것도 귀찮고. 그래가, 열아홉 살, 스무 살, 스물한 살, 스물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에, 스물다섯 살에, 저가 오귀대왕풀이, 스물다섯 살에 심쳐이굿, 부산에 열두 석 대는[되는] 굿을 다 애우고, 다 배우고, 심쳐이굿도 배우고, 손님굿도 배우고, 우리 시어무이한테 배우고, 굿 열두 석, 이십사 석으로 일 주일까지 굿을 하면은,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든, 몬하든 사람이든, 그 무당 굿이가 끝나야 내가 얘기를 엮고 뒤채 엮고, 집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밥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 화장실 가는 시간, 세 시간을 빼뿌리면은, 그 굿하는 굿을 다 듣고 보고, 듣고 보고, 잘하는 사람도 듣고, 몬하는 사람도 듣고, 그 잘하는 사람도 흥을 내고, 몬하는 사람도, 방 안에 앉아가 노는 시간이 있잔서요[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있잖아예. 그 무당은 어뜨케[어떻게] 한다, 어뜨케 한다, 내가 흥을 내무[내면], 하고[아이고] 세사

[세상] 제주도 좋다, 그 어찌 목저이가 뭐고 그래 흥을 다 내고 그래 하노, 이래. 굿을 하라 가면은, 할무이들이가, 요 요 이 요 업당 동녀가 굿을 하면은, 또 굿이가, 또 늘고, 저 동네가 굿을 하면은, 굿이가 또 늘고, 굿이 자꾸자꾸 인자 발전이 되는 기라요. 인자 요새 말로 발전이 된다, 는다, 할무이들으는, 요 저 한달이가 다르고, 일년이 다르고, 한달이가 다르고, 일년이 다르고, 앞으로 니 큰 무다이 된다, 저 큰 무당이 될끼 되겠구나, 할무이들이 이 입방아를 찧는기라요. 그래 동도[돈도] 많이 벌고, 그래 인자 이천에 그 가가 살다가 보니까, 김구장님, 그 어르신네 그 아버지가 날로, 딸이라고 부르드라고예. 그래 고 친정 엄마가, 별신을, 이천에, 별신을 하는데, 열아홉 살에 내가 별신을, 말아가, 그 또 치으정 치우정 그게 있거든요. 이천 별신은 내가 하고, 뭐 대변 별신으는, 대변 별신까지 우리가 말아가 했으예. 아 이 참에 학리 별신까지. 이천 별신.

9. 부산의 굿과 무당들

구술자 1 : 죽성 별 죽성에는 우린 시어무이가 본 토백이고[토박이고], 또 죽안[죽은] 본영감이 그 동네 본토 태어나가지고, 본도이고, 거이 이천에는, 자 자리가 비어져가[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천에 시 그가 이사를.

면담자 1 : 이사를 가셨고.

구술자 1 : 갔고, 그 등에 동네 나온네, 학리까지, 우리, 시어무이가 말아가 했고, 대변에는, 대변에 그 영감 할마이가 살아가 있어예, 그래가지고 말아오고. 기장에는 별신을 안 하니까, 오장원에 큰엄마다, 그 대변에 딸이가 사우가[사위가] 맡으면은, 그 와가지고 인자 굿을 거 하고, 그래가, 수영 갈라분네, 남심 마안줄래 영감할마이, 못골 고돌네 우리 시이모님, 고 다음에 저 못골 남도 신랑각시, 대신동 코뿔사 무당, 저 영도 고 디 영감할마이, 이 마카 다, 영도서부터 시작해가 무당네들을, 이 동해안으로 마카 자리잡고 있는데, 원래 길 위 영감할마이, 무당애들을 천지라요 요 수십 명이라요 부산에.

면담자 1 : 마을마다 다.

구술자 1 : 예 마을마다 있다가보이. 고 이십사 석으로 굿을 하다가 보니까, 고 혼차서[혼자서] 문한다입니까? 다 청불을 해요. 요기도 오너라 저도 오너라 요도로 서리 인가 품으로, 가가 또, 여게 와가 또 돈 벌어무으면 또 내 동네도 굿을 하면 또 니도 와가 돈 벌어 묶으라 마 여도 저도 오고 마, 그래도 내오가 나오는 분으는 굿을 세 석을 주고, 당 안에 굿을, 마주라 땡기는, 저 땡기는, 당에 인자 마주라 할배는 마차고[맞춰서] 오거든요. 할배 당에, 할머니 당에, 뭐 용왕 당에, 산신각에, 이래가 마차오는 곳에는, 남가놓고[남겨놓고] 조금씩 이래 해가 돈을 벌지마는, 굿 당에는 이십사 석을 하계, 안방에 내 우로[위로], 안굿이가 있고 배꼽 곳에는, 심 저워 천왕굿, 이래 뭐 굿이가 저 뭐 두 석씩 이래 대가[되어] 있고, 안굿 천왕있고, 배꼽 천왕이 있고, 이래갔다가 보니까, 그, 저저 뭐꼬 학리 별신은 내가 아마 안했지만은, 이천 별신은 열아홉 살 먹어가 별신을 갖다가, 꼭 정월 보름에 하더라고요, 하는데.

10. 시어머니의 은퇴와 어머니와의 추억

구술자 1 : 내가 첫 굿을 가망 거리에 첫 굿을 드가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 굿을 어떻게 할꼬 이래. 그래가 열아홉 살에 내가 이 첫 머리를 얹었으예. 머리가 없아가지고, 그 우리 시어무이 머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어무이가, 내 굿을 딱 하라 나오니까 우리 시어무이가 들어앉아 버리드라고요. 굿을 안하고, 니가 굿을 하는데 내가 나이 묵았는 내가, 무슨 허리로 꼬브랑 해가지고 내가 허릴 수술 해가 허리가 지금 이래 굵는데, 우리 시어무이가 내보다 키가 더 적어예. 그래가 꼬부랑해가 내가 무슨 따라 땡기며, 내가 굿을 하겠노, 니가 내 대신을, 굿을 받아가 인자 해라 이래가, 그 시어무이가, 그래가 굿을 하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초청을 해가, 와서예[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인자 저 둘째, 뭐 엄마를 만나게[만나서] 강원도가 살고, 우리 엄마는 혼자, 거 저가 뭐꼬, 강구에 사는데 엄마를 초청해가 왔는데, 엄마가 그때 서른세 살로 먹었으예, 나이가. 서른세 살로 요케[요렇게] 해가지고 먹고, 어 굿을 와가지고, 그 내 첫 굿을 갖다가, 돌아보낼라[돌여 보내려] 하니까네, 그 본 영감이, 아이고 거 저 뭐꼬, 내가 많이 해도, 거 어무이요, 야 이 사람을, 첫 굿에 드가가[들어가서], 사설도 없는데 어뜨케[어떻게] 굿을 하겠는교, 그래 장모님을 첫 굿에 들어가시소 해가, 내 대신으로, 우리 엄마가 머리를 떠 얹고, 나는 머리를 너르고, 그래 우리 엄마가 들어가 굿을 하는데요, 굿을 얼마나 잘하는지, 굿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내가 보기에 잘하는데, 그 동네 구장 그 아버지는, 우리 엄마 굿하는데 반해가지고요, 돈 있는 거 없는 거 가져 나왔는 거 다 써버렸고, 굿 마치고, 우리 엄마 굿 마치고 집에 들어가 돈 가질러 들어갔으예. 그랬는데 그때는, 그 이천 그, 저 저저 뭐꼬, 마당이 있으예, 굿하는 장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나이가 어려도, 한 굿하는 사람, 굿 구경하는 할무이들이가, 사백오십 명, 좀 되요, 동네 사람들, 하고 각 처서 굿하, 구경하고. 각 처서로 여기 마 조동, 우동, 큰마을, 안만에, 암리동, 함평, 저 신평, 저 여, 뭐 고개고개 너매[너머] 있어도, 지금은 차가 있아가 가깝지마는, 그래도 뭐 오리, 십리에, 그 대는[되는], 그, 구경하라 다 이래 다 오시거든요. 그레이까네 자리따문에[때문에] 싸움도 마이 하고, 안 뺏길라고 보따리를 나아놓고[놓아놓고] 화장실에 갖다오고, 이래가는데 동네 사람들, 한 집에 합쳐 이 동 그 동네, 가구 수가, 어 사백 몇 가 가구 수라요, 사는.

면담자 1 : 이천에.

구술자 1 : 얘기를 해주드라고요. 이장이, 마이크 대놓고 몇 가구씩 이래 사는 동네 마을이다, 인자 이래 서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백 오십 가구 수예[수에], 사람들 나왔제요, 구경하러 왔제요, 사람들가 마 을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할마이들이가 그때는 십원짜리 시주들이그든요. 십 원짜리 시주, 백 원짜리 시주, 천 원 오백 원짜리는 없었고, 그래가지고 인자 천 원씩 주는 시주가, 이 팽가리에다 담아가 나와야 되는데, 나 중에는 치마에다가 담아가, 이래 싸고, 속 치마가 있으니까, 그 치마에다가 사가지고 [싸가지고] 돌아가지고, 방에 돌아가지고 계산을 하는기라요. 그 만치 돈이가 많이 나왔그든요. 우리 엄마가 그때 돈을 벌어 나오는 숫자가, 이십오만, 몇 천 원이 드라고. 그때 돈의 이십오만 원, 내가 열아홉 살 먹어가지고 그래하면은, 지금 액수로 치면은, 얼마나 많겠어?

면담자 1 : 예, 거의 한 오십 년 전에, 그 정도 돈이,

구술자 1 : 예, 그러면은 그 십구, 열아홉 살, 스물아홉, 서른아홉, 마흔아홉, 오십아홉, 육십아홉, 칠십아홉,

면담자 1 : 어, 육십 년을

구술자 1 : 팔십한 살이니니까네, 육십 몇 년째, 육십 육년째 납니까? 그래되니까요, 와이이구 돈도 마이 나오고, 굿도 잘하고, 박수도 마이 나오고, 내가 마 너무 굿을 잘해가지고 막, 거 뭐뭐 뭐 마 말할 수가 없죠, 나는 언제 배아가 엄마맨치로[엄마처럼] 저리 굿을 잘해가 저 저렇게 돈을 벌고 하는, 이런 호기심도 있고, 굿을 언제 저렇게, 돈에는 제쳐놓고, 언제 엄마맨치로 굿을 저래 잘 배아가 저래하겠노, 싶은 게, 그래서라 악심을 먹고, 굿을 갖다가 배았으예. 굿을 갖다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1-D 굿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현재

부산굿과 경상북도 굿은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특히 부산 굿은 염불이 매우 중요해서 부산굿을 먼저 배우면서 염불하는 방법 등을 터득했다. 경상북도 굿은 축원이 매우 중요해서 이 두 굿을 모두 배운 김영희는 양쪽 지역에서 굿이 모두 가능했다. 지금은 허리 수술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1년에 1번은 별신굿 행사에 참석해서 연행을 하고 있다.

11. 부산굿과 경상북도 굿의 비교

구술자 1 : 참 우리 시어무이, 그 사설, 부산에 하는 굿을 갖다가 먼저 배았는기라요. 경상북도에는 제쳐놓고, 부산 부산 굿을 먼저 배아가, 하다가 보니까 이력이 나고, 자꾸 이력이 자꾸 나예, 아 요거보다 좀 더 잘 잘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 해가 열아홉 살에 천수칠편 다 떼고, 고 오구자리가면은, 또 오구자리에 그 하는 굿을 갖다가, 그 어촌부, 부산에는 오구자리굿을 하는데 어촌부, 그 부산에 인자 별신굿에는 청불을, 거 경북청불을 내가, 대가지고 그래. 그러 우리 인자 죽은 그, 본 영감도, 경상북도, 그 장구를, 내가 그래 하니까네, 따라 오드라고요. 그래도 성대도 좋고, 인물도 좋고, 꽃도 잘 만들고, 연꽃트는 참 만드는데, 그 연화봉, 그분으는 마침 연화봉 잘 만드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인자, 거 남침만주리 영감할마이는 영감으은, 화리가 이래 이러사가 나가 이래 치틀 해가 이렇게 해도, 이 손을 가지고 이 글 쓰는 거예. 부산에는 염불로 못하면 양중 축에 못 들어가고, 무다이가 염불로 못하면은 무당 축에 못 들어간다, 인자 이래가지고, 염불 그라고 또 부산, 할무이들이, 천수칠편을 몬 치는 할무이들이 없었으요. 그래기 때문에 염불을로, 이 하는기라요. 그래가 굿에도, 인자 별신굿, 별신굿이나, 오구자리 굿이나, 고산 대는대는[되는대는] 염불로 가즈고, 하고 자상 중탈을 할 적에는, 중탈하는 사설이가 있고, 그 뒤에는, 염불로, 달아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 염불 굿이라요. 그라고 그 뒤에는 축원 굿이고. 그 축원은 굿을 이래가 하는데, 부산에는, 뭐 축원을 이렇게 많이 안해 하드라고요 무당네들이.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무당네들에는, 그 어부에 대는 축원을 다 해주고, 뭐 이래 그거를 하니까, 아이구 그리 그래 좋더라구요. 그래 그래하다가보니까네, 축원도 인자 뭐, 마이 해주고 이래 그 하니까, 축원굿도 하고, 굿하고, 염불 잘하고 뭐,

면담자 1 : 다

구술자 1 : 그 부산 춤하고, 경상북도 춤하고 춤이 가락이 틀려요. 부산에는, 이래이래 해가 이게 인자 이렇게 하 이게, 부채를 금받치고 이 손에, 저, 수건도 없고, 딱 쾌자 자락 하나 딱 거마쥐고[거머쥐고], 이래 굿을 하고, 경북에는, 쾌자 자락, 부낙 금마치

고, 꽤자, 그 이거 무 춤을 추고, 근데 부산에는 나구춤을[나비춤을] 춰야 굿을 잘한다, 경상북도는 막 이래, 춤 가락, 춤추는 가락이 여러 가락이가, 열두 가락이가 있기 때문에, 그 춤을 춰 잘 춰야, 춤을 잘 춘다, 그런, 야 뛰고 뿔고 하는 춤 부산에는, 사뿐사뿐, 이래 나부춤을[나비춤을], 잘 춰야, 굿을 잘한다, 펄쩍펄쩍 뛰고, 이래 그거를 하면은, 미친 개이[놈], 춤춘다하고, 춤 그런 춤은, 안 봐주고, 그러다가보니까 부산춤을 배아 춰가 배아꼬, 부산 굿을 배았고. 그래다 보니 경상북도에 가가지고, 경상북도 목에 안 대가[되어] 일 묵았어요. 우리 친정 부모네들, 그 성은 그 성대가, 안대가, 부산 목이가, 부산 목이가 자꾸 나오고, 지금도 경상북도에 가면은, 부산 목이가, 나오고. 그래도, 여 또, 그 부산에 가문[가면] 부산 굿을 하고, 경상북도 가면은 경상북도 굿을 하고. 원래 내가 또 뭐 경상북도, 고향이고.

면담자 1 : 원래 예.

구술자 1 : 친정 부모도, 친 그러는데, 굿을 다 이케 해가지고, 해도, 우리 친정 부모네들만치, 춤 잘 추고, 그래하는 무당, 네들이가, 없는 거 같아요. 부산굿에는 그냥 마 염불, 괜 그 하고, 부산굿에 대가지고 머 굿을 하고, 이러는데, 뛰고 굴리는데는, 별신굿에, 가면은 농도 굿에, 농포 굿에 가면은, 마 미친 개이맨치로[미치광이처럼] 마, 파아아아 뛰고 울르고 마, 그래 그 해야, 그 저 저저 장군이가 실리야[실려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꽤서, 그 하지 그 다음에는 그 별신굿에나 오귀굿에나, 이 춤을 갖다가 카아아아 마 마이 안 춰요. 마이 손을 마이 안올리고, 점잖게 춤을 춰. 그 춤, 경상북도에 가면은, 그러 춤을 추면 개굴뻑게 춤 춘다고 확 면박을 줘요, 그 춤 그래 추면은, 개굴뻑다해가 첨에는 점잖게 이렇게 춤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 추고 이러지만, 나중에는 마 박짝 그 장구를 좋아놓으면은, 팍 뛰고 마, 막 죽도 살 마, 죽도 살도 모르게 춤을 추고, 그래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야 되지, 부산굿만치로 그래 추면은, 아이고 춤도 개굴뻑게 춰가지고, 저래가지고 뭐, 뭐 저저 거 돈벌어먹겠냐고, 이런 말이가 나온다아입니다. 그래 부산굿이가 틀리고, 강원도 굿이 틀리고, 전라도 굿이 틀리고.

면담자 1 : 원래 예.

구술자 1 : 경상 북, 남도 굿이가 틀리고, 그래요. 그래가 이십세 사 석에 대한 굿을 모리는기 가[모르는 것이] 없고, 그 동네 들어가면, 그 경상북도에는 지사어른들, 상존에, 조존, 조존오, 조조노입네, 상조노입네, 중조노입네, 하조 조노입네, 하 하, 중, 상이가 있으예. 그런 오방네들이가, 앓아도, 나이 잡좌는[먹으신] 사람, 그 인자, 쪼금 상조노 요 이름 있는 이른[이런] 사람들으는, 상에 앉고, 젖 앞에 앉고, 고 다음에 앉고, 고 다음에 앉고, 또 그래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천가에 조노임네, 백가에 동순임네, 경상북도 사설이고, 부산에는 부산, 부산에는, 개양 할아버지, 할아버지네들, 이장님, 동네 구장님, 계장님, 총대, 뭐 이렇그 하고 부산에는 개양 조노입네, 어르 부산에는 어르신네, 부산에는 어르신네라 불러. 어르신네요,

면담자 1 : 예 어르신, 예

구술자 1 : 어르신네요 이로 오시이소, 이라고, 그 할무이들보고, 할무이들 말 안하고 보살님네요, 보살님네 여 뭐 또 이래 좌정해 계시소, 경상북도로 가므는[가면은], 할머니네들, 할무이, 하 하할무이네들 이래 게 가지고, 게가 앉아 가 불라 주고, 부산에는 어르신네들, 할아버지 할무이네들, 그래가지고 보살님네, 이래 불라주고 그래. 다 각각에

면담자 1 : 마을마다.

구술자 1 : 각각이 인무이.

면담자 1 : 지역마다 또 다 다르게.

구술자 1 : 고 또, 가가 이 영무이라고, 이기 성대 씨느는[쓰는] 자체가 틀리고, 사설도 틀리고, 강원도 사설이가 틀리고, 강원도보다는 굿이가 틀리고, 글트라고[그렇더라고], 강원도는 굿을 잘하고 몬하고 떠나서, 공사를 잘 주면은, 그분들은 잘한다 이래요.

면담자 1 : 또 다른.

12. 여러 무당들과 김구환 선생

구술자 1 : 그라고, 그 우리 돌아가신 큰엄마도 굿을 뭐, 잘하는거로 좀 몬 받고 뭐 그런 그냥 그대로 하고 이라는데, 그 우리 똥띠이[똥땡이] 큰엄마 우리 큰아버지가 둘째, 그 저 할마이 얻, 저저 무 무다으를 얻았는, 무당이가 똥띠 무당인데, 참, 심청개굿, 누구를 울리고, 웃기고, 그래 잘하는, 무당을 우리 큰엄마가, 일인자라고 봐예. 강원도는 똥띠이 무당, 경상, 북도는 간나이 무당, 그, 그래 가지고 내가 또 경북, 어 부 부산에는 그래 인자 나는, 그 우리 큰 딸이가 제일로 인자 키웠는, 큰딸이가 영선이래, 영선이기 때문에, 영서이 엄마, 그래 가고, 지금으로는 또또, 학리에는, 학리마을에나 두호동이나, 그 인자 가면은, 영선네 영선네, 날 보고 영선네야, 이래 불러주고, 경상 북도는 가면은 꿈보무당[꿈보무당], 꿈보무당이라꼬 이래 부르고 있으예. 지중지중, 부르는, 별호가 있는데, 하이고 어쩔 요 꿈보무당 나오는다, 그러고, 여어도 오너라, 저도 오너라 해가, 집에 텔레비 보고 있으몬, 전화를 해가 나오너라, 꿈보 무당 굿하러 나왔다 이래가 하고 이래가, 그래가 참, 내가, 어, 돈을, 마이, 번다는 이거보다도, 지성으로 빌어주고, 지성으로 공을 들이고, 어디 굿을 하라가면은,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그래 인자 김구환 선생님이, 논문을 써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이래 돌아보면은, 무당네들 그도 포항 월개, 또 우리 동생, 큰 동생, 내에, 이래 전부 다 이래 사설이 이어가지고, 녹음을 해가가, 논문을 썼는데, 그 구환 선생 날보, 선생님, 따른 선생님들이는 사설이가 열 마디면은, 선생님은, 다섯 마디 사설이이가 들도 보다[보도] 못하는, 사설이가, 다섯 마디 열 마디가 더 있드라 이거라요. 그 선생님이, 참 그래서로 내가 인자 선생님 보고, 선생님, 선생님은 논문을 써 가지고 박사가, 됐지마는, 나는 굿에는 박사라[웃음].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이 모르시는, 예.

구술자 1 : 굿에는, 저가 박사아입니까 이라면, [따님 개입] 아이고 맞쵸, 선생님이 계시는, 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을 써가 박사가 되잖습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 하면은 여기 와가, 어렸을 적부터, 살아오던 세월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이래 얘기를 하다 내가 마이, 이래 울 때도 있으예. 울면은 선생님이 휴지를 뽑아가 선생님, 조금 쉬었다합시다 이라고. 그래 마 울며 불며, 그 사설이고 뭐고 이래, 빠짐 없이, 그래가 그 했그예, 그 선생님 지금도, 이래 인자 풍어제 하면 꼭 와예. 꼭 오는, 서울에 공연하라 가도 만나고[만나고], 울산에 가도 만나고, 고래축제 할 적에도 [따님이 식사준비하는 소리] 그 선생님 오시가지고, 그때는 그 저 배우는 과정이라예, 그 선생님도. 그래가 마 굿에라, 굿만 한다이라면은, 뭐 어떻게든 오시.

면담자 1 : 어디든 저.

구술자 1 : 저 연락을 안해도요 마, 귀신같이 찾아와요 아주.

면담자 1 : 관심으 많으셔서.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진짜로.

13. 현재

구술자 1 : 그래서 지금 인자, 내가 나이가 인자 이래 팔십한 살 여 이래 먹는데, 사설이 없
아 곳을 못하면, 뭐 곳에 대해 내 문해가지고 몰래[몰라] 못하는 그게 아니고, 십삼
년도에, 저 저가 여 허리 수술을 했어예. 허리를, 마 빼가[빠가] 왕창 느리 앉아가지
고 그래 허리 수술로 하고 나니까네, 뭐 허리 여여, 부산, 여 기장에, 백병원 가가
수술 했시면은, 마 옳게 됐을랑가 모르는데, 기장 고래병원에 수술로, 두 달로 사람
을 눕혀놓고 수술 안해주고, 한 시간 만에 끝나는 수술로, 그래가지고 두 달을 눕혀
놓고, 또 이 뭐, 이래 저저 저 뭐꼬, 비니루 들았는 그 주사를 낳아놓이[놓아놓으니]
얼굴도 이래 마침 붓고, 몸도 이래 살이 부아가지고 통통 부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가 막 화를 내면서, 왜 수술을 안해주느냐고 이래가지고, 한 시간 만에 사람을 얹아
놓고, 뭘 망치를 가 두들고[두드리고] 뭘를 갔다가 여, 뼈를 갔다가 영는지[넣는지],
수술을 어뜨케[어떻게] 했는지 마 여 허리가 마 이래 자꾸 굽아졌다[굽어졌다], 지금
뼈가 이만큼 튀 나왔으요, 등허리에. 이래 그래거이 여개가, 저가 저근 이르, 벨트를
제가.

면담자 1 : 아 계속 하고 계신.

구술자 1 : 하고 있으예. 이 벨트를 안하고 있으면은, 허리가 저 일어서면, 마 더 굽아져가지
고, 곳을 해도 벨트를 하고, 집에 있어도, 벨트를 하고, 안하면 허전해가지고 안돼요.

면담자 1 : 아프시지는 않으신지, 괜찮으신지[따님이 점심을 안드셨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영상
에는 담겨있을 듯]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래 마 이래 걸음을 걸으면은, 허리가 이래 ,꼬부랑한 할마이
가 되요. 여 허리가 이래가지고. 그래가 서가지고, 구술을 할라하니까 서울에 공연하
러 가면은, 내가 앞에 돌아오는게 부정, 그 다음에 부정하고 뭐 조상굿이, 세종 성주
굿은, 우리 뭐 월개 동생들 저거가 다 하고, 나는 마 부정봐도, 오분 한, 부정만 하
고, 안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인자 서울서, 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삼 자매
이야기. 봤습니까?

면담자 1 : 예 알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봤습니다.

구술자 1 : 보러, 서울 안 보러 왔지요?

면담자 1 :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술자 1 : 직접 봤.

면담자 1 : 직접 보지는 못하고.

구술자 1 : 아이고.

면담자 1 : 그 컴퓨터 인터넷으로, 영상으로만 좀 봤.

구술자 1 : 영상으로 봤습니까?

면담자 1 :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 예.

구술자 1 : 그 영상을 그래 좀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예. 언제든지 해가지고 보내준다, 연
락처를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영상 그거를. 그래가, 그서 참, 내가, 그런데, 그 다음,
그 인자 연락이, 인자 그 총무이한테, 이 곳을, 화면으로 이래, 그 영상으로 해가지
고 이래 보는 거보다도 직접 와가지고, 보는 거, 우리 김정희, 오구굿을, 서울서, 하

게 되거든요.

면담자 1 : 예 언제 하시, 언제 언제하시는지.

구술자 1 : 그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시월 달인가, 십일 월달인가, 그랬는데, 정 연락 그 총무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하는지.

면담자 1 : 아 알겠습니다.

구술자 1 : 그래가.

면담자 1 : 꼭 보러 가겠습니다.

구술자 1 : 구경하러 오세요. 그런 구경으는, 마 이래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마 직접,

면담자 1 : 직접,

구술자 1 : 이래 밖에서 야외서 할 겁니다. 또 무대서 할라[하려] 하니까 음식도 몬 채리고[차리고], 그 몬가[뭔가] 하니까, 곳을 갖다가, 무대서 하는 거는 몇 시간을 해가지고, 이래 마치기 때문에, 잠시 점 한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반 해가지고 마치기 때문에, 그 곳을 갖다가, 하나서부터 마칠때까지, 열까지, 그거를 다 몬한다입니까.

면담자 1 : 아, 맞습니다. 예

구술자 1 : 경상, 경상북도제라하거든요. 그 곳이 좀 별다른 곳도 있고, 인자 이래 그거를 하는데, 직접 와 가지고, 야외에서, 인자 할겁니다.

면담자 1 : 아, 알겠습니다.

구술자 1 : 야외에서로, 이틀로 해요.

면담자 1 : 아 알겠습니다.

구술자 1 : 자고 그 이튿날, 마치고 곳이, 하는 곳이 많으니까,

면담자 1 : 예예, 꼭 보러 가겠습니다. 혹시,

구술자 1 : 그래서, 인자 경상, 북도에 오귀굿 하고, 부산 오귀굿하고, 굿이 틀리거든요. 그래가 경상 가가, 경상북도, 뭐 또, 고향이고, 즈그 아버지 엄마도 경상북도 사람이고, 우리 마가 다 경상북도, 다 친척이고, 문인고 이래 그거를 하니까, 경상북도제를 해가지고, 굿을 하기 때문에[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끝마칠, 굿이 아니라고. 그래가 이틀로, 인제 이래 굿을 하기 때문에[때문에], 하는 이게, 저, 그기가, 제단이야, 별레금 되 일 번, 이 번, 삼 번, 사버이, 열두 석이 되는 굿이 있거든요. 그래 직접 와가지고 구경을 해야, 아, 굿이, 동해안 별신, 하는 굿이, 오구자리구스들을, 이르 이르케[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알 수가 있잖습니까.

면담자 1 : 맞습니다.

구술자 1 : 별신굿에는, 별신 굿에 대해 하는 굿이고, 또 오귀굿이는 오귀굿에 대한 굿을 한 번도 못봤다입니까?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한번도 못봤습니다.

구술자 1 : 구경하러 오세요.

면담자 1 : 알겠습니다.

구술자 1 : 그런데 인자 코로나가 이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하도 심하면은, 못하라고 중단을 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래니까는 정 연락을, 그 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구경 오시구요,

1-E 마무리

학리에서는 학춤을 넣어서 별신굿을 진행해 왔다. 과거에 굿을 했던 무당들이 현재는 모두 돌아가시고 이제 김영희 본인과 여동생들이 거의 초기 무당으로서 마지막 생존자라고 할 수 있다.

14. 학리와 학리굿

구술자 1 : 그, 학리마을에 왜 학리, 그, 계장님, 이장님 그런 말씀을 합디까? 이게 이 동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단다, 학리가 되었다 하는거를?

면담자 1 : 그냥 그 학 모양이라서.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뭐 산.

구술자 1 : 학리, 학이가 그 소나무 위에 지금은, 또 소나무가 뒤에 이렇게 없지마는 옛날에는 그 마을에, 소나무가 많았답니다. [따님 개입] 그래 학이가 날아와가지고, 알도 까고, 거 앉아가지고, 있고 집을 짓고 새끼를 까 까고 이래가지고, 마이 날아왔기 때문에, 그래 학리라고, 저 이름을 짓다이라 하데에.

면담자 1 : 그 선생님 학리에서, 그 굿을 할 때는, 학굿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학 학굿이 이제 굿 안에 별신굿 안에 학굿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구술자 1 : 겨우 끄트마리에[끝머리에] 마칠, 날에 학춤을 춰예.

면담자 1 : 아 그 학춤은 누가 처음에 이케[이렇게] 아버지께서 마 이렇게.

구술자 1 : 그 또 학리 그 해가지고 학춤을 추는기가 없었그든예. 학춤을 추는 기가 없었는데, 그 동네 인자 이장님이, 그를 인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인자 학춤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무당쪽에서르 연구 해가, 학춤을 가라따가 그래 춰 주는기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서로, 얘기를 하이까네, 종다하드라고요. 동네 어르신네들, 책임자들, 그래 학춤을 춰주면 좋지요 하면서, 또 마지막 치는 마지막 굿에 학춤으는. 우리 여 저 김동, 옥, 동은.

면담자 1 : 김동원 선생님.

구술자 1 : 예 김동원, 그 인자 동생이, 키도 크고, 그, 인자, 남자 한복을 입고, 저 도복을 입고, 갓 쓰고[쓰고], 그래가지고 학춤 갖다가, 동래야류에, 학춤 추는걸 봤거든예. 그 그래가지고 이케 거서, 인자 여 좀 눈으로, 가서 배우지는 않애도, 그 눈동냥으로 해가지고, 이래가, 학춤을 추고 인자 그렇게 하고 이래.

면담자 1 : 그러면 제일 마, 굿 제일 마지막에 학춤을 넣어서 하시는 그런 인제.

구술자 1 : 마지막 그 굿에 인자 고, 학춤 추고 그 뒤에 인자, 굿을 마저하, 그래해예. 그래이 까는데.

15. 무당들의 죽음

구술자 1 : 그 그래가 뭐 무당네들, 인자 다 죽고, 기장 오장원네 큰엄마도 돌아가시고, 또 큰 아버지는 뭐, 우리 시어무이가, 형님요 하이까네[하니까는], 그 내가 인제 그, 큰엄마였고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고 인자 그랬는데, 못골 고돌네 그 이 시이모님으는, 젊었을 적에, 또 못골에 살면서로 돌아가셨다가 오 일만에 깨어나가지고요 오 일장을 했는데, 저승갔다가 왔는 이모님이라요. 우리 시어머님 얘기 하더라고, 얘기를 내

한테다가 그래 해주드라고요. 느그 시이모님은, 그 뭐 한 오십 몇 살 대가 죽어가
가, 오 일장을 했는데 여름 됐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반 반을 여게 반을 엄을 해가,
여가 딱 묶아가지고, 흠이불 덮아가 병풍을 가라가 돼 있는데, 그 우리 시어머니 앉
아가 향불 피우고 앉아가지고, 그 정목고, 임새요 하고, 어린요 하고, 이래 울고 이
래가는데, 병풍 안에서 뭐 쿵쿠 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고양이가, 어디 굴뚝에 들어
갔나, 부엌에 들어갔나, 짐승이 부엌에 들어가면은, 그 저 뭐꼬 염장 밑에서 소리가
난다 하더라고, 이런 말로 듣고 [따님 개입 잘 안들림 시간 물어보고 점심 안 먹었다
는 이야기 었던 듯] 그래가지고예, 그 게 해가지고 시이모님 오일만에, 그래 암만해
도 이상하다 싶어서로, 오 일만에 깨어나가지고, 점을 치는데 카 아주 굿도 잘했는데
다가, 아주 일류 점바치고, 일류 무다이로, 또 큰 굿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그 그
이모님도 얼굴이 꺼무꺼무골마하게 좀, 이래 좀 열갔다구요. 근데 그 못골, 고돌 이
모님 돌아가셨지예, 수영, 무당 죽았지예, 대변 영감할마이 다 죽었지예.

면담자 1 : 이제 다.

구술자 1 : 다 죽고 없으예. 분선이, 대수이, 뭐 수영 깔라부네, 뭇뭇어 이 무당 저 무당, 할
것 없이, 다 죽고, 인자 내가, 최고 인자 나이 먹었는, 무당은, 요 부산에서는 내하고
밖으 없으. 우리 여 삼 동생.

면담자 1 : 예,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그전부터.

구술자 1 : 그래 있지예, 오순 저 수 본 영감도 돌아가시고, 이분으는 다신 [따님 개입]

구술자 2 : 거의 다 돼 갑니까?

면담자 1 : 예.

구술자 2 : 엄마 허기질 건데.

면담자 1 : 아 식사를 안하셔서.

구술자 2 : ★ 할 건데,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벌써.

면담자 1 : 그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또.

구술자 2 : 약을 잡썬 ★.

면담자 1 : 또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좀 찾아뵙도록..

구술자 1 : 그 서울 할적에는.

면담자 1 : 그때도 예.

구술자 1 : 꼭 그 연락을 해가지고.

면담자 1 : 전00 선생님께 예.

구술자 1 : 오셔가지고 직접 보세요.

면담자 1 : 전00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꼭 찾아뵙겠습니다.

구술자 1 : 예예예 예

면담자 1 : 감사합니다, 오늘 이래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구술자 1 : 감사합니다

면담자 1 :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구술자 1 : 언제든지 물어볼 말씀 있거들랑 찾아오세요.

면담자 1 : 예예 알겠습니다, 요기서 일단 마무리하겠, 저희 땀에 식사도 못하시고.

<2차> 2021년 8월 5일

1-F 학리마을의 곳

학리 곳은 원래 시어머니인 백씨 부인이 마을 무녀로 도맡아 해왔다. 결혼 후 김영희에게 학리 곳을 물려주었다. 학리 곳은 장군나무에서 시작해서 포구까지 와서 별신굿이 진행되는데 신앙촌에서 장군나무와 용왕당 가는 길을 철조망으로 막아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16. 학리마을에서 곳을 하게 된 계기

면담자 1 : 지난번에 그 이렇게 이제 해오신 과정 하고 살아오신 어떤 이야기들 참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 저도 마스크 벗고 말씀

구술자 1 : 예예

면담자 1 : 추가적으로 학리마을하고 관련된 선생님께서 이제 활동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으시면은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듣고자 해가지고 여기 이제 찾아뵙습니다.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그래서 어 전에 이제 말씀해주실 때 그 시어머니께 학리마을에 곳을 담당하셨던 예 무당이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그 학리마을에서 이제 그 시집오시고 나서 선생님께서 시집오시고 나가시고 학리마을에서 혹시 뭐 곳 활동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관련된 일을 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구술자 1 : 예 그 학리에 그 저가 시집 와가지고 열항홉 살에 학리에서는 곳을 몬했으예 곳을 몬하고 그 돌아가신 요 백씨 시어머님이 곳을 이제 맡아가지고 자제 분하고 같이 이제 이래 하는데 그 내 시어머님도 곳을 잘하는지 몬하는지 그때는 뭐 나이도 어리넌니까 여 부산 굿이도 뭐 어떻게 어떻다다 뭐가하는 그런 그런 의미도 모르겠고 뭐 잘하는지 몬하는지 그런 그것도 모르겠고 또 굿하러 오시는 분이 누가누가 오시는 그것도 기억이 첨에는 안나고예 그래서로 이제 마 세월이 인자 이래 흐르다가 보니까 저가 인자 이래 뭐 굿하러 나오니까 내 시어머님이 마 집에 들어앉드라고예 곳을 안하고 내가 허리로 굿아가지고 뭐 이래 니 짧은 거 앞서가 땡니문서 내 무슨 곳을 하겠노 마 니가 맡아가 이제는 다 해라 그래가 곳을 맡아가지고 인자 마 이래 사설도 알뜰히 외우고

17. 학리마을 곳의 현황

구술자 1 : 그래하다가 보니까 학리에는 그 굿이가 굿이가 서른 안방 내 우로 당맞이하는 곳 하고 이래 처가지거로 서른 일곱석이라 이랬거든에 구석 수가 구석 수가 서른 일곱 인데 당에서로 다니면서로 그 할배당에 할매당 그 저 거릿대 장군 그 또 요 요양 또 이렇게 또 맞차가지고 하는 굿이 하 하이트 당에 가가지고 곳을 갖다가 네 석씩 했어예 네 석씩 가망 있자 조상굿 고 다음에 인자 세중굿 부인거리 천인거리 해가지고 거 할배당에서로 내림대를 잡거든에 그 인자 오년만끔 옛날에는 삼년만끔 했어예 풍어제를 그 동네마다 동네마다 삼년만끔 이래하다가 보니까 굿이가 마 썩이가지고 여기도 보름에 하고 저기도 보름에 하고 이라다가 보니까 서로가 인자 사람으로 워낙

많으니깐 책임자를 누구누구 인자 사람을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또 그 마을에 사는 동네 그분들도 일로 말으면은 그 사람이 또 개가지고서는[그래가지고서는] 어떤 년에는 굿에 세 군데 보름에 같이 이래 맞세길 대 대면은 인자 사람이 인자 없으니깐 이 일로 그 어 이십 스물일곱 석을 갖다가 일주일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에 그러다가 보니까네 한군데는 몬하고 날로 갖다가 저 뒤에 인자 그 인자 뭐 보름에 하고 그 뒤에 이십 스물 하릿날 음력으로 스물하릿날이 개가지고 인자 날로 갖다가 고 마치면 이차 가가 가 할 적에.

면담자 1 : 아 안 겹치게.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인자 하고 학리 또 학리는 그 저 뭐꼬 날로 갖다가 절대로 보름날 아이면은 굿을 안해에 학리마을에는 보름날 아이면은 굿을 안하다가 보니까 꼭 그 인자 그 요번에 이거 코로나 오기 전에도 마 설에 마 내가 생각할적에는 마 설에 마 그래했으면은 좋겠는데 동네서 응답을 안하드라고예 응답으로 뭐 안하고 보름에 해야된다고 마 그라다가 보니까 군에서 몬하러.

면담자 1 :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구술자 1 : 사람들 많이 모으니깐 군에서로 마 몬하라고 딱 끄으가 질문을 느리서 하까예 그 래서로 마 그래하다가 보니까 내 인자 이 굿을 몬하게 났는데.

18. 학리마을 굿의 대강의 모습

구술자 1 : 그래서 내가 그 당에서 인자 네 석스 하는 굿을 갖다가 한 석씩 하도록끔 한석만 하고 대 너르고 또 판 데 가가지고 그 거릿대 장군 거 인자 가가지고 내 굿을 하고 느러오고 느러오고 마 이래 거 하다가보니까 한 석을 세네석을 할거르 한 석을 그 안에 뗏 해 전에 그 줄아뿌렸으예 굿을 굿을 그래 줄아도 마 굿을 갖다가 이리 줄이 걸리는데 그 뭐 뭐 간단간단하게 마 이렇게 당에서로 네 석을 하나 하다가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뭐 숨설 여객도 없이 머 이래해가지고 마치고 이래 가고 이랬는데 거 저가 그 인자 무 맞으는 책임자가 하는 구석 수가 있으예 예쓰 야외 뭐 또 인자 굿 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 인자 그래 안곳에 이 저 뭐꼬 열 이십사 석을 하다보니 안곳에 열 두석 배꼽곳에 열두석 그래가지고 이십사석을 갖다가 인자 이래 굿을 하거든에 근데 저는 인자 맞으는 책임자가 되다가 보니까네 할배당에 굿에는 꼭 책임자가 해에 책임자가 먼저 들어 하고 그 뒤에 인자 판데 가면은 저 무당네들 인자 차례더로 그 맡은 책임자가 어느 굿당에는 누가 굿을 해라 또 어느 인자 할배당에는 또 누가 굿을 해라 누가 굿을 해라 이래가 저 한 석 하고 나믄요 안해는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네 한 석씩 짝 다 시키예 구석수를 구석수를 인자 다 시키고 그 인자 할배당에 느러와 그 천왕 저기 거릿대 거게는 그 서로 내 굿을 인자 마 해가지고 느러왔는데 그 저저 뭐꼬 저기 그 교하는 그래 무슨 당이래 무슨

면담자 1 : 그 교회

구술자 1 : 그래선 가 마 퍼뜩 생각이 안나네에 거게서 인자 산이가 자기네들 사났는 산이니 까 굿을 인자 몬하라고 막드라고요 철망을 해가 쪽 학리 거기 갖다가 가면은

면담자 1 : 아 거기 신앙촌인 거기

구술자 1 : 아 신앙촌에 그거 퍼뜩 생각이 안나네 신앙촌에서 아주 그 저 몇십 년 전에 그 인자 산을 갖다가 다 그 신앙촌에서로 다 팔았어예 동네 사람들이

면담자 1 : 아 옛날에 그 예

구술자 1 : 학리마을에서 어른들이가 그 신앙촌에 머 그래 팔으라 이러니까 그 마 산이고 나
났다가 뭐하겠노 싶어가지고 그 신앙촌에 이케 해가지고 팔았거든에 그래가 다 팔다
가 보니까 그 아주 아름다리 같은 이런 인자 소나무가 있는데 그다가 그 장군을 갖
다가 이래가지고 포적을 해가 인자 할매당에서 굿 마 마치면은 거 올라가가지고 천
왕장군이라 이래가지고 인자 그 굿을 하고 느러오는데 몬하라고 막드라고요 그래가
인자 마지막으로 인자 그게 하고 그래 느러와가지고 고 밑에 느러오면은 마을에 느
러오면은 마을 당산 고 옆에 포구나무가 아주

면담자 1 : 아예 봤습니다

구술자 1 : 곧은 있지에 그 포구나무에다가 음식을 채리놓고 인자 여게다가 장군을 모셔놓고
최장군 최유온 장군이라고 이렇게 여다가 모셔놓고 굿을 하고 그랬어예 그 굿하고
느러오면은 할매당에 굿을 해예 할매당에 굿을 갖다가 그래도 할매당에는 그 저 저
뭇고 조상굿하고 세중굿하고 천왕굿하고 아 참 성주굿하고 성주를 붙여예 할매당에
할매당에는 성주를 갖다가 붙이고 부인거리하고 나가지고는 할매당에 대를 잡아예
대를 그 인자 대를 잡아가 천왕굿 해가지고 대 잡고 인자 나와가 저 바닷가에 바닷
가에 저게 아주 넓은 바닷가에 그 가 가면은 그 또 신앙촌에서 사가지고예 그 들어
가지기를 못하도록 마 거서 철문을 갖다가 딱 만들어가 키를 갖다 짝 잠가가 사람 출
입을 몬하그려 그렇게 막아났으 신앙촌에서 땅을 많이 샀으예 용왕당 그게도 땅도
동네서 해가지고 팔고 산도 팔고 그라고보니까

1-G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학리에서 별신굿을 하게 되면 대잡는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 대를 잡는 사람은 부정없이 1년을
지내야해서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주를 부인회 회장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현재 별신굿이 있는 해에는 부인회 회장이 준비하게 된다.

19.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불만

구술자 1 : 그 인자 학리마을에는 인자 대잡는 그 최씨 부인이가 있으예 최씨부인이가 대를
잡으면은 막 울으예 왜 우느냐하면 이 학리 이 참 학리동네는 산도 팔고 요양당도
팔았버리고 요 마을이 이래 해박야 뭐 별로 어디 뭐 있습니까 이랬는데 느 자손들이
가 다 하늘만 보고 숨을 쉬므 살지 뭐가 있노 이거라 학리동네 땅이라하는 땅이는
다 팔아 그 신앙촌에 다 팔았버리고 이제는 뭐 팔 것도 오그리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래나마 대구리 댕머리배가 마이 생겼으예 그래가지고 할매당에 그서로 인자 내림
대를 인자 쥐고 나면은 그 인자 굿당에 그래가지고 인자 굿당에 이케 해가지고 들어
가기 전에 할매 그 굿당 앞에서 도합을 해가지고 또 대를 받아예 대를 그 저 마 그
대를 인자 잡는거는 최씨 부인이가 인자 아들이가 마 우예 잘못되가지고 마 세상을
떠나빠리꼬 그 질로 대를 안잡드라고 대를 안잡고 그 담에 인자 그 인자 굿당에 인
자 들어가면은 이 천막을 그 내가 천막을 이 새로 인자 맞춘다하길래 그라면은 퍼른
것도 맞추지 말고 그 저저 뭐 노란거 한판 푸른거 한판 붉은거 한판 흰거 한판 이래
가지고 천막을 맞추라 했는데 그 이장이 새로 그 나와가지고 그 이장도 교를 믿더라
고예 교를 믿아도 이장을 뽑아가 그 인자 굿을 하면은 그 해 분에 이장이 딱 저저저

뭐꼬 꾸씩꾸 저 있지에 저거 저 색까리를 딱 맞췄다 앞에 있는 요 색깔 그거를 맞차가 왔는데 마 굿 안이 깜깜어둡는기라예 굿 안이가 밝아야 되는데 깜깜하이 저거를 맞차가 하 내가 아이고 이장님요 그만치 그 좋은 태 태태 저저 뭐꼬 맞추는 그 집에 가가 그래 밝은거를 맞추라 했드만 저 시키머를 맞차가 밤이 대야 이 굿당에 흰하니 불로 켜놔야 꽃도 고론 꽃이가 침 와가지고 굿당에 들어가다보면 깜깜 어두와 가지고 이거는 머 꽃인지 음식인지 마 엉망진창이 그래 됐어예 굿할적에 안와봤어로 글치만은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인자 굿을 하는데 그 인자 굿 인자 인자 대잡고 안에 들어가지고 인제 그 동네 사람으는 테레비하는 자리에 저게 본부석을 하고 굿당 안에는 인자 그 제주집 그 제주도예 아 그 징을 내가 쪼그마한 징을 가지고 보름날에 대기전에 보름대면은 인자 금년에 인자 이래가 인자 굿을 인자 한다이래하면은 제주를 정하랴에 온 데 동네마다 아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집에 드가면은 우리는 제주 문한다해가지고 또 쫓겨 나오고 대잡은 아줌마하고 저하고예 동네 사람들 요만한 판에다가 딱 술 향로 촛대 해가 들고 댕기는 사람 인자 계장 이장님 회장님 총대 그 부녀회장 노인회장 동네 사람들 그 어른들 그 대 밑에 다 따라 댕기요 그래가지고 그 대 잡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상을 놓고 그 인자 자리를 깔아가지고 찬물 세 그릇 딱 떠 놓고 그 조상 자기 조상이 한테 가가지고 절로 하고 그래가 인자 할배로 받아 가 하는 기라예 할배를 받아들이고 할매를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그래 인자 고맙다고 박수치고 그서로 인자 음식 그 저 저 명태 그 가지가 그그 들어 가지고 그서 술안주를 하고 그 인자 받아 할배한테 집에는 침 받아들이는 집에는 음 술 안넘그고 그 고맙대 인사를 하고 할매당에 모시사람을 또 온 데 댕기면서 그래가지고예 그 최씨부인이가 저 우에 그게 골무이 그 올라가가지고 대를 잡는데 나 안받는다 해가 대를 갖다가 그 마당에다가 막 때리 막 막 마당에다가 치니까느 작작작작 갈라지는기라예 그 뭐 두 번 치니까 대가 다 갈라져뿌리고 하나도 없어 대가 막 이만하는 대가 작작작작 마 이래 마 금이 나가지고 다 마 갈라지고 그래가 나오니까네 그 집에 안종더라고예 ★대 할매를 안모시고

면담자 1 : 다 조상님들 좋게 할려고 하는 예

구술자 1 : 그 할배당 할배 모시는 사람을 정해놔는데 할매 모시 사람을 정하는 기라예 그래 해가 그 대잡는 아줌마가 대를 놓고 대성통곡을 울드라고 일년에 한 번씩 제사 모실 사람도 안모신다 이래하니까 이자 요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겠나 그래가 마 그 최씨부인이가 그 안주인이 정 못 대하는 그로 어드로 마 못 막 부엌에는 그 대양간을 들어가 나오지도 안해야 안모신다고 그래가 나중에는 그 아들이가 배가지고 막 기계 여 돌리다가 마 손을 갖다 마 뭐 끊고 이래가지고 그라고 인자 그 집에서 못 모시고 탄 집에 가가지고 그래해가 마 사정이래 해가 이래가지고 모시는 집에는 그냥 그대로 넘가갔는데 안 모시는 그래 그 집에 아들이가 손 다치고부터는 인자 가면은 잘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 안모신다고 하는 집에는 완전 그래가

20. 마을 사람들의 고충

구술자 1 : 나중에는 이래가 안된다 이장이 모셔라 집집마다 찾아갈 거 없이 이장이 해라 동네 책임자니까 어 그 뭐 책임자니까느 부정하는데 머 그 달에 제사 모시는 그 달에는 부정한 초상집이가 어디 뭐 아 낳는 집에는 댕기지 말고 정월 보름에 제사를 모시고 제사 모시는 일 년을 그래예 일 년을 일 년을 갖다가 부정한 데 못가지요 멍가

는 잔치집에 못가지요 병문안을 못가지요 부모가 죽어도 못가요

면담자 1 : 아 그만큼 깨끗하게

구술자 1 : 네 처갓집 부모가 죽었다 해도 못간다고예 그래니까는 상도 그 갔다 오면은 제사 모시는 사람이 안 좋다고 분네도 안좋고 동네도 첫째 안좋고 제사 지낸 사람도 안좋고 그래니까네 몽 가니까 이래 아무도 제사를 모 제사르 할배 당에 일 년에 제사 지냈다하든 일 년을 가까해야 되는 기라예 일 년을 일 년을 조심을 해야되는 기라요 그러니까네 아무도 안 모실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인자 해 동네 회의를 해가 그러든 이장이 해라 제사 어 진 지내는 동은 동네서로 잉 동 가지고 제사 모시는 집에 느는 돈을 갖다가 글면는 저 그 마이 줘요 그 제사 모실 돈을 다 그래 준다고예 그래도 마 그 돈도 저 돈도 싫고 마 이르니까 이장님 모시라 마 동네 돈을 줄테 마 니가 모시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사 모실 모실 사람으는 이장을 해라 안그라면 이장을 몬준다 그래 됐으 그래가지고 머 이장 모신다 마 아무것도 없쥬 그러는데 일 년에 한번씩 제사 모시는 사람이 이장이가 지내도 굿하는 해 분에는 제주를 뽑는기라요 이장이는 책임자가 대가지고 언제 머 제사 모시고 그 앉아 있을 수가 없다입니까 오는 손님을 맞고 인사하고 뭐 적고 머 그래가지고 머 여기가 식하자저 저가 식사하자 머 저 높은 사람들 다 오져 뭐 국회의원도 오고 머 군수도 오고 뭐 도의원 도지사 머 이런 사람들 다 다 가르 기장 이개는 정동만 씨가 국회의원 아입니까 머 굿할 때 되면 와예 월 일을 제쳐놓고 와가 동네 인사를 하고 할배이한테 절하고 돈놓고 절하고 이래 말씀 마이크 대놓고 여러분들이 마 수고하신다는 이런 인자 말씀도 이래 하시고 군수가 오시면은 군수님도 고 머 밑에 따라오는 신하들이가 많다 아입니까 그래가지고 오면은 첫째 오면은 할배이한테

면담자 1 : 다 인사를

구술자 1 : 인자 와가지고 술 따라 붓고 돈 놓고 절하고 향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 인자 마이크 대놓고 인제 얘기를 하고 그래 식사하러 가예 그런 사람들로 오는데 이장이 제주(祭主)라 해가지고 가만 앉아가지고 머 있을 수도 없는 기라예.

21. 해결과 기다림

구술자 1 : 그럴 적에는 그 인자 제주를 뽑아 났는데 유기출 씨라 하는 그 분이가 오 년 전에도 이 만 오 년마다 하그든에 학리에는 딴 데는 그양 그 해를 쳐 가지고 오 년이가 하는 지금이가 뭐 오 년이가 할 것도 없이 학리하고 나면 칠암하고 칠암하고 나면 일광 이천 별신하고 일광하고 나면은 이 또 저게 대변하고 공수하고

면담자 1 : 공수 아예

구술자 1 : 두호동하고 육개부락에서 일년에 한 번씩 하는기라예 머 몇 년도 그거 없이 그러이까는 육 년에 일 년에 한 번씩 쪽 돌아가며 이러케 하그든 학리마을에는 꼭 그래 인자 오년만큼 인제 풍어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 제주를 뽑아가지고 그 유기출씨가 집을 새로 지웠으예 그분이가 제주를 하고 마누라가 대를 받고 대를 음 받고 그래가지고 그분이가 인자 그 제주를 하고 한 사람 또 있으예 그래 인자 한 사람은 안한다 하고 유기출 씨가 그 혼차서 인자 도감을 맡아가지고 한다꼬 이래 집을 새로 지웠으예 동네도 편코 동네도 안사고 동네 편코 이러니까 아이고 금년에 풍어제를 해야되는데 이래 제주가 없아가 어떻게 하겠노 하고 동네 여러 사람들이 다 이래 저 회의르 하면은 선주네들 다 모이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인자 뭐를 어떻게 하는 그를 듣고

인자 이렇게 해가 마을 발언권 있느이 학리 사람 한 마디 씩 이래하거든 그래 그 유
기출씨가 손을 들면서 저가 제주를 하겠다꼬 하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고마배가지고
[고마워서] 그래가 집을 새르 짓다 이래하는데 아이고 내가 봉투에 돈을 넣어 가지
고 그 해 가가 학리 저 인자 굿할 적에 가가 굿을 하면서 내가 나을 적에는 저 고맙
고 집지가 잘사라꼬 내가 머 부조라도 해야되겠다 하는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가 돈을 갖다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카 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다 놔났거든에 그
라제 마 풍어제를 몬하게 되었다입니까 또 몬하게 되었는데 인자 하계 되면은 그 분
이가 할겁니다 제주를 나가 쫓마에

면담자 1 : 아 짧은데도

구술자 1 : 신랑각시 신랑각시가 그 사람이 또 시글시글하고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가 고맙다
고 이래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자 머 부인회 회장 총무 뭐 구 이래가지고 점 다 또
누가 또 부인회 또 회장이 부회장이거나 또 제주를 맡아가 같이 이래 한다고 이래 인
자 약속이 다 되가 있으예 다 되가지고 인자 할 거라고 그래 케 했는데 마 이래

1-H 학리마을 굿의 변화양상

과거에 학리 별신굿은 아주 큰 행사였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굿 과정
도 많이 줄이고 준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앙촌에서 장군나무를 베어버리는 바람
에 현재는 포구나무에서 대를 잡아서 굿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

22. 세월에 따른 변화

구술자 1 : 그 하다가 보니까 그래 인자 그 내가 맡은 책임자가 옛날에는 인자 학리 인자 풍
어제를 하면은 큰 머리를 써예

면담자 1 : 예 아 예 머리를

구술자 1 : 머리르 갖다가 얹고 그 우에 또 옛날에는 큰머리가 그 진짜 큰머리가 쇠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가닥 세워갖고 이랬는데 큰머리 그게 없어져뿌렸으여

면담자 1 : 요즘은 그럼 큰 머리를 안하고

구술자 1 : 예 그게 큰 머리가 없어져뿌리고 인자 가슴을 답답해예 인제 그 족두리 안 있습니
까 족두리 족두리 그거를 인자 아주 큰거를 사가지고 족두리도 마 이래 큰 머리 저
저저 뭐 결혼하고 이래 갈적에 쓰지 암스사람이라도 절 못쓴다입니까 그래 그 족두
리 그거를 이쁜 거를 그 이래 인자 머리 저 얹었는데다가 그 우에 다가 그 큰머리꼬
인자 올라가 이래가지고 그 인자 남자분으는 장옷을 입고 무당으는 인자 인자 쾌자
이게 해가지고 살 묶으꼬 이래가지고 다 마자 와가지고 대 느르고 난 뒤에는 인자
굿에 들어가는 굿이가 뭐 딱 무굿 치는 기가 제일로 청굿이라예 그래가 저가 뭐 무
굿을 치고 이래케 했는데 지금은 마 후계자한테 또 미라주고 나는 머 나이가 이래
묶으 나놓으니 그래도 동네서 워낙 내가 묶은다가 되다가 보니까 그 한 몇십 년째
이래 그 인자 삼년만끔 삼년만끔 했다하므 몇 십년째 안합니까 이러니까 마 굿을 안
해도 왜 굿 안하 소리 안하고 머 무굿을 안쳐도 왜 책임자가 되가지가 안치고 이런
말도 안하고 그 워낙 내가 마이 했으니까 축원도 동네 축원도 마이하고 굿도 마이하
고 책임자가 되므는 내한테 돌아오는 굿이가 한 아홉 굿이가 다섯 석 이래 해예 내

한테 돌아오는 곳이 그라 마 그 나무지는 돈도 마이 버는 사람으는 또 그 저게 뭐꼬
곳을 한 석 덜 주고 몬 보는 사람으는 곳을 한 석을 더 주고 이래도 우리는 여게 안
면이가 있으니까 잘하나 몬하나 드갔다하면은 그 인자 본토백이고 곳도 잘하고 축원
도 잘하고 이라다가 보니까네 뭐 오는 사람도 동네사람도 마 무조건 와가지고 돈을
써에 그러는데 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처가 저때는 사람들이 개긴다고 경부 인자 우
리 친척들 마 그거 불라가지고 곳을 하면은 드가면 돈을 보고도 몬 별아 나와요

면담자 1 : 아 마을분들이 또 잘 모르는

구술자 1 : 돈을 몬 별아가 나오니까 내가 애가 애가 씨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마 이그 저
뭐 뭐이르 돈 뜯는 장면에 이케 해가지고 여게 가서 저게 가서 마 돈 있는 사람들이
치정을 해가지고 그래 그 가가지고 그 하면 그 동네 저 할머니들이가 아이고 으이고
마 등 무당에 니는 좀 가마 저 마 앉아 있거라 나가 와이리 설치가 우리 줄 채 돈을
뺏노 하면서로 장난을 치고는 그런 말도 이래 하거든요 인자 그래가 하고 그 인자
곳을 갖다가 인자 머 안곳으는 개양 인자 곳을 인자 그케 해도 백그석에는 인자 안
곳에 천왕곳에는 밥을 먹고 여 귀신 풀아주고 하는거는 안해도 백그석에는 옛날에는
곳당이 갔다가 이래 돌리고 했거든에 곳을 갖다가 요서르 채리놓고며는 배곳하는 거
는 여 여

면담자 1 : 반대 갖다

구술자 1 : 곳을 갖다가 제당을 바까버려요 그렇지 그래했는데 지금으는 그래하다가보니까 꽃
이가 꽃도 많고 음식도 마이 채리고 하이 시간이가 너무 오래 걸리는 그라요 그거를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네 지자리 채리놔놓이 그 자리 놔놓고 인자 안방 내 우 곳을
갖다 이래 서 가지고 이래 인자 석 수 따라 곳을 해라 그 동네서로 의논을 인자 말
은 책임자 하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가 그래하기로 했으예 죽성에도 그래
했고 대변에도 그래했고 또 뭐 공수 마 칠암이나 그

면담자 1 : 이천

구술자 1 : 이천의 이나 두구동이나 뭐 그 자리 채리 놓고 자래 하게 그래하니까 얼마나 좋아
요 그것도 세월이 흐르니까 노인들이가 어마어마하는 무서운 노인들 다 돌아가시고
안 노인 배끝 노인 다 돌아가시고 새로 나오는 사람들 책임자가 되다가 보니 그래
하면 안 좋겠나 인자 의논을 하든 그래 인자 자기네들도 마 시간이 마 곳하는 시간
에 그거 채린다고 몇 시간을 서 머가 대니까 그 사람을 자꾸 이래 마 이케 기구 하
는 사람은 있죠 마 그래하면 좋겠다 해가 그래됐으예 고 학리도 마 하다가 마 바꾸
이 ★ 그 옛날에 어른들 살아계실적에는요 그 뭐 뭐 말도 지만지만 밑에 사람들 어
른들한테 함부로 이래 못하고 그렸어요 그 어른들 다 돌아가고 없어예

면담자 1 : 옛날분들 진짜 무서

구술자 1 : 말 깨나 하는 사람들도 인자 그 은락을 별로 없고 구석 수는 머 인자 따 대가지고
있으니까 동네 또 한 편이 있고 우리도 한 편이 있고 머 그래가가지고 어디 가가지
고 멀 채린데 어디가 머시 음식이 든다 무슨 곳을 한다 어떻게 한다는 동네도 내는
뺏하고예 책임자도

23. 신앙촌과의 갈등으로 인한 변화

면담자 1 :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신앙촌에 거기 철조망 있기 전에 인제 그 전에는 이

렇게 마을 위에 올라가셔서 굿을 실제 하셨던 거

구술자 1 : 예 여 대를 끝 마치고

면담자 1 : 아 그러면 예

구술자 1 : 대 쓰고 우리는 뒤 따라 장구 채 지고

면담자 1 : 아 그 산위로

구술자 1 : 예 동네 어른들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뒤 따라 올라간다아입니까 그 뒤 따라 올라가 그가 구름 치고 그 인자 굿을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학리 사람들 다 그 돈 놓고 절을 하고 아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모시고 온다는 뜻 아입니까

면담자 1 : 아 신을 머

구술자 1 : 대를 가지고 모시고 온다 저 무다이가 굿을 해가지고 인자 그 처이 최유온 장군님요 최여 장군님여 마 저 굿당에 갑시다 마 아래 가지고 모시고 오는 택이 그가 할배한테도 가가 모시고 오고 그

면담자 1 : 할매당 가가지고

구술자 1 : 최여 그 장 그 가가지고 인자 그거 하는 바람에 철조망 철조문 문 딱 닫고 우리는 못 올라가고 인자 묻가고 아이고 그게 학리 그 아릅드리가 드는 저 저저 뭐꼬 그거를 갖다 그 왜 인자 그 고만됐나 하면은 동 누가 그래가 사람들이가 그 나무를 예 그 나무를 톱을 가지고 베었다 한 한 동가리 두 동가리 끊 끊어가지고 눅혔는데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가 걸어온다아입니까 그래 그그 인자 차 없는 사람으는 인자 볼 일 보고 그서르 인자 학리를 걸어오거든에 걸어오면 톱소리가 들린다아입니까 톱소리가 썩 하는 그거 기계 톱 안 있습니까 그 바람디같으면 톱 손을 가지고는 못 베거든에 그래가지고는 기계소리가 톱소리가 나니까 이 산에 무슨 톱소리가 나는가 싶아가지고 그분이가 살금살금 올라가봤으예 올라가 멀리서 보니까 남자 둘이가 막 저 소나무를 그 최 최유원 장군 이르 나무 아릅드리 이런 나무를 갖다가 톱질을 해가지고 그 질로 마 내려가지고 동네 들와지고 최유원 장군님한테 놔 놓고 빠 빨리 고소를 해라 지서다가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해라 경찰서에 가가 고소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사람 두 사람 잡아갔다아입니까 골무이 여 할배 장군인데 학리에서로 믿고 이래 제사 지내는 그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또 굿할 때 이래 올라가 모시고 오고 이러는 그 나무를 갖다가 베 베가지고 눅혀놔으니까 으예 저 그래 하리 종일 우리가 굿했으예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빌고 참 지극정성입니다 학리마을이예 쪼그마한 그기 있어도 날로 불라가주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마이 이렇게 해가지고 묻고 이래가 그리 이래 해가지고 마 이래합시다 하면은 그 의논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는 그 사람들 가주 가지도 못하고 그 산에다 그대로 눅혀 놓고 내 하리 종일 최유원 장군님한테 산신님한테 잘문했다고 빌고 굿하고 그래가지고 하리 굿하고 인자 느러와가 그 나무는 사리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산에 놓고 그래가 인자 대를 잡아다가 포구나무이한테다가 모시는기라 그래서 그그 철조망 문을 잠가버리고 아무도 머 동네 사람들 몬드가지고 게가 신앙촌에서로 딱 막아

면담자 1 : 그 나무 자른 사람들도 신앙촌 사람들이

구술자 1 : 예 신앙촌에서로 누가 시키가지고 그게 인자 학리 인자 마을이 일 년에 한 번씩 가가 제사 지내고 철조망 그 해났는데 문 열어 주라 전화해가 문열어 주라 하제가가 또 신앙촌으 하고 이 굿하는 하고 마 적 아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촌에서 마 딱 그해가지고 사람을 시키가지고 그 나무를

면담자 1 : 어떻게 나무를

구술자 1 : 비가지고

면담자 1 : 빌 생각을

구술자 1 : 아이고 그런 세월이 있었 그래가지고 굿해가지고 대 잡아가 그거를 해가지고 그 저저

면담자 1 : 포구나무

구술자 1 : 포구나무이한테 모셔가 그 한다아입니까

면담자 1 : 그 지금은 굿하실 때 최유온 장군님 나무는 포구나무에서 대를 잡아서 내려오시는 것넙까

구술자 1 : 고 인자 포구나무 고다가 인자 모시고 고 옆에 가면은 또 아즈막한 또 이래 그

면담자 1 : 큰 나무가

구술자 1 : 나무가 이래 있으예 그 나무에는 그 저저 박이완 장군 신하다 최유원 장군 밑에 박이원 인자 장군으는 그 장구 밑에 신하다 그래가지고 고 밑에 고게는 밥상을 놓고 굿을 하고 이래 그는 가가 술 한 잔 열고 포 놓고 이래 빌어가지고 그래 오늘 이래 굿을 합니다 이래 하고 이르 그래가 그가 모시고 내려온다 동네 그 뒤에 므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그 당산 할배 그 저기 뭐꼬 그게도 땅이가 그 동네 땅이 아니꼬예 할배당에도 누가 그 땅을 그 녀의 땅에다가 할배 그 집을 갖다가 지 났는데 그 땅을 갖다가 인자 팔면은 그 지금으는 머 어떻게 뭐 샀는지 이리 이 했는지 모르겠으예 그런 말이가 있드라고 그래가지고 할배도 허공 중천에 녀의 땅에다가 집을 그라고 옛날에 노인들이가요 가 마 그대로 살았는기라요 할배당에 집을 지 놓고 요만치 요게 해가 팔아라 해가지고 동네 땅을 딱 만들어놓고 가든도 안하고 하이고 머 할배당 집을 이래 지가지고 이래케 했는데 고는 예 땅이라꼬 주인이 마 달라 그리 말하겠나 하며 이런 뜻으로서 옛날에는

면담자 1 : 맞습니다

구술자 1 : 참 뭐 저 저 마카 그 어지고 선하고 으드막다아입니까

면담자 1 : 그냥 뭐 그냥 그래 그래

구술자 1 : 그런데 지금으는 땅을 샀는지 모르겠어

면담자 1 : 그 제당이 원래 옛날에도 거기 그 자리 었습니까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그 들어보니까 마을 분들 예기로 고 앞이 다 바다 지금은 다 이렇게 땅으로 매립 이 댔던데 다 그냥 바다

구술자 1 : 예 그 옛날에는 집이가 쪼그마 했는데 그거를 인자 세아두고 저 빌고 해가지고 새로 갖다가

면담자 1 : 지금 지어서 그렇게

구술자 1 : 지었으여 새로 지었으 그래도 나무가 아릅드 나무가 이렇게 마지 이케 다 보고

1-I 학리마을 사람들의 삶과 곳

학리 별신굿을 할 때 지원금으로 삼천 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열지 못했다. 최근에는 바다 사고가 거의 없어서 별신굿에서 조상굿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학리에도 과거 여러 일이 많았는데 특히 조상신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굿을 할 때 특히 신경을 썼다.

24. 지원금과 조상굿을 통해 본 굿의 의미 변화

면담자 1 : 고기 바로 위에 저희도 가보니까 바로 위에 큰 나무 두 그르가 그게 인자 장군님 나무 인자이래

구술자 1 : 그 당산할배 인자 보호하는 나무 아입니까

면담자 1 : 아 그래서 위에 두 개 다

구술자 1 : 그 옛날에 그 군자서에 그 소나무라고 그 인자 포구나무 있는 마을에는 그 할배를 인자 예 제당을 차려 의식을 든다 항상 소나무 있는 자리에 할배당을 모시고 하면 그 동네가 다 그래에 마을에 가보면

면담자 1 : 그면 예 어 그 예전에 하실 때부터 해가지고 학리에 그 저희가 듣기로는 뭐 큰 일은 아마 이케 그 이케 신들이 보호해서 그러 그러케 됐는지 몰라도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큰일이 없었다고 하드라고예 학리에는 다행히

구술자 1 : 그래해가지고 그 앞에 그 부라피 인제 내 되가 있는데도 석간으로 마 그라 저 인자 시멘바리 해가지고

면담자 1 : 지금

구술자 1 :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세월이 좋아가지고 잘 해놔습니까 잘해놓고 이랬는 그 령는 그거 있는데 이번에 마 코로나 바람에 인자 고 금년에 하든 이천 년도에 몬했 조 이천일 년도에 몬했조 매 시절도 뭐 어떻게 될랑가

면담자 1 : 내년에는 정월에 꼭 해야 될건데 이래되서 이 년이나 걸려서 내년에는 꼭 하면은 좋을 건데

구술자 1 : 이렇게 이 인자 코로나가 끝나야 인자 군에서 지원금이가 나오니까네 군에서 지원금이가 안나오면은 못하는데 그 군에서 지원금이 삼천 씩 해줘예

면담자 1 : 그럼 이제

구술자 1 : 첨에는 천만 원 했다가 나중에는 이천만 원 했다가 일주일로 하는 풍어제에 물가 값이가 너무 올라 가니까 도저히 이천만 원 가지고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천만 원 더 올라가 삼천만 원 지원을 해주니 동네서 인자 굿을 갖다가 물가가 마이 올라 가도 저 이래 거서로 지원한 돈이가 나오기 때문에 여 군에서로 몬하게 하든 몬해예

면담자 1 : 아 군에서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그럼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은 내년에 학리부터 시작을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하는

구술자 1 : 학리부터 해야돼 학리부터 하는데는 인자 그 보름이가 뭐고 그런 거 없이 마 군에 서로 마 굿을

면담자 1 : 할 수 있을 때

구술자 1 : 마 하라고 마 인증됐다 느르면 하는기라 뭐 뭐 보름 찾고 뭐 찾고 뭐 이래 해가 하 그랬는데 학리 몬하는 바람에 칠암에 금년에 할거로 또

면담자 1 : 못하고

구술자 1 : 모 몬하고 덮아져가지고 있지요 내도 뭐 어예 되는 거르 몰라 모르겠어요 그 또 우리도 마 이래 풍어제를 마 그 인자 이래케 해가지고 그 마 생활 보전을 해가지고 살고 이라는데 그 뭐

면담자 1 : 이 년이나

구술자 1 : 그 옛날에 하던 조상굿이가 없어졌다아입니다

면담자 1 : 그거는

구술자 1 : 돌아가스 물에가 죽은 사람들로는 향사 혼백을 견져가지고는 인자 굿을 인자 마하고 이라지마는 요즘은 마 세월이가 좋으니까 물에 저 뭐 가가 죽는 사람도 별반 없고 사고도 안나고 이러니까 즈 조상굿에도 없어졌어요

면담자 1 : 그럼 마을에서 하지말자고

구술자 1 : 예 마을에서 천막을 쳐 놓고 마 이래 참 조상굿도 가 하고 학리마을에서 하고 또 그 이천 마을에서도 이래 했고 죽성 두호동 머 대변 칠암할것도 없이 조상굿을 갖다가 저 이래 풍어제는 옛날에 오 년만끔 삼 년만끔 돌아오고 이랬지만 집집마다 이래 인자 사고가 안 나도 집에 조상님네가 남았는 조상님네 돌아가시고 나면 야들은 내가 죽거들라 굿해주가 이래하면 그래 저가 무녀들 들어다가 날 갖다가 굿을 막 삼일을 했거든에 삼일을 했으니까 그래 인자 굿을 해 주고 또 약 묵고 죽든지 물에가 죽든지 마 이래 교통사고 나 죽든지 이래하든 그 조상굿으 절에 안가고에 마을에서 굿을 다 온 마을에서 굿을 마이 했으예 근데 지금은 마 죽으면 마 톡하면 마 절에 가가 제 올리뿌리고 그래가 하다보니까 뭐 또 안되면은 마을에서로 또 마 삼 일로 이틀로 그러 굿을 하는기 귀찮으니까 저 굿당에 가가지고 뭐 이래 점받치고 드고 잠시 머 톡톡톡톡 해가지고 해가 치아뿌고 이라다 보니까 인자 우리가 인자 굿이가 마이 없어졌는데요 그 인자 조상 굿을 조상굿을 그거를 해도 그 굿이가 동네 그 조상 굿 빌아가지고 돈 넣고 가고 조상님도 마 이래 가 하고 뭐 또 또 조상님굿 그거는 또 집에 하는 곳에는 또 저 해질녁에 해거름에 골무이 할배이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머 조상굿 한 석 하고는 그냥 눕아 자요 눕아 자고 그 이튿날에 인자 오귀대왕 풀이 배리데기 풀이 그거를 어 바리공주 그 굿을 갖다가 앉아지고 동당동당 장구치고 그래가지고 그래 집에 인자 마당에 마당이 있으든 마당에다가 명석 깔고 꽃 한 배이 놓고 음식 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 저 서리굿이라 서리뵈고 오리 뵈고 집안 도량을 다 뵈아가 인자 마지막으로 떠난다는 이런 굿을 해가지고 그 래 나와가 마칠때까지 굿당에서

면담자 1 : 옛날에는 진짜 굿이 많았던

구술자 1 : 예 경상북도 굿하고 요기도 굿하고 경상북도는 아침에 굿해가지고 밤 새도록 해가 그래 이튿날 어 아침에 한 머 열 시쯤 이래되면은 마쳤고 고 그 굿하고 여 굿하고 여는 염불로 마이해야 되고 경상북도는 무당네들이 염불로 안해에 남자가 분들이가 인자 서가 이래 인자 마칠 때 인자 맞이굿 해가지고 예 영산맛이 해가 마카 그 또금 마다 가가이 영무이라고 오귀굿을 해도 경상북도 그 부산굿하고 틀리고 별신을 해도 경상북도 하고 여 무구대하고 굿이가 여만 머 이십사석에 그 하면은 구 석수가 오만 굿이가 다 있는데 오만 때만 굿이가 마 다 있고 하니까 경상북도는 딱 열두 석이라 요 열두 석을 해도 삼일로 하고 부산에는 일주일하고

25. 학리마을에서의 굿에 대한 회상 : 산바람

면담자 1 : 그러면 하나들 들어보 여이 그 혹시 학리에서 굿하셨으 이때까지 해오시면서 혹시 머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 이래 이 아까전에 말씀하셨듯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굿을 모시지 않습니까 굿이라고 할 때 뭐 그런 일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면은

구술자 1 : 기억 나는 곳이사 많지요 곳아 기억나는 곳에는 사람이 인자 물에 가가 물에 가 옛날에는 콩치바리 칼치바리 마이 했다입니까 칼치팔이 콩치바리 이래 뚝뚝배가 되다가 보니까 그 나와가지고 마 돌이도 죽고 마 서이도 죽고 마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채려놓고 고 혼백 불러다 바닷가에서 천막을 쳐 놓고 고서로 마가 하면 동네분들이 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마 곳을 해가지고 그 인자 그래가 곳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오귀곳을 안하고요 고서로 곳을 다했버려 그래가 하고 또 집안 집안에 머 묘를 팠다하든지 그래가 산날이가 났다꼬 산바람이 묘를 파가지고에 요새는 인자 그런 그거를 몬 배어갔구고 안 궤양 모르니까 모르지만 에 이 이 바람 저 바람 델 무섭다해도 산바람이 최고 무서워에 요번에 우리 그 친정 엄마 그 서른 아홉에 돌아가슨 묘를 써 가지고 묘를 화장을 해가지고 그 인자 사리고 그 뒤에 굿당에 가가지고 하루 곳을 했으예 하리 곳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염불을 해가지고 내 보냈거든에 때가 보냈는데 내가 또 곳을 갖다가 또 했버렸다입니까 경북에서 곳을 했부렸다입니까 그래 해주고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조상님네를 다 모다 가지고 내 살다가 주 죽고 나면 이 조상을 갖다가 어데다 누가 그 하겠노 그 옷대옷대 사대 지내는 조상은 점 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곳을 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따 때하 어르고 지금은 인자 그래 떼야 버리고 인자 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시같으면 그래 마 근데 학리에 서로 산에 그 묘를 갖다가 건드렸어에 묘를 묘를 갖다가 마 그냥 마 화장해가지고 이래케 하다가 보니 집안에 마 다 풍파가 났는기라요 집안에 집안에 마 여기다 마 아파가 늙아가 드라 늙고 마 바다에 가가지고 또 망하고 그거 그해 그거 저 사고는 안나도 기계가 고장이가 난다하던지 집안이 참 최자이가 나는기라 자꾸 마 고 안좋은 일이가 자꾸 생기는 기라요 그래가 어데가 우리한테는 안 묻고 저 그 침하는 사람들 한테 가가지고 저 물으니까네 당신에 묘를 갖다가 그 파 파가지고 사나 산바람이 났다

면담자 1 : 그게 산바람

구술자 1 : 산바람을 막아야 한다 그래가 우리가 가가지고 곳을 삼 일로 그 곳을 하고 곳을 하고나가지고 그 집 며느리가 대를 자 잡았으예 신방지를 오구자리가 곳에 가가 신방지를 이래 만들어가가 인자 망자 집이라 해가지고 그 신방지를 금받치고 대를 잡는기라요 고 학리 대 대를 잡는게 아니고 신방디 그거를 가지고 망자 집이라 해가 그기를 잡고 내려가지고는 그랬는 저 그래가 대가 와가지고 아이고 대가 와가지고 마 으 막 그 신방지를 가지고요 마 아들도 들고 패고 머 아들 둘이서 으예 너이 머 울산에서 어디서 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제사를 열 시에 대가지고 아이고 내일이 회사에 간다 고 빨리 빨리 제사 지내고 가자 그 말까지 다하는 기라요 조상이 실리가지고 며느리한테 실리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거 열 시 대가지고 그 열한 시 반이가 자시라에 시간이 그하면은

면담자 1 : 예 옛날 시간

구술자 1 : 그 저저 열한 시 반이가 해시라요 해시고 자시고 그래이까 하면 제사를 갖다가 열한 시 안에 제사를 모시야 그 조사이가 와가지고 잡수꼬 가고 열두 시 되면 자시라고 전날이가 대가 옛날에는 와요 자시에 열두시 대가지고 꼭 제사를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구술자 1 : 모시고 안그랬습니까 지금은 시간을 딱 보면은 열 시 반이가 해시고 열한시가 그 자시라에 열한 시반 해시가 여여 월력 책에 이래 보면 그 그기 다 나와져 시간이 나

와가지고 있어에 그래가 대를 잡으면서 야 이놈들아 열 시 대가지고 제사 회사에 간다 어데 간다 해가 빨리 제사 지내고 가야된다 이래하고 그래가 느그 제사 지내다 맛있는거 너저 즈 너저 다먹아뿌리고 오면은 제사밥묵으려 오면은 판 그다가 다 제쳐 빠리가 암 것도 없는 뭐를 먹고 가겠노 야 이 썩을 조동이는 들아 그래가지고 여 마 구석구석에 대기마 아들내들을 마 막 두들 패는기라요 열매나 게가 씨게 두드렸는지 잘문했다고 업드려가 빌고 아유 마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잘못했습니다 빌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제사는 열 시에 지내면은 조상이 안 먹고 간다 절대로 열한 시쯤 대가 제사를 갖다 느그 지내고 이라면은 그래도 열한 시반 되면 그때 조상이 와가 먹고 그래 가도 느그는 살아있으이 먹고 자고 회사에 가고 어데 가고 살고 있잖아 주는 구신이는 제사 지내는다 해가 와도 먹을 거 없으이 뭐 못 묵고 가는데 그 한 집에 그기 느끼는 기가 있으에 학리에 그래가 그 그집에 그 인자 그 시어머무이가 아파가 누웠으에 그래가 굿을 했다 그래 산바람이 나가지고 그래 산 그거는 그 묘를 파게 될 같으면은 스님 모시다가 같이 이케 가지고 염불 해가 이래가지고 산을 파 파든지 그래가지고 이장덕은 없어도 화장덕은 있다하거든요 이장 덕으는 웬간해가지고는 이장 덕이 참 그 힘이 들아예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뭐이 염불을 하고 이래 잘가 하든 모를까 그 다음에는 마 그래 화장덕은 화장은 하므대로 손을 못대요 산에

면담자 1 : 저희 외가도 예전에 그런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할아버지

구술자 1 : 그라고 마 툭하면 조상굿하고 툭하면 조상굿하고 그래가지고 애길 놓다가 죽은 사제가 제일 무서워요 굿은

면담자 1 :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구술자 1 : 애기 낳다가 죽었는 거 그 제사가 제일 무섭다 안그랍니까 그래 인자 아기 놓다가 죽었는 굿을 하게 될 것으면은 바깥 채 사고 채에다가 까부는 채에다가 바가치 하나 사가지고 쌀 놓고 미역 넣고 속옷 넣고 그래 그기 제사 고거를 항상 따 제상 밧에다 채리나요 나아놓고 그래 굿을 한다아입니까

26. 학리마을에서의 굿에 대한 회상2 : 굿판의 풍경들

면담자 1 : 집집마다 옛날에는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아서 더 더 힘들었을 것 뭐 학리는 고런 혹시 뭐 또 다른 머 이렇게

구술자 1 : 크게 말씀하시이소

면담자 1 : 예 학리는 또 다른 뭐 또 기억에 남을 남으시는 일 남는 일이 있으신지

구술자 1 : 학리에는 뭐 우짜면 난 기억이 뭐 젊었을 적에는 마 그래가지고 나가는 임아들이고 있고 임마들이고 있고 그러고 또 내가 심청이굿을 했거든에 심청이굿을 하면은 저기 저기 해도 세 시간은 서가지고 해에 심청이굿을 심청이굿을 하게 되면은 그 내가 침에 배울적에도 그 그거를 배우는 서도 울고 심치이 굿만 하면 서가지고 그 저저 뭐꼬 그양 마 이래 마 굿을 해가 돈을 버는게 아니고 울 자리는 굿을 하면 울고 웃는 장면에는 웃기고 울리고 이래 굿을 갖다가 케 하고 마 이래 케 하니까 그래 마 디마디 머 슬프디여 머 마디마디 그 축원이라 하드만은 그 학리에서 굿을 배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래가 하면은 그 학리 동네는 인자 큰 딸이가 영선이가 되다 보니까 영선네야 영선네야 이렇게해가 그래 마 내 굿을 하라 나오다 이래하면 아유 영선어

마이 그 꿈보무당 굿하러 나왔다 이라면 그때는 머 그 전화도 없으니까 머 아들로 심부름 다 시키가지고 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구경꾼들도 많았으예 아으 머 구경하러 오는 사람 뭐 또 동네사람들 그 옛날에는 머 테레비도 없다가 보니까 이 인자 이 곳을 하면은 구경바꾸 할기가 없다 이래가지고 여러 할무이들 그거 해가 마 시주돈 머 하고 동네서 나오면 또 마 채아기 글로 인자 이래 서가 요래 쪽 내려오면 많다가 가지고 이장 도장 딱 찍고 이름 딱 써가가 뭐 만 위이면 만 원 나오고 천 원 천 원 이래가 그거 인자 뒷돈 이케가 해가 쌓아 놓고 그래 합니다

면담자 1 : 제가 한 번 사진을 한 번 찾아봤는데 선생님 예전에 하셨던 굿하셨던 진짜 대단 사람들이 이렇게 늙는데 짝 차가지고 다 보고 계시드라고요 선생님 진짜 여기저기 이마을 저마을 하는데 전부다 모여가지고 굿을 본 거 같아서 그래서 아마

구술자 1 : 그리고 또 학리동네에 저 옛날에 돌아가신 어른들 할머니들 참 이 당산 할배 할매 이한테 지극정성을 대리고 요양 용국전에 그 요양 맥이러 가면은 그 해가 밥 해가지고 그래가 종이에 싸가 다 건지고 그서로 다 그 뭐 또 다 죽은 귀신들 뭐 이래느 가느 귀신들 다 이래 그래가지고 밥 나물 고기 가지가는 거 다 바다에 던지고 머 그래 케해가 조 지극 정성으로 그래요 하튼 머 머리 아프나 아이가 아프나 뭐 쪼그만 그거를 그 해도 나를 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빌고 그렇게 해서 머 정성이 대단하다고 저

면담자 1 : 그 그래서 저 학리가 좀 아픈 분들이나 사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나무 빈 사람요 나중에는 마 감옥서에 보낸다꼬 동네서 구해가지고서는 이 할배나무를 뺐으니까 감옥서이 간다해가지고 그 사람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어예 식겁해갔고

면담자 1 : 그 큰 나무를 그렇게 해가지고

구술자 1 : 애가 그런 세월도 있었고

27. 변화에 따른 아쉬움

구술자 1 : 아유 지금은 사람이 없어예 굿을 하면 할무이들 다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지금은 인자 뭐 안노인들도 점 다 장사하고 쪼그마한 그거를 가지고라도 시장에 가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찔라고 뭐 시장에 가 가지고 장사하고 머 어찌 나이 많아가 몬나오고 다 돌아가시고 이라다 보이까네 첫 째 뭐 굿을 하든 사람이 없어예 그게 아쉬워

면담자 1 : 계속 지켜져야 할건데 굿이 계속 지켜져서 계속 이어지면은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 후계자들이 계속 배우고 있잖습니까 후계자 머 저 다른 선생님들 계속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술자 1 : 예 그래 와가지고 굿판 와가지고 막 물어 쉬는 시간에 그 다 뭐 열두면 열두면 다 굿을 하는게 아이고 그 노는 시간에 그케 해가 있으면은 그 선생님들 오시가지고서는 또 이래 묻고 또 아는 데 아는 데 까지는 말씀을 해 드리고 머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그 내가 알기는 수십 명 왔는거 같애예

면담자 1 : 안그래도 아까 그 전주 엠비씨에서 선생님 예전에 몇 년전에 하셨던 걸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 봤는데 그때도 인제 중간중간에 인터뷰 하시면서 이렇게 굿을 하시드라고요 그것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요새 계속 쪼금 쪼금 선생님 예전에 하셨던 인터넷에 올라왔있는걸 자꾸 보고 있습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술자 1 : 저 젊은 소시절에는 이십 대 삼십 대 까지 이십 대 되가지고는 굿의 의미도 잘 모르고 이랬는데 저가 이 굿을 배울라고 참 머 악착같이 이래 노는 시간도 없이 잘하는 사람이나 문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만 보는게 아이고 문하는 사람도 요케 해가지고 서가 들고 보고 아하 저 사람 굿에는 저래하구나 이 사람 굿이는 이래하구나 여 부산에 또 무당이들 마이 죽었으예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내가 그때 오니까예 열 일곱 살에 와 와 왔을 적에는 그분들이 마 오십 대 육십 대 마 이래 되니까 내 나이 요래 묵다가 보니까 부산에 무당네들이 실용자가 없으예 실용자가 없고 우리 인자 내 밑에 동생들 요 요 우리 사촌 월개 사촌 남동생도 잘한 남동생도 돌아가지 이기 친정집에도 다 돌아가시고 없으요

면담자 1 : 진짜 인제 얼마 안남으신

구술자 1 : 강릉 단오제 육촌 올케가 있고 육촌 동생이가 둘이가 이케 해가 있고 조카들이가 몇이가 거 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 경북에 우리 형님 시숙 마 고 다 이케 해가지고 우에 어른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가 인자 없고 내가 나이가 인자 무당이네 축에는 인자 강원도서부터 경북에 부산까지 울산서부터 울산에도 실용재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점받치라

1-J. 남은 이야기들

울산에서 고래 축제 풍어제도 과거 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무당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축원을 부탁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

28. 울산에서의 굿

구술자 1 : 저저저 울산에도 고래축제를 저가 삼십년 대가지고 그 동네 풍어제를 하다가 요양 굿을 하다가 안하다가 삼십년 대가지고 날 동네서로 부르더라고예 그래 가가지고 한 두 해를 이래 저 저 뭐꼬 울산 그 저 뭐꼬 고래

면담자 1 : 장승포에서

구술자 1 : 굿을 했거든에 이 점받치들이가예 막 때가리가 마 일어나가지고 와 타관 동네 부산 무당을 굿을 주느냐 지 시장이 나오고 군수가 나오고 누가 케가 케가지고 나와도 울산 우리 신자들도 그기가 있는데 모두 다 법에 다 올라져가지고 있는 거를 그 이름이 있고 성 있는 그런 신자들이 모두 회원들이가 여러 수천 명인데 당신이 나오면은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지 그 부산에 어 한 계단 떨어져 있는 부산 무당이가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겠냐고 표를 주느냐고 그래가 두 해를 하다가 못하고 그 저 울산에 요 점받치들이가 마카 다 모아가지고 회원들 모아가 하는 사람들 그래가 했뿌렸으예 내가 그랬다 아이구 그래도예 울산동네는 할배당에 이래 저저 간판이 이래케 해가 있는데 내 이름이 올라져가 있으예 그는 울산동네는 점받치들 바꾸 안해예 그래 저 일년에 삼년에 한번씩 그래가 그런데 작년에 못했으요

면담자 1 :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29. 무당으로서의 현재

구술자 1 : 그래가 하든 인제는 마 나이가 인제 마 그래가 먹다가 보니까 잘하고 몬하고 떠나서 내가 허리만 이래 안 굽으면은 허리 수술을 잘못해가 허리가 굽아가지고 이래가는데 이제 서가 무용을 하게 되면은 요게가 이래 똑바로 설라하면은 여게가 땡기 간복을 참 차고 있그드예 환복을 이래 차고 있어도예 허를 여 이래 재치면은 보기가 싫다 아닙니까 짜임새가 안난아입니까 이래가 내가 서가 굽을 인자 몬하니까 겨 부산에는 자유나자나이가 백만 원 나오데 이백만 원 나오든 십만원 나오든 자이가 끄런 돈은 자기가 하는데 경상북도에는 온 기마리 했는 돈을 나 놓고 나오는 돈을 한 데다 전대다가 다 열 가지고는 잘하는 사람이나 몬하는 사람이나 전대 열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딱 똑같이 갈라가 상중하가 있거드예 잘하는 욱받을 사람 많이 주고 욱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주고 이래가지고 인자 상중하가 있어 몫이가 돌아가니 그기 있으예 이래가 하고 이라이까네 내가 인자 가면은 인자 앓아가지고 인자 손님들을 인자 객지에서 와가 돈 놓고 절하고 이라면 소지를 올리 들어예 소지를 인제 올리주면은 아침 먹고 나가면은 마칠 때까지 그거 암도 안나가면 담배도 안푸고 술도 안먹고 밥만 이렇게 해가 먹다보니까 이거 의자에 갖다놓고 소주 올리가지고 내려주고 그래 그 지극이 정성으로 마 소주 올리는 것도 소주만 이래 올리는 그기 아이고 나이 열고 성 넣어가지고 그래가 머 하는 네 직업을 뭐하는 나 이케 가지고 이래

면담자 1 : 기도를

구술자 1 : 축원을 해줘여 술을 올리면서로 축원을 해가지고 빌아주고 그래가지고 다 아는 사람 인자 이래 오든 아유 아지매 요 오래간만입니다 요거 인제 이래가지고 돈도 오만 원 짜리 또도 해가지고 이름 저 고거를 열다가 깽겨 주고 가는 사람들 두 손에 이래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애에 워낙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해가

면담자 1 : 계속 보셨던

구술자 1 : 부산서부터 이래가 울산 경북으로 가면 방으른 없으 모르는 사람 없으요 아 마 삼십 대 이라는 애들으는 아주 쪼만할 적에 봤으면 모를까 그 다음에는 뭐 오십 대 부터 사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에는

면담자 1 : 다 친했고

구술자 1 : 저 모르는 사람이 없으예

면담자 1 : 저 이제 굳이 이렇게 해속

구술자 1 : 거 또 뭐 이래해가지고 차 타고 옛날로 버스 타고 다닐때 버스를 타고다니몬 아이고 영 무당이 굿하러 어디어디 굿하러 가노 이라면 어떤 사람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저는 그거를 싫다 소리를 안하고 아이고 어느 마을에 굿하러 감다 구경하러 오 시구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 뭐 무다이라고 부끄럽다 무사시럽다 이런거는 손톱만큼 도 없으요 옛날 같으 다시 죽었다깨나도 무당을 태어나고 싶다는 말로 했어요 제가 서울서로 방송국에 라디오 방송국에 오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주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죽었다가 당신이 태어나몬 뭐를 하고 접느냐고 묻드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무다이 되가 싶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가 진짜 그라 놀래드라고요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대단하신거 같습니다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대단하신거같습니다

구술자 1 : 예 그리고 마 무당이 어디로 가면 이렇게 길가가 같다가 아이고 이 무당아 말이

할무이들이 수이 말이 나오는 말이 수이 솥다입니까 아이고 요 내가 머 성을 아는교 이름을 아는교 아이고 이 무당아 니 어디 또 어딜 갔다오노 이래가 하면은 아이고 예 어디 볼일 보고 옵니더 그래가지고 요케 어때 건강하시쥬 요 요즘으는 건강하시쥬 이랬지 옛날에는 몸이 몸이나 뽕습니까 말 한마디 해주고 뭐 어디 굿이가 언제 언제 너거 또 굿하노 구경하러 되는 언제 어느 시에 어느 어느 달 매칠날 굿하는데 그 구경하러 오시소 아이고 그래 고맙데이 요 하고 이래 가 이래가고 뭐 내가 뭐 옛날에는 무다이 산능이다 돼지가 산능이다 이랬지만 요즘에는 문화재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가 이래오면 아이고 문화재 아지매 오십니까 인제 이렇게 말들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인자 아버지한테 받은 거는 머 제물이고 도이고 받은거는 없고 문화재 이거를 갖다가 남겨주고 가니까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처음 아버지 문화재 받아온 동네 풍어제 하러 땡기면서로 내가 마이크 대놓고 우리 아버지 문화재 받았다고 박수를 쳐주소 하고 열매나 선전을 마이 했는지 말도 못해에 그라고 그는 머 아버지한테나 십남매서로 저가 맞이 아이 아입니까 우리 엄마가 딸을 서이 넣고 아버지가 또 아들하고 저거 엄마가 아들 딸 또 마이 놓고 그래 십남매 중에 내 인자 맞이가 인자 이래 되가지고 그라고 또 어디 인제 이래 머 무당이라꼬 말을 해도 와 날 무당이라꼬 부르노 이래 그런 싫어하는 저기 없고 항상 마 무당이 무당으로 팔자가 뭐 또 해가지고 무장을 무당이케 해가지고 무당을 아무나 하나 점받치는 점을 해먹고 무당은 굿을 해먹고 칠 스님을 염불로 하고 그래 살아왔다아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상굿도 없아지고 이런 저 일 년에 한번씩 풍어제 고불 별자 귀신 귀자 별신 굿이 오귀 신자 아부 승 그르케 쓴다 대 별신 그래 저 별신굿인데 젊으 사람들 별신굿을 머 하이 모른다입니까

면담자 1 : 맞습니다

구술자 1 : 그래가 풍어제라꼬 풍어제라하니까 마 농사일도 풍어제 어업 일도 풍어제 마 굿을 해가지가 풍어 풍어가 되가 잘먹고 잘사라꼬 이래 풍어제라꼬 요 원래 같으며 그래가 지금도 저게 저 문화재청에는 별신굿이라고 여전히 남아있으예.

면담자 1 : 별신굿이라는 말이 원래는

구술자 1 : 그래가 마 남들은 마 지금 머 죽아도 내가 왜이래 죽는가 지금 이래 살고 있는거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에 아버지는 팔십 너이에 살다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옛날에 웃대 할머니가 구십 다섯 살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오십대 다 돌아가시고 오십대 오십대 육십대 이래 되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래케 따문에 내가 마침 마 팔십까지 이래 살고 있단 거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이래 사는

면담자 1 : 그 더 건강하게 계셔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요게 후배들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구술자 1 : 그래 내 그 제자들한테 그래 느그 잘 배워놓아라 굿당에 오면은 노는 시간은 놔 놓고 방안에 드가가지고 쉬지 말고 굿당에 나와가지고 계가

면담자 1 : 배우러

구술자 1 : 어 굿을 사설로 이 무당은 이래 한다 저 무다이 저래 한다 저 무당 사설이 좋다 좋은 사설이는 머리에다 염두를 두고 머 못하는거는 치아뿌리고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우리가 머리가 콤퓨타나 한가지라예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머 콤퓨타를 할 줄 압니까 뭐 암것도 할 줄을 몰라도 거 뭐 속에 든 문서는 머리에 다 염두 있어야 하지 할지 못하면 못해에 굿당에 들어서면은 쾌자를 입고 부채 딱 들고 굿당에 딱 서면 이 사설이 그 카 카살 맞차가 장단 맞차가 그래 마

면담자 1 : 컴퓨터 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거 같 중요한 거 같습

구술자 1 : 그도 이것도 마 곳도 무당네들 무다이라꼬 다 잘하는게 아이고 못하는 사람이 많
았으예 잘하느 사람도 적고

면담자 1 : 인터뷰를 요기서 일단 오늘 그러면은 정리를 해놓고 예 말씀해주셔가지고 감사합
니다 예 오늘 또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담에 한 번
정리 요 인터뷰 한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보여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2. 권중태



- 1955년 학리마을 출생.
- 현 학리마을 어촌계장
- 과거 어선 보유, 선장, 어업활동
- 직장 노동운동에서 이어져 환경운동가로 활동. 현재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서예·서각·전각 작가 활동도 병행 중.

목 차

개 요

상세목록

2-A 자기 소개 및 성장기의 학리마을

1. 자기 소개
2. 어린 시절 학리마을
3.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생활
4. 1970년대 신안촌 이주

2-B 성년기 이후의 삶

5. 1970년대 어업활동과 가족 부양
6. 1980년대 어업과 가족 부양
7. 그동안의 삶에 대한 기억들

2-C 학리마을 이야기와 어촌계장의 삶

8. 학리마을 별신굿
9. 학리마을 바다 양식
10. 마을 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변화
11. 신안촌과 학리마을의 소송과 향후 관계

□ 개 요

- 구 술 자 : 권중태
- 면 담 자1: 김민화
- 면 담 자2: 권진오

- 면 담 자3: 오현석
- 면담주제 : 학리마을의 역사, 생애사
- 면담일자 : 2021년 7월 29일 (목) 11시 20분
- 면담장소 : 학리마을 어촌계 사무실 앞 선착장
- 면담차수 : 1차

면담은 학리마을 어촌계 사무실 앞 선착장에서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11시 20분부터 13시 36분까지 2시간 16분가량 진행되었다. 권중태는 1955년 1월 23일 학리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조부와 조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부친은 학리에서 돛풍선(돛을 달아 바람으로 이동하는 목선)으로 어로 활동을 하였다. 권중태는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역시 어릴 때부터 부친을 도와 어업활동을 하다가 21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격적으로 어업활동에 나섰다. 1970~1980년대에는 봉장어를 주로 잡아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고 1990년대는 오징어를 주로 했다. 2000년대 어촌계장을 하면서 일광에서 연결되는 마을진입도로 개설 문제로 신양촌과 소송을 주도하여 승소하였다.

□ 상세목록

2-A 자기 소개 및 성장기의 학리마을

권중태는 1955년 학리에서 출생했다. 초등학교 다니던 1960년대 후반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뱃일을 익혔다. 당시는 목선을 타고 어업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 일광초등학교와 장안중학교를 다녔고 21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장남으로 가장이 되었다. 이후 동생들과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어업활동을 하였다. 1970년대 신양촌이 들어오면서 마을은 고립되었다.

1. 자기 소개

면담자 1 : 어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사업 구술 녹취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사업으로 학리마을 어촌계장님이신 권중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 구술자이신 권중태 선생님의 첫 번째 구술녹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칠 월 이십구 일 목요일이고 시간은 현재 오전 열한 시입니다 장소는 학리 어촌계 앞입니다. 면담자는 김민화, 오현석, 권진오입니다 네 어 권중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 먼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여쭙볼거는 어 계장님께서 일단 생 어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구술자 1 : 어 그 천구백오십오 년도 일 월 이십삼 일 그 학리마을에서

면담자 1 : 예. 학리마을에서 태어나 오십 년대 그럼 중반에 학리마을에서 인제 태어나셨 계속 여기서 쭉 살아오신

구술자 1 : 어 계속 여기서 내가 육 대째 여기서
면담자 1 : 아 학리마을이 제가 듣기론 전에 그 이렇게 몇몇 성씨들이 모여서 인제 씨족이 마을을 형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구술자 1 : 맨 처음에 황씨 구씨 유씨 그 다음에 우리 인제 권씨
면담자 1 : 권씨
구술자 1 : 이래 이래가 ★ 매국 매국 짜리가? 저 해가지고
면담자 1 : 그럼 육대 짜부터 계속 여기서 그냥
구술자 1 : 어어어어
면담자 1 : 뿌리를 두고 그럼 그 전에 인제 어르 어른신들께서는 보통 어업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일들을 하신
구술자 1 : 그 당시 우리 부친은 어업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찍 돌아와가 나 놓으니까네 그건 내가 잘모르고 그 주로 어업이지 어업

2. 어린 시절 학리마을

면담자 1 : 아 그 그때 어린 시절에 학리마을에 인제 어린시절부터 계셨는데 어릴 때 학리마을은 어땠습니까 모습이 지금하고 마이 달랐습니까
구술자 1 : 우리 여여 여기는 지금 매립 매립한 거고 그 우리 집 있는데까지 인제 여여 물이 들면 우리 어릴 때는 저 옛날에 여기 큰집이라는데 내가 샀는데 이천육 년도에 내가 샀는 뭐 여 매립이 팔십팔년도인가 이래 매립이 요까지 들어왔는데 요거를 이래 돌아 여 다 바다라 바다 여기가
면담자 1 : 아 그럼 뭐 요 앞에 다 갯바위였고 그냥 요게 주라 그런
구술자 1 : 어어어어 그래 갯바위 여여여여여 큰 바위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 이 인제 매립을 해니까 이렇게 됐는데
면담자 1 : 그러면은 지금 요쪽으로 해가지고 마을 저 안쪽까지 그럼 물이 다 들어갔었던 겁니까
구술자 1 : 그 저저저 정 이 전체가 바다라 바다 여 여기는 매립해나 놔 놓으니까네 인제 배배가 인제 못 들어가서 매립하고 이래 나 놓으니까네
면담자 1 : 그럼 어릴 때 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술자 1 : 그 여여 그렇지 어릴 때 여서 그 우리 이 여 여 앞에 여 모래가 조금 있어서 모래가 그 크큰 바위가 요 원 큰 바위가 몇 군데 있었어 그그그 그서 인자 그 우리 우에 한 조금 한 십년 내가 십 년 그 앞에 그래가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 마침 요 저 밭에 ★
면담자 1 : 그때는 물고기가 그래도 낚시로 많이 잡혔던
구술자 1 : 그 그때는 많았지 그 당시 뭐 한 육십 년대 칠십 년대 보리고개 때 그때는 그래 마이 했고
면담자 1 :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까 그 계장님 어린 시절 이때 뭐
구술자 1 : 어린 ★
면담자 1 :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구술자 1 : ★ 모리고 우리는 그때 르까프는 내가 구십 천구백구십구 년도에 내가 인구조사를 하니까 구백구십칠 명이 이제 ★

면담자 1 : 아 학리마을 자체만

구술자 1 : 어어

면담자 1 : 거의 천 명 가까이 되는

구술자 1 : 어

면담자 1 : 지금

구술자 1 : 지금은 내가 조사를 안해갔고

면담자 1 : 그럼 대략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

구술자 1 :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할 꺼거든 우리 저 어선업이 많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 많이 들어오고 거의 지금은 저저 팬션 같은 거 저게 외부 외부에서 저 들어와 짓고 이래 뭐뭐 지금 지금은 확실히 잘 몰라 마이 나가고 마이 들어오고 이라니까 ★

면담자 1 : 어릴때는 지금 그러믄 계장님 여기 저 아 중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구술자 1 : 어 그럼 잠깐만[중단요청, 주변 환경 정비하러 온 사람들과 대화]

3.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생활

면담자 1 : 환경미화까지 다 관리하시는겁니까 어촌

구술자 1 : 어촌계장이라고

면담자 1 : 진짜 일이 많으십니다

구술자 1 : 저 인자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그 돈을 들여가 학리 사람들이 다 여서 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람에 그냥 여여 장사도 코로나 바람 내가 중단시키놨다고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 두 사람 작년까지 마 해갔고 두 사람 ★ 작년에 열한 명 지금은 군청에 청소하는 사람 여서 육 명 일주일에 한 번씩 오

면담자 1 : 계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쓰고 있어서

구술자 1 : 마스크 마스크 안끼고

면담자 1 : 아까 그럼 얘기를 이어서 그럼 계장님 여기 매립하기 전에 배들은 어떻게 들어왔었습니까 이쪽에는 배가 안들어 왔습니까

구술자 1 : 이쪽에는 배 못 못들어왔지 이쪽에는 배 못들어오고 그 그 당시 인제 97년도 아버지 살았을 때 인제 우리 여 기기 기에 저 뒤에 ★ 제일 먼저 했거든 육십칠년도 내가 초등학교 인제 육 학년이제

면담자 1 : 육십칠 년도 우와 예

구술자 1 : 육십칠년 칠 월 저 ★

면담자 1 : 아 저쪽이 원래

구술자 1 : 어 저저저 항구

면담자 1 : 항구였습니까

구술자 1 : 저저저저 파란 슬레이트에 고고고고 앞집에 거서 내가 살았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육십칠년 내 초등학교 육 학년일때 고기도 좀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면담자 1 : 그때는 그러면 배 가지신 분들이 돈을 마이 벌었던 그렇게

구술자 1 : 아이 돈 뭐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 당시는 저 전자제품이 없고 주로 인자 산을 보고 양쪽에 산을 보고 저저저 우리 일광산 저거 일광산 위에 보면 저게 일

광산이거든

면담자 1 : 아아 그 높은산

구술자 1 : 어 높은산 저기 다름산[달음산]이고 여기 일광산 여기 보면 약간 저저 이쪽에 약간 보면 흰 돌같이 있제

면담자 1 : 네네 중턱에

구술자 1 : 어 그래 여 야간 흰돌 흰돌 저게 인자 그 당시에는 멀리까지 보였어 저 돌이 확 이리 되가지고 지금은 인자 나무를 안하니까 땀감을 안하니까 지금 우거져가 다 저리 됐는데 저게 보통 멀리까지 보이면 몇 마일 바다 몇 마일까지 마카 한 이십 마일까지 나가도 날 좋은 날은 환히 보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이자 저 동해 쪽 경대 쪽에 동백섬 이리 보고 이자 그 당시 지금 같으면 그 당시 지금 같으면 인자 저기 지피에스 지피에스 이쪽 편에 마 이래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여 배가 인자 어데 위치가 있다 요 삼아 요 거리가 요 해운대 동백섬 얼마가 나오지도 않는데 저게 요 요래하고 이게 이★ 기상대다 기상대 돌이니까 하야니까

면담자 1 : 예 흰산 아

구술자 1 : 그래가 이자 요래가 여 배가 어느 어느 ★에 있다 여기 요 이래이래 옛날에는 그래 지금은 지피에스가 있으니까네 저저 전부 다 그래

면담자 1 : 그럼 저거랑 그 동백섬 보고 인제

구술자 1 : 보고 배가 배가 인자 어느 위치에 있다 여 그 당시는 뭐 뭐 무전 무전기도 없고

면담자 1 : 그때는 그러면 목선으로 그냥 쪼그만한

구술자 1 : 목선 목선 목선 우리가 그 당시 아버지가 배할 때 내 초등학교 한 3.5톤 이랬어 디젤 디젤 엔진 처음 처음인자 있어가지고 인제 이래★

면담자 1 : 그럼 인제 엔진 나오기 전엔 노 저어서 다니셨

구술자 1 : 그렁 돛단배 돛단배

면담자 1 : 아 돛 돛 달아

구술자 1 : 돛돛돛

면담자 1 : 그러면 그 돛단배 가지고도 고기를 잡으러 멀리까지 나가신 요 앞에까지 나가신

구술자 1 : 그래 그렇게 나간 그렇게 했대 그렇게 했겠지 내가 초등학교 인제 방학하면 칼치 나쁜 인제 칼치나쁜 이 칼치 쓸개라고 있어 요랴 저저저 삼천 요 장터가가지고 이래 옆으로 그래 그래하듯이 인자 칼치도 인제 그런 식으로 그런식으로 해가 이래 싹 꺼가 쓸어 가면서 이자 배가 인자 전진으로 가면 칼치가 미끼인자 저거 보면 그 당시는 뭐 종이 종이 같은거 이런 이런 거 이래 달아가 저 이래 가면 인제 고긴 줄 알고 칼치가 무는기라

면담자 1 : 아 가짜 미끼를 그렇게 아

구술자 1 : 그래 내가 내 초등학교 때 함 한 두어 번 이렇게 따라가본 적이 있어 저녁에 그래 지금은 전부 다 뭐 불로 불로 가가지고 딱 잡고 이란다이가 아이 그 당시가 고생 마이 했지 저게 그그 고고 머머 태풍이 어디쯤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면담자 1 : 그때는 뭐 어린 시절에는 보통 시골에 라디오 같은거 잘 없었

구술자 1 : 라디오 같은 것도 없었지 우리 그때는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 스피카만 달아가지고 마 마을전체에서 일광 일광 일광 저 삼천에서 이 학리는 없었고 선을 뺏치가 스피카 이래 가지고 그것만 듣고 잇었지 그것만 듣고 있다가 우리 내 집이 요요요 요 에이 에이 에이동 저기 그때 마 구십 이천이 년도에 땅을 저가 사갔고 지었는데 그래 기와집인데 오십구 년도 사리호 태풍이 와갔고 이게 집이 전부 바다니까

돌이 인자 큰 기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빠지뿌가 집이 한 인자 십오 도 정도 이리 인자 에 기울어져가지고 사가지고 얼마 안되가지고 삼 년 만에 내 다시 지았 뻘는데 이이이 이건 전부 바다라 바다

면담자 1 : 그럼 진짜 태풍 불무는 집까지 들이칠 정도로

구술자 1 : 그래 집이 그 그 그 그

면담자 1 : 밑에가 그 다 파혀

구술자 1 : 밑에 밑에 그거 인자 돌이 있으니까 돌이 빠져뿌까 집이 한 그때 기와집이 되놔나 놓으니까 한 십오 도 정도 이래 기울 기울어져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면담자 1 : 위험

구술자 1 : 어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되겠다 위험해가 돈벌어가 저 사가 저저 지았 지았지 요 보든 뭐 다 고생 안한 사람 없지만은 나도 고생 마이 했어 내가 내 스물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 동생이 너이라 누나 돌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면담자 1 : 장남이신

구술자 1 : 장남 거 스물 한 살 때 인제 그때 집이 가난해가이고 방위병이로 빠졌지 그 당시 방위병으로 빠져가지고 그 근무하다가 아버지가 인자 고때 돌아갔어 그래가 생계 곤란자로 의가사 제대했지 가난하이 내가 아이든 다 굶어 죽어

면담자 1 : 동생들 다 먹여 살리

구술자 1 : 어 거 동생들 막내 동생이 지금은 그때 초등학교 육 학년이지 육 학년 이래가 결국 그 부산외대 그 나와가

면담자 1 : 아 그럼 대학까지 다 보내신

구술자 1 : 아아아아 그래 안 풀리대 그래 다 이이 이놈자식이 그래 나도 그때 가난해가 가난해

면담자 1 : 장남이신 것도 어쩔 수 없이

구술자 1 : 그 당시에는 내가 내가 클때는 그 부모 저 집이 땅이 열 평이라 집은 한 일곱 평 밖에 안됐어 아주 그 가난해 가난해 ★가 되가지고 언젠가는 땅 저 너른 데 사갔고 집 짓고 이래 제일 포부가 인제 아래 우채 짓고 사는거 이게 내 최고 치는

면담자 1 : 이 그래 다 이루셨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저 우에 저서 인자 중앙 중앙에 집 저기 중앙에 집을 샀다가 돈 벌이 가지고 저 뒤에 저 이 집 사이에 저가 저 땅을 저 사십세평을 샀어 저 저 저 선지해장국 바로 그그그 딱 사간기라 그 도로도 도로도 집으로 이케이케 딱 나고 그그 내가 돈이 그 없아가 부모 재산 하나 고 재산이래 이래 인자 빛만 늘었지 가난해 가난해가

면담자 1 : 혼자 다 이루신

구술자 1 : 그 지독하게 했지 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보통 하루에 한 번 작업 나가는데 나는 가난을 벗어날라꼬 하루에 두 번 씩 아침 저녁으로 그만큼 내가 지독하게 그래 그 동생들도 다 공부시켜 키운 자식이 내 밑에 여동생 둘이 남동생 둘이 우에 누나들은 이제 결혼했고 그 당시 아버지 있을 때 결혼했고 아버지

면담자 1 : 그럼 칠남매

구술자 1 : 칠남매 그 당시 보통 칠남매 뭐 팔남매

면담자 1 : 계장님 초등학교랑 다니실 때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구술자 1 : 학교는 걸어다녔지

면담자 1 : 일광초등학교

- 구술자 1 : 일광초등학교 저저 초등학교 함 봤는가 모르겠다 저저 화전에 일광면 화전에 그그
인자 폐쇄되고 요쪽으로 온다더만 그
- 면담자 1 : 그 신도시 옆에
- 구술자 1 : 신도시 신도시 그 그 쪽으로다 나 함번도 안 가봤으 안 가보고
- 면담자 1 : 아 그먼 화전까지 걸어다니실려머는
- 구술자 1 : 요요요요요 여기서 사기로대 사기로
- 면담자 1 : 한 어릴 때 걸음으로 거의 한 두 시간 가까이 안걸렸습니까
- 구술자 1 : 한 시간이 한 시간 더 걸리지 그그 여여 아침 밥 먹고 가른 걸어가른 그 가른 배
마 고프다니까
- 면담자 1 : 도시락 싸가지고
- 구술자 1 : 그 당시에 보릿고개다 보릿고개다 보니까 고생 마이 했지 그 당시 다 그랬지머
- 면담자 1 : 그럼 여기 학리에서 살던 그 학생들은 다 기상
- 구술자 1 : 그그 그래하고 이제 이제 우리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인제 내하고 저 그그 두 살
차이나가 여동생이 그는 인제 일광 삼천에 분교라고 분교 분교 만들었어 처음에
학리회관에서 회관에서 분교를 이리했는데 ★뿐이 이제 마을에서 돈 돈 보태가지
고 분교 지었다이가 요요 거 분교 있을 텐데 거기서 거기 그기 또 저 그기 그 개
인이 샀다드라고 인제는 마 팔리뿌다데다 인천에서
- 면담자 1 : 요기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동생분들은 거기 인제 분교
- 구술자 1 : 그그 인자 일이 학년 일이 학년까지는 그그 다니고 우리는 인자 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녀 다녀놓이까
- 면담자 1 : 정말 고생 많으셨 매일매일 그 걸어서 다니신다고
- 구술자 1 : 그 장마철 되든 그 당시에 비닐우산 백 원 백 원 했어 백 원 딱 여 중간에 가면
바람 불면 그래 다뿌사져가 그래가 그 처쳐★
- 면담자 1 : 그때는 뭐 이기 들어오는 차들도 버스도
- 구술자 1 : 아으 없어 도로 포장도 없고 도로 포장도 없고 또 도로도 한 사 사매다 뭐 전부
자갈 자갈 흙 자갈 이래가지고 지금은 다 거 확장되가지고 도로 포장하고 이랬지
만 그 당시는 그래 우리 여기 여기서 인자 마라톤 마 인제 운동회하든 초등학교
운동회하든 우리 마을이 일등이라 일등 걸핏하든
- 면담자 1 : 맨날 운동하시니까
- 구술자 1 : 맨날 겁나게 걸어다니니까 그래 다 인자 이래 마을 별로 인자 이래 운동회
- 면담자 1 :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그러먼
- 구술자 1 : 중학교는 나오는 중학교는 저 장안중학교 여여여 졸업하고 전부 중안중학교를 마
이 갔는데 그 여여여서 장안 중학교 요 산 넘으면 저저 산너머 저 있다 저저 바
닷가가 되다 보니까는 학교 안가고 쉬 항마들마 도띠기 도띠
- 면담자 1 : 가다가 판데 새고 막 이게
- 구술자 1 : 그 맞다 가다가 마 산에서 놀고 마카가 지촌에 이 이이이래이래 마이했는데 그래
가 나 나는 내 혼자 마 저쪽으로 저 장안중학교 저리 저리 가뿌고 그래 내하고
둘이라 우리 친구 하나
- 면담자 1 : 아 그 학리에서 두 분만 장안중학교
- 구술자 1 : 장안중학교 저 인제 자 졸업한 사람은 내하고 우리 친구 친구 그는 인제 울산에
갔고 울산에서 ★ 학리에서는 내 혼자 뿐이지
- 면담자 1 : 여기서 장안중학교까지 좌천까지 가시는 것도

구술자 1 : 그래 이래 일광 일광 이 밑에 가서 차 타고

면담자 1 : 동해남부선 타고

구술자 1 : 동해남부타고 인자 거거서 일단 시간이 다 어중간할 때는 이 여서 그까지 걸어갔지

면담자 1 : 칠 키로

구술자 1 : 십 키로 십 키로 십 키로 가까이 됐지 그 당시는 머 주로 걷는기 다 걸었으니까 교통이 없고 이래가지고 인자

면담자 1 : 진짜로 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계속 다니셨던 중학교

구술자 1 : 중학교 졸업하고 머 고등학교는 마 집이 가난해가 놔 놓으니까 입학금이 없아가지고

면담자 1 : 옛날에는 대부분 다

구술자 1 : 그래 거 입학금이 없아가지고 마 학교에서 저 몇 값을 학교에서 저저 해가지고 성적이 좋은데 와 안오노 하이 아이 돈이 없어 그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입학금이 없아가지고 고등학교 못가고

면담자 1 : 예전에는 다 그래서 머 그러고 인제 스무 살 때

구술자 1 : 고고고 고래가 인제 중학교 졸업해가 인자 아버지하고 아버지 따라 인자 배 배 같이 타고

면담자 1 : 아 그때부터 뱃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구술자 1 : 그래 가난해 좀 재산이 이래해야 쪼매나한 집 하나 열 평 땅이 전체가 열평이야 집이 다 열 평되고 짜그마한 배 하나 가지고 이래 클 때는 그 당시에는 다 고생마이 했어 우리 어릴 때 육십 년대 보릿고개 진짜 요즘 같으면 요때되면 굶은 사람이 많았어 이 끼니가 없어서 거 보릿고개

면담자 1 : 아 진짜 말 그대로 보릿고개

구술자 1 : 그래 인자 보릿고개라 인자 바로 그거라 보리 날때까지 저 요즘은 뭐뭐 옛 이이 식량을 수입하거나 그 당시는 수입 돈하고 육십 년대 칠십 년대 그그 그때를 인자 보릿고개라 하거든 그러고 저저 그 진성이 보릿고개 노래 불렀자나 보릿고개 길 거 그 그 진성 가수가 육십구 년생이대 어어제 티비 나온거 보니까

면담자 1 : 아 그 생각보다 나이가

구술자 1 : 그래 그 나이가 저 내보다 영 떨어지더라고

면담자 1 : 생각보다 처음 알았습니다

구술자 1 : 어 육십 년 생이라 여거이이 티비 보니까

면담자 1 : 그러면 그렇게 마이 힘들때는 아닌데

구술자 1 : 그 육십 년대 칠십 년대는 그 보릿고개 그때 그거했지 즈즈 하기가 뭐 저쪽에도

면담자 1 : 아 시골 출신

구술자 1 : 그래 시골 출신 아이가 그 저 충북이가 그 저

면담자 1 : 그래서

구술자 1 : 그래 그그 가사를 지아놓고 이십 년 동안 그 몬해가지고 그래 마 정동워이가 노래 부르니까 진성 가수가 그 애기를 하더라고 이십 년전에 자기가 만들어 놔 놓으니까 그그 배고픔 저저 물 한 바가지 인자 그 그거를 저 여기 있잖아 배쳐타는 이십년 전에 자기가 가사를 다 썼다데 그래 인자 작년에 육십 년대 칠십 년대 뭐 육이오 전쟁 나고 머 전부 가난에

4. 1970년대 신양촌 이주

면담자 1 : 계장님 어린 시절이면 그때가 제일 우리나라 저 힘들 때

구술자 1 : 칠십년대가 이자 보리 날때까지 저기 여여여 보면 신양촌 요 너머 신양촌이 ★ 미
군들이 인자 여 보면 폭발장이라 폭발장

면담자 1 : 요 산 그 마을 뒤에 산이

구술자 1 : 저 무기들 오래 된거 인자 고 거서 이자 폭발시키고

면담자 1 : 혹시 계장님 어릴 때도 여 있었습니까

구술자 1 : 어 여 그그그 그래 폭발해 폭발하든 우리 머 우리우리 그그 인제

면담자 1 : 미군들도 한 번씩 오고

구술자 1 : 그그그래서 그 미군들이 인자 차 싣고 와가지고 십오군도라는 게 그 인자 미군들
차 싣고 와 그 폭발장 폭발장 폭발 폭발시키는거 무기들 오래된거 인자 전부 신
양촌에서 그 이자 그 당시 우리 마을 사람들 그가 전부 국유지가 되다보이까 이
제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마 저 인자 보릿고개 인자 보릿고개 다
이래 보니까 거서 인자 고구마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그 인제 식량 식량 비슷하리
이렇게 그런거 해가 그거 땅을 신양촌에서 인자 전부다 그 당시 불하받았다나 이
래가지고

면담자 1 : 그 또 육십 년대

구술자 1 : 거 인자 그 당시

면담자 1 : 칠십 년대 넘어가서

구술자 1 : 요래 거거거 인자 신양촌이 저 그때 한 칠십 년대 되가지고 이랬겠지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 어업도 칠십오 년도 계약해가지고 삼십칠헥타르 학리 일광서 학리 들
아오는 길 길 만들어주겠다 이차선 만들어준다꼬 요 우에 여 앞에 매립해주고 ★
하그로 매립 해주고 회관도 지었는데 전부 저게 마 거짓말

면담자 1 : 아 그때 신양촌에서 들어올 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준 거

구술자 1 : 그래 그 인제 우리 인자 마을 어업 삼십칠헥타르 주는 대신 그래 해나놓으니까 받
아보니까 이천십이 년도에 소송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칠십오 년도 천구백칠
십오 년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래가 우리가 지뵈다가 고등법원에서 우리
가 승소했는데 그거 인자 일심에서는 인자 우리가 아 그거는 무조건 하면 이긴다
이래 그 뭐뭐 해가지고 이긴다 이래 그 뭐뭐 변호사는 며치가 이긴다 아 재판하
다 보니까 변호사가 안 사니까 우리가 지뵈어 일심에서 그래 그 인제 고등법원에
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면담자 1 : 다시

구술자 1 : 그그 우리가 다시

면담자 1 :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 소송 준비할 때

구술자 1 : 그그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여여 땅을 여 겨우 백오십 평 여
뒤에 이래 여 사났는데 그 돈벌이가 땅 백오십 평씩 그 당시 구십사 년도 삼십만
원씩 사더라고

면담자 1 : 와 그때 이 이 땅을 삼십만 원이라면

구술자 1 : 삼십만 원씩 사더라고 그 내가 나 나는 신양촌인지 몰랐어 아이구 팔고 나니까 신
양촌이더라고 기장에 인제 세무서 세무서 이래 가가 이카 보니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가 이라니까네 기장군 전체 땅을 이 이런 돈 올라갔다 생각하든 그렇게 해가
샀다 그 당시 구십삼 년도에 삼십만 원 상당하거든

면담자 1 : 예 지금도 뭐 보통 논밭을 삼십만 원 주며는 그냥 값어치 한다하는데 와 그 당시
에

구술자 1 : 지금 여 우리 여 바닷가 여는 우리집 같은 데는

면담자 1 : 요런데는 비싸

구술자 1 : 평당 요 천 한 오백 있어야 이천만 원

면담자 1 : 바닷가 쪽은

구술자 1 : 내가 그때 살 때 구십육년도 살 때 평당 이백만원 씩 샀는데 학리 최고 비싸게 샀
어 그 내 빗쟁인데도 그래 비싸게 그 당시에는 내 나이가 인자 사십대 사십대 초
반이 되다 보니까 에이씨 마 되는 대고 뭐 안되든 그 빗값는다고 내가 지금 골병
들어가지금은 그래가 지금은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 하루에 한 번 갈등말등 하든
나는 하리 두번씩 이래가지고

2-B 성년기 이후의 삶

1970년대 학리에서는 봉장어가 많이 잡혀서 일본 수출 등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또 오징
에도 많이 나서 어업 활동은 부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획량이 급감하고 소비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이 있다.

5. 1970년대 어업활동과 가족 부양

면담자 1 : 그런 저희

구술자 1 : 그 돈 별라든 인자 하리루에 두번 가든 인제 배를 밀 때 들 때 이라는데 밥을 밥
무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리 두 번씩 가든 밥무를 시간이 미숫가루 뭐 내 보리
미 미숫가루 해가 그래 그 당시에는 인자 기계가 없고 손으로 해 땀값이든 그 인
제 인제

면담자 1 : 그물을 손으로 다 떼

구술자 1 : 아 그물 아아고 주낙 주낙

면담자 1 : 주낙

구술자 1 : 주낙 이리 여여 다 다는거 갖다가 여여 이 술로 같은 기 있는데 기계가 없고 그
당시에

면담자 1 : 그때

구술자 1 : 그 당시 지금 이 지금은 냉각기가 있고 글치만 그 그 당시는 냉각기도 없고 이래
가 물이 뜨시든 고기가 다 죽어뿌렸쥬 빨리 땡기가지고 오야 인자 마이 사는기라
그래 전부 다 살라 다 땡기든 미숫가루 묵은기 다 올랐버려 마 그 당시에든 관계
있는데 가난에서 벗어나갔고 내가 인자 아무 오죽 내가 안나가든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 죽어 다 굶고 있어 그 당시에든 그 우리들든 마 나든 굶았지만 그 주로
뭐 굶는 사람이 많았어 이때이때 보릿고개다 이래가 보리날 때 보리날 때 까지
그래 마이 굶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다 그래 고생했어

면담자 1 : 그럼 물고기 잡아오셔가지고 어디에 파셨습니까 팔 데가

- 구술자 1 : 그 저 지금 보면 인제 그 당시 그 당시는 인제 이래 지금은 머머 그 에어컨 다 있고 이러니까 그거하는데 해수욕장에 인자 마이오지 해수 해수욕 하러
- 면담자 1 : 아 사람들 인제
- 구술자 1 : 어 해수욕장에도 팔고 이때 되든 여 방학때 되든 그라고 또 또 그 고 끝나든 한데 고기가 살고 이라몬 그 고기를 인자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 면담자 1 : 어디
- 구술자 1 : 회사 고기 받는 회사가 있어 회사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 면담자 1 : 그때 뭐 봉장어 이런거 잡으실 때 었습니까
- 구술자 1 : 그래 봉장어 우리 요는 오직 봉장어가 오직 봉장어 밖으 없으니까 봉장어 저 잡고 흔대가고 좀대갔고 해운대 르카프 칠십 년대 조금 되가지고는 인자 국가에서 용자선이 나가든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빌리주가지고 인제 배를 만들라고 인제 저인망 저인망 불법이지 그걸로 인자 그 당시 인자 잡아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구십 구십오년도가 김영삼이 대통령되가지고 시 불법 일체 중단시키뿌가 다다
- 면담자 1 : 그 그때 그면 저인망 어선 다
- 구술자 1 : 요 그 그 그 백기 기생 저인망 이래가지고 나는 난 난 타격이 컸지
- 면담자 1 : 아 아예 조업으로 못하게 만들었던
- 구술자 1 : 그래 아예 그래가 한 이년 동안 한 이 년 동안 그 작업 다 때려 팔십팔 년도에 팔십팔 년도에 그 당시에 배도 천삼백만 원가 천오백만 원씩 내 가지고 지금 팔천만 원 그 칠 톤짜리
- 면담자 1 : 팔십 년도
- 구술자 1 : 그 내가 그 만들어가지고 인자 그 한 이 년 동안 내가 고생 좀 했지 그래 나는 시바 괜히 시바 김영삼이 찍아쫓는가 싶었지 나는
- 면담자 1 : 아까
- 구술자 1 : 다른 대통령 할 때 아무 말이 없이 이래 그래 있다가 인제 그면 가자미선 가자미선 인자 쉽게 말하면 인자 기선 저인망이 고대구리라 하거든 작은 작은 배를 인자 기선짜리가 그 일본말로 고대구리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이 많이 살아났는데 그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가 불법 몬하겠다 그리 됐뿌니까 타격이 많았지 그래 그래하자 인자 조금 있으니까 그 구십년대 딱 요 딱 구십년대니까네 오징어 오징어가 우리 제 이 울릉도라 여기가 배가 여 지금 이런이런 배는 아이라 그거 한 삼십 톤짜리 이래 이래 우리 배가 오이 선창에 온 선창에 오징어 오징어 그 주아 온다고
- 면담자 1 : 갑자기 그때 부터 오징어가 많이 나기 시작한 겁니까 그 전에는 안 나다가
- 구술자 1 : 그 전에는 안 났는데 그때 부터 많이 났어 그래가지고 오징어 활어도 우리 학리가 우리 마을 이 제일 먼저서 오징어 활어 살라 오는거 그르이 전국에서 차가 가도 경기도 강화도 강화도 쪽에서 여 다 오니까 하루 보통 사백 대에서 한 오백 대 그 기 길 저저 어항 진입도로 저 마을 여 길 천지빠고 돌아오는거 도로 저 길이 없었거든 저 길이 없애가지고 내가 여 이천육 년도가 이천이 년도 이천이 년도에 내가 해양수산부에 건의설 넣어가지고 깔아라 세 번 열었는데 세 번 다 빠꾸라 즉 네번째는 뭐야 내 차 정리하다가 그 새벽 두시 되면 잠을 몬자 굴뚝 마난 요기 중간에 조그마난 길가 도로도 없고 불과 차 한대 올라오든 차가 차 하나 내려오든, 올라오는 길도 없었어 이래가 빵빵거려사코 잠을 못자고 새벽 두 시면 이래

그래 내가 그 어촌계장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해가지고 아이씨 건의서 세 번이나
빠꾸당했거든 르카프 네 번째는 짝 교통정리 해다가 그그 하다가 발가락 깨지기도
하고 차 인자 물리주는 거 하고 차 앞에 뿌아진 거 이런 거 물리주면 이리 다
들 이리 다 저라게 만드는데 네 번째는 네 사람 해수부서 네 사람이 내려와서 그
실제 도로를 보자 저그도 기가 차거든 이 도로에 어째 차가 하루에 사백 대 오백
대 들어오겠는 그르 저 뭐고 저 이차선 만들었다이가 해양수산부 작업을

면담자 1 : 그럼 진입도로 만든게 이천년대 넘어가서

구술자 1 : 어 저저 도로가 저 도로는 인자 그 당시 지금 당시 계획표를 보면 학리는 아이에
아에 없었고 그라고 저 인자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거 안만들었으면 이래이래가
여 이 포장자리도 손님도 없지 전부 다 어데 들어올꼬 지금 지금 내려오는 길도
저거도 신앙촌에서 저 소송해가지고 저 신앙촌 땅이다 내려오는 길이 지금 오십
평 여 이래가 소송해가 오 개월 동안 내가 법원에 법원에 불니다났거든

면담자 1 : 마을 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들 더러 다니는 길을 막을라고 하고

구술자 1 : 즈 저거 땅이라 해가 저기 소송을 해가 그래 인자 학리가 어촌계가 소송을 했어
그래 내가 어촌계장하다 보니까 법원에 내가 오 개월 동안 불리다 갔다 그래갔고
는 마 부장 판사 이래가 학리마을 마을이 소송 하지 왜 학리 어촌계로 소송했나
우리가 어항진입도로를 만들어놔다 이천 십이 년도로 아 그 거짓말 잘하대 거짓
말 잘해 저기 옛날부터 있었고 중간에 이 길이 세금을 만들었다 이거라 그르 인
자 저 부장판사가 대뜸 부장판사가 현장에 올 줄도 몰랐어 요 올 사람 부장판사
라 내 이름도 알아 안 잊어뿌라 김유란이더라고 나는 여잔줄알았더라만 남자더라고

면담자 1 : 저 와가지고 다 보고

구술자 1 : 거 현장에서 와서 재판하는데 고 자리 고 신앙촌 땅 오십 평 그 저 방 마을 버스
거서 딱 내렸다 아 이거 어촌계장 말이 맞다 이거라

면담자 1 : 그 그럼 뭐 다 차도 다니는 길이고 그럼 인제 그걸

구술자 1 : 그거 내하고 관련없어 그래 내용을 증명을 해가지고 지한테 보내줄라하더라고 그
내용 증명을 그래 했더니 전달받았지 전달받았으니까 뭐 받았다 받았다 이런 이
잘못됐다 학리마을로 소송하지 마을 진입도로 나는 어항진입도로는 만들다가 근
지방아 그 십년 동안 즈 즈그도 인자 땅 산지가 십 년 밖에 안돼 그래 인자 그
즉 사용료를 내 내놔라 해가 내 그 그거는 못준다 우리 우리는 어항 진입도로가
나는 해양수산부에서 도로를 어항진입도로를 이래 이래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항
진입도로 인자 창고 상장 저 해양수산부에서 잘 몰라 그래 우리 이래 할만한게
이런 도로는 할 때 할 때마다 저 풍치 여거

면담자 1 : 다 인제 계장님이 인제 일을 하서

구술자 1 : 내가 왜냐면 내가 일이 있다

면담자 1 : 나서서 안하면 아무도 안해주실텐데 이게

구술자 1 : 누가할꺼고

면담자 1 : 한두 분만 얘기해주셔도 될건다

구술자 1 : 자 자기 저 자기 개인 것만 챙기지

면담자 1 : 그러면은 그때 오징어 마이 잡힐 때는 차들 밤 새도록 그럼 왔다갔다 계속 그렇게

구술자 1 : 그래 그러니까 그 저그들은 저 인제 배 살라 놓고 인제 다 못 팔면 오징어 활어
살라가지고 못 팔면 다 자기들도 오는기라 그래 요 내 내 도로 때 따가져 도로
저 따가져 오징어가 그 바다고깃도 한 오 년만 오징어도 오 년 나고 오 년 안

난다고 하더라고 고래 또 하나까 인제 인자는 오징어 거의 안나다 전부 다 트롤 트롤해가 다 끄아뿌가 마 이래가 이래

면담자 1 : 마이 없어져서

구술자 1 : 싹슬이 싹슬이 싹슬이 그래갔고 그래 저저 지금은 한 육 육월달 오월달 육월 되든 중국에서 저저 북한으로 전부 중국배들이 북한에 그그 한 이천척 올라오거든 이 천척

면담자 1 : 동해로 해가지고

구술자 1 : 그 거 동해로 해가 올라가지고 그것들이 싹슬이 했뿌는 거라

면담자 1 :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구술자 1 : 내려오는 여 우리 여여 남한 내려오는 오징어가 없지

면담자 1 : 아 그래서 씨가 말라가지고

구술자 1 : 그래 씨가 말라 싹슬이 한 이천 척이 이천 척 되거든 우리 고 저 작업 여여 앞바다서 작업 해무면 해운대 그 중국 배들 우리 십이해리 밖에서 항해를 해야되는데 우리 여 바로 여 바로 삼 해 여 한 오해리 정도되가 이기 여 마 그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오해리 이래가지고

면담자 1 : 올라가고

구술자 1 :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바깥에 내려올 때 아 떼장들 많다 떼장들 많아 아 마카 내려올 때 그 저

면담자 1 : 남해를 거쳐가지고 동해로 그래 올라갔다가

구술자 1 : 그래 남해 거쳐가지고 이런 저 그런 지금도 저 다 올라가 있을 때야 거서 인자 싹슬이 그 가 그물로 이래 까뿌니까네 고기가 이까지 인자 내려올 고기가 없다이가 전부 중국 대만 같은 데

면담자 1 : 지금 그마 학리에는 여기 그 어선이 몇 척 몇 척 정도 저기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구술자 1 : 어?

면담자 1 : 여기 학리 어촌계는 배들이 몇 척 정도 소속이

구술자 1 : 우리 배가 금방 조사하니까 마흔 마흔세척 마흔세척인가 그 당시에는 내가 적었다
★ 내가 조사를 해봤으니 마흔세척 그레가꼬 지금은 배가 다 작아져가 갈치 배
★

면담자 1 : 요런 배들은 보통 한 몇 톤 정도 되

구술자 1 : 여여 칠 톤 삼이라 해놔네 요 앞에 써 논거

면담자 1 : 전에 큰 배는 그라먼

구술자 1 : 큰 배는 한 삼십 톤 넘지 그런 배들은 오징어 잡을라든 한 세 시간씩 이래 동해 바다에 이래

면담자 1 : 제법 멀리까지 나가

구술자 1 : 저 쪽 나가면 보통 한 백삼십 해리 요즘 여기서는 삼십 이래 그 당시에는 오징어 많았어 오징어 한 상자 그 당시 머 사천 ★ 삼천 원씩 사천 원씩 그런 식이지

면담자 1 : 지금은 오징어 너무

구술자 1 : 요새 요새 돈 값으면 한 이만 원 삼만 원 요즘은 요즘은 상당히 비싸졌어

면담자 1 : 요즘은 금징어라고

구술자 1 : 금징어 오징어가 아니고 금징어라고

면담자 1 : 요즘은 뭐를 뭐를 주로 여기서는

구술자 1 : 여기 지금 조그만 거는 장어 붕장어

면담자 1 : 붕장어

구술자 1 : 붕장어하고 가자미 가자미

면담자 1 : 그면 잡아오면은

구술자 1 : 잡아오면 활어차들이

면담자 1 : 아 바로

구술자 1 : 활어차들이 횃집에 그 가자미 저를 회를 하거든 가자미 회를 하고 장어는 보문 장어도 회 회로도 나가고 그리고 장어 구이한다꼬 인자 장어도 보면 죽은 그 구이하고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바로 인제 복제를 해가 피빼고 그거를 해요 그기 인자 장어 살ان거 그 뭐야 그게 인자 진짜거든 장어 장어가 장어 피가 사람이 안 좋겠어 물고기 피는 사람한테 안 좋은거라

면담자 1 : 아 싱싱할 때 살아있을 때

구술자 1 : 그 살아 있을 때 딱 목 잘라가 그놈의 피를 빼고 우리 여서 전부 인제 수족관 나가지고 살라 손님 오면 살ان거 가지고 이래 해 구이해주고 죽은 거는 인제 피를 뽀 빼이니까 그 사람에게 장어 장어가 물고기 피가 사람한테 안 좋아

면담자 1 : 잡아오신 거는 바로 요쪽에 그 해녀 할마이들 집으로 가서

구술자 1 : 여여여여 그것도 하고 인제 활어차들이 마이 오지 활어차들이 활어 장사

면담자 1 : 저기 위판장에서는 뭐 따로 하시는거는

구술자 1 : 어 위판해 주로 위판장 저저저는 별것도 안해 위판장 저저 하니까 그 당시 오징어 잡은 걸 수입해서 위판을 하니까

면담자 1 : 아 그때만 조금

구술자 1 : 아이 아니 위판장 저 시에 가서 돈을 떼고 위판장을 지었는데

면담자 1 : 그럼 그

구술자 1 : 활어차를 주니까 부도가 많이 나는 기라

면담자 1 : 못 갚음 그러면 고기값을 못주고

구술자 1 : 고기값 못주고 그 그리까 인제 위판 그하는 그 뭐 외부에서 오가 마카 실고 가 돈 안주고 그냥 가뿌면 그러이까는 수협만 적자가 나 그래 우리 수협이 빚이

면담자 1 : 저는 위판장이 있길래 경매인들이 와가지고 경매를 한다 싶어가지고 여쭙봤는데 그거 아니고

구술자 1 : 저 대변 같은 데는 인자 저기 삼치 삼치가 나이 삼치가 삼치가 조맨큼 뭐 그럴 줄은 몰랐어 고기가 마이 안나니까 이자 조금씩 저장하고 이라이까 이게 비용하고 이케하면 그 삼치 일키로 이천오백 이천오백 짜리 고기가 어딴노

면담자 1 : 일 키로에

구술자 1 : 사 키로 같으면 삼 키로 이만큼 많은데 많은 배사

면담자 1 : 그래 썬

구술자 1 : 돈 만 원만 주면 삼치 이만한 거 한 마리 산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인제 삼치를 그 한 치 두 치 한치 얇게 나왔다는 머 그 앞날을 같으면 그 뭐 두 마리 큰 거 두 마리 잡아가 잠깐 나가가 이렇게 했는데 기다란 건 말고 잔잔해가 이 년만에 잡아가 방송을 해주면 방송을 하면 많이들 사러와가 그기 저거는 쪼끔 아래 올라 왔을 때 딱 잘라가지고 회 회같은기 삼치회 이쪽이 좋은데 삼치

면담자 1 : 삼치도 회를

구술자 1 : 그래 요새 삼치회가 하고 저게 저기 하고 저기 살이 물라 그래 잡으면 인자 아이

스박스 인자 얼음 나가든 그 여름에 인자 요새 주로 회 아니면 그래하든 그 지금
그라면 또또 코로나 땀에 거이 뭐 완전 싸

면담자 1 : 많이 안 먹 안먹기도 하고

구술자 1 : 음식점에서 소비를 시켜주야 하는데 소비가 안되니까 그 어제 보니까 뉴스보니까
호박 호박 이거 그냥 딱 그냥 그대로 뭐

면담자 1 : 밭에서 그냥

구술자 1 : 밭에서도 그으 버리대 음식점이 안되니까 음식점이 되야 그뭐 그 호박이 들어갈
거 음식점이 안되니까 전부 그런식으로 우리 여도 전부 비슷하다 장어도 장어도
만 일 키로 만 원하거든 즉 이때 되면 이만 원 이상되야돼 이만 원 이상이 되야
되는데

면담자 1 : 진짜 가격이 많이 떨어져

구술자 1 : 이마원 우리가 잡아오는건 일 키로 만 원이라 요 내 내가 그때 다닐 내가 인자 사
람 있을 적에 좀 다녔는데 이박 삼일 하면 경비가 사백 한 오십만 원에서 오백만
원 하거든 그래 우짜면 조금 조금 그거하면 그거하면 적자 적자 갈때가 많아 이
박 삼일 그 들은 비용이 미끼 여 이 여장 정리해주는 거 기름값 이 다 하면 이박
삼일이 사백오십만 원에서 한 오백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 장어 사백오십 키로면
상당히 많거든

면담자 1 : 네 근데 그래 잡아와도 일 키로에

구술자 1 : 그리 사백오십 키로 이래 잡아야 인자 딱 경비라 이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돈이
안 되는데 그래도 머 내 보리고개 굶은 생각을 하니 절이 이래 한 번 가 가는데
안 그라고 인자 좀 같이 인자는 전 전부들도? 선주들도 선원이 없으니까 전부 조
그마난 배 수용층이 한 삼 톤짜리 통통배라 통통배 타는 저기 인자 갔다오가지고
고 인자 저 이래 가지고 인자 마 좀 물 빠지면 말라가지고 일 키로 이만오천 원
씩 손질하고

면담자 1 : 손질해가지고

구술자 1 : 저 그그 그래하면 조금 낮고 그 여 우리 한 칠 톤 팔 톤짜리 저것도 인자 돈이 안
되는거라 그니까 전부다 인자 인건비가 경비가 하루 만 하나라 밥도 그리 나니까
그 내가 다섯 번 갔다 왔다 이박 삼일 해가 다섯 번 갔다 돈 백삼십만 원 요거
전부 상당히 되거든 그래 요거는 아 이거 했다가 그만 가야겠다 몸도 안좋고 내
어릴 때 너무 인자 그기 돈 벌일라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저저저저 친구 친구
데 내 고생하든 다 알지

6. 1980년대 어업과 가족 부양

면담자 1 : 그러면 지금 이십 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냥 바다 배 타는 일만 하시는 이십대 삼
십대

구술자 1 : 그러니까 내가 그 저저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돈 인자 아버지가 배 타면서 인자 아
부지가 내 스물한 살 때 인자 배 같이 배 타는 장 가서 마흔 살 때 들어와서 배
그 인제 조그마난 거를 저거 저거왔거든 그까지고 그냥 선원들이 없었어 그 당시
손으로 가 땀기면 그 혼자서 몬하거든 거 지금은 기계로 갔다 하면 그래 되지만
그 세 단계 해가 아침 새벽 다닌 새벽에 당시에 고생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지

면담자 1 : 삼십 대 이렇게 그때가 한 그림 한 칠십 년대 정도

구술자 1 : 그 칠십 그 칠십오 년도에 이래 훈련소 들어와니까 다 친척이 총각이고 오오년식 만 이십 세에 ★ 비서한다고 칠십육 년도

면담자 1 : 칠십 년도 후반

구술자 1 : 칠십육 년도 십이 월달에 저 생계곤란자로 인자 방위병 이거 하니까 하루가 걸러 하루 한번 인자 배가고 하루 그 인자 그 그래 인자 지금 미군부대 그런 저 아들은 내랑 같이 군무를 서거든 인제 니 이래 고생 많이 한다면서 그 이름도 알더 알겠는데 충남대 이동규라고 저거 아버지가 대학교수 대학교수 마 같이 근무서면 지하고 같이 근무서자나 내보고 자라고 자고 ★라고 즈그 집은 인자 그 부자니까 인자 그래가

면담자 1 : 근무하신 거는 여기

구술자 1 : 여기 여기 여기

면담자 1 : 저 안에 미군부대에서

구술자 1 : 그 저 군부대 군부대 저기 군부대 초소 있는데 저서 군무를 했는데 그 당시 고생 한 거는 마 이루 말할 수 없지 그거 그거 뭐 오직 나는 배가 안 움직이든 돈 벌 자리가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배가 그 앵간하든 그 바람 부는 거는 마 보통은

면담자 1 : 그냥 나가

구술자 1 : 보통은 그 그 그 그 주의보 내리든 칼치 칼치 날 때는 요 조금 있음 칼치가 나가 든 칼치나든 즈 물러날 때 출항 출항 다 인제 해사 지면 다른데 다 갈 때 나 혼자 살짝 그래 살 스르 해가 상당히 나와 그래 나오든 배 배가 안나오니끼 사장에 가면 비싸게 팔고

면담자 1 : 잡아오면은

구술자 1 : 다른 사람 다 고기 없으니까 그런 내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면담자 1 : 그럼 그때는 잡아오셔가지고 직접 시장에 갖다 파셨는 그 어디 기장시장 이런데

구술자 1 : 이 저 기장시장 그 당시 기장시장이 그런 시장이 됐거든 갖고 와든 다 팔리뿌가

면담자 1 : 그때도 기장시장 컷 이 주위에서는 큰 시장이었

구술자 1 : 그래니까 그 모든 것이 기장 시장아이가 기장시장 기장 기장 미역 기장 칼치 저 전부 기장시장에서 하니까

면담자 1 : 배일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까지 또 가서서 팔고 이랄라면은

구술자 1 : 그 그 인제 팔러가는거는 인자 모친이 모친이 인자

면담자 1 : 아 어머님께서

구술자 1 : 그 당시 차가 없으

면담자 1 : 그럼 머리 이고지고

구술자 1 : 그렇지 우리 어릴 때는 인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동래장 동래장 동래장까지 우리 모친 이고 왔어 칼치를

면담자 1 : 아 그러면 동래에 가서 물건을 파시는 그 동래역 앞에 장이 예전에 거기

구술자 1 : 그래 그까지 이고

면담자 1 : 그럼 여기서 동해남부선 타고

구술자 1 : 그 걸어갔지

면담자 1 : 걸어서 동래까지

구술자 1 : 걸어 이고 그랬어 그 당시에 그 육십 년대 육십 년대

면담자 1 : 한나절 걸리지 않습니까

구술자 1 : 그래 육십 년대 그때

면담자 1 : 아 그럼 거기 갔다 오시면 그럼 한 밤 중

구술자 1 : 어 인자 아침에 들어오정 칼치 저거는 야행성이 되가지고 낮에는 안 물어 그 당시에 밤에 잡아오른 새벽에 인자 그 그 인자 해 뜨면 칼치가 안 물어 그 해 뜨면 인자 집에 들어온다 요 바로 앞바다니까 칼치는 요 뭐뭐 한 이 해리 이 해리 이래 이 해리 같으면 뭐 삼사기로 요 요 나가 가지고 칼치 들고 ★하는데 아이 그 당시 고생한 거는

면담자 1 : 진짜 대단하십니다.

구술자 1 : 가난 내가 아니면 우리 돈 나올 때가 없으니 저기 동생들 내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중학교 안 갈라하는데 나도 어릴 소견에 니 가라 내 고등학교 안 가께

면담자 1 : 옛날에는 다 장남들이 희생해가지고

구술자 1 : 그래 저 막내 우에 동생은 내가 지 대학 갈라니 우리 가난해가지고 대학까지 문간다 그 밑에 동생들이 늘 인자 대학 저기 대학까지 문 넣으니 저 그래가

면담자 1 : 동생들 다

구술자 1 : 그 대학 갈라는데 집이 가난해가 대학교 인자 내가 인자 그 멀리 할꺼 고등학교 시험쳐갔고 입학금을 못해서 막내 동생 인제 그 사년제 부산외대 그 갔고 그래여 그 당황하고 좀 설만하니까 아 우리 애들이 커 올라뿌드라고 막내 동생 들어가니까 우리 애가 고시 마 그래 내가 그

면담자 1 : 계장님 그 결혼은 언제하신겁니까

구술자 1 : 결혼 내가 스물 아홉 살에 결혼했지

면담자 1 : 아 진짜로 그러면은 동생들 키아놓는 키아놓고 애기들이

구술자 1 : 아 그래 군대 갔다와 가지고 다시 학교 가고 이라니까 즉 내나 그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지 내 너무 어릴 때 몸은 생각 안하고 인제 오직 돈만 돈만 벌이 갔고 아 우리 애들이 커가 올라왔뿌드라고 우리 막내 저그 저 인자 저하니까 저 우리 저저 큰 애 나나 나도 딸만 서이라 아들 바라보다가 딸만 서이 뻘었는데 막내가 서른 살 아직까지 병원 나가고 있는데 큰애 저기 즈 지금 저저 대학은 안 간다 이거라 아버지 고생 너무 많이 한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전문대라도 나와야 다음에 부담없이 그래 인자 그래 전문대 나와 가지고예 저 큰 애는 전문대 나와 가지고 중간 거는 사년제 뻘었는데 사년제 나오고 막내이도 대학 안 갈라고 니도 마 전문대 나와야 나 이거 별말 안 한다 고 그래가지고 조카가 내 밑에 여동생이 인자 제매가 산에 인자 그 옛날 같으면 그 뭐라하노 멀치 멀치 잡으려 마 그리 인제 척추경대가 나갔뿌으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 애 둘이가 부산대학교 인제 그 합격돼 가지고

면담자 1 : 그럼 조카들

구술자 1 : 그래 인자 내한테 찾아 내한테 왔드라고

면담자 1 : 우옌들 큰아버지 밖에

구술자 1 : 조카 조카지 그 조카인자 외삼촌 부산대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래 큰 애는 대학교 둘째 밑에 아도 인자 둘이가 인제 해가지고 회비를 내가 줬어 부산대학교를 해

면담자 1 : 우리 큰 아들에

구술자 1 : 아이고 참

면담자 1 : 운명인가

구술자 1 : 여여 내가 내가 저 배를 하고 학교 공부 공부 인자 인자 자식들 공부시키는 데는

배 이상 없어 현금이 들어오니까 바로

면담자 1 : 그때그때 그래도 고기 잡으시면

구술자 1 : 그래 내 우리 우리 애 서이 서이제 가 둘이 막내 동생까지 그랬으면

면담자 1 : 대학생들 여섯 명을 키우시는

구술자 1 : 그래 여섯 명 그 거는 그 내가 저기가 수산학과를 전부다 주로 보든 다 다 대학 보내고 내가 대학을 여섯명을 쫓 시켰어 누가 딱 들으든 깜짝 놀랜다

면담자 1 : 한두 명도 키우기가 지금 어려운데

구술자 1 : 그렇지 머머 월급재이들은 한두 명도 힘든 그라고 있는데 아 지금 여 그 그 우에 동생이 지금 대학교 지금 안에 안에 댕? 부경대 사내가 한 놈은 어데 동서대학 있다가나 그 뭐 지금 뭐 지는 뭐 앞으로 경찰직으로 나간다고해서 해병대 졸업해 가지고 요 해병대 제대해가지고 지금 뭐 하나는 이학년이고 으 시키마 즈번에 내가 회비 같은 거 좀 보태주고 이라니까 그놈 시키 술 먹고 노름하는 거 전부 알고 나는 이때까지 커도 화투는 손 안대거든 가난에 사무치가지고 화투는 손 안대에

면담자 1 : 옛날에는 여기 돈이 많이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술자 1 : 그래 우리 학리가 이자 배 배는 인자 하니까 우째 갖고 팔든 바로 현금 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학리가 최고 부자라는데 지금은 죄다 지금도 땅이 땅이 비싸니까 저 촌에 촌에 같으면 그 평 당

면담자 1 : 옛날에는 마 고기 많이 잡힐 때

구술자 1 : 그 고기잡힐 때는 현금이 들어오고 이라니까 더러 우리 그 어릴 때 외삼촌이 하는 말이 벼농사 스무 마지기 짓는 거 보다 배 이기 논 스무 마지기보다 배 하나 있는 기 낫다했어 공부시킬라든 바로 현금이 들어오니까

면담자 1 : 농사는 일 년 지어가지고

구술자 1 : 그래 일 년 지어가지고

면담자 1 : 들어오니까

구술자 1 : 배는 나가면 돈이거든 우리가 그 내가 대학을 여섯 명 졸업시켰다니까 아들 다 깜짝 놀랜다 그 공무원 아까 저 저거 아들이

면담자 1 : 집이 집이 몇 채가 들어가야 하는데 대학생들은

구술자 1 : 그러니까 하기가 뭐 그 우리 둘째 꺼 저거는 주로 보니까 장학금 받아가지고 지금 뭐 요즘 뭐 장학제도가 좋으니까 부경대 저 또 국립이 되나놓으니까 장학제도가 저

면담자 1 : 그 열심히 해야지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술자 1 : 아 부경대도

면담자 1 : 예 열심히 안하든 장학금

구술자 1 : 저리 보니까 그 저 그그 그 인제 사 학년 사 학년인자 저저 졸업한다이가 졸업하는데 그 새끼 공부 아 좀 그해야 되는데 짜장 모르지

면담자 1 :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구술자 1 : 가난하이 가난하이까 그냥 저 가난하이 대학 잇어야 되는데 아이 뭐 요즘 직장 가지기도 까다롭대

7. 그동안의 삶에 대한 기억들

면담자 1 : 아 계장님 그 조기 저 여쭙볼게 등대하고 저 저 등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저 빨간 등대하고 하얀 등대하고

구술자 1 : 빨간 등대는 이천십오 년도

면담자 1 : 아 얼마 안됐구나

구술자 1 : 이천십오 년도 흰 등대는 이천십삼 년도

면담자 1 : 아 십오 년도 십삼 년도 아

구술자 1 : 저리 보는 인제 전부

면담자 1 : 그럼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바위보고 다 그냥 배들이 그냥 다닌

구술자 1 : 그 인제 그라고 어 한 이천 년 아이다 천구백구십 한 오 년도 되니까 지피에스가
나오대 지피에스

면담자 1 : 지피에스

구술자 1 : 지피에스 저 위성 저 위도 삼십오 도 인자 북위 삼십오 도 우리 여가 십오 분 십
오 분 오십 초거든 백이십 그 동경 백이십구 도 십오 분 오십 이라 아주 똑같은
데 저 저기 들은 배 들은 배 그때 천구백구십오 년도 부터 거기 인자 일본서 들
어오고 우리나라 안 만들고 일본서 수입해온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두 군데서
만들어 삼성하고 거 서남하고 이렇게 해가 만들더라고 그 뭐 우리는 이리보면 인
자 북한도 잘나와가지고

면담자 1 : 아 그면 그때부터 인제 구십 년대 중반부터

구술자 1 : 어 그때부터 인제 크레타라고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면 딱 지나가면 딱 표가 나 그
러니까 고기가 멸종이라니까 멸종 고 어장 나올 때 딱 크레터 딱 풀어놓으면 아
그 인자 에스자 드갔다 나오면 고기 그 잡아서 어장 한 번 들가면 그럼 마 어장
머 고기가 없어 그 전자제품이 그만큼 어탐[어군탐지기] 어탐카고 전부 그런기 여
이 지금 나오는거 보면 고등어 잡는 데다 보면 어탐 해갔고 하듯이 고기 있는 자
리는 노란색이 나거든 우리도 인자 어탐 저거 자주 가 나놓으니 그거 키고 인제
이 밑에 고기 있다 없다 이것도 대충 알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고기가 없다 거
의 멸종이 멸종

면담자 1 : 있는데만 다 찾아다니 배들이 다

구술자 1 : 그러니까 지금은 냉각기 찬물로 인제 만들어 배에서 또 만들거든 인제 잡게해가
만들고 인자 산소 산소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한 다이가 지금 인자 그 당시에는
이때되가 몬해 산소도 없고 냉각기도 없고 이래가놓이 이때되믄 인자 보통 한 칠
월 달 이래되믄 놀아 칠팔월 이리 되믄 물이 수온이 올라가 고기 고기 올라오면
다죽아뿌 다 죽어 그라이까 요즘은 그런게 없으이 일 년 내 하니까 고기 멸종이
지 장어는 붕장어도 잡으면 큰 기 별로 없어 지금 뭐 삼십오 센치 이하는 문잡게
되가 있어 잡으면 지금 다 살라주야 돼 죽은 거는 잡으면 안돼 어선업은 내가 볼
때 끝나는 시기라

면담자 1 : 저는 그게 더 큰일인 거 같습니다 물고기 고기 먹을라면 수입해야

구술자 1 : 옛날에는 그 저 우리 잡으면 일본에 수 수출했지마는 오히려 인자는 일본에서 수
입해야 즉 우리 멸치도 이 멸치도 일본서 수입한다이가 그 저저 쵸치 쵸치 그것
도 저 저 저 대만 같은데서 다 수입한다이가 이자는 우리가 다시 사 묵으야지

면담자 1 : 진짜 인건비도 비싸고 배 운영하는 것도 비싸고 해서

구술자 1 : 그러니까 원래 그 여여 그 그 가가 아가 마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저 또 가도 리
어가 즈그가 밀면도하고 저래 했는데 빗 내가지고 빗내가 이래 이래 했다가

면담자 1 : 빛이

구술자 1 : 압류가 압류가 들어온기가 부부가 자살했다이가 올 일월달에 십이월달에 원래 여
여서 차로 바로 들어가뿌가 차 들어가면 문이 안 열린다이가 그래 물 들어오니까
그래 배는 인자 압류되까 대변항에 있고 배 그 젊은 부부가 대학도 그래 그 당시
인자 마 아는 이거 사십댄데 나는 이 집을 본다고 집은 아예 우리 여 아까 말했
던 기왓집 쪼개 그 회관 지은거 그 당시는 구십육 년도 이억칠천 이래가지고 내
가 빛이 일 억이 그 당시 일억이천 같으면 지금 같으면 십이억이거든 구십오 년
이백만 원 주고 사서 지금 여여 땅 살라 하면 이천만 원 평당 이천만 원 딱 열
배 아이가 그래 간 크게 해가 빛 갚는다고 내 다리가 전부 병신이 다 되까 또 그
래가 육십 조금 아이가 그 오히려 말 한 말 구신 붙으까 고 이 시멘 집 다 여가
아 일하러 온 놈이 분명히 일하러 왔는데 학생 아르바이트가 왔는데 아 일할 때
되까 아가 없어 저 방파제 저 티티피 저 테트라포트 저 자고 있는기라 피곤하이
그래 내가 그 분말 일으키고 하니까 아 허리가

면담자 1 : 아 그대 다치신

구술자 1 : 그 당시 내가 마흔아홉 살 그 그 그 이번 삼번이 붙어가지고 그래 수술해가지고
한 일 년 동안 일도 못하고 고생 좀 했지 우리 애들이 아이고 하루에 인제 밥값
점심값하고 차비하고 하루에 만 원씩 서이가 되니까네 삼만 원 그래 우리 집사람
이 고생 좀 마이 했지 내가 일년 동안 작업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산다는 게 내
한테 못대도

면담자 1 : 그래도 대단하신

구술자 1 : 그래 인자

면담자 1 : 외부인들하고

구술자 1 : 인자인자 늙고

면담자 1 : 그 인자 진짜로 성공하신

구술자 1 : 그리 만 육십오 세 되면 노령연금이 나오는데 그 집 있고 노후생각해가 조금 저금
해놔더라 집 공시지가도 세고 예금 조금 있다고 노령 연금도 안주데

면담자 1 : 이게 나라 탓을

구술자 1 : 그래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가난에 벗어날라꼬

면담자 1 : 아니 이거는 뭐

구술자 1 : 뭐냐 그 세금 내고 그만큼 했는데

면담자 1 : 고생을 하시고

구술자 1 : 인제는 저가 옛날에는 뭐 그게 이런 말있다가 젊어서 게으른거는 늙어서 보약
먹는거보다 낫다고 했거든 그래가 젊어서 그만큼 고생해가 세금 내가 해놔놓으이
까 집 공시지 집 공시지가도 세고 보험 예금 해놔는 것도 조금 있고 노후 생각해
가지고 저금 했더라 노령 연금 그래서 노령 연금 안 된다 그러대 그래 그랬다이
가 젊었을 때 가난에 파묻혀가지고 대부분 살라 하니까 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 옛날에 게으를 때 원채 게으른 것들은 인자는 그 노름 이런거 대부분 노령 연
금 한 삼십 만원 받대 노령 연금 거 육십오 만 육십오 세 되까 나야 못받지만 그
국가에서 혜택 보느기 그런기 안되데 난

면담자 1 : 젊어 젊어서 고생하신 그것도 뭐 불로소득도 아니고 일해가지고 힘들으셔도 집사
고

구술자 1 : 이런 이야기하든 우리들은 뭐 내가 뭐 여서 삼십사 해리 함 나갔어 배 삼 톤짜리

사 톤짜리 있다이가 나갈 때부터 서풍이 하늘바람이라 이 바람이 겁나거든 나갈 때부터 바람 많이 불었어 그 우리 배들이 그 몽땅 다 나와 있대 그 지금은 지금 이이제트까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은 일본 바다라 일본바다 여여여 들어갈 건데 가서 그래가지고 폭풍주의보 우에 경보아이가 경보 딱 만났어 아 내가 중급 고기 몇 톤 파도 속에 배가 드가뵈는데 배가 안 올라오고 그 이튿날 그날 두 번 그랬 파도가 얼마나 높던지 그때 밤에 그리고 밤에 항해를 안해야 되는데 와 르 까프면은 파도에 배가 끼뵈는데 배가 들어갔는데 배가 여 무전기 무전기 인자 조 타실 안에 고기 있는데 거기 널찌부리 인자 무전도 몬해 거기 딱 떨어지뿌니까 아 인자 배는 보니까 완전 그 물에 다 잠기뿌데 완전 배 위에 선원들이 여여 배 안에 드가면 밝기는데 연로그기 올리났다가 배를 놓혀요 보면 이까지 물이 다 찼 뵈어 내가 들어올 때 인자 물간에 인자 그 우에 인자 데끼라고 있어 그래 내가 탈이 안났거든 파도가 썰 때는 그거를 열어놔야대 파도가 인자배를 세리뿔 때 글 로 물이 드가뿌거든 장어가 장어가 그때 팔십 키로 팔십 키로 백 키로 팔십 키로 정도 작업해뵈었는데 장어가 세 마리 있어 세 마리 파도에 얼마나 이래 여가 다다 물이 인자 이빠이 다 찼으니 다들 머 말도 못해 다 사라졌고

면담자 1 : 그래 다행입니다

구술자 1 : 내 그라고부터는 또 사 톤 짜리 타고 이십 마일 밖에는 안 나갔어 그날 죽을 고비 두 번 맞아 그 덕분에 내가 계속 배가 안 올라가

면담자 1 : 그럼 그 상태로 겨우겨우 이 들어오신 겁니까 거의 그면 잠긴 상태로

구술자 1 : 배가 거의 잠기뵈지 여 어항 요 여게가 돛풍배 있제 여게 이이 이기 다 잠기뵈다 니까

면담자 1 : 까딱 잘못했으면 진짜로

구술자 1 : 그래서 기관실에 물 몬 들어가게 기계 죽았뿌면 이제 끝나뿌지 기관실에 불 몬 들어가고 날로 갔다가 ★ 기관실에 물 들어가면 끝인거지

면담자 1 : 인제 머

구술자 1 : 엔진 죽아뿌면 인제 끝나뿌거지 아 어쨌든 죽을 고비도 마이 넘겼지 이거 그래 내가 가난하이 그래가지고 옛말에 필사즉생이라고 죽음을 각오하면 살 수 있다고 그걸 각 하고 인제 기억하고 딱 죽으면 죽고 마 언젠가는 한번은 죽을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인제 작업하니까 되더라고

면담자 1 : 옛날에는 그래 사고가 한 번씩 있었습니까 배 나가시는

구술자 1 : 배 나가가 그거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옛날에 돛단배 돛단배 요래가

면담자 1 : 돛단배

구술자 1 : 돛단배 요래할 때 육십 년대 그때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일곱 명이 못 돌아왔다

면담자 1 : 배가 침몰한

구술자 1 : 그래 돛단배 그때 같으면 고라고 그때는 그래 그런가 같이 그라고 인자 마 인자는 무전기 나오고 이라니까네 무전하고 요즘 무전하면 해경들 그 좀 즈기 바꾸면 될 건데 아까버 가지고 시키들 딱 옆에서 같이 들고 그거하고 우리 사고 나쁜 저그 즈기 책임 그거 안 질라고 그 그래갔고 사십오 해리 나가가지고 스크류에 통발 문어통발 문어통발 그 쓰레기 같은게 그제 스크루 들어가 깡기뿌가 해경에 그 불러났지만 시키 오가가지고 저기 좀 고 끌고 가면 될건데 아 그 조금 뭐 작은 배 가 육 톤 그 구 톤 칠 척 자기 그랬는데 그래있는거 그 저저 아가 앞에 그그 그리 났으 친군데 나도 구 톤 칠 천 하다가 나는 시마이 해뿌고 팔았뿌고 지금은

인저 지지는 칠천도 하고 사장님 썩 달아나 뿌려 하이튼 그래 스크류에 뭐 육 톤 짜리 배가 육 톤 짜리 배가 그 오는데 아 시키들 여섯 시 여섯 시에 글썽 해경 같음 즈그가 좀 끌면 될건데

면담자 1 : 자기들이 나왔으면 자기들이

구술자 1 : 혹시 인자 끌다가 사고가 나면 즈그가 책임감이 없거든 배 책임감 저 아 배 옆에 따라오면서 새끼들 그그 즈그는 그 또 우짜노 그기 그 작은 배가 끌면 그 작은 배가 그 뒤에 인자 그럼 큰 배를 끌면 진이 차니까 사라진거라 스크류 이래 돌아가는거 사와드라고 뿌라진다고

면담자 1 : 힘이 힘이

구술자 1 : 힘이 많이 차니까 그런 게 두 번이나 있었거든 내가 힘이 차니까 우리 저거는 그 내가 또 다른 거 뭐 그런

2-C 학리마을 이야기와 어촌계장의 삶

학리마을 별신굿은 어촌계에서 주관을 해서 어촌계장의 역할이 크다. 과거에는 별신굿에 마을 어른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현재는 어른들이 다 돌아가셔서 과거의 모습이 많이 없어졌다. 미역 양식장이 넓게 있는 학리지만 요즘은 미역값 하락과 판매 부진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다. 또 신앙촌, 일광신도시 개발 등으로 마을 앞 바다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해산물과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8. 학리마을 별신굿

면담자 1 : 아 그럼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옛날에도 어렸을 때도 저기 그 마을에 별신굿 있지 않습니까 별신굿 했었습니까

구술자 1 : 그래 그 별신굿한다 지금은 내가 그 우리 오년마다 했는데 그래 인자는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을 해주거든 삼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때는 인자 오개 기장군에 오 개 어촌계에서 이래했는데 공수가 저기 안되다 공수가 인자 십 년마다 저거는 십 년마다 한다고 인자 이제 다섯 개 어촌계를 회의 해가지고 그 저 공수도 기장 그 기장 해운대 여 같이 넣어주자해가지고 기장 그 육 개 어촌계 해가지고 육 년에 한 번씩 어촌계서 하는데 작년에 이천이십 년도에 우리 마을이 할 차렌데 이 코로나 바람에 못했다가 그래 올해 올해 올해도 할라다가 올해 코로나 또 이래 돼뿌가 못해 못해 저 육 년마다 한다가 올해 올해 그 뭐야 우리가 할 차렌데 학리가 할 차렌데 학리가 하고 나쁜 칠암 저 칠암 이촌 학리 구오 대변 공수 이래 여섯 군데가 기장군에 여섯 군데 인제 일 년에 한 번씩 해가 기장군에서 인자 삼천만 원씩 지원해주거든

면담자 1 : 올해도 그러머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구술자 1 : 여여 코로나 바람 못했어 코로나 끝나야 돼

면담자 1 :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괜찮아지면 내년에 인제 학리부터 다시

구술자 1 : 그거 인자 저 학리부터 머이 하기로 했지 학리가 저 코로나 바람에 작년에도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했으니까네 그 학리부터 인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지

면담자 1 : 옛날에도 그런 별신을 계속 했었습니까

구술자 1 : 했지 오 년 마다

면담자 1 : 어릴 때랑 지금이랑 좀 어릴 계장님 어릴 때는 인제 별신굿하고 지금하고 뭐 좀 다른 게

구술자 1 : 다른 거 없어 요 보면은 별 다른 거 없 그 당시에는 보면 일주일 했거든 일주일 하고 나면 본데 굿한 뒷전에는 재 바꾸 없었어

면담자 1 : 예?

구술자 1 : 굿하고 끝난 뒤에는 재 밖에 안남는 댔어

면담자 1 : 아 재 밖에

구술자 1 : 학리마을에 돈을 싹 다 걷어가

면담자 1 : 옛날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구술자 1 : 그러이 정관에 우리 저 할매가 저 구 저 고모 할매가 사를 그 당시 살 한 대 꾸아 꾸아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있기는기라 우리 쪼그마할 적에 보면 그런 여기 ★도 같이 자고

면담자 1 : 그러면 굿 다 보고 가신

구술자 1 : 그래 끝날 때까지 그 당시 티비가 없었다이가 티비가 그리이 즈 요즘 같음 그래 차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작년에 할 때 사일만 하기로 했어 사일만 일주일 동안 마 이동★ 그래하고 나면 그 지금은 인제 그 옛날에는 인자 용왕굿 저 하고 나면 그 배가 많으니까 한 천만 원쯤 나오지 천만 원 굿 한 석 하는데 하른 한 천만 원 그거는 한 사람이 자기 용왕굿 한 사람이 다가갓뿌 그 도저히 이거는 안 맞더라고 그 하먼 보통 마을 그 할 때는 배 한 척에 오십 오십만 원 상단에 길비가 들더라고 그 비가 드니까 그래가 이천십삼 년도 할 때 이래가 안 된다 그 몽땅 그 음식 치리놓고 자기 생각 있는 사람들 봉투에 넣어 가지고 마 절해라 그래 그거는 마 쓰리해가거든 그 저 돈 천만 원 가까이 나오면 그 당시에 돈 천만 원은 상당히 ★ 그 인제 고기 쪼금 바꿨고 또 좀 줄리 돌아왔지 일주 동안 하던걸 이제 사 일만 우리가 사 일로 하게 된거지 이천십 년도에 그거는 인제 그래가 인제 고 당시 이제 의논해가지고 이라다가는 별신굿이라는 탄 데 가문 보통 삼일 밖우 안해 이틀씩 이동에 저 가문 우리는 저거 돈 벌일라고 일주동안 하니까 이 배가 꼼짝 못하고 있는 기라 끝날 때까지

면담자 1 : 아 그때는 못 나가

구술자 1 : 그래 못 나가니

면담자 1 : 굿할 때 못 나가는

구술자 1 : 그래 인제 점심 같으은 몬 나가지 이거는 안맞다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삼일 삼일을 줄이자니까네 회의를 이자 해가 무너가 사일로 고 무당 그 때 당시 그 뭐 그 알보니까 내가 보니 이천십삼 년도에 풍어제할 때 그 내한테 주는 술값 되는 사람이 한 십이 년도 까지 어촌계장을 구십육 년도 어촌계장을 내가 이천이 년도 까지 하고 그 배가 있으이 내가 가난하니까 어촌계장 하다가 굶아 죽는다고 문다고 지금도 일이 많지만 저 인자 나도 좀 쉬야 되겠다고 중간에서 그 당시 칠 년 동안 내 삶을 인자 뭐 하면서 어촌계장 이거하문 급한 일 있으은 배 중단이라 일 보러 가야 되고 저 그러니까

면담자 1 : 배 나가실 때 일하러가야

구술자 1 : 그러니 이천이 년도까지 하고 고 다음부터 이천십 년도부터 십이 년도까 삼 년하

고 고래 요것도 십구 년도 올 연말까지 이래 이래하고

면담자 1 : 임기가 삼 년씩

구술자 1 : 어 삼 년이라 처음에 사 년하다가 또 삼 년으로 줄었다가 이게 할 중간에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면담자 1 : 일이 너무 많으셔서

구술자 1 : 그 일이 서류가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칠암에 어촌계장 그 뭐 올해부터 사람이 이장하다가 어촌계장한다 아 요 만났을 때 인자 코로나 바람에 수협이나 군에서 회의를 못하니까네 칠암 회관에서 하는데 행님 오랜만입니다 이라이까네 내가 내보다 나이가 세 살 한 서너 살 많은데 아 동생있제 이장요 이장은 한 달에 두 번만 회의하면 되는데 어촌계장은 아 침통하면 회이고 군에서는 그 공문도 마이 날라 오요 그래 마 그게 그 군청에서 ★이고 우리 이거는 안 맞다 그 활동비를 얼마씩 주든가 군에서 내 심부름만 너무 마이 시킨다이가 그라이까네 어촌계장도 의논해가 그 가서 기장군에 돈 마이까네 돈이 많으니까 우리 활동비 좀 내라 이라이까네 돈 얼마씩 주도 안 하더라 어촌계장 의논하니까 아 또 안 되드라고 아 우리 그 수협에 나중에 수협에서 다 인자 수협에 지금 빚이 너무 많거든 수협 저기 썩새끼 오징어 장사한다 해가지고 마 이래가 송서 부도 나가지고 부도 나서 돈이 백오십 백오십오억 백오십이억 원에 저를 오징어를 사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팔기로는 한 삼십억 그라이 씨 그라이 수협이 저거 엉망이 되가 있다

면담자 1 : 아 기장수협에 돈이 마이 있었는데 아이

구술자 1 : 옛날에는 그 당시 돈이 많았는데 농협보다 수협이 늘상 더 많아 점 다 돈 빌리주고 돈 부도 나쁘고

9. 학리마을 바다 양식

면담자 1 : 마을에 저기 예전에 양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술자 1 : 양식을

면담자 1 : 요즘은 별로 많이 안하시

구술자 1 : 지금은 그 당시는 자연산 돌미역이라 이래가지고 달 되든 돌 저 그 씻는 거 있자나 그기가 해갔고 그 작업을 한 달 동안 이랬는데 지금은 뭐 양식을 안 하니까 양식을 다 마이 하니까 저 자연산 미역도 안하는 평판이라 우리 여 마을 우르 어촌계게 십 헥타르가 있어 십 십헥타르 있는데 십 헥타르 상당히 너르거든 요즈음 코로나 바람에 안 팔리니까 다시마도 몬 팔아가지고 지금 이래 우리 여는 조금밖에 안하니까 십 헥타르 그 십 헥타르 그 다 안하고 십헥타르다 이래 그 이동 이동 이동이 제일 마이 하자나 이동이 저 ★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개장 밀렸다이

면담자 1 : 아 안 팔려 지금

구술자 1 : 식당이 안되니까 식당이 다 문을 닫아뿌니까 그리 요번에 그 그 양식 하는 사람들 바이오 이래가 해양수산부서 백만 원씩 지원해서 지원을 지원금

면담자 1 : 그 재난 지원금처럼

구술자 1 : 재난지원금맹크로[처럼] 뭐 양식을 뭐 저 적자 다시마는 안된고 미역한 사람만 저 한기고

면담자 1 : 백만 원 가지고 저기

구술자 1 : 그러니까 생색

면담자 1 : 생색만 낸

구술자 1 : 생색이 선거 때가 되자 인자 ★ 했지 그래 다시마는 미역 우리가 여가 미역 마이 안하고 다시마 ★했다

면담자 1 :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미역 다시마는 수출하고 막 이래서

구술자 1 : 우리 일본 수출한 게 그

면담자 1 : 그때는 돈이 좀 많이 됐

구술자 1 : 그 당시 다시마 해가지고 이천 년도에 일억 같으면 다시마는 잠깐 한다가 십이 월달 부터 육월달 까지 잠깐 이래 한 칸만 하고 죄 만다만 그 당시 다시마해가지고 돈 일억씩 일본에 ★

면담자 1 : 아 그럼 겨울 이렇게 지나면 한 철 해가지고

구술자 1 : 그러니까 십이월달에 감아놓고 그 인저 오월달되든 캐거든 그 당시 그 같으면 상당히 크지 이천 년도에

면담자 1 : 아 돈이 많이 됐던

구술자 1 : 그 당시 그 그리 해가지고 머

면담자 1 : 계장님은 인자 양식은 할라고 안하셨

구술자 1 : 나는 그 당시 양식 마 안해가 오월 오월기 어선은 ★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이 집 샀을 때 양식 할라고 우리 어촌계 그거 아무도 안했거든 여 물줄구가 썰가 아무도 몬한다 하더라고 티티피 티티피 저거를 가지고 인자 딱 이래가 머 사계로 마 나아놓고 한 칸은 무조건 밀리뿌니까 안되고 저기를 할라고 하니까 내가 이기 사고 빚이 많다는 소문이 나니까 마카 다 돈을 안빌리주 그 당시 천 만원 그 천 만 원만 이랬으면 양식도 그리 나갔을 건데 그 당시 티티피 한 개 큰 거 저 저거 방 파제 큰거 하나 한 이십오만 원이라 저거 저 내가 어촌계장할 때 내 세 개 열 개 한 개 이십오만 원씩 주면

면담자 1 : 많다

구술자 1 : 저 오백 개 저거가 다 나아준다고 해갔고 저기 우리가 다 나아줄게요 즈 공사하는 사람들 나아줄게요 하세요 요래 돈 천만 원 못 빌리 그래 구십칠 년도 그때 돈 천만 원을 못 이거 빌리가 사가가 빚 많다고 아무도 돈을 안 빌리쥬다이가 그 대신 이 집 사가지고 바다 가서 그날도 폭풍 경보라 바다 결국 바다 나는 칠 톤 짜리고 이십 톤 짜리 배들이요 전부 다 끊아뿌고 다들어오뿌 안 죽을라고 나는 그 때 작업 다해가지고 들어오니 내 보고 지독하다 지독하지 내 통장에 백팔십 원 뿌이라 아무도 돈 안 빌리주니까 그 어장 다 땡기고 내보고 독한 놈이라고

면담자 1 : 그러하시니까

구술자 1 : 그래 할 수 밖에 돈을 마이 빌렸으니까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십 톤짜리 타거든 주낙 땡기다가 저 큰 고 치르고 안 죽을라고 그 그때는 여 오 해리 오 해리 요 오 해리에서 하고 칠 한 팔 해리 요 사이 요 가에서 하니까 아 딱 파도가 한 칠 팔 메타 되대 ★ 남서풍 그 당시에 파도 칠 ★ 그라믄 인자 막상 딱 들어올라고 보니까 아 이 배가 어찌 들어가겠나 싶으드라고 해가 지믄 여 해가 어둡기 전에는 파도를 보고 이래 항해를 하고 이래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무 밖에 삼십사해리 밤이 되나놓으니까 파도가 안보인다가 그래 야간 항해하니까 파도 속에 들어가고 생각이 나서 인자 아 배가 어짜든 해지면 어떻게 밤 해가 지니까 바람이 없더

라고

면담자 1 : 진짜로 천만다행

구술자 1 : 하여튼 배 이러면 죽을 고비도 마이 넘갔다 그 나는 인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필사 즉생이란 말이 죽음 각오하면 살 수 있다 오직 그 내 아무 재산도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머 그래 생각하면 되드라고

면담자 1 : 그래하셔서 동생들 하고 자녀들하고 키우신 거 같습니다

구술자 1 : 아무 들어올 때도 하나 있고 오직 집 쪼마난 배 일점오 톤짜리 일점오 톤이든 이거 일점팔 톤이다 그래 이 뭐 배다 그래 작업해가 대마도 앞에서 작업해가 저 저

면담자 1 : 저런 배들은 진짜 한 삼사 미터만 불어도 잘못하면 뒤집어지고 이러면 큰일 나거

구술자 1 : 이 타고 대마도 앞에서 작업하다 북동풍 북풍 만나가지고 아 지 들어오니까 얼굴이 부았더라고 파도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부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돼 살라꼬 이제 파도 맞을 때는 몰랐지

면담자 1 : 보통 배 나가실 때 그냥 혼자만 나가십니까 아니면

구술자 1 : 아아아 아니라

면담자 1 : 다른 배들 같이 좀 이렇게

구술자 1 : 아 배 한 척 보통 보면 뭘 두 척 세 척 이래 나간다

면담자 1 : 같이 나가셔야 그나마 좀 위험

구술자 1 : 그래해도 나는 마 무조건 하건 내 혼자는 안나간다 배가 나가야 돈이 들어오니까 돈 뭘뭘 다른 내도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배 그 하나 가지고 그 칠팔월 대문 태풍 땀에 배가 뿌아지가 고생도 마이 했다 아이고

면담자 1 : 말씀 듣다 보니까

구술자 1 : 그게 그리 너무 고생해가 문제 아이가 지금

면담자 1 : 몸이 여겨여기 다 아프신

구술자 1 : 이때 요번에 백신 그거 우리는 인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글 내 다리 다친 그 여침 여가 아프드라고 그 병원에 한 번 갔다오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이즈비있다 이러니까 그래 병원에 갔다가 한 이삼일 있으니 괜찮드라고 그 다음에 허리 이십 년 전에 인자 허리수술 저 이천 이년도에 허리 수술 해사 여가 아프드라고 또 병원에 갔다가 영양제 맞고 나오니 그아뿌면 나중에는 어깨가 안 아픈 자리가 없다 안 아픈 자리가

면담자 1 : 진짜로 말 그대로 온 몸이 골병

구술자 1 : 옛날에 너무 지독하게 해놔 내놓으니까 이게 다 골병이라 골병

면담자 1 : 고생

구술자 1 : 옛날에 길 받아 같으면 인자 인자 그 인자 우리 친구들 돈 벌인다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더라 아이고 지독하게 그 병원에 가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랬던가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여 서가지고 지금도 아침에 일라보면 주로 보통 아침 다섯 되믄 일라면 저 방파제 일점 한 바퀴 돌고 지금도 다리가 아파 구러문 살고 보나 배 저 높은 데서 뛰 내리가 그래 내가 그 내가 구 톤 칠십 짜리가 배가 좀 크랴어 지금 저쪽 앞에 배 그 앞에 배 있지 저게 구톤 칠천인데 배가 저만한거 이자 대구 잡는다고 대구바리한다고 그건거라 아따 남을 시키나 놓으가네 이 그물 내가 중국산 안 쓴다 했는데 어장 나아가는데 그물이 썩은 것이 중국산이라 어장 나아가는데 그물이 다 썩어지뿌가 아 그거 같고 마 또 그래가 참 무치가 임마 때려 치뿌가 시바 그 한 일억 정도 손에 봤구만

면담자 1 : 아예 그럼 고기 못잡으신 겁 그 찌어진

구술자 1 : 그래가 소송할라이까네 알아보니까네 아이 소송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이라이까네 그래가지고 배갔다 와 가지고 그물 내 손으로 만들었다이가 그래가 르까프네 그 조금 이러이 그 다음부터 인자 내 손으로 여기서 인자 아춤 다섯에 일라든 저녁 아홉시까지 딱 하든 딱 그물 한 포 한 포라 대구 그물 인자 그래 가든 삼십 개 이래이래 한 개씩 만들어가 그거를 만드는데 자꾸 앉아서 하니까 목이 아프니까 병원에 그 인자 목이 아파가 이번에 작년에 목이 아파가 모 있는 병원 갔거든 무슨 일로 인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물 맨드다고 아침 다섯 시에 나아가 저녁 아홉 시에

면담자 1 : 그 자세로 그 앉아 계셔가지고

구술자 1 : 그 저녁 아홉 시까지 딱 앉아가지고 그 빼고 그 다리가 요 목 마 나가고 그 목 험 착됐어 세 군데가 수술해야 되는데 아직 수술을 단계에 의해 그리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받고 그르이 팔만 원이라 별도로 그라든 십만 원 이 맞고 나면 대개는 인자 다섯 번 뿐이라 그라다 그그 이제는 고만해라 그래 한 번씩 잡으면 또 목이 아파 앉아서 하는기가 하지 말라더라고

면담자 1 : 제일 앓 좋은데 앉아서

구술자 1 : 그래 내가 앉는데 내가 배 가면 저래 배 인제 배는 인자 다 정리해뵈고 그 남의 배 사람 따라가자 앉아서 거 앉아서 일을 열두 시간 진짜 고기 올라오면 그리 해 뵈야해 그르 하니까 허리가 또 아파 허리가 돌아 와가 허리 수술해야 돼 그르 여 철봉도 만들어가 철봉 인자는 어깨가 아파가 철봉 매달리지도 못해

면담자 1 : 여기 젊은 사람들은 배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학리에

구술자 1 : 지금 거의

면담자 1 : 안계시구나 다 계장님 연배

구술자 1 : 전부다 직장 가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 인제 우리 또래다 전부

면담자 1 : 계장님 세대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학리에 배하는 사람들이

구술자 1 : 첨에 인제 배 인제 그거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인제 많았어요 동네 친구들이 많았어요 오오년생들이 많았어요 오삼년생들이 전부다 오오년으로 이래가지고 사짜 옛날 사람들 사짜 그거 안 좋다고 이래가 오오년생으로 이래가 일곱 명이 지원해 가고 신체 검사할 때 서른한 명이 신체검사를 받았으니 그 당시 여촌이

면담자 1 : 그때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

구술자 1 : 그 당시 젊은 아 자식들 일곱 여덟 명 아이가 오십 년대 같으면 그 내가 인제 아버지 돌아가고 내가 제일 먼저 배를 했지 전쟁나고 이러니까 즈그는 인자 상선타고 결혼하고 그때 상선타든 결혼하든 다 바람 나뵈다

면담자 1 : 머 일 년씩 나가있으니까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그래해라 상선 마카 그 우리 친구들이 저 배가 마이해 그때 내 다리하다가 배하다 인자 죽은 사람들 일곱 명 있고 지금도 뵈이여 ★ 그 당시에는 내가 할 때는 너이도 하고 지금 너이가 하고 ★ 우리 때 지금 나이가 이자 뭐 이래되니까 한 해보니 한 삼년 글라는 머 티비에 뭐 칠십 세살까지는 머 돈을 벌어야 된단하는데 내가 나는 지금부터 그래

면담자 1 : 지금까지 다 이루셔서 너무 인제 무리 안하시고

구술자 1 : 인자 몸이 안 되니까는 몸이 자리가 어뜨면 몸이 안 따라주는기지 요 밑에 배 가면 열두 시간씩 열네 시간 켜 앉아서 하는 그거로 그래서 그 허리 허리가 문젠기

지 허리가 딱 소변 볼 때 그때만 한 번씩 일라는기라

면담자 1 : 진짜 힘드시겠

구술자 1 : 그래 세 시간 네 시간 마 하는기라 옛날 삼십 톤 짜리 그기 인자 삼박 사일 인자 사박 오일 이래가지고 삼백 톤씩 하리에 삼백 톤씩 가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박 삼일 이틀만에 다 좋은 어장 딱 ★ 밤 새도록 해 밤새도록

면담자 1 : 진짜 쉽 없이

구술자 1 : 그래 인자 백오십이 넘으면 보통 열네 시간씩 열다섯 시간씩 이랬거든 앉아서 인자 내가 앉아서 인자 고기 올라온 고기 잘라 잘라야 해 고기 작은 어장 오른 어장 ★ 일해 주면 뭐 아 중간에 ★ 피곤하니까 중간에 한 번씩 교대로 교대로 일해야되지 내가 선수이 넘으면 몰라도 인자는 나는 요새 그거 마 했다 이제 마 이래 내가 인자 살아가지고 얼마나 ★ 얼마 살겠나 하고

면담자 1 : 그 백세 시대라서

구술자 1 :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욕만 들어묵고

10. 마을 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변화

면담자 1 : 한두 가지만 더 여쭙보고 마무리를 인제 마을 이야기를 좀 요기 원전이 가까운데 원전하고는 크게 마을은 뭐 문제는 없습니까?

구술자 1 : 우리 원전이 지금 양식이 양식장하고 인자 위에 해조류 양식장이 있고 마을 어업이 있거든 보상을 주는데 강원도 저 전남 그 영월이가 그는 거리를 이십 키로 까지 줬는데 우리 여는 딱 팔 키로 딱 끊으니까 딱 마을 어업이 두 군데 이랬는데 방파제 이 밖에 육점오 헥타르 요거 밖에 안돼 그 고기 딱 칠점팔 키로 딱 걸린 다면서 고거 밖우 안돼 그래 그래가 저거 저것도 뭐 우리 여는 거리가 모다가꼬 돈 조금밖으 안돼 이래가지고 그렇고 그래가 돈도 안받고 데모 집회한다고 그거 하고 그 대법원에서 그 인자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서 조사한거

면담자 1 : 안 그래도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 봤습니다

구술자 1 : 그래 전남대학교에서 인자 조사한 그대로 이자 주도 된다 대법원에서 판결 났거든 학리★ 그 저저 동백까지는 동백마을은 인자 마을 어업이 육십삼 헥타르 여계가 동백은 얼마 받았는가 이라니까 이십구억

면담자 1 : 마을 전체로 받은 기

구술자 1 : 어어 마을 어업으로 ★ 이십구억팔천 만원이가 이리 받았단 우리는 뭐 그기 뭐 말 하는거 일억 이천

면담자 1 : 얼마 안떨어지는데

구술자 1 : 그러이까 그거는 인제 저저 부경대학교에서 조사한대로 그대로 주면 우리는 우리는 인자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어업대책위원회라고 있어 그가 인자 그가 인자 위임을 해논거거든 아이씨 데모하라고

면담자 1 : 원전

구술자 1 : 그 즈그이 적은 기라★ 돈 뭐 대법원에서 이겼으면 말라고 집회하냐 이 답인데 그 날 집회 그 이십이 일날 한데서 내 거는 이틀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 아 이 뜨거운데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거야

면담자 1 :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구술자 1 : 아이 나도 그날 여서 그날은 군에 갔다오면

면담자 1 : 어제 그 저 왔을 때

구술자 1 : 그래 어제 갔다와가지고 ★ 수협에가 내 딱 앉았는데 머리가 멍하더라 아 이라다 이 온열질환인데

면담자 1 : 열사병

구술자 1 : 그래 열사병 온열질환 그 중요한기 아이고 아 도저히 안되겠다 집에 가가 세수하고 에어컨 틀어갔고 자고 그랬더니 내가 그 구십육 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 땅 저 이거 사기 저게 땅 사십 평을 저서 창고 하나 짓는다고 그 딱 이때 될 때 막걸리 인자 그 걸어서 ★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막걸리 한 잔 사가가지고 창고 조그마난 거 저 배를 하니까 불현듯 저 막걸리 한 잔 묵고 나머지 그 다 그 반 병이나 되는 걸 마시고 복숭아 저걸 딱 묵었는데 딱 거서 딱 정신이 딱 가뿔어 하필 그 집사람이 왔어 밥 무려 안오이까 그래 내 살았지 갑자기 거서 머리가 멍해 온열병이라 지금 생각하면 그서 딱 앉아 못 일라 그래 내가 집회를 하든

면담자 1 : 위험

구술자 1 : 내가 이 골치 아프더라고 그래가 버스도 없고 코로나 바람에 차 각자 개인 개인으로 인제 택시 타고 오머는 이 뭘 ★타 시★ 이 언제까지 몇 시간 할거고 어업대책 위원회 전화하니까 잠깐 한다더라고 아 대법원에서 이갔다면서 말라고 재판하는데 사람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거고 아 어촌 사람들 고집이 세가

면담자 1 : 원전이 생기고 뭐 저거 양식하고 물고기 잡고 뭐 이런 거는 이 영향은

구술자 1 : 어 그거는 없제

면담자 1 : 학리마을은

구술자 1 : 우리 여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면담자 1 : 아 수온이나 이런 건 많이

구술자 1 : 수온이 일도 차이는 일 도 차이가 나면 육지에는 십 도 차이가 이런데 우리는 별로 그런게 없지 그냥 못 느끼데 못 느끼는데 그 인자 그런 거 해사테

면담자 1 : 지금은 일광 신도시 생기면서 일광천으로 이래 물

구술자 1 : 고 그래가

면담자 1 : 토사 막 흘러나오고 그거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데

구술자 1 : 그 토사 나오고 그그 부산 해녀들이 제일 많이 사시기 팔백만 원 일인당 팔백만 원 어선 어업은 뭐 오백만 원 사백만 원 마 이리 배상을 해주드라고 사백만 원 팔백만 원 다 땡기데

면담자 1 : 해녀 할머니들께서 여기 작업하시면 많이 피해가 있기는 있으신

구술자 1 : 피해는 있지 그 그 부토가 그거하고 쌓이고

면담자 1 : 밑에 흙도 많이 쌓여가지고

구술자 1 : 그거는 뒷 문제고 신앙촌 이 새끼들이 그 이 여 저기 배타고 나가면 우습다 우스워 다 밀었어 산

면담자 1 : 아 배 타고 나가면 보이 여기서

구술자 1 : 배 타고 나가면 보인다가 산 완전 깨 하니 다 밀아뿌고 산을 다 밀어뿌고 부토가 그 해녀들 말 들어보면 한 십 센치 이래 재 저가 있다는 거야 저거는 소송을 해도 안되고 비가 올 때마다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 해녀들이 그때 한 번 그때 몇 년도고 이천이년 도가 고때 이억 받았어 학리서 해녀들이 이억 받아가 그때 내가 어촌계장 할 땐데 아이 너거 받았다 너거 처리해라 내한테 오지마라 나

는 돈 저런 거 제일 싫거든 잘 몬하면 불익이 ★ 잘 몬하면 니 검찰에 ★ 느기 처리해라 느기 받았으니 느기 처리해란 난 신경 안 쓴다 즈기 다 처리하고 진짜 금전 저거는 조심해야지 어항 우리 여 이종어항 만들면서 어떤 사람이 어촌계장을 했는데 ★ 죽어가 아 이 사람이 칠십 칠십세 살에 곧 만들 때 거기 학리 여기 이종항구 생★ 기 위해서 여 저 이동 것 하고 우리 학리 여 이라문서 항이 됐다 안에 어업허가가 전 됐★ 손님이 그 일광이 해수욕장이 구리막이라고 있었어 그 기 인제 부곡 남산경찰서에서 딱 형사들이 나와가 학리 어촌계장을 잡아가뿐기라 혹시 금전관계 있는가 싶어가 그 잡으면 그 사람은 내하고 비슷하거든 여 ★수산 주인인데 저긴데 ★ 땅땅 주인인데 ★ 내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절대 책임자하더라도 금전관계만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장인제 하고 그래 되부면 경찰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금전관계가 없으니까 하리 쯤 있으니 풀리 나데 거리막 주고 거리막 저거 저기 같으면 비싼 거죠 여여 우리 정치망 같은거 여 부산시 한 명 뿐이다이가 하나밖에 없다 여서 하나씩 사가 논계 십억 십억에 그 전국에 아무데나 다 가 강원도 가도 돼

면담자 1 : 그것만 허가만 있으면

구술자 1 : 그 허가 정치망 허가 이기 주로 그거 하는 나도 책임자 하면서 금전관계 인자 대충하면 안돼 요번에도 그 작년에 울산석유공사에서 그 구월 십일날 기름 열다가 바다에 저 떨어뿔어 그래 보상금 한 이천 오백만 원 받았다 그 회의를 해가 주야 되는데 그때 나는 마 회의 안하고 법적으로는 오십일 대 사십구더라고 어촌계가 오십일이고 행사자 그 행사지 행사자가 사십구더라고 나 주뿌라고 그라니까 저거도 마 피해가 마 ★ 배상이 높기 때문에 ★ 다른 어촌계는 마 다 안했는데 우리 월전 신평 동백 네 군데만 했어 십팔 개 어촌계에서 난 다른 어촌에서 나와라 하니 아이고 거 그거 저 해가 나오면 욕만 듣는다 잘해도 욕이고 몬해도 욕이고

면담자 1 : 일만

구술자 1 : 난 하고 괜히 안하면 안한다고 그러고 해노면 해노면 또 해논거 돈 빨리 안준다 그라가

면담자 1 : 일하시는 분이 제일 고생이

구술자 1 : 내가 어촌계장을 지금 십삼 년째 하고 있는데 앞전에 십 년하고 이번에 삼 년하고 십삼 년째 하고 있는데 잘해도 학리 학리 도로 거 어항 진입 도로 지금 내가 다 했는데 내가 그 해수부 사워서 해양수산부하고 사워서 도로

면담자 1 :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학리가 조금 어촌으로

구술자 1 : 다른 놈들은 이리 놔놓으니까 자기 혼자 챙기대 나는 가난하이 커도 내가 할 것만 하고 또 내가 무슨 당버자거 무슨 돈이 어데있노

면담자 1 :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술자 1 : 지금 마을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거도 신양촌 땅이 되가 그 지구단위 계획도 되 있거든 거서 내려오고 그래 그거부터하라고 고만큼 그래사트만 그거 하도 안하고 이장들이 몇 년이 됐는거를 하도 안하고 그림 도로 하나만 저쪽으로 나면은 진짜로 여기 학리가 더 좋아질건데

면담자 1 : 저 우에서 길목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여 쪽으로 이래해 여 밑에서는 그 조까지 되가 있어 되 있는데 여기서 내려와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데 고거를 안하고 이때까지 내 이장 몇 번이나 바뀔 동안 몬하고 에이 씨발 내 그래가 서운 하니 지금 이

장이 내 친군데 아래 전화하는 거 같데
면담자 1 : 예 한 번 전화 드려
구술자 1 : 내 여 앓아 있는데 니 그 저기저기 내일 조사바라는 전화하는거라 하니 맞다 이장
이 뭐 이 사람이 니가 마을의 이장이면 니가 뭐 이래야지
면담자 1 : 그 전에 인자 전화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하셔가지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구술자 1 : 고 고귀 님으로 간데이
면담자 1 : 두 분 동갑이십니까
구술자 1 : 고거 우리 학교 동기다 학교 동긴데 어쨌든 저거가 대구에서 그 나이 ★가 되어와
됐다 이러면 이장보고 자식이 와 아버지 ★ 내가 인자 자기가 아직까지 ★이고
나는 머리가 이래가지고 어릴 때 고생해가 머리도 허영고 이래가이까 우리 동기
가 그래 우리 동기들끼리 인제인제 동기회 한 번씩 하면 우습다고 마 그러는데
면담자 1 : 이장님은 또 그때 여쭙보니까 밖에서 계시다가 생활하시다가
구술자 1 : 그 경남에 저 마 한 번
면담자 1 : 그래서 머 계장님 여쭙보는게 제일 낫다고
구술자 1 : 지는 정관에 정관에 저 한 팔 년
면담자 1 : 아 그 얼마 안계셨 저는 한참 젊으실 때 밖에서 계속 계셨는가 싶어서 이장님하고
한 번 인터뷰를
구술자 1 : 아 그 저저 지는 밖에 좀 있었다 칠암 있다가 전남있다가 그 저 돈벌인다가 유선
티비 유선 선 그하는데 우리 그 한다고

11. 신앙촌과 학리마을의 소송과 향후 관계

면담자 1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켄끄러울 이야
기일 수도 있는데 신앙촌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인제 마을 이렇게 둘러보
다가 보니까 마을 뒤편에 철조망이 전체적으로 다 둘러져 있어가지고 그게 언제
만들어진 지금 이기 몇 년 됐으 된거
구술자 1 : 철조망 철조망 설치하는 십 한 오 년도 십이 년도 이천십이 년돈가 내가 왜 이래 철
조망을 치나놓이까네 그 당시 박00이 아들이 둘이 둘이 운명이
구술자 2 : 00이 ★
구술자 1 : 어?
구술자 2 : 00이하고
구술자 1 : 아 그래 박00이 하고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았는기라 저 사람 말은 이래가지고
혹시 저거 먹는 물에 독극물로 인자 약을 뿌릴까 싶어서 철조망을 안 놔놨나 그
건 하나의 핑계라 즈그 인자 땅에 들어오지마라 이거라
면담자 1 : 안에 보이까 밭도 그렇던데 그것도 다 저저 신앙촌 꺼
구술자 1 : 전부 신앙촌이라 신앙촌 우리 지금 요 산만 개인꺼 팔 때 이씨들 일광면에 이씨들
즈그 산 전부 신앙촌
면담자 1 : 저기 산들 다
구술자 1 : 그래 전부 신앙촌이라 밭도 그 밑에 밭도 마 우리 학리는 인제 주택 주택 요것만
각자 개인꺼지 전부 신앙촌꺼라 그이 그 밑쪽에는 우리 해녀들 들어가는 저 우리
마을 어업이 두군데 거든 육점오 헥타르 있고 저저 학리 죽성간 경계선에 오점칠

핵타르가 있거든 그 인제 신앙촌 길로 건너야 됐는데 즈그 땅이라고 작년에 막아
뽐거라 아 올해 작년에 막았나 이래가 내가 상의하고 이제 핑계될 거 없으니까
코로나 바람에 못들어오구려

면담자 1 : 그럼 지금 거기도 철조망 다 쳐

구술자 1 : 철조망 다치고 군부대 마 칠공팔 부대 내가 그 저 전화할 때 하이까 이름이 구학
철이라고 느그 여 들어올라든 여 전화하라고 해놔네 그 핵철이가 우리 형식으로
그라지 실제 만들기 신앙촌에서 만들었어 아예 못 들어간다

면담자 1 : 군부대에서 그걸 못하게 막았어야지 그걸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데를

구술자 1 : 저것들하고 대화가 안된다 대화가 안돼

면담자 1 : 머 그렇게 한 번씩 오기는 옅니까 아예 아 교류를 아예 안합니까

구술자 1 : 작년에 그 폭우 때 그 산에서 그 인자 산에 찌꺼기 막 내그든 내 그 작년에 태풍
오고 이래가 태풍 때 비 마이 왔거든 내 두 달 동안 못 갔네 여 한이 증서 이런
데 도움이 안돼 도움이

면담자 1 : 그 마을이 너무 이 중간에 뒷부분이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구술자 1 : 그래 일종의 일종의 여가 섬이다 섬 쉽게 말하면은 교도서 마 교도서나 마찬가지로
다 들어오면 마 돌아가니 길이 없으니까는

면담자 1 : 저 하나 밖에 없 입구 길 하나밖에

구술자 1 : 들어오면 여 섬이라 다시 나가야 되니까 글머 이 저 군청에 그 토지 정보과 가서
학리는 섬인데 왜 공시지가 이마우로 안나오노 어째서 선인데 이라니까 저기 신
앙촌 너거 그 길이고 돌아가는 길도 없고 마을가 대한민국 마을가 마을 사이에
도로 없는데는 우리 요가 밖에 없어 학리 죽성 간 요 밖에 다시 죽성 갈라든 요
요 바로 가든 요요요요

면담자 1 : 오분이면 갈건데

구술자 1 : 잠깐이면 넘어가는데 다시 일광 나아가지고 돌아가 이리 들어가니까네 우리 여여
여여 어릴 때 여여여 걸었다냈거든 여여여 요기 저거 저거 짐 요래 보면 실제로
닭아가 감나무 심어놔는데 그거이 보면 군 도로가 있어 구 당시 옛날에 제 십오
군부대 폭발장 요기 인자 그 미군들 무기 인자 폭발시킨다고 도로가 인자 딱 저
서 딱 찢라뽐는기라 저서부터 전부 신앙촌 저거 땅인기라

면담자 1 : 그 옛날에는 글로 해서 돌아서 다닌

구술자 1 : 돌아서 저 폭발장에 가서 인자 그서 폭발 시키려고 그랬는데 대화가 안돼 대화가
안돼 저그 거서 술 담배만 안나오지 다 나오거든

면담자 1 : 아 거기 공장 있지 않습니까 안에

구술자 1 : 그 술 담배만 안나오고 볼트 같은 거 간장 식품

면담자 1 : 아 그런 것도

구술자 1 : 그기 요 여서 보면 시온 간장이

면담자 1 : 예 그건 알고

구술자 1 : 여서 해묵어야 되는데 집에서 신앙촌 간장 하나는 역수로 좋아 두부하고 술 담배
만 안나오지 다나온다

면담자 1 : 그르니까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술자 1 : 그래 자기들끼리 그럼 전부 인자 경작해가이고

면담자 1 : 아 농사도 안에서 짓습니까

구술자 1 : 농사도 짓는다이가 저저 산 저것도 밀어가꼬 감나무 심어가꼬 저거 흙탕물 내려가

여가 엉망대가 내가 싸움하고

면담자 1 : 아 그래서

구술자 1 : 도저히 대화가 안돼 우리가 고발 해뉘면 저거는 벌금만 내면 된다 이거라 대화가 안돼 저거하고는

면담자 1 :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구술자 1 : 저 우리 그 폭발장에 땅 그 국유지라 그래가 그 개간해가지고 고구마 심어가꼬 보릿고개 때 그때 식량 대신인데 그 이래 이래 하거든 인제 그 전부 그 당시에 그 개간한 사람들 한 평에 백 원씩 주드라고 우리가 그때 이백 평하고 사백 평하고 두 군데가 사백 평은 아예 주도 안하고 이백 평에 돈 이만 원 이라 그 당시 이만 원 가치 있었지 이 그래가지고 칠십 년대 칠십 년대 요래 그르 우리 여 마을 어업은 계약한거는 칠십오 년도 그 당시 그 서류도 새끼마 그 당시

면담자 1 : 그럼 그거주고 자기들이 흘랑 가지고 간거

구술자 1 : 그그 그래 약속은 그래해놓고 주지도 않아고 시키 받았다가니까 대법원에 짓뿌따 이가 내가 소송을 내가지고 그 칠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 지뵈는데 팔월 달에 즈기 내보고 함 만나자는 말이 있드라고 아 내 너거하고 대화 안 한다 그 세 번이나 내한테 한 사람이 왔드라고 정 만나고 싶거든 우리 어촌계 세 사람하고 저그 세 사람이 오라서 우리 어촌계 사무실 오라까 어촌계장 혼자 제 삼의 장소에서 인제 금전을 가지고 나를 유혹 유혹 유혹하려고 이런 식으로

면담자 1 : 입막음 할라고

구술자 1 : 내가 즈그 한테 시바 돈 받아가꼬 내가 그 만약 예를 들어서 내 금구마한 받았다는 내 학리 동네 떠나겠다 내가 집을 이만큼 저기 이만큼 해가 아이 이거도 마 ★

면담자 1 : 평생 여기서 계셨는데 뭐 그런 거 받아가지고

구술자 1 : 내가 마 여 육대째 살고 있는데 그러고 저 도로 저거 딱 저거 들어오는 도로 땅 오십 평이 저거꺼라 하는데 여 학리어촌계로 소송을 냈다 내가 어촌계장이 되니 내가 인자 법원 법원에 그 당시 십이월 달 우리 여 대구가 십이월 달에 나가든 전부 ★ 십이월 이십삼일날 우리 부산지방 영하 칠도 이라는데 울산 앞바다에 바다에 영하 십오 도 이래서 바로 앞에 사람 니가 내가 있는 거 안보여 바다에 김이 찢다꼬 얼마나 찢었는데 그래가 그날 내가 오후 네 시에 재판이 되가지고 내가 새벽 두 시에 나가서 다른 날 새벽 네 시에 나가는데 빨리 들올라꼬 앞이 보여야 뭐 일을 하지 기장군 배들이 조계하니까 일곱 척 나오더라고 이동 대변하고 대구잡이하는 배들 작은 배들 나오도 안하고 이런 배가 조금 크니까 인제 그래가 저 작업 안된다 사고나겠다 상선들이 항해하다가 전부 올 스톱이라

면담자 1 : 앞이 안보이니까

구술자 1 : 앞이 전혀 안보이니까 그래가 배가 거서 인자 아무나 하니까 조금 나온 김에 조금 우리가 거 인자 겨울 되면 거는 인자 시베리아같다 파도가 얼마나 썰던지 고 울산 앞바다 됐다 서구에 그래 결국 작업해서 작업 해가꼬 파도가 썰니까 해필 그날 냉각수가 안 나오드라고 그래 밀폐라 그라 뜬다뜬다 그 돈 한푼 여 순지 비하거든 이래이래가 송어까지 감아오는 딱 여어뽕면 오 센치라 그날 밥 한 끼도 안나왔으 딱 소주 한 병 딱 마시고 작업 잠깐 ★ 딱 가니 오후 네 시 더라고 거 다음 재판이 이천십삼 년도 이월 이일날 하자꾸로 그서 인자 지금 나도 그 말한마디 합시다 알았다 그기는 내 내용증명 보낸 거 봤습니까 봤다 그러더라고 나

내하고 관련 없는데 와 자꾸 나를 부릅니까 내 이 소송 끝나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내 작업 문하고 매득 유월 한철이라고 대구 십이 월 달하고 일 월 일일 되면 조업 어★ 조업 못 잡게 돼가 있으 그래 십이 월 이십삼 일 크리스마스 그 이틀 전날 엄청나게 추와 그 인자 올 공기가치 추운 날 내하고 배 함 나가 바다에 내 배가 있으니까 바다에 함 나가자 내 작업하는 자리에 딱 아무 ★ 그라드만 다음 재판에는 내가 이천십이 년도까지 내 임진데 이 십이 월 삼십일 일까지 내 어촌계장 내 임진데 내 이거 마무리해야된 이랬거든 딱 재판에 오지말라 그라더라고 그래갖고 일주일 딱 있으니까네 십이 월 삼십 딱 되니까 딱 법원특별송달이래가꼬 거기서 이리 넘가놓고 소송비용은 각재 부담하고 취하한다 이래 그건 내 내가 그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든 그래 소송하든 오히려 내가 돈 받는거 보다 내가 더 손해라 작업을 못하건든 작업 못하는데 대구는 못 잡아도 가자미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다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내 배를 딱 추적 하는기라 몇 시에 출항하고 몇 시에 입항 합니까 지금 고기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내 거기 뭐 무전기 딱 꺼뿌고 전화로 해라 내가 전화 딱 해가 ★ 너 그 법원에서 느그 내 그 추적하라재 모른다 모른다 그 지금은 브이피에스가 있어가지고 어데서 출항해가 안다는데 그 당시에는 어선 동선이 출항이 안되는 기라 딱 거서도 그리가지고 ★ 배 이거 딱 정확하게 하라꼬 지시가 내려왔습시다 법원에서 날아왔재 이라니까 아이라 아이라 하대 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기 그 고가 점수가 떨어진다데 저그 인제 재판 내하고 상대없는 사람 자꾸 불라빠리가 인제 그거 내 아는 사람이 경기법원에 인자 내 사형인데 그도 인자 민사부 부장판사라 그래가 소송했부리면 고과점수가 떨어진다데 거 그래서 가면 ★ 그만해라 내 작업 하루 하면 돈을 얼마를 버렸는데 근데 괜히 그 소송해가 법원 다니면 그 내만 손해라 그르이 그라이까 십이월 일월 이러니까 딱 대가 신앙촌에서 또 날라왔어 취하 저거도 취하한다고

면담자 1 : 괜한 짓을 그래

구술자 1 : 그르이까네 사람만 대구 한참 날때 우리 대구 보든 보통 시월달 부터 시작하거든 이래 인자 시작하는데 아 내가 참 내 불리다니니 귀찮대 그라마는 뭐 신앙촌이랑 저기 현장에서 재판하는 나는 부장판사가 나올 줄 몰랐어

면담자 1 : 그래도 그 계장님 말씀을 듣고

구술자 1 : 그 딱 나온기 보니까느 그 부장판사라 현장에서 재판한다 이래가지고

면담자 1 : 계장님

구술자 1 : 재판한다꼬 ★ 그 한 사람이 거서 뒤섞거서 그서★ 뭐 받아쳐무아가지고 안된다 너거 먹었다이가 세 살이나 많던데 아이다 네 살 많나 모르겠다 뭐고 머 학리마을로 소송을 했지 학리 어촌계로 소송을 안했다 인자 함 하나 드라 바꾸 그래사 터라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행정에 좀 아는 사람들도 좀 몇이 가서 당신 담뱃불 끄고 입다물어 이 시간 이후로 입털면 당신은 그 뭐 처벌한다드라고 뭐는 아무 것도 마 재판하는데 구월 달에 딱 가니 부장판사라 그르이 신앙촌에서 딱 지금 저 지금 저 내려오는 길이 최근에 만들었다이가 그르 내가 어항진임도로 옛날부터 있었다 내하고 인자 말이 저거 반대라 이거는 이천십이 년도 어촌종합계발 사업에 해양수산부 농어촌 특별 세금 갖고 내가 이거 만들언거다 이 저 도로 하나 만드는데 십오억천만 원 들었다 사백구십팔 메타 그때 인자 해양수산부

에서 너이 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마 돈이 그르 드니까 내려와 그래가 현장은
즈그도 현장보면 우습거든 차가 사백 대서 오백 대 들어오니까 오징어활어 전국
에서 오징어 활어 학리가 제일 먼저 했어 그 그 수족관도 저쪽에 공동 수산에 저
기 큰 수족관이 저 오징어 살란다고 저 수족관 만들었다 저 인자 기장군청에서
지아가지고 내 놓고 그 당시 그 지은거 ★아따 그짓말 잘하드라 그 신앙촌은 그
지랄 같음 내 아 상대 안된다 대화가 안돼 대화가 솟제 저 사기꾼이라 사기꾼

면담자 1 : 그 같이 뭐

구술자 1 : 그 땅도

면담자 1 : 같이 살아야 할건데

구술자 1 : 그 땅도 우리 마을 사람이 계관위원장까지 했어 계약서가 짧은 사람이 학리마을에
팔았어 계약서가 있어 그래 가 마을에 팔았는데 그 당시 이장이 ★ 그 사람도 ★
왜 이전을 안했노

면담자 1 : 마을로

구술자 1 : 어 한 번씩만 와 이전을 안했노 우리가 샀으면 당시 저기 인자 임야가 되가 있어
임야가 임야는 이전 해 그래 이전 안돼 그 당시 여 땅여 사백 평에서 백오십 평
에 그 이전하고 그라믄 묘지는 어떻게 이장돼 이장했노 이라니까 지가 입을 못
떼는 기라 지가 뭐 그런 말 하믄 학리사람들 모르겠제 그래 나도 부동산에 조금
은 안다 그 시발 묘지도 산에 그 그 열 평 그 이전해 샀는데 그 이거 이전했으면
오십 평인가 됐을 텐데 아 이거 그 기가차가 아직까지 그래가 그 사람이 학리 팔
아놓고 에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뽐어 그 전체를 그

면담자 1 : 그게 그러머는

구술자 1 : 땅을 다 팔았뽐어

면담자 1 : 신앙촌이었

구술자 1 : 어 그 에이 에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뽐는데 에이라는 사람이 신앙촌에 팔았뽐는기
라 고기 이천십 년돈가 요런데 신앙촌 땅이 고 인자 고 가 이천 년돈가 고거 지
금 인자 내한테 소송할 때는 인자 십년 요래 되는 우리 저 도로 만들고 난 뒤라
이천삼 년 도도 도로 만들고 난 두이에 인자 우리는 이 도로로 활어차가 우리 어
민들도 전부 이쪽으로 다 가낸다 그 뭐할라 도로 좁은데 그 신앙촌 살 살아보이
그것도 안 되는데 그걸로 안 갔다니 그래가 그 새끼 르까뿌네 저거는 처음에 한
세 번 정도라도 내가 두 번은 아예 신앙촌에서 재판을 나오도 안하더라고 변호사
가 마 갓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가 혼자 나왔거든 처음에 다 오고 이래 사터만
세 번까지만 오고 내가 거서 그 당시에는 나는 ★ 부장판사가 질의 하면 내가 답
변해주고 이랬는데 그 하나도 안맞거든 거 ★ 신앙촌이 사기꾼이라 사기꾼이라
기장군 삼분의 일이 신앙촌 땅이라 저기 장안 정관 그쪽에도 전부 거의 다 신앙
촌이라

면담자 1 : 아 여기 뿐만 아니라 죽성 있는 여기 뿐만 아니라

구술자 1 : 그래 이기 저거는 처음에 계획에 그 한 사람이 김신구라는 그 사람이 인자 근데
해녀들 돈 이억 주고 내한테 와가 질문을 그 당시 내 회원들 군청에서 인자 동부
산 종합개발 사업에 인자 책임자로 이레가 인자 간담회를 하는기라 그래가 사충
계단에서 인자 내보고 어깨 툭 치는기라 내 즈 그 해녀 돈 이억 주던 그 사람 함
만났거든 함 만난 적이 있어 아 어촌 학리어촌계장 내 좀 만나자 아 나 당신 만
날 필요 없다 이랬어 점[전부] 사기꾼들이라 사기꾼 그래가지고 그 전부 썰리 소

송을 내가 졌지만 아이 도움이 안되네 다 고 여기 머 우리 가을에 조금 머 행사 같은 거하면 마을 이장이 그 이자 간장같은 거 아 가지마라 그 말도 안통하는 거 뭐하러 가노 즈그는 조금 질문하면 전부 뭐뭐 흙탕물 내려오면 저긴데 뭐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 답변하고 그 맞나 내하곤 안 맞지 우리는 바다니께 천애가 가는 데 흙탕 내려오면 그 해초류 그기 전부 오천부 세월이 미이가 안맞거든 그리 만나서 상대 안돼 ★ 그 할랄데 요번에 그 요쪽에 내도 마 전에 뭐 전부 옛날거 촌에서 아 나는 아예 신앙촌 그 들으 가지고 십구맞다 고것이 시팔 도로 안기라 그 래가지고 고것이 신앙촌이다 말 그 보건소 하고 이야기 했어 보건소하고 총무과 장하고 이야기하지 지금 이기 안돼 안돼 해녀들 저 갈 때 우리 여서 배타고 간다 도저히 대화가 안통한다 대화가

면담자 1 : 그런 길이라도 최소한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구술자 1 : 내가 한번씩 만나 그 저 만나자하든 총무과장 이기 있제 항상 오고 오도 안돼 안 돼 새끼들 전부 사기꾼들 전부 사기꾼들이라 ★는 도움 되는 기 하나 없어 그 지금 여 가든 그 우리가 인제 바다에서는 인자 배 타고는 가도 여 인자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면 몰라도 저거는 지상천국이라 해사터라고 ★한테 얼마 전에도 에 고런 소리가 나서 땅이 우리 여만 있지 여 안에는 다 밀아 평지 다대뽀다고

면담자 1 : 그럼 보이는데만 남겨

구술자 1 : 그래 보이는데 만 남겨놔지 그래 인자 저 한번 찾아가면 지금 그 인자 ★했지 그래도 머 ★ 워낙 거기 종교단체가 크니까 손을 손이 못댄다 그래 인제 국회의원 이기마 군수나 즈 선거제가 되다보니까 신앙촌 표가 한 삼천 표 된다데 지금 인제는 그리 되니까 아예 신앙촌 손을 못대 저그 즈기한테 표가 안오니까 그래 오 군수 군수 그 군수할 때도 신앙촌 표가 한 표 한 표가 나오도 안해 신앙촌 저 큰 데 가지고 신앙촌 이제 하면 그래 아예 이것들은 상대가 상대가 안해 아예 신앙촌이다 하면 상대 안한다 그 우리 뭐 흙탕물 내려오면 저 소송해가 뭐하나 싶어 지금 벌금 내뽀고 나면 다 안된다

면담자 2 : 어구들 나와있는 것도

구술자 1 : 예

면담자 2 : 신앙촌 어구들 다 여기 있는 것도 신앙촌 때문에

구술자 1 : 어구 그래 인제 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배 하면 어구가 많거든 내가 배할 때는 이 그물이 몇 포 안된다 사백 오십 폭이라 한 폭이 이십만 원이라 어구 값만 구천만 원이라 그레 이기 지금 전부 경심이거든 경심 이진 바닷물이 여면 한 달 여면 무조곤 몬써 바닷물이 넣으면 딱지

면담자 1 : 다 샀아 버린

구술자 1 : 아 샀는 거 아이고 실이 빠시거든 고기가 안걸리가 걸라 뿐다이가 그래 그리 구천만 원 일 년에 돈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나도 그물 때문에 딱 삼년 하고 느까 뿌니 일년 안하고 다 처분시키뿌가 이랬는데 어구 값 일 년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안 맞더라 괜히 어구 맨다고 사무 고생하고 또 남이 남 떼주니까 어구도 한 물에 한 다섯 번만 넣으니까 어구 다 떨어지뿌고 마 내가 매고 이라니까 아 도저히 이거 하다 사람 골병 들겠다 그르 앞가지고 이리기리기리 이래 하니까 다리가 다리 대로 마비가 앓은게 많으니까 전립선까지 와가지고 지금 고지혈증에다가 팔월 삼일날도 ★삼 개월 마다 내가 검사한다 첨에 소주 반 병만 무면 고때 언젠

지 좀 오래됐다 십년 가까이 됐는데 소주 반 병만 무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래 우리 애가 둘째 애가 의학원에 있어갔고 아버지 이러다가 안 된다 검사하러 가자 거 가니까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지혈증이 넘어갔고 고지혈증이 심해가 지금 대경이 네 개씩 마 넘어간다 이라더라고 고 과장이 이빠요 인제 성하 외과 과장이 이름이 이선민데 내가 그 하도 오래 다니고 또 우리 애가 그 있어 이선미 과장한테 거 있어 내려가면 알고 이러는데 아이 저 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십 년 다 되간다 그라든 내 삼 개월 마다 가다가 이제는 좀 마이 좋아졌다면서는 육 개월 만해 이월 달에 가고 팔월 삼 일날 또 아래 메세지 들왔더라고

면담자 1 : 계속 관리하시면서

구술자 1 : 팔월 메세지 들와가 팔월 삼일날 열시 이십분까지 오라드라고 그래서 술 무면 숨을 못쉬겠다 아 인자 이러다 가겠더라고 고지혈증에서 뇌경색 넘어간다하더라고 지금 여게 우리집 옆에 저 사람이 삼백팔십 평 저 땅값만 해도 엄청나거든 저 뇌경색이 와

면담자 1 : 진짜 위험

구술자 1 : 한 삼 년 삼 년 아 삼 년 안되네 어촌계장 ★ 한 이★ ★장님이라 그래서 뇌경색 저기 인자 마비되는 거 아이가

면담자 1 : 막혀서 진짜 위험한

구술자 1 : 고지혈증이 심하다대 지금은 마이 좋아졌다면서 팔월 삼 일날 메세지 오더라고 오라고

면담자 1 : 젊었을 때 고생하셨던 거 이제 건강하게 건강해야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구술자 1 : 내 아만 해도 서인데 내 동생 조카 그 여섯 명을 대학 졸업시켰으니꺼네

면담자 1 :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좀 재밌게 사시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구술자 1 : 내가 배를 하고 이라니까 시켰지 농사짓고 이라케는 몬시킨다

면담자 1 : 젊음 하고 아이들 조카 키운거나 맞바꾼거나 마찬가지다 그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김용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8년생 - 국내 최초 미역, 다시마 양식 성공 - 국내 최초 학리에 미역종묘 배양장 설치
---	--

목 차

개 요

상세목록

3-A 미역 양식 원조 논란과 현재

1. 미역 양식 원조 논란에 따른 귀국과 활동

3-B 미역 양식의 시작

2. 1962년 수산진흥원의 미역 양식 시도
3. 미역 가이식과 그 방법
4. 수산진흥원의 입장
5. 김용대가 미역 양식을 알게 된 계기
6. 학리마을의 자연산 미역 채취
7. 김용대와 수산진흥원의 관계
8. 1964년 김용대의 미역양식 성공
9. 1965년 본격적인 미역 양식의 시작과 전파

3-C 미역 양식을 둘러싼 논란

10. 논란의 시작
11. 2009년 비석 건립과 김용대의 항의
12. 김용대의 증거

3-D 미역 양식 이전의 학리마을

13. 학리마을의 어업
14. 학리마을의 가족구조
15. 학리마을의 농업
16. 학리마을의 자연산 미역 채취
17. 학리마을의 상업

3-E 미역 양식의 시작과 학리마을의 변화

- 18. 미역 양식의 시작
- 19. 자연산 미역의 흥작과 동네사람들의 오해와 불만
- 20. 미역 양식을 통한 기장 지역 어촌의 풍요
- 21. 학리마을 부동산의 변화

3-F 미역 가공과 전라도에서의 삶

- 22. 1972년 미역 가공 기술의 개발
- 23. 미역 양식의 과잉과 일본수출
- 24. 전라도에서의 삶

3-G 미역 양식 원조를 증명하는 추가 증거

- 25. 여러 증거들의 제시
- 26. 1968년 내무부 표창
- 27. 1965년 언론을 통한 왜곡
- 28. 또 다른 논란들과 김용대의 노력

3-H 다시마 양식

- 29. 다시마 종자를 밀수 하게 된 경위
- 30. 한국 다시마 종자의 기원에 대한 설명
- 31. 다시마 양식의 시초를 숨긴 경위

□ 개 요

- 구 술 자1 : 김용대
- 구 술 자2 : 김용대의 처
- 면 담 자1: 김민화
- 면 담 자2: 권진오
- 면담주제 : 미역 양식의 역사, 학리마을의 옛 모습
- 면담일자 : 2021년 8월 10일 (화) 13시
- 면담장소 : 김용대의 자택
- 면담차수 : 1차

면담은 기장군 김용대의 자택에서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13시부터 15시 16분까지 2시간 16분가량 진행되었다. 김용대는 1938년 10월 1일 학리마을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학리에서 돛풍선(돛을 달아 바람으로 이동하는 목선)으로 어로 활동을 하였다. 김용대는 어릴 때부터 부친을 도와 어업활동을 하다가 전역 후 아버

지를 대신해 본격적으로 어업활동에 나섰다. 1960년대 초반 미역 양식을 접한 후 본격적으로 여기에 뛰어 들어 미역 양식 기술의 보급과 발전은 물론 1970년대에는 미역의 가공 기술의 개발과 다시마 양식에도 족적을 남겼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미역 양식 원조 논란과 함께 귀국해 현재 기장에 거주하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 상세목록

3-A 미역 양식 원조 논란과 현재

김용대씨는 1960년대 학리에서 상업적 미역 양식을 위한 종묘 배양장을 처음 만들어서 양식 최초로 상업적 미역 양식 성공 및 미역 종자 보급을 한 인물이다. 당시 수산진흥원에서는 일본의 미역 종묘와 양식 기술을 도입하여 미역 양식 실험을 하던 중이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상업 양식 기술로는 발전시키지 못했다. 김용대씨는 자체적으로 일본의 미역 양식 기술법을 찾아 익히고 종묘배양장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미역 양식을 보급하였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생활을 하는 동안 2010년경 기장군 미역 양식 특구 지정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미역 양식 원조가 다른 이로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미역 양식 자료를 정리하고 구술을 하였다.

1. 미역 양식 원조 논란에 따른 귀국과 활동

면담자 1 : 저희 민족문화연구소에 학리마을하고 이번에 인제 저 기장 저 금정구에 대천리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천마을이라고 화명동 있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이 마을에서 사셨던 분들이나 이 마을하고 관련되는 어떤 역사들은 인제 수집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 저희가 저희 둘이서 여기 학리마을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인제 학리마을의 역사를 먼저 문헌 책으로 일담 조사를 먼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요순 게 이 근현대 살아오셨던 분들이 삶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학리는 어쨌건 어촌 마을이라가지고 이런 어촌과 관련된 일들이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인제 중요한 요소 하나가 김용대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미역양식 그 게 제일 첫 번째로 뽑히는 중요한 특징이라서 그래서 인제 연락을 드리게 됐고

구술자 1 : 아이고 고맙습니다

면담자 1 : 예 다행히 연락이 닿아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가 한 이 주 전쯤에 사실은 여기 주공에 사시는 줄 알고 주공 앞에 와가지고 호수는 몰라서 요기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요쪽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 몇 혼지는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와서 찾다가 한 번 갔었습니다.

구술자 1 : 아 그런데

면담자 1 : 그리고 이장님하고 연락이 되가지고 이장님께 여쭙보니까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가지고 그래서 인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구술자 1 : 저는 저가 인제 그 저 여 인자 있다가 마 대천 쪽으로 인자 조금 정리 좀 하고 해

야 될 때라 인자 이제 일시 일시 아니라 개인은 인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 이민을 갔다가 도저히 내가 늦게 가서 몬 살아서 내 혼자서 그래서 인제 내가 해운대 있다가 요 인자

면담자 1 : 아 다시 돌아오신

구술자 1 : 돌아오갔고 늦게 인자 할매가 인제 할매 들어오고 그래해 그런 그래갔고 인생에 그 회전이 좀 마이 바꿨뿌렸습시다 제가 그래 그 사이에 그 미국 간 그 사이에 이 사건들 나오 이스 이스 이스 여게서는 인제 사건이거든 내 사건이 하나 있거든 뭐 판기 아니고 그 미역을 미역 다시마 어?

면담자 2 : 메모리가...

면담자 1 : 아... 죄송합니다 미역 다시마

구술자 1 : 미역 다시마를 그 저 뭐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사실 이제 이 저 군청 공무원들이 뭐 과장이든 어쨌든 간에 썸 머 오십 대 미만 아닙니까

면담자 1 : 예 맞습시다

구술자 1 : 그르이가네 결과적으로 가들이 알 수 없거든

면담자 1 : 예 맞습시다

구술자 1 :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서애님요 인제 그 미역을 다른 사람이 먼저 했다

면담자 1 : 안 그래도 그런 기록도 조금 있었습시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구술자 1 : 그래가 마 했다 이래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그래가 나는 인위적으로 여게 인자 사는 사람들에 우리가 옛날 사 뭐 그거를 하면서 무슨 기록을 남가놓습니까

면담자 1 : 예 맞습시다

구술자 1 : 뭐 미역 그 머 있습니까

면담자 1 : 맞습시다 예

구술자 1 : 단지 그때 인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면담자 1 : 예 맞습시다

구술자 1 : 인위적으로 인제 기록뿐이지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다말입니다

면담자 1 : 예 연세 많으셨던 분들

구술자 1 : 예 이러니까 나는 없제 미국 가가 있제 그러이 인제 내 종묘를 받아갔고 양농 양식을 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마이 없는 인자 어제 물어보니까 나이 내 이름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그쪽 가바라 그 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아 이건 아이다

면담자 1 : 예 받아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술자 1 : 이거 저쪽에 저쪽에 누구누구 뭐 인제 해갔고 그게 그 실제 그래그래 했다 이런 게 아이고 내가 먼저 했다 내가 없으니까

면담자 1 : 아 그렇게 되서

구술자 1 : 이래가지고 인제 행정하고 밀착이 된 겁니다. 군하고 그래인자 군에서 소위 뭐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미역하고 인제 이 시작한 저가 학리 일광이니까 이 저 뭐냐면 이동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학리하고 이동인데 이래 거기에다가 하면 인자 소위 미역이 관계 대한 하는 표지석을 완전 여 다 있는데 표지석을 시우고 거기에 대한 문구 문헌 이 이거 마 완전 백팔십 도 그니까 그거를 저게 모 저 어떤 사람이 그 힌트를 준 기기 그 그걸 인제 작성하는 소위 뭐이냐면 피디도 아이고 진짜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 니 술을 한 잔 하면서 너 니 만약에 저 김용대 씨가 여 나와 가지고 이거를 보면 니가 니 니를 보고 뭐라 그러겠노

면담자 1 : 그 진실이 아니니까

구술자 1 : 니 만약에 여기서 이 분명히 잘못된 거 아인냐 그기 인자 그래도 인제 인제 한 공무원들이 인제 이 공무원들이 인제 밀착이 되갔고 그러고 인제 이동부락이라 하는데서 어촌계 어촌계라하는 자금이 있고 그래 인제 사실 미역 다시마로 가이고 완전 이 천지개벽을 행대가 학리가 아이다 이천이거든 아이 이동이거든 저게는 학리는 옛날부터 어업기지였고 주로 어선을

면담자 1 : 배를

구술자 1 : 해갔고 보다시피 칠암 학리는 그렇고 그 외에는 어업에 대한 실제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동 같은 데는 어업이 아이고 농업이 위주였거든 그래 그래하다보니까 인자 인위적으로 미역 양식 다시마 양식이 나오니까 할 수 전체적으로 도민이 글로 다 붙었다고

면담자 1 : 아 그걸 인제 해가지고 할려고

구술자 1 : 할 수 예 뭐 할 게 없으니깐요 오로지 그게니까 그러니까 여 양식이라 그라든 완전 이도이 되뿌렸는기라 그런 하나의 그 그렇고 그기 그것도 여 차안자해가 그래가지고 인자 내가 일단 뭐냐면 또 공교롭게 나왔습니다 하몬 내 미국에서 나오고 보니까네 또 그리되가 있는기라 그래서 인제 그거를 완전 예산 편성 머 전부 다 해갔고 군수 저 결제 다 나고 그 다음에 비석 저 포 포문을 어 머 이거 머 완전 다하고 그러니까 행거를 인제 내가 본인이 와서 그게 아이라는 이야기가 뻔했었으니까 그래 그게 안 되버렸죠

면담자 1 : 아이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구술자 1 : 어 그래가고 그기 내 저 고 그때 당시 인제 지금은 그 공무원들이 없는데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한테는 내가 완전 껄뽀죄가 걸리뽀거야

면담자 1 : 자기들이

구술자 1 : 그래

면담자 1 : 거의 마무리를 다 지어냈는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바뀌게 됐

구술자 1 : 예 그래가지고 아이다 맞다 김용대가 아이다 또 뭐 인자 그리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가 인제 그런 에피소드 하나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인제 내가 인제 그 그러가 인자 아 내가 이거 내 참 없어도 안되겠다 내 혼자 미국서 마 안 들어왔다이가 나와가 꼬 내가 아니 여 마 여 살란다 그랬드만 내 아들이 애가 하나 있습니다 머심애가 머심애하고 딸 둘인데 딸 둘이는 머 미대 미국 미국서 병원도 하고 저희 일해가 그 가지고 저 뭘니 아들은 여기서 머 영화한다꼬요 영화 감독입니다 김휘라고

면담자 1 : 아 저 그 갔을 때 들었습니다

구술자 1 : 예 김휘라고 영화감독입니다

면담자 1 :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술자 1 : 예예 지금도 뭐 여 요 있습 보면 예명이 저 인제 본명이 관인데 이 김휘가 되 있는기 그 직전 부산영상위원장입니다 여 직전 직전 인제 뭐한 저저 기간이 되가지고 지 인제 저가 아주 올라갔는데 그래인자 아들은 여게 있제 그럼 머 내가 머 우찌 갈 필요 있나 싶어가 나 혼자서 여 아르바이트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충 아주그정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저 그 마무리를 인자 군하고는 마무리를 딱 짓고 다 했는데 인제 사실 공무원들 수산진흥원 정식호 수산진흥원 정식호하고 인자 그 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뭐 하다하다 개인되니까 나도 있고 아이구 내가 머 머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하드만은 사람은 죽어서 뭐 그리 되지만 뭐 그것도 싫다

어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도 싫고 마 비석도 싫고 표지 표지석 그런 것도 싫고 뭐 그
래갔고 지금까지 있는 차에 또 이이이 저 뭘니까 생각을 더듬도록 오니 이래 적으니
까 내가 이거 뭘고 싶어서 이

면담자 1 :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이걸 저희가 인제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해가지고 이걸
다 자료로 남길 겁니다 남기면 이게 인자 부산시 시사편찬위원회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인제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게 부산의 역사로서 역사기록으로서 남을 거
라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보면은 저희가 인제 썸하고
인터뷰하는 거를 다 글로 다 옮깁니다 저희가

구술자 1 : 예예 알겠습니다

면담자 1 : 옮겨서 그걸 인제 자료 보고서로 만들어서 남길거라서

3-B 미역 양식의 시작

1962년 수산진흥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역 양식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미역 종자 및 양
식법을 도입해서 실험을 했지만 실패했다. 김용대 씨는 수산진흥원에서 미역 양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지인을 통해 미역 양식법과 시설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 학리에서는 전통적으
로 자연산 미역을 채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미역 양식을 시도했다. 김용
대 씨는 학리에 미역 종묘 배양장을 만들고 이를 가이식해 최초로 바다에서 상업적 미역 양식
에 성공했고 196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미역 종묘를 판매하고 양식 기술을 전파하였다.

2. 1962년 수산진흥원의 미역 양식 시도

면담자 1 :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약간 논란이 있는 걸로 인터넷에는 있었습니다

구술자 1 : 아이 거 고는 인자 간단간다하이 마

면담자 1 : 예예 조금 있다 말씀해주 그래서 좀 저도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판단이 안서
가지고 안 그래도 찾아뵙고 요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일단은 찾아뵙게 된 게 거 그렇습니다

구술자 1 : هنگ는 저 한대 저 뭐냐면 인제 여 지금 해도 이야기해도 되제 잠금 잠간만

면담자 1 : 어 그럼 쯔 저희가 처음에 학리에서부터 인제 태어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인제 뒤에 요 이야기를 좀 이어 이어서 해 주시면은 예 좋겠다
는데 일단 지금은 요거는 그 실제 인터 공식적인 인터뷰는 아니고 제가 저 사전에
이 좀 말씀을 나누고 고려고 인자 그 이야기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야기를 좀 해 주
시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술자 1 : 이거 그래요 어쨌든 먼 이 먼가 내가 나도 있고 이라니까 두서없이 씨불렸

면담자 1 : 네 아아 아입니다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순서를 저희가
또 편집을 하면 되서

구술자 1 :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질의를 하든 내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거에서 답변은
그래 하겠습니다

면담자 1 : 저희가 보니까 일단 기장군지에는 그 김용대 선생님이 시초 최초로

구술자 1 : 다 해놨습니다 근데

면담자 1 : 예 돼 있었습니다

구술자 1 : 여기에서는 여기선 발표가 따로 전부 다

면담자 1 : 아 다 인제 정리가 다 된 상태이고

구술자 1 : 정리가 됐는데 실지는 됐는데 수산진흥하고 즉 말하자면 이 인제 여 그 간단

면담자 1 : 여 인자 말씀해주시면

구술자 1 : 천구백육십이 년부터 진흥원에서 한 말로 이야기해서 그 미역 미역에 대한 하나의 그런 이게 원래 한 시선지가 일본이거든 일본은 벌써 육십 년대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면담자 1 : 아 그 전부터

구술자 1 : 그 기술을 지금 전수를 해가갔고 시도를 행기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면담자 1 : 육십이 년에 예

구술자 1 :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3. 미역 가이식과 그 방법

구술자 1 : 이것도 뭐 저 우리 농사맨치로 그 벼를 심을라 그러면은

면담자 1 : 씨앗을 뿌려야

구술자 1 : 씨앗을 뿌려야 되요 그럼 씨앗이 잘되야 묘를 이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즉 뭐냐면 단계를 조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끔 내 이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미역 미역 종묘 종묘 아닙니까 요 종묘에서 미역 기다리에서 인자 소위 말하자면 유전자를 채취를 미역 기다리에서 미역 종묘를 만들어야 되고 종묘를 인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인자 가이식이 라카는데 있습니다

면담자 1 : 가이

구술자 1 : 가이식

면담자 1 : 아 가이식 가이식 예

구술자 1 : 가이식이라카는 거는 머냐하면 미역 인제 종 묘 줄에다가 요 요 인제 미역 기다리 종묘를 안 붙였습니까 요기 육상 탱크에서 육 개월을 인자 인제 요 밑에 인제 다 또 고 있잖습니까 사진이

면담자 1 : 바로 바다에 바로 그걸 줄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구술자 1 : 예예 공정이 상당히 인제 있습니다 그 공정을 알아야 이해가 돼야

면담자 1 : 네 저희 전혀 몰라가지고 본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미역 양식 그냥 글로만 봤지

구술자 1 : 어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을 있었는데

면담자 1 : 요기 요거

구술자 1 : 요거는 요기 저 뭐냐면 요기서 미역 기다리에서 종묘를 발체를 해가지고 요게서 이거를 육 개월을 육상에서 길라야 되는 겁니다 육 개월 육 개월을 인자 기다리 가지고 그 다음 요게 인제 가이식이라카는 거는 이거 조용한 물개에서 여 탱크 내에서 그 인제 실내 크로보나 클레모나 인제 실 아닙니까 실에 붙였는데 붙인 그거를 갖다가 발아를 시키면은 힘이 없다아이니까 환경

면담자 1 : 아직 약하니까

구술자 1 : 예 환경 조건이 된 실지 머냐면 아무 그기 없으면 이기 발아가 되믄 힘 이 없거든 이거는 만약에 바다에 나 가지고 새끼줄에 감으 감으면은 유수에 의해서 다 떨어지

뿐다고 즉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가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실에서 움이 클까말까할 때 저 아프제 아프제라하는건데 이 아프제가 된 이 현미경 아프제 형태가 될 때 바다 가이식에 위선 주아 냅니다 그라운 바다에서 발아를 해라 하나 그래서 있고 이거를 인제 소위 본이식 있거든요 인제 이거를 인제 미역 양농 이이 저 뭇니까 저 새끼줄에

면담자 1 : 저희가 보는 양식장

구술자 1 : 양식하는 양식장에 거게

면담자 1 : 예예 이 거기거든요 그리든 첫째 뭐냐면 여기서 일차적으로 이 실패라 하는 가능성이 있고 이기 실패가 났으면 이기 안되는기고 여기에선 여기은 성공을 했다손치더라도 이기 성공을 했음 지더라도 가이식에 환경조근을 잘 몬만들어주면 실 실패라하는 거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실패를 여게도 성공을 했다고 보면 요는 인제 조금은데 이식에서 양식에서 그거는 양식에서 인자 자연적인 환경 조건으로 있어 적교라던지 구교자던지 머 이런 조건에 해서 또 실패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기 즉 뭐냐면은 미역의 공정입니다 요기 있어야 요기 성공을 해야되고 요기 성공을 해야되고 요기 성공을 해야되고 이래야 여러 양식에 대한 백프로 성공이 되는 겁니다 요걸 먼저

4. 수산진흥원의 입장

구술자 1 : 이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인제 그때 당시에는 사람 너이에서 뭐 요새 진흥원 과학과 나오는 근본적으로 질이 틀렸습니다

면담자 1 : 그럼 직원이 뭐 네다섯 명 이래밖에 안되었습니까

구술자 1 : 네 뭐 이래도 그때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육십오 년 유십 육십오 년도 육 년도까지는 그래서

구술자 2 : 마스크 쓰고 하세요

면담자 1 : 마스크 괜찮습니다 벗으셔도 됩니다

구술자 1 : 백신 다 맞았

면담자 1 : 저희가 아직 백신을 안 맞아서 저희가 쓰고

구술자 1 : 어 예 저 머 그래 인제 진흥원에서 즉 뭐냐면은 육십 천구백 육십이 년도부터 인자 자기 탁상용 시험을 미역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했 한다고 그래갔고 그래가 인자 육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천구백육십칠 년에 근데 일반 성공을 했다개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네 육십 육십 육십삼 년

면담자 1 : 거의 한 오 년 정도 걸리

구술자 1 : 육십사 년 육십오 년

면담자 1 : 육십육 년

구술자 1 : 육십육 년 그니 이 사이에 인제 자기네들은 이래했는데

5. 김용대가 미역 양식을 알게 된 계기

구술자 1 : 그 사이에 내카 인자 밀접 관계가 있었거든요 정덕영이라카는 사람이 있는데

면담자 1 : 예예 아까 여기에도

구술자 1 : 그

면담자 1 : 인터뷰 전에 하셨을 때 보니까 여기 어 저 에 정덕영 선생님 예

구술자 1 : 정덕영이가 그때 당시에 조건 육 개월 조건부 이 진흥원에 육 개월 조건부로 입사를 했거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댕기가 내가 갖고 미역을 담당을 했는데 내가 나는 그 공무원하고는 아직 한기 없는데 내가 나는 인제 그러이 그 나 내카 정말 지극같은 절친한 친구이고

면담자 1 : 아 원래 친하 친하셨던

구술자 1 : 아이고 그 사람이 인자 장경원이라고 인자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이기이 해조류 학회 회장을 한 사람도 결국 우리 저저 집사람 부터 시작해서 내 사진이 있다이거는 뭐 완전 진짜 그그 업무상으로 친해진거 같애요 이랬는데 그래가 그라하고 그 다음에 김용대 내가 인제 개인으로 개인으로 인제 미역을 그르이 나는 육십삼 년도에 즉 뭐냐면은 인자 수산검사소에 그 신 반장이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왔데 옛날에는 천초를 우리 기장바다에 한천이 한천원료 천초가 마이 난거야 거기 법정기일이 오월 일 일 칠월 일 일입니다

면담자 1 :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구술자 1 : 법정기일이 그럼 오월 일 일 되면은 제주도 해녀 지방 해녀 일시적으로 드가가지고 천초를 채 채취를 해가지고 이 양 그때 인자 기장 수산협동조합 지금 현재 인제 동부수산 인제 수협에 위탁을 합니다 인제 위탁 인제 그 관계로 그 관계로 내가 인자 그 아버지의 이게 우리 어른이 아버지가 인제 그걸 관여를 했는데 내가 인자 그 좀 젊으니까 아버지 도우기 위해서 갔다가 그래인자 거기에서 보통 검사 이 이카여 농 농산 농업 농산물 검사소에도 이 있잖습니까

면담자 1 : 그 등급 매기고 하는

구술자 1 : 수산물도 인제 등급이 있거든에 일 등급이 이 등급이 있어가 상당히 견해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제 그 그 선주라 그러는데 그 물품을 위탁 한 사람들이 인제 밥을 사고 이 이렇게

면담자 1 : 아 잘 봐달라고

구술자 1 : 예 아이 머 잘 봐주고 다 보편적으로는 잘해달라 그래 밥을 사에 그래 인제 밥을 사는 거 나도 인자 그 하나의 선주기 차원에서 아버지 심부름 대리 대리이지마는 그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데 내 앞에 그 신 반장이라카는 분이 앉았어 그르이가 그 기장 기장 그때 카 인자 점 다 반찬이 미역 오물란 거 미역 이다리 뭐 죄 죄다 미역이라 그래 그 신 반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연히 아니 죄다 미역이네 이라가지고 아 내가 육십이 년도 육십삼 년도에 저 일본에 교육을 가니까 시모노세끼 그 이기 저 수산시험소에서 이 저 배관물 즉 뭐냐면 양식 조형물로 점 다 해놔드라 거기 전부 다 미다시마하고 미역하고 양식 조형물 조형물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고향이 토영이기 때문에 정말 미역이라카는기 그때 당시로는 그 부자에 대한 우리 학리 같은데는 미역을 많이 가진나 안 가졌나에 바로 밑에 재산에 대하는 소위 등급이 있었으요 그 정도로 미역이 인제 이 공동적으로 이 이익 수입 요원이 그거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그걸 내가 그래서 토영이고 이래서 이 그 카타로그 옛날 그 인자 저 뭐냐면 일본에서 어민들이 낸 교재

면담자 1 : 아 양식 교재

구술자 1 : 그거를 좀 가져왔다 그라면서 무임말에 하는 이야기가 여 기장이 미역이 주니가 한 번 해볼라 같으면 한 번 해봐라 그때 그부이 나이가 많았으요 저는 인자 그때 인

자 마 군대 갔다 왔으니까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는 생소하고 뭐 그때 몰랐으
고 뭐 양식이라카는 양식 글자에 대한 모르고 이러니까 마 그래 마 마 넘기부렀는데

6. 학리마을의 자연산 미역 채취

구술자 1 : 우리 인제 학리 부락에 십이월 되면은 이 자연산 공동 기세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
다 즉 뭐냐면은 돌에 기세를 이거 저저 딱개비 같은 거 이걸 띠집야 띠집야 결국 거
게서 인자 포자가 미역 포자가 인자 그 이 저 뭐니 해조류 속에 붙어 있다가 붙어가
다시

면담자 1 : 아 잘자랄 수 있게끔

구술자 1 : 예 만약에 이 여게 이거 기세 작업이 없으면 아까 말대로 미역 포자가 이 저 다른
하나의 풀 우에 이래 붙으면은 역시 파도가 치면 하나도 없어져뿐

면담자 1 : 아 날라가린 아

구술자 1 : 그래니까 그거를 아예 기세 작업을 이 저 이 이런 그 가지고 이런거 가지고 기세
작업을 와 요새 그 저 고기 낚으로 가면 이케 하는 거 있다아입니까 저 뭐 마찬가지로
로 기세 작업을 카 예깨정 남녀노소불분하고

면담자 1 : 아 마을사람들이 전부다 그러면

구술자 1 : 예 공동작업이라카는기가 있으예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그르이까네 몬사는 집에 그
남자여자 처녀 총각 할 것도 없이 한 집에 하나씩 나와 가지고 그런 기세 작업을 할
라카는 그 고역을 더구나 겨울 아입니까 십이월 때 그르이 마 죽을 지경이지마는 그
기 그래 안하면 공동분배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래해야 여

7. 김용대와 수산진흥원의 관계

구술자 1 : 그래서 그놈을 하다가 내가 인제 가마 저도 인자 뭐 별다른 게 없고 그가 인자 아
버지 엄마가 나이가 드시고 인제 내가 힘이 있고 이러이까 내 동생이랑 내가 나이가
좀 나가 그래서 내가 이런 기세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한 번 해봤어 아차 그 신 반
장이 무슨 양식 양식 하던데 이렇게 미역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이게 미역이 귀하다
카는걸 그럼 그 양식 하면 안 좋겠나 그게 뭐 어떤 게 양식이고 퍼뜩 나드라고 그래
서 내가 그 나와 가지고 옷을 입고 그 다음날 부산 수산 검사소에 신 반장을 찾아갔
다고 그래 역시 교재 있으 나를 줘요 교재로 그 교재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나는
뭐 학교 출잔 이야기로 복원말로 뭐 하이큐에 점 저 그리 그 아이고 그 교재를 바탕
으로 해서 하이고 그런 교재가 전신 팔십 몇 페이지 점 다 일어라 그래갔고 그놈을
중앙동에 물어해설 그 돈을 주고 전 다 번역을 했어예 번역을 하니까 용어를 또 모
르겠는기라 용어를 예를 들어서 이리 양식을 하는데 이런 진성이니 지성 자성이니
무슨 머 양 일본말로 양카 같으면 닷 아닙니까 이래 되서 뭐 이기 이 도통 모르겠는
기라 그래서 아하 이거 그때 수산진흥원이 영동에 있었거든요 아하 이 영도에 가야
저 그 수산진흥원에 가야 요새 같은 과학관 아입니까 가야 용어를 내 좀 알겠다 그
래 갔으예 육십삼 년도에 그래가니까 그래 인자 대면을 하니까 그때 장정원이라카는
사람이 인제 실장 실장인데 이제 그분을 만났지요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인제 그래서 내가 이래 용어를 왔습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우

리가 지금 실험 중에 있다 탁상용 실험 중에 있으니까 이 실 여계서 고 진흥원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기 사실 자체는 일단 일반민에게는 이야기를 해주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봐라 이런기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머 더 이상 그 리가 저 벌써 인자 시작됐다는 이야기라

면담자 1 :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인제 키우기 시작한기 그 수산진흥원 그 안에서 지금

구술자 1 : 그렇지요 탁 실험을

면담자 1 : 실험을 하고 있는

구술자 1 : 실험은 예 슬라이드에 탄 걸 아이고 저 현미경 있어 슬라이트 인자 서 슬라이트에 이리 마 마차갔고 미역 인자 그 저저 종사 빼갔고 길 채취해 갔고 붙이가 그가 그기 서 탁상용으로 하고 있다 하고 그기 인자 자기 그거를 가지고 인자 자기 데이터를 내갔고 모든걸 하지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구래서 왔제 그래서 오고 그람 그래서 인자 내가 진흥원에 참 놀러다니듯이 어떻게 됐는고 그제 성공을 했는가 어떻게 됐는가 인자 이거를 보러 저 깜깜 무소식이라 그래 육십이 년도 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이식을 했다 육십 그래가 요게 인자 한가지 이야기 미역을 미역 인자 내가 말이 저 길았는데 미역이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시월 십일월 십이월 그 다음에 일 이 삼 즉 말하자면은 삼월 사월이 채묘 이 이 여 종사를 채묘 하는 시기고 삼월 사월이 그 다음에 여계서 구월까지 약 육개월 동안 아까 수조에서 인자 기르고 요계서 한 달 구월에서 시월 사이 한 달 가이식입니다 가이식 그 다음에 십일월 시월 중순에서 십일월 버터 인자 즉 뭐냐면 이식이거든에 이식이면은 채취가 뭐냐면은 인년 다음 년 즉 뭐냐면은 삼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년 일월 이월 삼월이 완전 채취기간이라 고것도 요 인자 여가 할라카른 저거 인자

면담자 1 : 이게 인제 진짜 일년 농사

구술자 1 : 예 딱 일년 농사 아입디까 딱 일년 농사 그러이까네 육십이 년 인제 요계가 만약에 육십년 육 육십이 년도에 여계 종묘를 했다 그러면은 이 종묘에 수확[손님방문] 이 종묘의 수확기는 삼월 아입니까 익년 삼월이 되야

면담자 1 : 육십삼 년 삼월 이 되야 인자

구술자 1 : 고래서 고기 인자 요 연도 차이가 조금 조금 조금 있습니다 고래서 고걸 인자 그래가 육십사 년도에 육십삼 년도에 또 다시 행기라 그래가 나는 그때 진흥원에서 한다가는데 내가 굳이 아무것도 모른 내가 그 현미경을 압니까 슬라이드를 압니까 내 뭐 모르니까네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진흥원에서 하는거를 좀 우선적으로 내가 응용할 수 있게끔 나는 섭외를 행거죠 저 육지까지 땀기면서 그래서 섭외를 하다가 보니까 요새 같으면 인제 그 인제 공무원들이 아임도 없제 그땐 부패공무원 아입니까 매일 같이 밥묵고 밥을 사주고 인제 나는 그기 인제 내 업무니까 어찌됐습니까 밥 사주고 하나 듣고 저녁 사주고 한 개 듣고 여 그 그래했다말입니다 그래했는데 이 육십이 년도 슬라이드를 해갔고 뭐 저 또 인자 가이식을 했다카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 무소식 그랬이제 육십삼 년도 인자 인자 했다카는기라 여 삼년도는 인자 그 슬라이드 탁상용 형식이 아니고 그 진흥원에 고기들을 수족관에 일매다 일매다 팔십에 수족관에 했다카는기라 하고 있어 그래서 인제 요거는 조금 머 우짜 안되겠나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그거를 가이식을 일차로 인자 토 여름에 영도 동삼동에 이 사람들이 가이식을 했으예 가이식을 육십삼 년도에 그 가이식을 했는데 또 실패라 또 그면 내 실패 원인이 뭐고 그래니까 우쨌든 간에 자기들은 가이식을 하는데 적지 조사를 뭇저 강돈 옥수 저저쪽에 햇빛 햇빛하고 수심 깊이 그 다음에 인자

분이 그 인자 물이 탁도 인제 이 물에 또 먼지가 많습니가 인제 이거 이걸 조사를 해와 해도 하는거야 합법적으로 해도 하는데 미역이 하나도 없어요 침 자체에 이게 지금 이 이 줄이 이 이게 이 이게 실이거드예 이기 인자 이 인자 그때는 피브이씨가 없기 때문에 나무 나무터로 갖다 해가지고 이래 이래 인자 감아 이래 감아진 거 아 납니까 그래 감았는데 인자 이래갔고 여서 인제 이거는 욕상에서 달기 위해서 아까 그이고 요 이래이래이랬는데 이 여 하나도 없어 그래 뭐 또 이제 그 실패라

8. 1964년 김용대의 미역양식 성공

구술자 1 : 인제 또 아무것도 이상한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영흥동에 거게 인자 그 저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이름이 내 여 다 다 있는데 관리자가 있었는데 이 관리 관리자에게 물었는데 이 사람은 할 수가 없고 그 진흥원에 나와가지고 관리만 하라했으니 이렇게 관리했는데 뭐 이랬습니다 그래갔고 한 날은 가니 이거를 백 몇십 갠데 건조 욕지에 다 건지어 놔 던져놓은 건 던져 놔뵈고 인제 그래가 인제 있어서 내가 그면 이거 열개만 주가 그래 아까 말 대로 저 진흥원 하고 내가 잘 지냈으니가

면담자 1 : 잘 잘 아시는

구술자 1 : 어 대기 대기 대기 열 개만 열개만 주가 이래 니 지기 이거 안되면 뭐 말로 가르쳐줘야지 내가 보니까네 나와 있는 거는 있는 내가 보이 어땀냐며는 이기 인제 틀이 파손되가 있는기가 이 틀이 이 나무틀이 되내이까 파손이 돼가지고 그러이까 뭐냐며는 파손대은 요래 팽팡 생겼다가 이게 파손됐으니까네 이게 여유가 이래 있는 거예요 이기 즈 실이 여유가 있잖습니까 그 여유를 유동을 흔들으르는 보이 눈으로 옆철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면담자 1 : 그걸 관찰하신

구술자 1 : 예 그래가 여 떨어진 거 이걸 그래서 이 아 이상하다 여서 그래 내 열 개만 주가 그럼 열 개를 가져왔으예 열 개를 가져와코 제일 여기 채묘틀에 이 미역 종사에 장애가 제일 있는 거는 분입니다 즉 뭐냐며는 먼집니다 먼지는 물에 씻기 이상물체가 있잖습니까 사이고 사이면은 그게 그기 썩게 되가 있거든에 그러이까 여계 종자가 여래 이게 저 미역이 요래요래요래 못 미쳐 붙었다가 저거를 여계 먼지가 많이 붙으면 그래서 아침에 관리하는 사람보고 잘 털어주라

면담자 1 : 흔들어야

구술자 1 :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긴데 그기 그 관리자들이 그 뭐 틀어냅니까 환경이 워선 좋고 쪼끔 붙어야 터는게 효용이 있지 물이 탁도가 심한 거게 붙어 있는데 그리 그 틀어집니까 안 틀어지거든에 그래이까 제일 이 장애가 되는기 인제 분이거든에 실제로 이거를 인자 아 그래서 오갔고 그 으째 구두솔로 가지고 이 열개를 다 전부다 식겼어요 내가 나 그때 결혼 안 했거든 우리 집 사람 안 만났거든 내가 그래가 점 식겼어에 식거 가지고 내가 인자 그 방법을 일차 이차 삼차 일차는 읍째는 일단 뭐냐며는 우리가 미역 학리에는 자연산 돌미역이 상당히 많거든에 기세 아까 말한 그 기세 작업을 그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가마니에 이 옛날엔 가마니 안 있습니까 가마니에 자갈을 넣었더예 자갈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종사를

면담자 1 : 아 감은

구술자 1 : 이 종사를 이 감아서 감아가지고 자연산 서식되는 돌과 돌 사이에 이놈을 갖다자 쪼아 열은거라 이 애를 요를 인제 고거를 일차로 하고 그 다음에 이차는 인제 이 자

연산 돌에 이래 이래 이놈으 돌이 있잖습니까 이 돌에 요 가 쪼아 감아났습니다 미역 간사 끄집어 내보든 알거든에 여여여 요때 요 가놓고 요래도 함 가놓고 고 요게 인자 요 이차로 하고 삼차는 인자 여 수직으로 즉 일본식으로 여 인제 이래 이래가 요래가 인자 이천 저 인제 이저 우깁니다 그 인제

면담자 1 : 위에 물 위에 뜨워서

구술자 1 : 그때 피브이씨가 없어가지고 그때 피브이씨가 없는 우끼가 없고 그 옛날 전쟁 저게 유리 유리 이이 유리가 있었습니다 그 일변 유리에 그 가 새끼를 그래갔고 먼저 말아갔고 인자 거 그래서 인제 이거 되가지고 인제 이거를 두 줄로 인제 이가 이래 이걸 삼차로 이래 했거든 그래 마 그래나놓고 설마 그래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자 미역이 나올 때 보이 이기 공교롭게도 다 나왔는기라

면담자 1 : 아 세 개 다가 다 됐습니까

구술자 1 : 어 다 나와 완전 다 나와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사람들이 미역 기다리를 종묘를 거제 남해산 미역 종묘를 낸기라 그래 남방산 미역하고 우리 기장산하고 미역 형태가 완전 틀리는기라 그래서 기장산은 기장산 카거든요 그런데 보이 우리 기장산 소옥이 완전 표가 나는거야 미역이 이 노랑 미역이야 노랑 미역이 넙떡 미역이거든 그래서 내가 아하 이 미역 종자가 미역 종자에 대한 하나의 이게 이 사실 그거를 내가 느끼 가지고 그럼 내가 할 때는 우리

면담자 1 : 기장

구술자 1 : 학리 꺼를 해야 되겠다 내 그게서 가만해가지고 그래서 이기 성공을 하다가 보니까 인제 소문이 난거죠 새끼줄에 새끼줄에 미역을 이 저 미역 종자를 달아갔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머 말도 아닌 소리 머 하지마라 하는 사람도 있고 새끼 줄에 미역이 달았다하니까 양식을 했다 하니까 그이까마 수입에 대한 그거는 고사두고라도 성공 여부에 대한 이런 여 여부에 대한 이거를 밑에 준 사람도 없고 단지 우리 학리 사람만 믿은기라 보니까

면담자 1 : 직접 직접 봤으니까에

구술자 1 : 보니까 거에서 저게 시작이 된거죠 그래서 거기 뭐냐 아까 육십사 년 아닙니까 육십 삼년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할라 그러면 육십사 년

면담자 1 : 사 년

구술자 1 : 사 년 삼월 아닙니까

면담자 1 : 봄에 대야지

구술자 1 : 예 대지니까네

9. 1965년 본격적인 미역 양식의 시작과 전파

구술자 1 : 그래서 내가 육십오 년에 배양장을 지었습니다 내 자

면담자 1 : 요거 성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제

구술자 1 : 하고 나는 인제 자신이 있으니까네 그때부터 인제 진흥원 너거는 너거대로 해라 너기야 뭐 하든말든 간에 그래서 인자 그때 지은 배양장이 아까 그 서애님 뭐냐며는

면담자 1 : 요요요요런

구술자 1 : 이거를 하고 이겁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일반집도 초가집이고 이 이가 지났는데 목조건물로서 이렇게 짓는 이거는 더구나 요요 바다거든요

면담자 1 : 바다가에 저도 요 신기해서 바다 바로 바다 앞에 인자

구술자 1 : 지금도 요 학리 가든 밑 바닥은 요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면담자 1 : 그럼 요기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학리에서

구술자 1 : 바로 거 들어가든 팔각정 있자나요

면담자 1 : 예예예예 지금 팔각정 예예

구술자 1 : 변소를 여개로 있고 요쪽에 보면 그 저 뭐고 커피 카페 뭐이

면담자 1 : 새로 생가

구술자 1 : 고구 고구 밑이라

면담자 1 : 아 그렇구나

구술자 1 : 고구 밑에 팔각정 밑에 보면은 탱크가 내가 근래 요거 인제 몇 년 전에 이래되
있었으요

면담자 1 : 아 지금도

구술자 1 : 지금도 있으

면담자 1 : 거기 그대로 예

구술자 1 : 예 요는 우는 요 없어졌뿌꼬 우는 그래 그래 해 가지고 시작했기 이자 그러이까
인제 요게서부터 인자 내가 인자 공부를 한게 중요한 거는 인제 진흥원에는 요게서
부터 있다입니까 계속 그걸 실패를 하고

면담자 1 : 육십이 년부터 받아오고 나서 매년 했어도 지금 계속 실패를

구술자 1 : 그래서 지금 뭐냐 한 포기 거기 보인다가는 게 실패가 아니야 한 말로 어면서 양
식에 대한 사업성이 사업성에 있어서 실패라 그는 그 나는 육십사 년도 인제 인제
육십오 년도에 종묘 지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십오 년도에 지아 갔고 육십 아까 삼
월달에 육십오 년도 삼월달에 채묘를 했거든에 채묘를 해가지고 거기 내가 채묘를

면담자 1 : 바로 시작을

구술자 1 : 완전 성공을 했다아입니까 확 인자 그래가 그대 인자 성공한 당시에 수산공무원
군공무원들 전신 다 왔지요 인자 완전 뭐 기자

면담자 1 : 소문이나서 그 인제

구술자 1 : 지사 뭐 뭐 할것없이 점 다 인자 오가지고 인제 그래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즉
인자 이 이 분이 그라든 어민소득증대 기여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저 전라남도
어촌 어촌에 인자 장려를 했 해라 즉석에서 했으요 요 인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인
자 수산과장이 수산과자이고 그때 당시에 그 저 뭇니까 동래군 그때 그 행정구역이
동래구였습니다

면담자 1 : 부산이 아니고 동래군에 들어갔습니까

구술자 1 : 예예 동래군이고 경상남도고 요 인제 이 사람이 이제 수협에 그 그 인제 수협에
전무고 인제 이런 이거 인자 됐 내가 본인이고 그래가지고 육십육 년대 정말로 인제
인제 그 히트를 친거죠 그리이까네 그때 소문이 즈게 났으 즈게 진흥원에서 했으면
은 그때 진흥원 이야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육십칠 년도에 내가 인자
그 조건부 판매조건부 정부에서 매입을 하고 인제 조건부로 오만 매다 생산 조건부
를

면담자 1 : 오만 미터 어

구술자 1 : 오 매다를 오만 매타를 쓴 생 그럼 내가 전량으로 인자 경상남도에 판다 그 계약
서

면담자 1 : 그 종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인제 판매하시는

구술자 1 : 예 그럼 인자 저거는 그거를 가지고 저 용자 유상 즉 뭐 인자 어촌계를 선정을 해

갔고 인자 장려를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자 해가 다행으로 오만 메다를 하니까네
 조금 핸데 한 삼만 한 오천에 우랑품이 나왔으예

면담자 1 : 그래도 거의 한 육십 프로 이상의 성공율이

구술자 1 : 예 다행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잃고 오만 매다 했는데 해가 잃고 키우고 난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전량을 내 팔았거든에 그 인제 그거를 팔아 팔아가지고 사
 개 어촌계 우선 뭐냐면 그 내가 여계 있으니까 수산기지가 수 수협기장 관내 어촌에
 게 별원을 해라 그레이까네 동래군에서 인제 주관을 동래군 수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 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대이동 동백 이동 학리 또 저 하나 죽성이가
 어대 내 그 고 이 사 개 어촌계 그 다음에 저저 수산어업인 삼 인 이래가이코 육인
 에게 육종사 육천 매다씩 무상으로 주고 무상 무상하고 그 다음에 인제 용자 삼천프
 로 이 저 보조 삼십 프로 용자 칠십 프로 그래가지고 사천에서 오천을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자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이 즉 뭐냐면 내 다음에 내 다음에 양식
 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면담자 1 : 그 선생님께 인제 그 종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급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인제 성
 공을 하셨습

구술자 1 : 예 그래서 인제 고계 그 고계서 내 내가 인제 그 성공이 공용 가장은 우원데 요계
 서 인자 이 무엇이 이야기가 됐냐면은 그 다음에 인제 진흥원에서 친구들이니까네
 두 놈이 뛰어왔으요 이기 인자 성공이 됐다 그럼 우리도 하자 이래가 육십육 그리
 육십칠 년도 아입니까 할까아를 육십육 년도에 인제 인제 삼월달에 인자 마 했잖습
 니까 요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 기다리를 달라했기야 그래서 학리 미
 역 기다 내가 그때 학리 어촌계장이었거든 인제 이거를 하다가보니까 내가 인제 어
 촌계장을 군대에서 막 나와 가지고 그래갔고 고 기록이 다 야 다 있습니다 학리 인
 제 미역 기다지를 인제 진흥원에 준 거예 그라문 인자 즈그도 하고 나도 하고 나는
 인제 기업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인제 저 나는 인자 기업이 요 만들어가지고

면담자 1 : 팔아야

구술자 1 : 팔아야 되고 저거는 한말로 이야기지만 일단 성공을 해갔고 내 하른 전국 어민 전
 국 보급소 아이라 요 저 지서 있잖습니까 어민 지서가 있고 이 그래가 보은해야되고
 즈기 이문은 그간에 그래해가지고 미역 기다리를 학리 미역 기다리를 가지고 했습니
 다 다 즈 즈래해가 그래가 했네 거게다가 또 인자 받은 이 그 아까 가이식이라 캬지
 않습니까 그래가 인제 육십육년도에 미역 기다리를 해갔고 진흥원에쇠 인제 했는데
 가이식을 이 영도에 반 영대에

면담자 1 : 원래 했던 거계

구술자 1 : 예 그때 이 저 모대 이만 메다를 저 이래했을 때 영도에 반 그 다음에 받은 그 그
 기 인제 즉 함 더 얘기하는데 증빙이 안 되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 가이식장에
 우리 가이식장에 육십년 성공을 육십오 년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좀 넣자
 이겁니다 관리는 또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 받을 받은 또 인자 내한테 위탁을
 했거든 그제 또 또 삼분의 일은 뭐냐며는 이동에 이동부락 있잖습니까 이동 부락에
 즈그는 인제 그거는 거 간 이유는 뭐냐며는 학리는 자연산이 서식이 되니까 된다가
 는 건 미역이 붙는 건 틀림없다 또 나도 했고 그러나 즈거는 연구 과정이니까 미역
 이 자연산이 전연 생산되지 않은 곳에 가이식을 한 번 해보자 그레이까네 백열 개를
 이동에 이동에 인자 방현우라카는 내 그때 내가 듣고 가서

면담자 1 : 소개를

구술자 1 : 어 가서 소개를 시키가지고 내 시험 그는 시험용이니까 이거를 관리 요 관련 관리를 좀 해 요 그래했거라 그래갔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동도 성공이 되고 학리도 내가 내한테 온 가온것도 성공이 되고 영도는 또 실패야 그르이까네 그게는 영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여 저저저저 오목 이 형태가 즉 뭐냐면 파도치면 이 유실이 안 되겠끔 그걸 겁을 내갔고 아주 우리 여게는 바다가 튼 데고 노지가 그게는 여 오목 된대가 마 그 잠가놓은 바닷물이야

면담자 1 : 그럼 물이 잘 안통해서

구술자 1 : 안 통했지 그 그기 다 인자 그때서야 결론이 다 난거지 그 청사포 그래갔고 고해 다음에 우리 성공하고 육십칠 년도에 이 청사포 그게다가 부산 수협에서 우리도 미역 즈 저 저 종묘 생산을 이 틀을 하나 지으자 케가지고 청사포에 크게 지안기라 한 분도 그기 청사포에 지은 그기 한번도 성공을 못했으요 그게 완전 실패를 봤거든 그게 왜냐며는 비만 오면 청사포에서 비만 오면 물이 그게서 약 한 삼백오십 메다 사백 메다 전방까지 전 황토 황토물이 내려가는 그럼 그 사이에 불으를 못 올리지 않습니까 못올리기 문제가 아이라 그게 황토 있으니까 아까 만약 분위 아십니까 위 허어튼 물이 허급 물이 머 섞는 거 아십니까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 그 결국 그 여 그 매매가 됐버리면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는 사람은 안지마 그래서 인제 영도에 행거는 수산진흥원에서 행거는 한 한번도

면담자 1 : 결국은

구술자 1 : 성공을 행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한테 이식한 양하고 그 다음에 방현우

면담자 1 : 예 이동에

구술자 1 : 이동에 행 거는 육십칠 년입니다 요건 육십칠 년도 요거 하고 이래가지고 인제 진흥원에서 이 경상남도 전국 일곱군데 요 다 기록이 다 여 다 나와 있습니다 일곱 곳에 선정을 해가지고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즈그 말로는 이백 메다씩 갈라줬단 이야기라 이백 메다씩 갈라줬는데 이기 갈라냈는데 여게서 인제 무엇이 틀리느냐면 일곱 군 중에 여게도 김용대가 들어있다 인제

면담자 1 : 그럼

구술자 1 : 내가

면담자 1 : 선생님께 이 하신

구술자 1 : 그게 하는 이야기가 요게 거제 여 통영 어데 요게 이래가 하나 둘 셋 요게 인자 요 요게 요게 학리고 요게 이동아입니까 마 여 하나쯤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날로 내게 이미 나는 육십육 년도에 성공을 해가고 육십칠 년도 인제 인제 이 판매를 했는데 고 인제 완전 성공을 판매 다 했쥬 즉 말하자면은 즈그는 인자 요까지고 성공한 요까지고 인제 이거를 가지고 이동 뭐 인자 소위 뭐냐면 시범 수입성에 대한 하나의 저 그 보고 그 다음에 인제 각 지역마다 여 양식 실태 조사를 한다게가지고 갈라줬단 말 이야기라 그래가 여게다 여게 이래 김용대한테도 그래갔다 이래되가 있는기라 기록에 가면 나는 그때는 뭐

면담자 1 : 이미 다 성공을 하신

구술자 1 : 아 이 예

면담자 1 : 판매도 하고 있는 상황

구술자 1 : 그 앞에 나는 성공은 해가 즈 즈거는 요게 공급을 하고 나는 경상남도에 지금 공급을 했는데 팔았는데 팔아가지고 약한 이십 명 이상이 이 저 기장에 미역 양식을 하고 있는데

3-C 미역 양식 원조를 둘러싼 논란

미역 원조의 논란은 2009년 경 기장군에서 미역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조사 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이민을 갔던 김용대 씨는 참여하지 못했다. 잠시 한국에 귀국한 김용대 씨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미역 원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시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기장군에 제시하였다.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미역 특수 지정은 당시 잠정 중단되었다.

10. 논란의 시작

구술자 1 : 즈 저 서류상 기록에 우쨌든간에 있다가문서 논문에 즉 저 뭐냐 제 퇴직 논문에 이래났는기라 지 퇴직 논문이라 이기 데 논문에 김용대도 김용대 거게 상황을 했다 하 학리

면담자 1 : 보 보고를 했다

구술자 1 : 보급이 됐다 그래서 일곱 일곱 군대를 했다 이래된겁니다

면담자 1 : 이것도 기록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

구술자 1 : 요겁니다 지금 그래갖고 나는 여기서 인자 이거를 밝히다 뭐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인제 이 수산 이 저 매사 아 인제 논문 이 저 논문 저 뭐고 저 저 주인에게 가서 인자 하니까 그래이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개인이 대한 관여까정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또 그러고 어느 공원이 그래 저 저 뭐니까 개인이 개인이 먼저 하고 우리가 이 그래됐다 또 발표할

면담자 1 : 또 또 이상한

구술자 1 : 공무원도 어디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면담자 1 : 특히 그 당시엔 아마 더 그랬을 거

구술자 1 : 예 그래가 즈그 논문만 이래 그 이래 이래 가지고 그래가 인제 이 사람 왈 저 정영준이라 하는 놈인데 여 그 사진 저게 딸래미 어릴 때 사진 내가 같이 이런 애야

면담자 1 : 서로 아시는 분이니까 이래

구술자 1 : 좀 알지 이기 뭐냐면은 그리까네 지 진흥원에서의 모든거는 지 인자 최초 성공이 해가지고 육십칠 년도 행거는 이 일곱 군대가 경상남도 일 일곱 군데 준 이기 전국적으로 미역 이제 양식의 시초다 시초다가 그래 내한테 이래 추가뿐거라

면담자 1 : 아 무슨 무슨 맥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흥원서는 본인들이 최초로 양식을 성공해가지고 보급을 했다고 해야지 저 그 모양이 좋으니까 퇴임하시는 입장에서는 본인 업적도 된가 그렇게 요렇게 인제 선생님 포함해 가지고 일곱 군데다가 보급을 했다 이렇게 인제 논문에 돼 있다 이런 말씀

11. 2009년 비석 건립과 김용대의 항의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렇게 이게 아이다 이게 아이다 즉 이게 아이라카는 거는 내가 하는 거는 개인이 무슨 서류가 없으니까 임의증명 밖에 더 있습니까

면담자 1 : 맞습니다

구술자 1 : 그러며는 당시에 경상남도 수산국장 그 다음에

면담자 1 : 아까 예 요기 예

구술자 1 : 동래군에

면담자 1 : 요기 성함이 박귀일

구술자 1 : 박기일 박기이가 즉 뭐냐면 기장 아 저저

면담자 1 : 동래군에 산업 수산계 여 뭐 여

구술자 1 : 수산계 조건부 그 저 그때 해가 그거갔고 야 이 사 이 사람이 즉 뭐냐면은 그 인
자 내가 매매 계약에 대한 장본인이라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 뿐이라 정
덕영이하고 그래 해도 인제 군에 내가 괄썸죄에 걸렸다가 그래 그쵸 이 기장 인자
요새는 그 인제 벌써 이 사람들이 퇴직 다하고 다하고 없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기 그땐 그 사람들이 이 포지션 포지션 즉 뭐냐면은 교수

면담자 1 : 아까 말씀하셨던

구술자 1 : 교수 너이 초빙 신라대 교수 부경대 교수 초빙해가지고 거 점 다 인자 해갔고 이
기 완전 여 초빙 교수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 마 해갔고 이기 점 다 이래까지 다했
어요 이래꺼정 이 비석을 어데 지우고 문헌 표시 머하고 이래한 놈을 내가 들어갔고
관리와 들어가지고 이게 아이디어가 역사를 인제 조족을 하노 이게 아이디어가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구술자 1 : 이래됐뿌니까 그래 이것도 인자 내 혼자마 주장이 아니고 아까 말해 임의 증명 요
나이가 나이 많은 사람 다 돼 있으 이 사람들도 여 관여가 아이고

면담자 1 : 아 동래 여기 별도로

구술자 1 : 아무래도 그러이까네 그때 당 어느 부락 즉 뭐냐면 저 장안 길도 고리 인자 고 지
금은 인 저 원자력 발전소가 됐지마는 거 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사포까지 어느
군데 군데 내 손으로 가가 직접적으로 내 종사를 아마 안 가간 사람이 없습니다 침
으 했으니까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기술 가진 분이 선생님 밖에 없으시니까

구술자 1 : 예 그래서 인제 미포에 제일 첫 번째 한 사람이 진병오라 이름이

면담자 1 : 아 미포에

구술자 1 : 이래 올라갔고 그 사람이 구네 가가지고 시 내가 김용대하고 사실 이기 김용대 덕
택에 그 마 결구 머 어쨌든 간에 미역 덕택에 내가 이렇게 미포에서 이렇게 내 잘
산다 소위 예테서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갔고 그래해도 증빙이
없으니깐 뭐 막무가내로 그래가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행정이 한테는 산 마 곡도 아
프고 그럼 마 아까 말씀 대로 내가 뭐뭐 무슨 뭐뭐 이름을 남길겁니까 아 내 뭇할깁
니까 그러이까 이 비석을 내가 늦가로 그렸어요 이거를 인자 몬하겠단 이야깁니다
인제 이 이 안되니까네 자금이 없어서 자금 예산 여 점 다 있거든에 몬해겠다는 이
야깁니다 그래서 요 하먼 맨 윗줄에 해갔고 학리에 서열 해가

면담자 1 : 네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구술자 1 : 비석을 써야 되니까 군에서는 도이 없어서 이거를 취소를 하니까 김용대씨요 비
여 저 할라 그라면은 김용 김용대 씨 세우세요

면담자 1 : 고고 그렇게 됩니까

구술자 1 : 요요 다 나와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짓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소위 뭐냐 머
뭐 시우고 안시우고 그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이놈을 밝히든
밝히기만 밝히든 그 이상이 없겠는데 그런 하나의 뭐 지금까지 미역 다시마를 해가

지고 좋은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되어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와있으예 그래
가 여 이거 뭐 이 뭐 점 미역 저 다 했습니다

면담자 1 : 이게 대략 언제쯤 언제쯤에 이셨습니까

구술자 1 : 십일 년이라

면담자 1 : 아 이천십 그

구술자 1 : 이천구

면담자 1 : 요 인터뷰할 때쯤

구술자 1 : 어 요요 나와가 있을게야 이천십일 년

면담자 1 : 아 이천십일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술자 1 : 여 그 예예

면담자 1 : 이천십일 년

구술자 1 : 내 이 눈이 어둡아가 기래 그르이까네 그때 해가 내가 마 그래 마 무 빠렸어 이게

면담자 1 : 아 그럼 사실을 사실대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 이걸 하면은 되는데 이걸 또
거기서 중단을 해버리면은

구술자 1 : 아이 그 인제 중단은 내가 꽤썸죄 걸렸다 하이까네 내 여게 어제 내가 금불석 내
가 그 꽤썸죄 사유라카갔고 여 증거 다 비아주기 했거든

면담자 1 : 그럼 이기 저 뭐고 군에서 사실 요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걸 바로잡아
기지고 다시 이걸

구술자 1 : 해야지

면담자 1 :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구술자 1 :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 수산 과장 그 놈이 김태 태주 태주가 그놈 대가 그가 뭐
어썸든 간에 그래 이기 이 그래가 되니까 군수이 한테

면담자 1 : 선생님 본인들도 아마

구술자 1 : 즈것도 감사 예 이 첨에 요 이래 감사의뢰를 했거든에 내가 어째할 방법이 없으니
까 이게 잘 몬했다 고 점부다 인제 즉 새로 해야 감사 그 감사실에서 이거는 사유가
있다 수정 해서

면담자 1 :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구술자 1 : 그르이까네 지 뭐 한 말로 정신적으로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때 인자 군수가 고 그
집안 아납니까 그 저희들은 저 뭇데 사실 그대로 그때 야간 운영이라카는 기장에 참
잘 되가 있었거든에 그때 당시에는 애로가 있으면은 군수이한테 요청을 하면 저녁에
소위 뭇나면은 내가 가서 수산 아납니까 수산과정 입회 하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런 제도가 있는기라 그르이까네 내 앞에서 느그 이거 할 때 뭐라그랬노 내한테 이런
거 이야기 다 나왔거든 그레이까 나는 내가 이해는 하지 그래 내가 꽤썸해 걸릴 수
있게끔 마 이거 내 내만 없았더라면은 저거 실적내고 그라고 즈그 잘 얻어먹고 잘하
고 했을긴데

면담자 1 : 근데 만약 이기 이대로 만들었음 더 큰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금 세워진 걸 또 없
애야 될 수 있는데 그마나 저 선생님께 중간에라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기들은 어
떻게 보면 역사에 오점을 남길 걸

구술자 1 : 근데 여

면담자 1 : 멈출 수 있었

12. 김용대의 증거

구술자 1 : 이게 참고가 될 만하면 마 가져가시든지 다 해도 좋습니다

면담자 1 : 아 사진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필요한 것들 찍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구술자 1 : 그서 내가 지금 머 서류가 앞뒤가 안 맞는데

면담자 1 : 어 그저

구술자 1 : 그래서 내가 그저 요거 하나만 여계서는 이 저 뭐 경제 즉 군에서 그래하고 그 저 군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신청하러 하도 안했어 그 저 차석 문화재에 재직 거기 인제 그리 인제 경제대상으로 이래갔고 날로 뭐 이래 표 이 상장을 하나 줍디다 그 아까 그 인제 머

면담자 1 : 안 그래도 표창을 받으셨다고도 기록에 남아있던데 그게 그때 인제 받으신

구술자 1 : 그 뭐 주인이 갖다 주고 이라대

면담자 1 : 이것도 해주야 되는데

구술자 1 : 그래갔고 마 나는 그래가 인저 머 그래 인저 저쪽에는 인제 군무 보내는기 아까 판그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육십칠 년도에 배부된 거는 내꺼는 개인은 없고 그러니까네 이게이게 인자 전체적으로 미역 시초지가 즉 뭐냐며는 진흥원에서 육십칠 년도 해갔고 일곱이 갈라 둘이 갈라준 이기 기장에 이제 됐다 이래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저 군에서 답다워서 내가 인저 표창장을 가져가봤어요 이저 어차피 인자 그때 경상남도 지사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육십팔 년도 십 육십팔 년 십 팔월 십오 일 김 김 내가지고 내가 표창을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봐라 그 라든 육십칠 년도에 인제 느그 하고 나는 그라든 아무것도 없고 느그가 제공한 가지고 육십 인제 이 그 양식을 해가지고 했다 그 내 표창장 봐라 내가 딱 가와야 될킨다 내 난중에 해가 가져올게요 표창장 봐라 그럼 이게 저 그게 내무부 장관 표창이 언제고 도지사 표창이 언제고 그 육십팔 년 육십팔 년도 육십칠 년도 실적에 의해서 육십팔 년도에 내가 표창을 받았을 거 아이가 육십팔 년 팔월 십오 일 미역이 나오나 양식이 되나 아무것도 없다가이까 그럼 내가 뭐 그러면 일곱이 대표 일곱이 느그 저저저저 수산진흥원에서 지정해 대표 일곱이 대표를 내가 이거 받았나 이야기가 그거는 아니지 않냐

면담자 1 :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구술자 1 : 내 그래해도 내 그래까정 했거든요 그래해도 그래해도 행정이 인정이 안 되있어 가 아 아마 입 다물고 앉아 있는데는 그래 마 무조건 하고 안하겠다는 이야기라

면담자 1 : 그게 아마 그런 뭐 자기들 입장에서 수산진흥원에서 시작 시작이 되야지 이게 양식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자기들 업적이 인정이 되는거니까

구술자 1 : 이게 그래서 내가 여계 신라대학교 어저저 부경대학교 교수이한테 내가 그 한 말로 이야기했어요 마 바쁘니까 사실을 이야기해 사긴데 자기가 한 여계 이야기 각 교수들이 이야기

면담자 1 : 그 요기 요분들은 선생님한테 미역 다시마 양식 하셨던 분이라고 방금 보니까 돼 있는데 방현우 이항조 송병호 이런분들은 인제 받아서 인제 양식을 뒤에 하셨던 분들입니다

구술자 1 : 예 그런데 요 사람은 요 사람은 기장 수협에 산업계장해사 당시에

면담자 1 : 아 아까 말씀하셨던

구술자 1 : 요거 이제 요거는 요 사람은 즉 뭐냐면 열 개 수산 진흥원에 그 관리를 한 사람이 거든요 이항조는 아무것도 아이고 여여 같은 동넨데 두 부이 친굽니다 두 부이 친군

데 그래 송병호의 그때 당시의 송병원이 주관하에 즉 말하자면은 뭐 뭔가 이 저저 계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 동아일보에 보면 이래 여 동아일보 이거 아무것도 없네

면담자 1 : 아 이걸 다 모아 놓으신

구술자 1 : 아 점 다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가장 앞바다 천구백 육 십오년에 가장 앞바다 미역 양식 이 시작됐다 이 인터뷰 요 다 나와 있으요

면담자 1 : 근데 이 선생님께서 하신거잖아요

구술자 1 : 점 부 다 돼가 있습니다 내 요 그래 하든 내가

3-D 미역 양식 이전의 학리마을

학리에서는 미역 양식 이전에는 풍선(風船)을 이용한 어업과 자연산 미역 채취,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 등으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바다에서 사고가 많아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기도 했다. 또 학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소규모로 가족이 먹을 정도로만 농업 활동을 했고 대부분은 수산물을 채취, 수집하여 멀리는 동래장까지 가져가서 판매를 했다.

13. 학리마을의 어업

면담자 1 : 아 대략적으로 인제 미역 양식하신 얘기는 흐름은 이제 이해를 해서 요거하고 같이 관련 좀 지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제 처음에 태어나셔서 학리에서 태어나셔서 요렇게 자라오시면서 얘기 조금 해주시면은 고 부분 하고 그 학리가 어 땀는지 처음에 학리에서 태어난신 다음 계속 학리에서 사셨습니까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아 그러면 미역 양식하실 때까지 계속

구술자 1 : 예예

면담자 1 : 아 그면 그렇게 인제 살아오시면서 양식을 하고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마을 이 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 뭐 제가 듣기에는 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가 많아가지고 그 물고기 잡아오는 걸로

구술자 1 : 네 맞습니다

면담자 1 : 경제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미역 양식 하시면서 머 몇 가구 정도가 양식에 참여를 했는지 하고 그런 양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돈을 버셨는지 뭐 고런 마을 예를 들면 어느 집이 옛날에는 일 년에 백만 원 벌었으면 양식하고 나면 어느 정도 값어치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됐는지 뭐 요런 얘기들 해 주시면은 저희가 뭐 요런 그 그만큼 양식이 이 마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점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또 이제 양 그 선생님께 양식장도 실제 운영을 하신

구술자 1 : 예 여기도 있었고

면담자 2 : 근데 그 어머님

면담자 1 :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구술자 2 : 지금까지 지금에 학리마을부터 시작해서 이 바닷가 근처에는 다시마 미역 아니면 도저히 전부 그 있으면 얼마나로 부자로 삽니까 진짜 지금은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저희도 조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학리가 그렇게 부자동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2 : 학리부터 시작해가 선생님 바닷가 쪽에 전부 미역 다시마 한 그레 그렇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구술자 1 : 학리는 아까 말씀대로 어업이 위주이기 때문에 선박이 위주가 있습니다 학리는 그러나 그 선박이라카는 일 부분이고 한 십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 한 이십 가구 있는 거 됐는데 아주 촌부락으로 있으니까 일광면에서는 제일 단위 부락으선 제일 큰 부락이거든요

면담자 1 : 아 백이십 가구면 진짜로

구술자 1 : 지금은 머 말이 아이지만 지금 칠암 같은데 뭐 어데거든

면담자 1 : 대변 이런 데가 훨씬 큰

구술자 1 : 예 그때 당시는 육십오 년도 기준으로 이쪽 같은 이기 하면 이 최고 큰 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학리 부락에 그 실상을 이야기를 하면 한 십 프로 십 프로가 어업에 종사를 했어요

면담자 1 : 그렇게 많지는 않았

구술자 1 : 예 많았지요 그런데 어업을 중에는 그 다음에 선원이 선원이 약 한 오십 프로 되고

면담자 1 : 아 그런 배가 가진 집이

구술자 1 : 가진 집

면담자 1 : 십 프로 밖에 안 되는

구술자 1 : 그렇죠 그렇죠 십 프로도 안 되죠 어선을 가진 집은 그때는 어선이라케야 그 돛단 배였습니다

면담자 1 : 그럼 동력선이 아니

구술자 1 : 동력선이 아이고 동력선은 한척도 없었고 그 뒤에 한 육십팔 년 육십칠 년부터 시작해서 인제 디젤류가 나오고 이래가 동력선이 나오고 그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십 프로 건 십 프로 건 그 풍선이라 풍선 배를 가지 있는 사람이 한 십 프로 됐고 그 다음에 거게 종사자가 한 오십 프로 인원이 됐고 나머지는 반간 반농 반어라 즉 뭐냐면 인제 공동적인 미역 공동적인 미역이 의존을 행기 그 인자 그러니까 반반 정도가 되었지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그레 인자 반농반어로 인저 하는 사람하고 그면 저 실상은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면담자 1 : 그럼 저 반농반어하셨던 분들안 사정이 뭐 좋은 편은 아니었을

구술자 1 : 그렇죠

면담자 1 : 거 같은데

구술자 1 : 예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러고 그 우리 학리 그때는 그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가 됐는데

14. 학리마을의 가족구조

구술자 1 : 홀로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숫자를 내가 일일이 말을 못해요 왜냐 하면은 그때 옛날에는 풍성이기 때문에 한 일 년에 두 서너 분은 풍파를 만났거든 그러면 오륙 명이 뭐 그때는 풍파 만나가지고 배 안 들어왔다카면은 마 몰살인기라

면담자 1 : 사고가 많아서

구술자 1 : 그렇죠 그러니까네 혼자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시다 그 그 큰 기 그거는 우스운 이야기 드 들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나오 풍선이 되니까는 파도에 넘어지면 그러이까 제사가 하루 전에 제사가 열세 군데 들은 제사가 하루 저녁에 몽땅 가서 열세 사람이 죽었으 저 제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그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생활에 서서는 내가 여기도 이 이야기를 했습시다마는 전체 생활에 있어서는 칼바람이든 섯바람이든 이 저 북동풍이든 남서풍이든 삼일 만 달아 불면은 배를 못나오잖습니까 배를 배를 못 나완다하는 보담도 또 아낙네들이 일반 또 이 저 이 저 뭇니까 바다에 못나가잖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이라 밥 몬 해 먹는 사람들이 기반이 없습시다 대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는 젊은 이거 아들이 사액질[4H]을 그러면

면담자 1 : 아예 알고 있습시다

구술자 1 : 그 사애찌 크랍[클럽]이라하는 게 애들이 집집마다 이 저 뭇니까 밥 몬 해 먹는 사람에게 이 살을 제공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지마는 그래 그 정도 뭐

면담자 1 : 아 그때는 그럼 진짜로 육십 년대 초중반 요때만 해도 진짜로 좀 궁핍한 분들이 많았 학리에

구술자 1 : 그래가 내가 여여여 내가 난주 가서 참고로 함 보니 내 대충 그이지만 우리 학리 부락에는 얼마나 이 저 빛이 있으면 없었으면 외지 그 즈 처녀가 시집을 안왔습시다 그렇기 때문에

면담자 1 : 그정도로

구술자 1 : 지금도 시집을 안오이까 함부 부락은 크지요 동네 총각 처녀들이 한 동네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전 사돈이 꼭 가 저 사돈이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어요 누굴 욕을 몬하는거예요

면담자 1 : 아 서로 다 친척

구술자 1 : 으 이래 붙으면 사돈이고 이래 붙으면 사돈이고 전신 사돈이 되니까 어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느낀 하나의 내가 내 나름대로 요 글을 쓰면서 느낀 이야긴데 그르 사실 그대 그때 사정은 마 그런 사정이었고 그 식성한 사정 사정들은 뭐 말을 몬했어요 그래서 풍남초 주아와갔고 그 살이 아니라 보리쌀 하고 풍양초하고 요게 갔고 일곱 식구 여덟 그때 당시엔 또 식구라곤 얼마나 많은교 한 집에 애들이 많은 집에는 이 육명 칠명 이게 보편이거든 그니까 그 생활이라하는 거 그 다 그런건 아니죠 반을 깨갔고 우

면담자 1 : 잘사는 사람은 또 잘 살고

구술자 1 : 아니 잘 사는 사람은 없었고

15. 학리마을의 농업

구술자 1 : 학리 동네는 지금 어땠냐면은 지금 이이이 바다고요 이 바다 바다고 이 학리는 이르게 돼 있는 이게 이 이래 돼 있는

면담자 1 :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구술자 1 : 농사짓는 데가 없습시다

면담자 1 : 보니까 저희도

구술자 1 : 자체 내에서 농사가 없어요 농사는 어데 있냐면 기장에 신천이라카는 그 저게 뭇니까 시온 합성

면담자 1 : 그 신앙촌

구술자 1 : 저게 조금 가지고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육백 평

면담자 1 : 그거 밖에 안 되는

구술자 1 : 강만수 씨라하는 분이 제일 부농인데 한 팔백 평 가까이

면담자 1 : 진짜로 땅이 없긴 다른 지역은 뭐 그냥 보통 천 평 이상

구술자 1 : 그렇지요

면담자 1 : 짓는데

구술자 1 : 그렇죠 근데 여기는 농사가 지을 때가 없었다입니까 점 다 바다만 일류를 했지 그런 다음에 일부분 인제 농사를 돈을 좀 벌이 갖고 한 사람은 뭐 일광면 이동 지금 인제 신도시 되가 있지에 인제 그

면담자 1 : 예 일광 신도시 있는

구술자 1 : 그게 고가 인제 좀 농사 여 평지가 좀 있으가지고 저 고개

면담자 1 : 아 그럼 학리분들이 그까지 땅을 가지고 그까지 왔다갔다하면 농사를 지은

구술자 1 : 고거서는 얼마 안 되지 저 일광면 용천 거 카는 거게가 일광면에 이게 이거 일광면이라 일광면 전체가 이래이래 이게이게 일광면이라 하면은 여게가 여게 화 일광면 화전

면담자 1 : 화전

구술자 1 : 용천 저 저저 여게가 인제 이 농사지역이라 여게가 그 다음에는 뭐 농사 별로 없었어

면담자 1 : 땅이 없었으니까

16. 학리마을의 자연산 미역 채취

구술자 1 :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의 그 생활 생활은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말 못 어 그래 그래 일 년에 공동수업이라케야 미역이라 그때는 다시마는 안 나왔지 운에 다시마는 원산지가 일본이거든에 저거를 내가 가져 들우왔기 때문에 그랬지 그래가 그때 미역은 공동교부로서 수 수입의 미역이 아니라 미역이 그라이까느 누 집에서 아까 말한 누집에서 미역을 그 미역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기

면담자 1 : 본인에

구술자 1 : 빈부의 바로미터라 차이지

면담자 1 :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역이 일이삼월에 수확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술자 1 : 인자인자

면담자 1 : 그때

구술자 1 : 자연산은 오월

면담자 1 : 예 자연산 예

구술자 1 : 자연산은 오월

면담자 1 : 아 오월에

구술자 1 : 오월 유월 초순까지 그때 인자 말로거든에

면담자 1 : 품 고때 일 년 어째 보면은 자연산 미역 그니까 양식하시기 전에는 자연산 미역 수역이 수확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냥 사셨던 겁니까 금까 그 양식하시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그 자연산 양식 자연산 미역을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사신

구술자 1 : 그거 인자 없고 그거 공동적인 배분에 대한 인제 저 뭘니까 와 자산이지 예

17. 학리마을의 상업

면담자 1 : 거의 그거 말고는 수입이 별로 그럼 없으신 겁니까

구술자 1 : 그 다음에 인자 개인 노력으로 할매들이 이케 아주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동며 저 돌에 가서 뭐 저 인자

면담자 1 : 따가지고

구술자 1 : 예 뭐

면담자 1 : 하시는 그 정도

구술자 1 : 인자 천 천초 도발 은행초 뭐 따가지고 인제 그 그거를 인자 말라가지고 인자 또 인자 그걸 수입하는 사람 또 있었으니까 인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어업을 하면은 내 그때는 칼치가 위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칼치 장사를 거기서 동래까지 이고 들어 왔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면담자 1 : 아 그럼 배에서 잡아온 거는 그걸

구술자 1 : 그렇죠

면담자 1 : 짚어지고

구술자 1 : 아니 이고

면담자 1 : 이고 하

구술자 1 : 이고 지금 현재 딱 거리를 보면 동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래 시장하고 이 저 학리하고 그거를 이고 동래시장까지 갔습니다 오죽 답답하면은 요 기장에 여 여 여 칼치 고개라 카는 게 있겠습니까 여 칼치고개 있다입니까

면담자 1 : 거리가 거의 반나절은 걸릴 거 같은데 그걸 이고

구술자 1 : 예 이고 파고 그래 그리이까네 지금 참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불과 육십칠 년전 아닙니까

면담자 1 : 예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육십칠 년

구술자 1 : 그때의 내가 그짓말 없이 빈부 빈부 차이가 이만치 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면담자 1 : 아 진짜 그래 대단 진짜로 아 여기서 동래시장까지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그걸 팔러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구술자 1 : 예 할매들이

면담자 1 : 말이 안돼

구술자 1 : 가먼 우리는 엄 저저 기 동래까정 걸어났 마중을 마중을 여 저 기장 여 저 여 지금 군청있지에 군청 저 밑으로 신천이라카는 그 질러 가는 그꺼정 마중을 나옵디다 엄마 아버님 마저 엄마를 마중을

면담자 1 : 새벽에 배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서 그걸 팔고 밤에

구술자 1 : 보통 인제 그 새벽이 아니고 보통 인제 그 칼피배가 아홉 시부터 열 시 사인가라

면담자 1 : 아 밤에

구술자 1 : 아 즈 아침

면담자 1 : 아 아침에 예

구술자 1 : 공 아홉 시부터 열 시 사이에 주로 그 배가 나오면 그걸을 인자 소위 잡오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인자 받아가지고 또 있다 다배죠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뭐 마을 한

못에 만든 애가 만은에 사와가지고 동래시장에 가서 뭐 만 원 천 원 판다든지 이만 원 받는다든지 그런 하나의 이익이 이 저 그런 팔안 거 갖다 주고 이익금을 하고 어 고래 하고 생활이 고런 진천적으로 쭉 생활을 나왔다가

3-E 미역 양식과 학리마을의 변화

자연산 미역 채취는 학리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마을 공동어장이 주위 마을보다 커서 양식을 시작할 때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 그런데 미역 양식이 시작된 이후 자연산 미역이 급감하면서 마을사람들이 미역 양식 때문에 자연산 미역이 안 나온다는 오해를 받아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하지만 미역 양식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했고 초기 미역 양식을 시도한 마을 주민들은 많은 소득을 올렸다.

18. 미역 양식의 시작

구술자 1 : 그 다음에 인자 미역이 미역이 다 저 양식이 나왔죠

면담자 1 : 양식 하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인제

구술자 1 : 그래 내 저 말 들어봐요 미역 그 우리 학리 부락은 솔직한 이야기로 미역 양식에 대한 크나 큰 뭐 글 못 봤습니다 첨의 한 일년 일이년 됐때 어우려서 즉 뭐냐면 면회지를 면회지 인제 자체 면회지를 누구 누구는 여까정 해라 누구누구는 여까지 해라 우리 학리하고 저 그 어촌계 일종 공동어촌계 소유권 길이가 제일 크거든요 동백 동백 우리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동백이라 이리되고 이 이 이 이 경계 가다가 일종 이 옆 바다가 크거든요 그래 해 인자 여 해라 이래가지고 공동으로 양식을 했지요 한 삼사년은 공동으로 그래갔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인자 내가 인제 저 동네 사람하고 시비가 붙은 거는 뭐 그때부터 이 양식을 하다가보이 그래 이 양식도 인제 도이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백 프로 동네 사람이 다하지를 몬한 거 아 입니까

면담자 1 : 예 그 예 돈이 많이 들거니까 또 예

구술자 1 : 그르이 자천 첨의는 한 시 십오 명 내지 이십 명 이상이 인제 집단으로 했다가 이제 자꾸 뿔이 인제 뭐 저 자료 재료가 새끼줄로 하이까네 자꾸 떨어져 나가고 실패를 보니까 돈은 되는데 미역을 양식이 되는데 파도가 함 오이 다 날아 사그리 날아가뿌고 날아가부이 그래 인자 그때부터는 인자 용기가 즉 뭐냐면 기구가 와이아 저 루프가 나이롱 로푸는 피브이씨 돈이 나오고 줄이 인자 담그이 자꾸 돈이 들어 그래 돈 없는 사람 자꾸 떨어지는 거라

면담자 1 : 처음에 투입해야 될 돈들이 점점 더 늘어나

구술자 1 : 그르이 여 임마 이게 일하는 열닷섯 명 하는 내까정 남은 사람이 다섯 명 이래 밖에 안 됩니다 이래 이 남자

19. 자연산 미역의 흥작과 동네사람들의 오해와 불만

구술자 1 :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기 되고 양식이 되고 이 자연산 돌미역이 사장이 되는기라 아 마이 안 나오는기라 그래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미역양식 생기고 자연산

면담자 1 : 자연산

구술자 1 : 미역이 안난다

면담자 1 : 그렇게 얘기가

구술자 1 : 그러니까 옛날 여게 저 시골사람들은 타렛물이라하는데 타렛물 이거를 미역종자로 여기는 기라 그래가 타렛물이 인제 모르고 이야기쥬 파렛물으 외지에서 인자 이래 떠내려오다고 여게 저 미 돌미역이 다는 앞에 양식을 해나놓이까 여 점 다 새끼 줄이 붙어빠리고 여게 미역이 안난다

면담자 1 :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그 그거는 이게 다 요거 가져가서 하믄 이 하믄 보이소 보면 대충계 내 다 나름대로의 고 그때 당시의 뭐 이런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되어났으요 그래가지고 불종을 치고 말도 몬했다 이거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기야

면담자 1 : 뭐 그렇게 하시면 마을분들이

구술자 1 : 이거를 이거를 어째 그르이까네

면담자 1 : 아무 상관 없는 거쥬 이 저 사실은

구술자 1 : 없쥬 유전자니까네 미역 기다리에서 이게 여여 미역 여 미역 기다리에서 여 여기 미역 기다리 유전자를 이 저 빼내거든

면담자 1 : 그기 씨앗인

구술자 1 : 부 줄라 그쥬 그기 또 그 저 달걀 맨치로 알 요래가 여 요기 가건입니다 요기 요 똑 달걀입니다 이해 댕기고 슬라이다에 보믄 완전 뭐 말도 몬합니다 고 여게 이놈을 여기서 빼 빼가서 해 안 되입니까 물통에 인제 인제 물로 물에다가 이래 댕가 해 안 됩니까 요게다가 인제 양말 양말 이저 실 같은 거 그 즉 뭐내면 쿠레모라 같은 거 고개를 보고 딱 넣어주모 이 미역을 어데든지 간에 부착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 가건 두 날을 요 가건 두 날을 붙이뿌립니다 이 로푸다가 그럼 여게서 인자 큰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를 해 이 해소를 이렇다카는 이거는 무시시킨 사람들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에 더구나 학교 출신들도 이해를 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장산 미역하고 울산하고 남해하고 종묘가 다 틀리니까 내가 이거를 종묘를 만들 때 요건 요거대로 종묘를 만들고 요건 요고대로 종묘를 만들고 요건 요고대로 만들어가지고 종자를 만들어가 지금 걱정 있잖습니까 걱정갔는데 고 점 다 아까 말한 돌에 마련해 뒀다아입니까 가마에 새끼 여깁고 퐁퐁퐁 구라면 되거든 그라믄 돌 한 가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고이서 그냥 자라는

구술자 1 : 예 고서 그 자라이까네 그래갔고 각 분야별로 그랬어요 그래이까네 점부터 그대로 다 나오는거 아입니까 남방산에 울산 미역은 울산 미역 가 하고 남해산은 남해 넙떡 미역 나오고 노란 미역 나오고 결국 그래갔고 이거를 해소를 행겁니다 저도 저 저도 진짜 내 욕봤심다

면담자 1 : 아 이걸 보니까 그래도 믿어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구술자 1 : 어떻긴요 인자는

면담자 1 : 씨앗을

구술자 1 : 그래이까네

면담자 1 : 씨앗이 인자 다르니까

구술자 1 : 그래이까 예 그러니 여게서 하는 파렛물이 아이고 미역은 미역 미역은 자재 오월 달 유월달 되면 나와 가지고 자연 자연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따깨비 밑에 그 다음에

해초 밑에 이레가지고 육칠월 그기 인자 가이식이거든에 자연산 가이식인데 육칠 개월 거 붙어 있다가 구 시월 되면은 인자 다시 인자 그 아까 말한 기세질 실리질을 한단 말입니다 실리질로 하면 그 유전자기 전부 다 퍼져다가 다시 돌에 인제 붙은 기 즉 미역이라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소를 하고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변가 전체적으로 그곳도 학리서 먼저 그레이까는 몇 사람 살리기 위해서 미역 양식 개발해가 어 일반 일반 서민들 다 죽인다하고 인제 그런 에피소드

면담자 1 : 그런 얘기들이

구술자 1 : 들이 있었고

구술자 2 : 불종 치고요 그때 말도 못했습니다 에피소드가 보통 아입니다 쫓가낼라고

면담자 1 : 그 동네분들이 안 믿어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구술자 1 : 그 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 만약에 내가 시험을 해갔고 저 할래 일 년만 기다리라 이 저 아무 때나 하는 기 아니니까

면담자 1 : 일년 키워야 나오니까에

구술자 1 : 그래든 삼월 달에 그래 하자 삼월 달에 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면담자 1 : 증명을 하신

구술자 1 : 어 그래 딱 대가 씨

20. 미역 양식을 통한 기장 지역 어촌의 풍요

면담자 1 : 진짜 진짜 여러 일들이 많으셨 그 그 양식 하신 분들은 그러므는 수확해가지고 했을 때 뭐 대충 얼 어느 정도 이렇게 벌이가 된 되셨습니까

구술자 1 : 아니 뭐

면담자 1 : 초반에

구술자 1 : 이동에 상당히 이 인자 가사에 도움이 되었지요

면담자 1 : 그 그

구술자 2 : 지금도에 다시 부이가 이래 바닷가에는 그때 당시 다시마 미역이 없었으믄 지금 사는기 전혀 그런 저 주 근데 지금은 다 부촌 아닙니까

면담자 1 : 예 부촌

구술자 2 : 다시마하는데 가믄 다 부촌이라

구술자 1 : 그래 어떤 어떤 데는

구술자 2 :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구술자 1 : 어떤 데는 그 저가 이래 이동에 나는 내 이름은 알아도 그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가끔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고예 어

21. 학리마을 부동산의 변화

면담자 1 : 배 배도 사실은 돈을 마이 번다고 들었는데 배 한 번 나가시면

구술자 1 : 그렇죠

면담자 1 :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었던 거

구술자 1 : 배는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했던 풍선이었는데 풍선은 칼치도 계절적인 저 고기 아닙니까 인자 벌일 때 구 시월에 벌일 때는 마이 벌이고 구시월에 그 외는

면담자 1 : 안 잡힐 때는 또

구술자 1 : 뭐 저 일 년에 그르이까네 뭐냐든 사분의 삼 반기는 안나가 아 사 사 반기에 사분의 일 반기에 여유성을 가지고 벌이가지고 사분의 사반기서 이제 뭐냐면 아홉 달로 그 느그이

면담자 1 : 아 그걸로

구술자 1 : 예 지네나오고 그랬죠

구술자 2 : 지금은 다시마 미역 하는 곳에는 다 돈 많습시다

면담자 1 : 그러 예 저도 들었으 저희 몰랐는데 그냥 어촌 어촌이라 해가지고 그냥 쪼그마나 쪼그마나 그런 덴줄 알았는데 학리는 다들 부자 동네라 저희가 인제 올 때 소장님도 그래 얘기를 하시드라고요 학리가 부자 동네라고

구술자 1 : 그래갔고 늦게 인자 인제 인제 주아를 맞아진기 그때 대가 그래가 저 지금 현재 농촌에 학리 부락에 요 반을 때 가지고 저희들 공개기든 내가 사던 집이 우리 그 옛날에 줄땡기가 하면은 우리 식구를 갈랐습시다 학리 부락에 요게 이기 인자 바다고 이기 인자 이 이이 이기 사이고

면담자 1 : 산 아 이게 뒤에 산 아예

구술자 1 : 바다 원데 이 부락 아닙니까 여게 있는 사람들 한 말로 해서 거지라 뭐 거지 중이라

면담자 1 : 아 바닷가 가까이

구술자 1 : 어 옛날에 그때 당시는 바닷쪽에는 반농반어니까 농사를 그래도 뭐라도 뭐 밭도 저 논에 저어다 했거든 살았어예 그럼 재산이 그때는 백 대 뭐 십도 안됐지에 백 대 십이 아니제 이랬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그래이까네 한 사십 년 정도 어느 순간에 완전 재산 형성이 여게 그지같은 집 떠가 논 집이 여게 논밭보다 안 바꾸는 지금 그런 추세거든 그르이 재산 형성이 이 바다가를 집을 가지고 바닷가 쪼그만 텃밭을 가진기 이 여여 저게 백 평 이백 평 논 가진 거 보다

면담자 1 : 더 낮다고

구술자 1 : 더 낮지 그래 더 잘 살지 지금도 아마 그 학리 부락에 가서 재산 분석을 이래 한 번 해보면 아마 바닷가 지금 현재 인제 있는 헛집하는 이층 집 하나 팔면 우에 지금

면담자 1 : 그 그럼 그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바닷가 쪽이 훨씬 비싸고 땅도 비싸고

구술자 1 : 그래인자 학리뿐 아이라 어쨌든 이 연화리 같은데

면담자 1 : 연화리도

구술자 1 : 지금 월전 월전 잘 나가지

면담자 1 : 예 월전도 알고

구술자 1 : 월전은 그 옛날에 일본 우리 일본 있으 있었다 돌마찌라했거든 돌마찌 돌 사이에 집이 끼여 있었으 돌 사이에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 지금은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면담자 1 : 다들 카페 들어서고 좋은 다 좋은 살기 좋게 바뀌어서

구술자 1 : 물론 지금 그래도 본토지는 본 소유권자는 별로 뭐 가 이상이 바가이 있어도

면담자 1 : 다 외지인들이 아마 다 들어오지

구술자 1 : 다 외지인들이고 그래 지금은 뭐 재산 관계에 대한 인제는 에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때 당시는 사실 그랬됐습시다

3-F 미역 가공과 전라도에서의 삶

미역 양식이 학리 등 동해안에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김용대 씨는 염장 미역을 개발하고 전라도 보길도로 미역 양식 사업을 옮겼다. 일본에 수출하던 미역에 대해 일본에서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22. 1972년 미역 가공 기술의 개발

면담자 1 : 그 뭐고 미역 농사지으셔가지고 파는 거는 어떻게 직접 파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정부에서 다 사가지고 어떻게

구술자 1 : 아니 인제 고래 가지고 미역이 인제 다량 생산 될 때 저가 인제 미역 가공을 따 개발을 했거든요

면담자 1 : 가공이라 하는 게 말리는

구술자 1 : 아니아니지 데치는 거 새 거

면담자 1 : 아 데쳐서

구술자 2 : 염장 미역이라

구술자 1 : 염장 미역

구술자 2 : 최초로 개발 해가지고

구술자 1 : 이 염장 미역이 염장 미역의 기본 시조가 저가 제주도 고사리 제주도 고사리 응용법을 응용해가지고 이래 여서 한 번 해봐 겁니다

면담자 1 :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사리를 그 이렇게

구술자 1 : 제주도 고사리 저장을 데쳐 가지고 소금을 이래 해갔고 놔놓거든요 그래 인자 미역을 미역 염채가 이 이 미역염채가 참 잘 생겼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육각형으로 해갔고 망삽니다 망사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자 즉 뭐냐며는 열왕괘 열 안 줘니까 열로 주면 압축이 되뿌립니다

면담자 1 : 아 쪼그라들어

구술자 1 : 여 염장 미역이라 하는 원리가 여 압축이 그럼 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전 다 방출로 다 합니다 방출로 그러면은 소금을 거게다가 조아 열는 거는 이 속에다가 소금을 주어 넣는 게 아니고 고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금을 마이 열으면 짜부서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븐 이 저 해조류는 한 분 압축을 했시면은 어떤 화학적 약품도 파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면담자 1 : 아 고 상태로 그럼 유지를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하는

구술자 1 : 그러면은 거게다가 소금을 부패만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재놓거든 그래 재 났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먹을 때는 지금도 우리 집에도 우리는

면담자 1 :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염장 미역

구술자 1 : 저저저 우리도 뒤에 우리는 집에서 조금이라도 건조르 안하고

면담자 1 : 아 그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구술자 1 : 염장 미역을 합니다

구술자 2 : 염장을 합니다

구술자 1 : 저 우리 할마이가 그럼 요거를 언제든가에 물에다 불아 놓으면 오 분 있으면 다 원형 그대로라 그럼 항상 생미역을 먹는다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인자 그 염장을 해

가지고

23. 미역 양식의 과잉과 일본수출

구술자 1 : 저가 이 이 미역양식을 해가지고 다 성공을 했기 아니고 미역양식이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면담자 1 : 거게 저 태풍오고 이라면은

구술자 1 : 아니 그래서 망한 게 아이고 미역 양식이 하든 돈이다케가지고 미역 양식을 점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로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이 점 다 시설로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여 저도 고용을 했다 말입니다

면담자 1 : 예 인부로 인제 일하는 일할 사람으로

구술자 1 : 예 고용을 했단 말입니다 하니 이기 과잉이 돼뿌렸는기 미역이 과잉이 과잉이 됐 부이까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망한 거는 투자한 사람이 망한다입니까 이익을 보는 거는 그 집에서 일한 사람이 이익을 보란거야

면담자 1 : 일한 사람은 월급은 다 받으니까네 예

구술자 1 : 그르이까네 임랑에 가면 저저 내가 한번 썩 가면 웃으면서 하는기라 이 사람 봐라 니 때문에 주인이 마 저 저 저 머슴이 되고 지금 머슴이 주인이 되 됐다 이리 웃지 못할 그런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는 이게 점 다 한참 육십팔 년도 구 년도 유행할 때 한창 성행할 때 일광 기장 이쪽 이쪽에 경찰 공무원들 이 저 저 교 육공무원들 여게서 와갔고 고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이겠지 여러서 그만 저저저저 그 만 두고 미역을 해가지고 미역이 성공이 아니라 폭락이 돼 갔고 완전 재산탕진한 사 람들도 개중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면담자 1 : 워낙 양식을 그 당시에 갑자기 많이 하게 되서

구술자 1 : 예 많이 하게 여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인자 안정이 된거는 염장 미역이 나온 바람 에 안정이 됐습니다 즉 염장 미역은 그거는 무진장이니까 그래서 일본에 그는 인자 일본에 수출이 엄청 나게 됐으니까예 그래 그 우리 내가 이 저 이 여게 저 이 대간 인데 말이 듯 마르 마루 마루 대자 이게 있거든 우리 이게 인자 일본에 상푸며으로

면담자 1 : 그럼 인제 염장 미역 개발한 거는 칠십 년대 초반이셨습니까 아니면 육십 년대 그

구술자 1 : 요 요 요거는 칠십이 년

면담자 1 : 아 그때 인자 개발

구술자 1 : 칠십일 년 시작 칠십일 년 칠십 년도 늦게 거 좀 조금조금 해갔고 그때 인자 칠십 일 년 칠십이 년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자 여게서는 이 여게서 생산되는 거를 미 역 염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이까 이게 또 안되는기라 염장이 안되는 기라 왜냐면 수출품 아닙니까 그러문 가격이 일정해 원 원초 가격이 일정하게 되야 수출을 인제 이 저 수출을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원초가 없시믄 올라가고 업시믄 없으면 올 라가고 있으면 내리가고 이러이까네 이 여게서는 안되는기라 그래가지고 여게 여게 이 저 가공하는 사람들이 점 다 전라남도도 다 갔는기라 섬으로

24. 전라도에서의 삶

구술자 1 : 내가 전라남도 보길도 칠 년을 있었습니다 이 이 염장 거게는 왜냐 섬이지 않습니

까 목포나 올라그라면은 객선이 객선이 한 몇 시간 아니까 도저히 이 섬 중에서 생산된 물건은 외지로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게서 그래서 조건부 계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너거꺼 일 키로 얼마에 팔아주께 느그는 얼마든 생산해라 그러이까네 이게 수출에 대한 하나의 원가가 안정이 되니까 그리 이 사람들 살고 즈즈 그러 그 대신 반면에 이 전라남도 미역이 부산을 안 내려 오이까 기장 미역이 생것만 생미역만 해도

면담자 1 : 또 충분히

구술자 1 : 살 수가 있는기라 이기 전라도 미역이 나왔뿌면 적다이 될진데 이게 안 나오니까 네 기장 미역이 서울로 대구로 어데로 가이 이 가격이 고까 되는기라 그러이까네 상반가

면담자 1 : 예 서로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 선생님께서 보길도에 직접 가서서 거서 양식을 해가지고 염장을 하셨던

구술자 1 : 그렇쥬 그 우리 것만 가지고 되는 기 아이고

면담자 1 : 그 여러

구술자 1 : 내가 인제 보길도 들어간 거는 미역 종묘를 만드는 유일하게 인자 대한민국 처음 인자 종묘 했지 않습니까 그 인자 수산 일보 여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그이까 한 때는 나는 현미경하고 미역 종묘를 만들 수 있는 기기만 가지고 어데가든 나는

면담자 1 : 전국 어디서든

구술자 1 : 선생님 이라사입니다 일본말로 마 좀 오주소 그래갔고 첨은 저는 전라도 사람들이 점 다 미역 종묘를 여갯거를 사가갯거든 이걸 자꾸 사가가다 보니까 느그는 죽을 지경아입니까 즈기 조건도 좋고 이러니까 자 함 봐주가 금 내가 인자 함분 갑니다 사실 참 조건이 좋거든 그래갔고 그럼 그게서 배양장을

면담자 1 : 만들어서

구술자 1 : 아까 그기 배양장이다 물편에 배양장 배양장을 만들라 그럼 첫 해는 삼칠제로 내가 인제 느그 배양장 만들어주 만들면 미역 종자 십만 메다를 만들면 삼만메다는 내가 하고 칠만 메다는 첨의 마 느그가 해라 그러이까네 완도 섬이 열 여 지금 뭇니까 면이 형성되인기 행정 형성되인기 열아홉 개거든 그이 열아홉 개 하나씩 여개 주문저 주고 여 주문저 주고 이래가 그래 해가지고 그게 들어간 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러이까 나는 뭐 종묘만 만들어주면 그러 인자 그래 인자 그거를 가지고 행는데 뭐 결과도 나도 그 한일 이 저 뭐요 무역

면담자 1 : 협정

구술자 1 : 코트[퀵터] 코트가 된 기 바람에 즉 그때만 하더라도 저 뭇니까 염장 미역을 무진장으로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일본업자들이 마 양식업자들이 마 마 죽겠 마 데모를 하다 보니까 마 코트가 됐거든 우리 인자 무진장으로 들어가는 거 이만 톤으로 바꾸 안받아들인데 문 한다 뭐 이래됐단기에 그럼 이만 톤을 수산청에서 저 기업 구분을 전라도 경상도 거 이만톤을 이래 갔는데 생산 비율로 봐서는 전라도는 약 한 만 한 팔천 톤 가오고 여게는 기 기장은 인자 미역이 뭐 시장 파는 미역바이 안하니까

면담자 1 : 생미역 밖에

구술자 1 : 여 머 이천 톤 밖으 분량이 안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이리 하다보이 더 니는 니는 경상도이까 영원 가라

면담자 1 : 아 그래 다시 돌아오신

구술자 1 : 그래 했다 한 층 올라오는기 아이라 아 말 문 합니다

면담자 1 : 진짜 여러 일이 많으셨네

구술자 1 : 저 그 보길도에 공장 일체 공장을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죠

면담자 1 : 그 일귀 놓으신 건데 그걸

구술자 1 : 예 살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누가 사라 들어오든 왔다 왔다 육당놈이 내 인자 육지 사람이라고 육당놈이 이 공장이가 떠갈거여 이고 갈거여

면담자 1 : 그 거저 먹을라고 그러든

구술자 1 : 아니 뭐 우리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거게 하든 그그 큰 거 공장을 그냥 그대로 내가 그 가진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됐단 이야깁니다 그래서 뭐 그 마 그마 그래해가 결 그리이까네 뭐뭐

면담자 1 : 그럼 거기 투자하시고 거의 뭐 그대로 다 놔두고 나오신

구술자 1 : 예 아니 담

구술자 2 : 그것보다예 헌미경 들고 갔다가 전라도에서 간첩으로 물리가지고

구술자 1 : 그 그래 마 어쨌든

구술자 2 : 신원조회가 저까지 다 나오고

면담자 1 : 아이고 별의 별 일이 다 있었네 예전엔

구술자 1 : 아이 그때니까 요새는 말이 아이고 그때니까 그때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그때는 여 경상도에서 그쪽에 가갔고 사업을 한다하면은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예 그거조차도

구술자 1 :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고 인자 그 뭐 시간이 어찌된지 모르겠습다

면담자 1 : 괜찮습니다

구술자 1 : 그때는 그 공장을 할라그라면은 이 이 선별하는 염장 미역을 이래 짜는 거 줄기 빼는 거 선별이 선별이 약 한 오백 명 사백오십 사오백 명 됐습니다 근데 그 선별 짜는 기 함 팔구십 프로가 아줌 저 저저 처녀들입니다 그 공장을 양식을 할 느 저 가공을 할 때는 그 인제 완도군에 열아홉 개 섬이 있잖습니까 그 쪼고만도 비 섬이 쪼고만도 있거든에 점 다 이 처녀들이 다 옵니다 그거 인제 벌이려 돈 벌이려 진짜

면담자 1 : 규모가 진짜 상당한

구술자 1 :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자 벌이 할 때 한 해 한 해 벌이면은 그것도 그 큰 돈이니까네

면담자 1 : 예 시골사람들을 한 ★으로 보면

구술자 1 : 예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놈을 관리를 몬 하겠는기야 한 삼백 사백 처녀 아들이 있으면 이런 그 반면에 이 처녀 총각들이 또 있잖습니까 그 섬에서 이 또 그때 그 그이 이 연애 생활을 또 내가 또 또 느꼈어요 점 둘 새 끼리끼리 하는데 빨리 시간을 작업 시간을 밀 차 다섯 시면 다섯 시몬 안 만나몬 이 우에서 슬레트그든요 돌이 이만큼 날라오는거야 돌이 이 마쳐라고 그랜 행포를 몬 전디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 완도 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과장을 내가 찾아가서 사실 그대로 해갔고 결의 형제 형식으로 내 맺었습니까

구술자 2 : 그래가

구술자 1 : 그래갔고 그 수사과장을 그 우리 공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조건을 내가 된다 그러면은 나는 수사과장에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면담자 1 : 그 그만큼 보답을 예

구술자 1 : 그래 이래 마 참 진짜 잘 봐주게 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마 어쨌든 간에 전라도

드가 가지고 우리 할마이 보기 미안하지마는 마 완전 마 속옷만 입고 나왔으예 흘랑
뻗고 아니 내 샘은 그때만 해두라고 이 전자시계가 막 나올 땡니다 전자시계가 거게
이제 미역 해가지고 전자시계 하나 하든 그 완도나 목포 나와갔고 손을 이래 다닌다
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기 뭐여 이라고든

면담자 1 : 아 본 사람도 없을 때니까

구술자 1 : 보든 그래 그 인제 그럴 때이니까 마 어쨌든 간에 나 좀 얼마 안 살아도 산전수전
을 참 마이 겪었습니다 겪으

3-G 미역양식 원조를 증명하는 추가 증거

기장미역 특산화와 특구 지정 문제로 원로 논란이 있을 때 김용대 씨는 1960년대 당시 미역
양식과 관련된 사진, 서류 등을 증거로 미역 양식 원조 논란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 당시 김
용대 씨가 미역 종묘 생산을 하여 이를 부근의 이천, 이동 등에 보급하여 미역 양식이 진행되
었다. 이런 이유로 1968년 내무부 표창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증거이다.

25. 여러 증거들의 제시

면담자 1 : 참 대단한 하신

구술자 2 : 그래 보람은 있잖아요 바닷가 사람들 다

면담자 1 : 최초라는

구술자 2 : 다시마 키아가지고 지금 점 다 잘 살고 있거든요

면담자 1 : 그래 지금 어째보면 먹여 살린 사람이 세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구술자 1 : 요걸 내가 요걸 보면 요 다시마 연역을 대략 요 있고 요 기 미역 이야기 있다입니
돼 있습니다

면담자 1 : 직접 이걸 쓰신 겁니까 선생님

구술자 1 : 예 어데 이거는 내가 여기 오가 이기 이천십

면담자 1 : 십년

구술자 1 : 십 년도에 그때 당시 요 수산 이 군에 이 저 지역 그 뭇니까 다시마 지역 뭐라고
부르노

면담자 1 : 축제 뭐 할 때 그때 말씀하신

구술자 1 : 어

면담자 1 : 다시마 축제하던

구술자 1 : 축제 말고 우리 지역 그 특산품 뭐

면담자 1 : 기장미역 그 특산화시킬라 할 때

구술자 1 : 어 그래 되가 하고 마 잇사서 그때 내가 앉아갔고 할 일도 없고 이래 수산과장이
한테 내가 편지를 보 낸겁니다 이 우리 미역이

면담자 1 : 맞습니다

구술자 1 : 우리 기장에 미역이 연역이 이렇다 당신이 행정에 수반이기 때문에 주사니까 수완
이 되면 이 이렇다

면담자 1 : 고거를 인제 쪽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케 쓰 쓰신 거

구술자 1 : 그 그래 요 나는 마 이거 정 요 나는 오늘 대화가 요것만 가지든 다 꼬 할 줄 알

고 이거는 내가
면담자 1 : 저희가
구술자 1 : 아는 한 밑천이니까 요 이이고 우리 그 뭐뭐 요요 마이 있었는데
구술자 2 : 시간을 너무 너무 저게가 갔는데
면담자 1 : 아 아입니다 저희가 너무 시간을 뺏어가지고 여 이래저래 얘기 근데 말씀을 이런
말씀이 사실은 기록이 안 남아있으면 나중에 또 다 없어져버리는 거라가지고 이걸
꼭 남겨 나와 되가지고 저희가 그래 좀
구술자 1 : 그 저 이건 우리 요게 기장에 요 좀 있네 기장에
면담자 1 : 아 기장 사람들
구술자 1 : 아 요거는 제가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서 가겠습니다
면담자 1 : 아니
구술자 1 : 가져가도 괜찬 아 이 보관하시는기 그래도
면담자 1 : 아 그거
구술자 1 : 뭐 하나뿐이가 몰라
면담자 1 : 요건 제가 찾으면 요 신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술자 1 : 예 요 나와 요거는 참고로 요 말씀 요거는 아까 내가 그 그 저 뭘니까 연도순으로
따져 갖고

26. 1968년 내무부 표창

구술자 1 : 요게 육십 팔년도 내가
면담자 1 : 아 표창 받으셨던 거
구술자 1 : 이게 저 열 저 이것도 인제 내가 근래 받으 그때 당시 하 답답아서 내무부에 이래
의뢰를 해가지고
면담자 1 : 상의 기록을 찾으셨던
구술자 1 : 찾았습니다 저래까지 찾고 도지사 것도 요래 찾고 요거 거 이거 기장군 이거 근래
이끄니까네 관계없고 그래서 내가 요기 인제 이 포창장 포창장을 자랑하는 기 아이
고 요 날짜를
면담자 1 : 이게 인제 증명이
구술자 1 : 아까 말대로
면담자 1 : 되는 예
구술자 1 : 아까 말대로 육십칠 년도에 느그하고 내하고 똑같이 느그 수산 인자 아까 말했잖
아 수산진흥원에서 이백 메다 주는 거를 가지고 내가 여게 미역 양식을 했다카는 너
거 주장인데 내꺼 지금 팔고 내꺼 해가
면담자 1 : 하고 있는데
구술자 1 : 하나도 없고 그거는 인정을 안해 기억이 딱 인정 안해 주고 다른 기 인제 저 뭐요
군 공무원이라 카는 입장에 그 그것만 근거로 가지고 하는 거 아이야 그럼 이거는
아까 내 말이 그말입니다 팔월 십오일 같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럼 육십칠 년도에 한
말로 얘기해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표창을 받았을 거 아이가 그럼 그 표창
이 일곱이 너그까지 일곱이 이백 메타식 갈라주고 그까지고 했다카는 그거를 내가
대표를 해갔고 받은 그거 같으면 할 말이 없다마는 그건 아이다 그래서 해결은 다
됐습다 됐는데 인제 시행 자체가 이게 또 몬하고 인자 모 요새 머 공무원 바꿨으이

까 바뀌자 나는 늙아빠리고 마 의욕도 없고 마 이래가지고 이래 되가 있습니다

면담자 1 : 기장군에서 이걸 좀 빠리 그러 다시 한 번 뭔가 요렇게 해가지고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일단 요 작업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사편찬위원에서 올리면은 또 뭐 관심을 가지는

구술자 1 : 아이 마

면담자 1 :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마 큰 힘은 못되지만 저희는 이제 일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시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구술자 1 : 그 아까 좀

면담자 1 : 그렇게 좀 하게

27. 1965년 언론을 통한 왜곡

구술자 1 : 송병호하고 두 분 세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아일보에 이것도 내가 낸 건 아니고 이것도 송병호가 핸거야 즉 뭐냐며는 각 언론사에서 찾아오면 수협을 찾아갔잖습니까 여게 미역 관계 우리 저 좀 취재하러 왔습니다 뭐 하러왔습시다 이러면 그럼 머 지가 모든 걸 조정하는기야 지가 그래서 그 이 내부적인 이야길 내가 잘 묻하겠는데 그때 수협에 내가 인자 뭐 내 동생도 수협조합장을 했지마는 내 그때 이 그 할당시에 강영갑이라카는 사람이 내하고 수협직원도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면담자 1 : 아 그 또 안 맞는 분이 있을거고

구술자 1 : 안 맞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러이 인제 지꺼 하자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이 안되가 그래가지고 그래가 방현우라 카는 아를 주동을 해갔고 이래 내 했거든 했는데

면담자 1 : 그래서 이분들 이름이 계속 나온 거였구나

구술자 1 : 이 여 동아일보 여게도 이거는 뭐냐면 이 방현우

면담자 1 : 육십오 년

구술자 1 : 육십오 년 구월부터 이 미역 여 기장 앞바다 미역이 성공을 했다가는 거는 했거든 근데 인제 이동 어촌계 방현우 송병호 김용대 원체가 이거를 이래한다 그라문 김용대를 빼야지 읍세뿌고 즈그이 했다케고 즈기이 먼저 했다 해야 되는데 김용대를 열어 놓고 저그 많은 사진을

면담자 1 : 사진을

구술자 1 : 사진을 나는 미역 종묘 배양장 짓는다고 내 사 했지마는 즈거는 여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이였거든 그래서 아까 여 저 뭘니까 여게도 나는 나는

면담자 1 : 요게도 아까 이름이 방현우 이분이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구술자 1 : 예 그러이까네 이게 저도 김용대가 안 있습니까 이야기가 이기 있었던 이야깁니다 이기 여 여 애들 가 열으면 내한텐 연락도 없었으예 연락도 없고 단지 이 이 저 송병호하고 이 조작에 저기 즈그 명의로 즉 뭐냐면은 모든 비석 모든 시거리 모든 그 저 뭘니까 그거를

면담자 1 : 글도 저 본인들

구술자 1 :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요 요 수산증식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인자는 뭐 밝혀지가 몬 돼는데 우째 돼버렸습시다만 그래가지고 인제 이기 된기야 사건이 이래된겁니다

면담자 1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정리가 됐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구술자 1 : 이거 저거 뭘니까 아이그 두서 없이
 면담자 1 : 요건 요 사진을 제가 좀 찍어가도
 구술자 1 : 예 그라이소
 면담자 1 : 되겠습니까 주민번호가 나와서 주민번호는 제가 가리고 생년만 나오도록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아 그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술자 1 : 아니 무엇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다
 면담자 1 : 예 아 충분히 다 저희가 그 웬만큼 그래도 기장 미역이 어떻게 시작됐었는지는 저희가 이해를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요게

28. 또 다른 논란들과 김용대의 노력

구술자 1 : 그래가 인자 수산진흥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래갔고 인자 행정 업무를 목포에 바
 이오 그 저 뭘니까 무슨 뭐 그게서 하는 거 그래 그게서 여 내한테 점 다 저 보 보
 여서 질의를 보냈는데 바이오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공무사항으로서 민간이 어
 떻게 했다가는 거는 우리가 모른다 그 당연하게 아이 머고 문헌
 면담자 1 : 자료도 자기들은 없을 거고
 구술자 1 : 모린다 이래 답변을 다 받았거든 다 받아도 글마
 면담자 1 :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구술자 1 : 꽤죄 죄 걸렸다가 엄청나게 걸린 거 같애 내가 보이 그래서 내가 언젠가 아 진짜
 언젠가 인자는 뭐 이거 저 이거 저 뭘니까 뭐 탑이니 비석이니 하는 이런 다 치우고
 면담자 1 : 예 맞습니다
 구술자 1 : 확실히 정립을 해라
 면담자 1 : 사실만 사실 그대로 하든
 구술자 1 : 확실히 정립을 해가지고 실재를 나무를 세우더라도 내 이름 안해도 그 여계가 대
 한민국에서 실지 미역 양식의 시조지라는거라 마 민간에는 하든 공무원 하든 그건
 고사 두고라도 그래라도 해라 하는 정도의 조언이라도 내가 해보까 했는데 내는 마
 나도 많제 와 저 드가든 할배요 저 어째왔뇨 하제 그래서 마 지금 이래 그래 이래
 잇심다 그래서 사실 내 주위에 그 저 향토 사학자 공태도씨 카는 부이 있습니다 니
 좀 니 좀 좀 대답하게 좀 가가 해라카는 내 죽어도 마이 듣고 있긴 있는데 마 형님
 내 번 마카 안할랍니다 하고 마는기라
 면담자 1 : 저희가 인자 봤을 때도 기장 미역이 어쨌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잇는 이런 특산
 품이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좀 기장 자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무언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술자 1 : 지금 내가 여 미국 간다고 그게 되나놓이까 증명하고 서류하고 책자하고 그때 인
 제 전국적으로 수산진흥원장을 하다가 백평암이라하는 그 담에 인자 수산청 자원조
 성과정을 전원퇴직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무슨 내 그 머 모르겠다 그
 저 수산 그게서 이 저 뭘니까 미역 양식에 대한 발제를 했는데 이거를 누가 썼냐하
 면은 여계 이 향토 또 사학잔데 젊은게 김창원이라카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가가
 글을 써가 올린 그 책자도 전국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 부산 문화 저 기장문화원에
 서 전라도가 미역양식이 원조지가 전라도가 그레이까네 아 그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가 즈 증빙 안 되는 거 아이가 기장군 문화 문화 회관이라 그라면은 한 말로서 기

장 소속에 일 소속이 되 이거 지원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럼 거게서 영터리로 거기 아마 어데 있을거예요 그 책이 그 책은 어데 있을 겁니다 근래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거게서 그것도 윤 유재 유 뭐꼬 그 가 내 종사 가져 가가지고 하는 애라 전라도에 여기 대변에 참 미역을 가지고 부자된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 대변에 다 있심다 대변에 전라도서 미역 저 저걸 하다가 종묘사려 이쪽으로 와갔고

면담자 1 : 아 여기서 눌러앉아

구술자 1 : 형제 간에 오고오고 이래가 대변에 와가지고 대변에서 멸치가 인제 주 배가 크게 형성이 되니까 주로 안했다입니까 한 사람들이 이거 미역 양식한 사람들이 다 죽고 면에서 하고 면에서 하고 면에서 하고 이래 지금 현재 기장에 스물 서이가 스물 너 이 가 기장 전체에 대변 연화리부터 면회지를 미역 양식 면회지르 소유권을 다했심다 다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양식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대변 목욕탕 있지요 그것도 그 여

면담자 1 : 가지고 있는

구술자 1 : 그것도 그 일부 중에 그 그 중에 다 사고 하튼 부자는 거 다 있심다 미역 양식

면담자 1 : 그분들이 결국은 지적대면 선생님 덕에 부자가 되신 어

3-H 다시마 양식

미역 양식은 4월에 끝나서 다시 겨울에 시작하기까지 휴식기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다시마 양식을 시도했다. 당시 한국에는 다시마가 없어서 이를 일본에서 지인을 통해 몰래 들여와 미역 양식과 같은 방식으로 양식을 시작했다. 남방 다시마와 북방 다시마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다시마 종자가 현재 형태로 나오게 되었다.

29. 다시마 종자를 밀수 하게 된 경위

구술자 1 : 그러고 다시마 사업 다시마는 저 뭐 참말로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한 게 머 뭐시 억울하냐면은 다시마는 원래 인자 그 우리 이제 토종사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다시마가 인제 일본 아오모리하고 북해 북해도산이거든에

면담자 1 : 지금 한국에서 나고 있는 다시마들이

구술자 1 : 어 북해도사입니다 북해 다시마 저것도 진흥원하고 짬뽕이 되가 있요요 다시마도 즈거는 몇 번을 일차이차삼차 이 저 일본 그 이제 연구실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애기다시마를 여게 와가지고 시범을 해갔고 실패를 다 봤습니다

면담자 1 : 진흥원서 먼저 실패

구술자 1 : 진흥원에서 그래서 그래 아까 말씀에 내가 진흥원 직원들하고는 엄청나게 엄청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은 내야되제 우리 수입하자 그이까네 이 저 해산물로 수입을 할라하느면은 수산진흥원 원장의 동의를 받아가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동심을 허가가 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제 이래가지고 안된다가는기라 할 수 없다 하는기라 그래가 내가 육십 칠년도에 밀수 밀수로 생각을 했으예 밀수로 그때 당시 밀수는 극형 극형에 처한 이랬데이 그러고 그래 인자 밀 밀수형식으로 저 수 승낙 안 받으면 밀수 아닙니까 그래 우리 관내 출신 이 일광면 황기라 하는 부락에 전국에서 유일한 짬어 우리 여 기장이 짬어 형성이 잘 된다고 짬어를 일본에 수출하는

금창무역 수사 큰 금창무역 김대규라카는 요 있습니다 요요요요 내가 이 연혁을 해가지고 요 일러 보면

면담자 1 : 참고 해가지고 저희가

구술자 1 : 다 있습니다 다시마도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한테 얘기를 우리보다 두 세 해 선배 거든에 그래 그 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봐라 지 자기네들이 가는데 대마도 시모노세키데 북해도까지 갈라하무 우리 여계서 세 배가 세 배 더 가야 된다 근데 그기 되 가능하겠나 그래서 으쨌든 간에 내 설명을 해줬으요 설명을 그 어쨌든 이거는 난류성이기 때문에 통풍만 막으면은 그 된다 보조이 된다 마 돈도 안 되도 비용 안 물고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두루완기 시흥 삼호로 들어온기 백 키로 들어왔으요

면담자 1 : 그러 제법 많은

구술자 1 : 예 아니 백 키로라도 이게 짜부라가 얼마 안 된다 거서 인자 또 다 되 가는 거 아니다 이 그 사람 같은 다 어업하는 거 아이다이가 이 우째 다시마도 그 인자

면담자 1 : 종자를 가진 게 있을 거고

구술자 1 : 그게 저 소위 산란 부분이 있거든 요요것이가 다시마 한 폭에 이 메타 이 메타 이 십이메 타 이까지 되도 불과 한 십오 센치 요 하는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걸 띄여 내는 기거든 그 전체가 백 키로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 주는데 단지 가 들어올 때 뭐냐며는 다시마 종자가 자포니카하고 애기다시마 두이 종자가 있습니다 애기다시마는 넓이 십 센치에 일 메다 오십 자포니카는 삼십 센치에서 넓이 폭이 큰 거는 사십 센치거라 사 메다 오십 꺼지는 종자가 그래 그 종자를 복합으로 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애기다시마만 들어왔으면요 미역 한가집니다 다시마가

면담자 1 : 그런 다시마가 처음 들어

구술자 1 : 어 그래 인자 진흥원에서 즈그는 즈그 대로 북 저 뭇니까 일 일본 연구 연구실 저 파트에서 가 들어온 기 애기다시마를 가 들어와가지고 인제 저기 하고 그것도 공교롭게도 딱 삼 개월 삼 한 이월 내가 늦게 들어왔으요

면담자 1 : 종자를 가지고 들어오신게

구술자 1 : 예 온기 그래가지고 나는 내대로 인자 종자를 했으예 똑 요 다 했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다시마 종자를 빼는 거는 미역 종자를 빼는 거나 똑같습니다 양식도 계절적으로 달 수만 조금 틀리지 즉 뭐냐면 오월달부터 지금 미역 양식장에 미역 다 채취해 묵고 밑에 친성만 갈아 넣어가지고 다시마 마카 다 감아 감아주면 오월달부터 그럼 구시월까지 하거든 그 연장부가 되거든 안 놓고 그래서 다시마를 선택을 해갔고 반에 저 만약에 어쨌든 다시마를 해갔고 해야 미역 하고 놓고 미역 하고 한 번 하고 그놈 의적 건지 갔고 놀다가 다 까묵고 또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면담자 1 : 계속하는

구술자 1 : 미역하고 연작으로 할 수 있는 기 다시마다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 이제 내가 헨거죠 그래가 그놈을 인자 여서 해가 인제 나는 인제 했제 않습니까 인제 다시마 해가지고 다시마는 말 문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로 이야기해서 여기 지금 있는 즈거는 즈거는 공무원이라 수산진흥원이라든 즈그는 실질적으로 뭐냐며는 전국적으로 배부해갔고 양식을 장려했기 없습니다 즈그는 시험적으로 우리가 이런걸 했다 그때 당시는 예 우리 이르 했다 전국 각 지서로 인천지서 군산지서 울산지서 잠깐 그 이 저 수산진흥원 저 지서로 지도서를 하나 씩 다영었거든에 그래갔고 해갔고 마 치아빠리고

양식이 아이라 그런거지 실질적으로 양식을 장려를 했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는
그래가지고 내가 울산 갔다 울산 가지고 갔다 즈가 즈가 즈가 즈 뭐교 지 전라도 저
진도 진도 갑도 갑도 가져갔다 어쨌든 간에 다시마도 그래 해가지고 전파된 거거든
에

30. 한국 다시마 종자의 기원에 대한 설명

구술자 1 :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저 아까 말대로 나는 내 다시마는 자포니카하고 합동으로
왔고 즈그는 애기다시마

면담자 1 : 애기다시마

구술자 1 : 만 했다가입니까 그레이까네 인제 이거 지금은 혼합성이 돼갔고 혼종이 돼갔고 즉
뭐냐몬 그래도 유지가 되갔고 뭐 다시마 큰 거는 시커먼거로 우짜다 보면 큰 거는
약 한 삼 메다도 나오고 하는 거 보이 거기 한 말로 내 종잔그든요

면담자 1 : 한국에는 다시마라는 게 안 났었습니까 그 당시에

구술자 1 : 울산 올진 이북에

면담자 1 : 아 윗쪽으로

구술자 1 : 다시마가 나는데 다시마의 종류가 틀립니다 그 요 다시마 요 다시마 관계 요 읽어
보면 대충 마 여게 포함이 안되더라도 아 내가 이야기한기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좋게 생각합니다

면담자 1 :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아기다시마하고 자포니 다시마하고 같이 이게 혼종이 됐다는
기

구술자 1 : 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서 생산되고 있는 거는 혼합종이지요

면담자 1 : 아 그래서 폭 폭도 보든 요즘 다시마도 이렇게 넓지 않습니 넓고 요려 길고

구술자 1 : 예 고기 인자

면담자 1 : 그렇기 때문에

구술자 1 : 자포니카쥬 그러이 인자 엄밀히 이야기할라그라면 수산진흥원서 즈그가 가 들어온
거는 애기다시마고 즈그이 애기다시마밖으 안 가 들어왔으니까 여 기록이 돼 있으
니까 저 있시면은 그거는 다시마가 안된기지

면담자 1 : 아 그래서

구술자 1 : 그래서 양식을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그걸 안하지

면담자 1 : 상품성이 없니까 당연히 아

31. 다시마 양식의 시초를 숨긴 경위

구술자 1 : 그래서 그거를 그때 가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왜 내가 숨겼나 하면은 즉 뭐냐면
은 그때는 사이비 기자들이 엄청나이 많았습니다 사이비 기자들이 신문보급서만 해
도 그때는 기자라

면담자 1 : 아 맞습니다 예전에는

구술자 1 : 그래가 요샌 다 지금 다 좋은 세상이지만은 그때는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지면 니
그거 어카 숨카 들어왔노 그래서 내가 이거 이북도 다시마가 난다 이북에는 다시마
가 난다 그런 이북에서 나와 가지고 이 말도 아니 변명을 다하고요 이북에서 흘러들

어와가 여서 그래갔고 이래 된거다 그게 말이 되가지고 또 이북 다 이북이 이기를 누가 언론 거기 기사가 되가지고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다 여 있습니다 어데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밀수를 했다카는 것만 해도 절단난다아입니까

면담자 1 : 맞습니다

구술자 1 :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속인기라 그걸로 속이기 위해서 그거를 전파를 안하기 위해서가 내 고생 참 그건 진 눈물 나도 고생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인자 문교부에선 한번 왔어요 또 이만치로 이 드브러 왔어 문교부에서 수산고등학교 교재를

면담자 1 : 만들어 예

구술자 1 : 만드는데 다시마 미역 다시마에 대한 실지적인 그 저 관계를 했는데 실제적인 우리나라 다시마가 그 경위를 어뜨케 해서 그래 다시마를 처음했다는 분이 연결이 되서 또 찾아온기라요 내 말로 몬했다입니까

면담자 1 : 그때만 해도 또 있는 대로 말씀하실 수가 없으니까

구술자 1 : 안되지 말로 몬했다입니까 그 내 말로 몬하겠다했거든 그 그래서 그 기저 그 교재에 다시마 내용은 짝 다 나오도 일본산 다시마라카는 건 나와있지 누가 어떻게 어디서 누가 가져왔다카는 이야기는 그 그거 선생님이 지키주더라고요 그래만 아이고 만에 하나 오세 글이 내가 그 그란다그라면 요새 그 뭐꼬 그 뭐야 그 외국물 영문으로 뭐라 내가 퍼뜩퍼뜩 하이 마 그 이름 잊아

면담자 1 : 표절 말씀 뭐

구술자 1 : 아니 특가가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다 내 뭐 돈

면담자 1 : 아 로열티

구술자 1 : 로열티 내가 받았이문 얼마나 벌었겠는교

면담자 1 : 그 지금까지도 계속 로열티 받으셨을거라 평생 로열티 받을거를

구술자 1 : 요새 우리 일본에 저 로열티 김 로열티 안 줍니까 내 나도 한국은 이제 받았시문 그건 웃으며 할라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그거를 누가 아예 꿈도 안꾸고 어쨌든 안잡히가가꼬 고초 고초 안당할라꼬 그래서 이거를 숨킨기 이래된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여러가지로 마 나름대로 나도 뭐 저 뭇니까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마는

면담자 1 : 아아입니다

구술자 1 : 속이 좀 시원하다

면담자 1 :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구술자 1 : 옛날 이야기를 해갔고

구술자 2 : 시간을 너무 저기 행거 아니

면담자 1 : 아닙니다 아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다 뺏어 가지고


구술자 1 : 아이야 무슨 그 내 요새 그래서 뭐 이렇게 저 저 저 기 뭇니까 그거 일하는 중임다 노인

면담자 1 : 아 그 오전에 그 일하러 가신다는

구술자 1 : 내 일하러

면담자 1 : 그 요새 영상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4. 한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학리 출생 - 학리에서 대장간, 중국집 등 운영 - 현재 전산가든 대표
---	---

목 차

개 요

상세목록

4-A 자기 소개 및 성장기의 학리마을

1. 1961년 학리마을로 오게 된 계기
2. 1970년대 결혼과 정착
3. 미군 불발탄 처리장과 신앙촌 건설 당시의 기억

4-B 성년기의 삶과 학리마을

4. 1970년대~1980년대 초의 생활
5. 학리마을의 수도 상황
6. 요식업의 시작

4-C 전산가든의 시작과 현재

7. 1990년대 전산가든의 시작
8. 전산가든의 이름 유래와 학리마을의 여러 지명 이야기
9. 전산가든과 가족사

4-D 사진을 통해 본 학리마을의 옛 풍경과 추억

10. 전산가든의 옛 풍경
11. 빨래터와 난파선
12. 가족과 생활에 대한 기억

4-E 전산가든의 역사

13. 야구에 대한 이야기
14. 야구찜을 시작하게 된 경위
15. 야구찜 가게들의 관계

4-F 학리마을의 변화

- 16. 간척으로 인한 변화
- 17. 수도와 도로의 변화
- 18. 전기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4-G 신앙촌과 바다생활의 변화

- 19. 신앙촌과 철조망
- 20. 자연산 미역 채취의 변화
- 21. 해녀들의 삶의 변화

4-H 여담, 노년의 삶과 막걸리 주조

- 22. 막걸리 주조를 하게 된 경위
- 23. 막걸리 주조와 미래

□ 개 요

- 구 술 자 : 한상기
- 면 담 자1: 김민화
- 면 담 자2: 권진오
- 면담주제 : 학리마을의 생활상의 변화와 요식업
- 면담일자 : 2021년 8월 18일 (수) 11시
- 면담장소 : 학리마을 전산가든 아래 막걸리 주조실
- 면담차수 : 1차

면담은 학리마을 전산가든 아래 막거리 주조실에서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11시부터 13시 4분까지 2시간 4분 가량 진행되었다. 한상기는 1950년 11월 19일 기장에서 출생하였다. 한상기는 어릴 때부터 부친을 도와 대장간 일을 하다가 20세에 학리에서 대장간 일을 본격적으로 맡았다. 1970~1980년 초까지 회사 생활과 중동 건설현장 파견으로 돈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초 학리에서 요식업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중국집, 삼계탕 가게를 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아구찜을 주로 하는 전산가든을 운영했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나 막걸리 주조를 취미로 하고 있다.

□ 상세목록

4-A 자기 소개 및 성장기의 학리마을

한상기는 1950년 생으로 어린 시절 포항에서 거주하다가 아버지 사업 실패로 기장으로 오게 되어 5학년 때부터 일광초등학교를 다녔다. 그의 아버지는 일광역 앞에 대장간을 차리고 학리에도 대장간을 열었다. 학리는 당시 소규모 조선소가 있어서 대장간이 운영이 잘 되었다. 아버지를 도와 일하다가 20세부터 본격적으로 학리 대장간을 운영하였고 이곳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마을 뒤쪽에 미군 불발탄 처리장이 60년대에도 운영이 되었는데 이곳을 포함해서 시온에서 철강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공장 건설 일도 몇 달 했던 경험이 있다.

1. 1961년 학리마을로 오게 된 계기

면담자 1 : 부산 근현대 구술 자료 수집 사업 학리마을 네 번째 구술자이신 전산가든 한상기 선생님을 모시고 첫 번째 구술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팔월 십팔일 수요일이고 시간은 오전 열한 시입니다 장소는 전산가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전산가든 한상기 선생님을 모시고 학리마을과 관련된 구술 조사를 시작하도록 구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순대로 말씀해주시는게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처음에 이제 학리마을에서 선생님께서 처음 사시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학리마을의 과거 모습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 입구에서 들어오실 때 그래가 어린 시절 한 천구백육십 오십 년대 후반 육십 년대 정도

구술자 1 : 그때 열 몇 살이니까 아마 육십년 육십 일이년

면담자 1 : 육십년 초반 정도 되실 때

구술자 1 : 내가 초등학교 오학년 때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포항으로 이사를 가서 사업한다고 가가 사업이 실패하고 인자 내려온 장소가 옛날에 기장 저저 일광 열차역 열차역 있는 그 밑에서 아버지가 대장간 참 한 번 채렸어 고때 내가 열 초등학교부터 오 학년 말이니까 오학년 말인데 여기와서 인자 초등학교 육 학년 옛날에는 국민학교 이랬거든 그래 일광국민학교에 인자 육학년 때 인자 아버지가 학리에 여기서 인자 대장간도 하나 더 채렸어

면담자 1 : 금 일광에도 대장간이 있으셨고 학리에도 새로 하나

구술자 1 : 새로 하나 더 인자 채렸는데 그때는 뭐 차도 없었고 그 하나까 어린 나이에 그때 석탄 짚어지고 한 말씩 이래 짚어지고 그 저 일광역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인자 짚어지고 걸어왔지 걸어오는데 뭐 그 어릴 때 요즘 생각하면 숨이 차고 그리 해도 요즘 아들은 그래 하라카도 몬하요

면담자 1 : 거리가

구술자 1 : 할 애들도 없고 그래가 여기 왜 아버지가 인자 대장간 차렸노 하면 옛날에 여기는 천부 목선 어선들이 전부 목선이었어 그르이 이제 이 목선을 하다보니깐 그 배를 만드는데는 우리 여 집 지을 때처럼 못 그거를 쓰는게 아니고 대장간에서 배에 쓰는 못이 따로 있어 만들어 쓰는 그 인자 그거 하고 철물이 배 들어가면 볼트 나트 뭐 여러 가지 철물로 여기서 마이 하게 돼 있지 그기 이제 여 도꾸도이라꼬 지금도 그 장소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도꾸장인데 옛날에 권목수하고 인자 아버지 친구 분이 이래 권목수하고 이제 여 또 저그 목수 한 분하고 둘이서 그서 하고 있다 아버지가 연이 되가지고 인자 들어와 가지고 여서 그걸 했거든

면담자 1 : 그럼 목수 분은 배 만드시는 목수분이셨고

구술자 1 : 배 만드는 목순데 옛날에 인자 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도 그 큰 쪽으로 인자 배 못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자 철공 하다보니깐네 이제 연결이 되가 여기 와서 학리와서 함 해봐라 이래가 그래 인자 여기서 채리게 됐으

면담자 1 : 그때는 그러면 배가 좀 많이 만들어졌었습니까 그 당시

구술자 1 : 그 당시에는 여기 전부 뭐 아예 요새맹크로 에프알시 배는 없고 전부 목선

면담자 1 : 아 그럼 일거리도 제법 많았었

구술자 1 : 일거리 그때는 많았지 그때 예서 내가 대장간 할 때만 해도 월급쟁이들 뭐 몇 십만 원 할 때 우리 그 아침에 일하면 아버지하고 내하고 일하면은 뭐 하루에 몇 만원씩 뭐 어떤 때는 칠팔 원씩 벌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봉급쟁이보다 그때는 훨씬 나왔지

면담자 1 : 그럼 집안 사정도 괜찮으셨을 때

구술자 1 : 그때부터는 조금씩 나아졌는데 인제 내가 인제 거들어주고 그는 혼자 대장간 일은 저기 혼자 하기가 좀 힘들어요 앞에서 인자 매질도 해주야 되고 인자 기술자들은

면담자 1 : 전화받으셔도

구술자 1 : 작은 매질하고 [전화통화] 야 조금 있다가요 예 아 예 여 인터뷰도 조금 있다가 내가 하께요 나중에 가가 이야기하께요 야 야 그래가 그때 인자 여기서 인자 목선하고 그때는 여 짱어 아나구 그걸 여 근처에서 여기 장학용 씨라고 지금 나이도 인자 우리 하만은 한 다섯 살이고 여섯 살 그 선밴데 그 부친하고 여기서 장어를 인자 수집을 해가 일본으로 수출하고 인제 그런 데가 이 학리였어 그때 주로 짱어바리가 많았지 요즘은 좀 못 잡는 거 하긴 하지만

면담자 1 : 아 그럼 초등학교 오 학년 때부터 아버지 도와가지고 일을 계속 하셨을

구술자 1 : 그때부터 계속 대장간 일을 했는데 인자 여기서 살고 왔다갔다 하다가 아버지가 인자 일광 역전에는 폐쇄를 했버리고 좌천 장에 거기서 인자 또 대장간을 하나 채리고 그래 인자 좌천 장날에 인자 오일장이니까 거기는 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 일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거서 또 터를 잡었어 터를 잡았고

2. 1970년대 결혼과 정착

구술자 1 : 그래 내가 나이가 들고 한다보니까 열아홉 살 스무 살 되니까 인자 여기꺼는 인자 내가 맡고 하게 되었고

면담자 1 : 거의 학리에 대장간은 사장님께서

구술자 1 : 내가 학리 되고 그때 인자 젊은 나이에 지금 우리 할마시하고 인자 연애를 하는 바람에 이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벌이는 갠찮았으니까 갠찮았고 또 여 그 하고 부터 우리 집사람 하고 그 하고 부터 장인영감이 또 여 배를 하고 있을 땐데 다른 사람은 집에는 좀 있는 사람들은 기계를 가지고 목선이라 해도 기계를 가지고 이래 작업을 하는 기 많았는데 우리 장인어른 그때까지 좀 형편이 어려운 그게 되나 놓이 돛단배 그 인제 노 저어 나가고 이랄 때 내가 아침에 인자 대장간 일 마치고 나면 저녁에 저 오후에 여 작업하러 나갈 때는 노도 젓어 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 지금 여 축간 그 세멘 해놓은 자리가 전부 세멘이 아니고 자갈 저 그 뭐 어데고 저가든 해수욕장에 까만 자갈이 있듯이 그런 죽 자갈인데 파도치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마 집 밑에 까지 파도가 치고 올라오고 막 그때는 그랬었지

면담자 1 : 그럼 원래 학리 그 당시만 해도 학리에 배를 접안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아예 없었던

구술자 1 : 거의 없었지 없었

면담자 1 : 그럼 배를 그냥 뭐 어디다가 매 놓고 이래

구술자 1 : 그때 인자 여기서 보통 날씨 좋을 때는 여 안에서 접안을 해 놓는데 그때 당시에 는 여 도꾸장 있는 그쪽에는 바람이 조금 덜 치니까 거기에 인자 대기도 하고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이 주로 보든 칠암 뭐 신평 저 쪽으로 피난 가기도 하기도 하고 대 놓고 하고

면담자 1 : 날씨가 안 좋으면은 배를 그쪽으로

구술자 1 :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쪽에 인자 작업 하고 나서 날씨 안 좋으면 거 대놓고 하기도 하고 그때는

면담자 1 : 진짜로 지금 모습하고 다르긴 달랐

3. 미군 불발탄 처리장과 신양촌 건설 당시의 기억

구술자 1 : 마이 달랐지 그때 우 저 그 뭐 텔레비 보게 영도 드가 사진 찍어 놓은 사람들이 부산 그거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 여기도 몇 십 년 전에 그 했을 때 그러고 그때 당시에 어 이 마을에 또 주 소득원이 하나 있었는데는 인자 배 몬 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요 뒤로 쪽 느 가든 시온 있는 데 시온 그 철광 그쪽에 미군들 폭발장이 있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인자 어릴 땐 저 저 저 포탄이나 총알 같은 것들 그걸 거기 놔 놓고 폭발시키려고 그래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좇으러 가는거라

면담자 1 : 고철로

구술자 1 : 고철 쓸라고 그라이까네 그때도 그거도 주 소득이여 있었지 그런데 막 폭탄이 막 터지는데도 막 여 언덕에 숨으 있다가 그 고철 서로 줘줬다고 그거하고 여기서 그 다친 사람도 많지 그 저 윤이장이라고 여 전에 이장질도 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손 목 두 개 다 날라간 정도로

면담자 1 : 거기서 그럼 다치신 겁니까

구술자 1 : 피해본 사람도 마이 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제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니까 인제 그기 많았지

면담자 1 : 아 금 포탄장이 그 불발탄 처리장이 육십 년대 칠십 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까

구술자 1 : 있었지 그라고 시온이 들어오는 바람에 박태선 장로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런 그기 있으니까 그런 데 장소를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뺀 아니고는 몬 하는거라 그때 당시

면담자 1 : 미군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구술자 1 : 그러이까 미군이 그기 되가 있으니까 요즘은 뭐 수영이고 어데고 미군 땅 그 내놓으라고 인민들이 막 들어가져 이래가지고 그걸 할 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전부 그런 그걸론 상상도 못할 때지 대통령 말이라카면 뭐 완전히 그거는 뭐 일사천리로 갖 불 시절이니까 인자

면담자 1 : 아 그럼 저쪽에 시온이 들어오면서 그 불발탄장도 없어진 인제

구술자 1 : 시온이 인제 들어오면서

면담자 1 : 없어지게 된

구술자 1 : 그기 평당에 그때 뭐 백 원씩 받는 사람도 있었고 이십 원 삼십 원씩 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그래가 마 다 넘어갔지 그때 그 사용하던 사람들 그 밭도 있었고 그때 당시는 이 마을에서 그 중에 고구마를 마이 심었어 그래이께 우리 여 우리가 대장간에 금이래 사는데 요 도로에 가면 고구마를 리아카로 끌고가다 흘린 고구마들이 여 자갈처럼 그냥 하나씩 스스스 죽 흘러 있을 정도로 고구마가 흔했어 그때 이 마을에 그 폭발장 옆에 그 밭이 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즈음은 뭐 싹 없어졌빠렸 그게 인자 기고 나서

면담자 1 : 거기 인제 요 산 넘어 입니까 지금 여기 군부대 있는 그쪽

구술자 1 : 예 요쪽 그 저저저 가면 군부대 있는 그 저 저 오른쪽에서 딱 보면 지금은 도자로 다 밀어가지고 마 완전히 평탄하이 해놔는데 그땐 전부 이래 산악 이 되어 있으니까

면담자 1 : 아 모습이 다 바뀌어가고

구술자 1 : 전부다 바꼈지 그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밀었뽀어 들어오면서 그래 그 시온 철강을 채릴라 하다가 그 시온철강의 시그때 노가 잘못돼가 실패하는 바람에 인자 그거 됐고 또 박태선이도 그래가 죽어뿌고 그라이까네 인자 다 그기 되고 없어졌으니까

면담자 1 : 원래는 철강 회사를 그럼 차릴라고 했던

구술자 1 : 금마들이 처음에는 거서 시온철강이라고 할라꼬 했는데 인자 그것도 몬 했지 그 시온철강 지을 때 내가 그때 그 한 맺 달 일한 적이 있어 그서 내가 용접으로 그때 한 몇 개월 일하다가 내가 나왔어

면담자 1 : 그럼 실제로 공장을 짓고 있 지어 완공을 못했던

구술자 1 : 완공을 몬 했지 그기 인제 내가 그때 일할 때만 해도 뭐 순조롭게 이래 그 헨데 중간에 그 뭐 한 번 일이 잘못됐뿌는 바람에 그때 사고가 한 번 나는 바람에 뚫이 터져뿌는 바람에 그래 인자 일이 스뚱 뚫뿌렸어 그래 인제 뭐 옳은 기술자도 없고 하나까 저거는 뭐 믿음만 가지고 막 시행을 할라카는 기 그기 잘 못됐뿌린거지

4-B 성년기의 삶과 학리마을

한상기는 결혼 후 학리와 좌천을 오가며 대장간 일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울산 현대조선소에 입사해서 일을 했다. 이후 용접사로 일하면서 30대 초반 해외근무를 하면서 돈을 모아 집을 샀다. 해외에서 돌아온 후 학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리에는 상수도가 없어서 학리 입구에 빨래터로 물을 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었다.

4. 1970년대~1980년대 초의 생활

면담자 1 : 그 사모님은 여기 학리분이십니까 고 어떻게 그 만나게 됐습니까

구술자 1 : 그니까 인제 여기서 대장간 하면서 좌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제 젊은 생각인데 연애 한 번 하던 시절인데 애가 들어섰뿌는 바람에 뭐 첫사랑에 실패를 못하고

면담자 1 : 운명이신

구술자 1 : 그래가 인자 그때부터 그걸 했다가 여기서 우리 애가 지금 오십 칠십이 년생이니 까 지금 뭐 오십 몇 살 되겠는고 모르겠네 고때 인자 애가 생기고 그거 하고 작은놈 생기고 둘째 놈 생기고 이랄 때 여기서 저 생활하면은 아들 공부시키기가 힘들겠

다 그래서 내가 인자 울산 그때 현대조선소라고 요즘은 현대 중공업인데 거 인자 입사를 해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서 인자 애들 울산에 초등학교 다니고 집사람도 울산에 저 와 앉아 가지고 인자 몇 년간 생활 했고 그러다가 회사 생활 내가 한 사년인가 오년인가 했는데 이거 봉급제이 생활 해봐야 집을 못 사겠는거라 그래서 내가 해외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 인자 해외 바람이 막 이래 한참 볼 때라 그 중동 그 나갈 땐데 그래 내 대림산업에 처음에 인자 시험을 쳐 가지고 우리 용접사들은 마장소 옮길 때마다 이 테스트를 받아야 돼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인자 거 대림산업에서 인자 시험을 치고 대림 산업 그 저 인자 저 시험 감독관이 한 명이 와가지고 그때 내보고 하는 말이 이정도 같으면 그 하니까 자기 회사 그 저 저 이름 뭐시고 여 용접기술 가르키 주는 그 부서에 와가지고 지도원으로 와가지고 생활하면 안 되겠나 그 제의가 왔는데 그 제의도 가만 생각해 보йка네 그것도 역시 봉급쟁인거라

면담자 1 : 결국 월급 받으신

구술자 1 : 그래 그거도 월급생활이 그럴 거 같으면 현대조선소 있지 그거 뭐 그 할 거 뭐있노 그라고 그래가 막 그 길로 해외로 나간기 제일 먼저 간기 이집트

면담자 1 : 그때가 언제쯤 이셨던 칠십년

구술자 1 : 고때 팔십 칠십구 년도 팔십 년돈가

면담자 1 : 넘어갈 때

구술자 1 : 팔십일 년돈가 하이튼 고 사이쯤 될 거구만

면담자 1 : 그러면

구술자 1 : 고 이전에는 현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면담자 1 : 그럼 그때가 선생님 한 서른 정도 되셨을 고 반

구술자 1 : 고때 고래 됐을 거구만 그래가 인자 그 인제 한 번 갔다오고 고때 인제 집을 어디 샀나 하면 지금 회관 있는데 고 맞은편이 기와집을 우리 집사람이 하나 사놔더라고 한 번 갔다오이까

면담자 1 : 아 그럼 그동안에 월급 모으셔가지고

구술자 1 : 어 뭐 그래가지고 인자

면담자 1 : 아 대단하신

구술자 1 : 지가 갔다가 저 인자 그걸 하나 사놔어 그래가 이래 또 한 일이년 여 그걸 하다가 에이 함 더 가자 이래 간기 인자 사우디 저 한 분 더 가가지고 인자 그 하고 인자 여 저저 저 밑에 있는 집 지금 있는 전산가든 저 우에 기와집 저게 우리 처 그러이께네 칠촌 아재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이께네 이래 처남들하고 내하고는 육천간이 저건 칠촌 아재 되지 칠촌 아재가 먼 서기질을 하면서 이 땅 전체를 이백오십 몇 평을 그때 당시는 여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었지 집을 짓지 못하는 지역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여 뭐 평당에 뭐 십 몇 만 원씩 이십만 원씩 할 땐데 그때 인저 저 밑에 이 집을 왜 그 하게 됐나 하문 인자 밑에 그 한다꼬 너머 가기 된 걸 인자 집 사람이 알고 그러면 이 집을 우리가 잡자 그래가지고 인자 그 밑에 집을 큰엄마를 주고 나머지 돈을 인자 천이백 만원잉강 그때 주고 이 집을 바꾸고 사고 그때 당시에 그래 인자 그 했는데 인제 여 남안 밑에 여 남안산 이학만 씨라고 그때 이 상회를 하고 계셨는데 학리상회라고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비싼 땅을 왜 사냐 저 받아나 좀 마이 사놓지 인제 이래 요즘 그때 그 아재 말로 들았으면 요즘 뭐 내가 수백 억 됐을겠지

면담자 1 : 그 당시 논밭이 흔해서 저 값어치가 없었으니까

구술자 1 : 값어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여는 어 저 그때는 대지가 얼마 없어 내놓으니 비싼
는 기 나오가 있지 한 다서 여섯배 이상으로 무슨 비싼 나오고 이래나놓이까네 그리
이 그런 이야기 있었지 있었는데 그래 인자 그 다음에 또 이따가 이란 함 더 갔다와
서

5. 학리마을의 수도 상황

구술자 1 : 그래 인자 여기서 중국집도 하고 하는데 우리 중국집 할 때는 전부 다 여 수돗물
이 거기 없었어 없고 지금도 그 저저 학리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은 산책로 이래 만
들어놔는데 보면 이런 큰 그기 있어 시멘트가 이래 막아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
시멘트를 안했고 그냥 이런 바다에 우에서 물이 이래 흘러나오면 이 인제 요거 집
정도는 한 스무 평 될랑가 한 열 몇 평 될랑가 물이 거 고기 고이가 있어 거기서 마
을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빨래를 하고 뭐 하고 그 시절에는 우물 없는 집에는 거서
전부 다 빨래하고 거 저 건너 풀막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 가면 그 뭐 그쪽에 가면
거도 또 이래 물이 좋은 곳이 한군데 있어 거기서도 빨래하는 사람 그쪽 사람들은
그쪽에 빨래하고 하다가

면담자 1 : 자연스럽게 물이 모여 있는 그런데 였습니까

구술자 1 : 요즘에는 이쪽으로 인자 우리 물로 쓰고 풀막개 쪽에는 그쪽에도 지금 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물 쓰는 사람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때 우리가
여서 중국집하고 할 때 그 둘째 처남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 물이 모자라면 여 할매
상회 뒤편에 가면 그 큰 우물이 하나 있어 큰 샘이라고 하나 있고 옛날 사람들은 다
큰샘이라고 다 이랬는데 [전화통화] 어 여보세요 어 밑에다 밑에 어딴노 여 막걸리집
이지 어 조금 있다가 내중에 전화하께 어 그래 인자 그 큰샘이 거기다가 그는 물이
하 물이 다른데 우물이 다 말라도 그는

면담자 1 : 안말라

구술자 1 : 그랬어요 지금은 보면 복개를 해가지고 그 다 물어뿌고 요즘 수도가 있으니께는
없어져버렸는데 그때도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기 그때 조기 있었는데 하이튼 아들이
전부 없애뿌린 바람에 내가 몬 찾아서 몬 찾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자 중국집 할
때 보면 처남하고 내하고 물로 길어가지고 와가지고 쓰고 이래해꼬 또 우리 여기 저
저 들어오는 입구에 그 빨래터 옛날에 거 빨래터데 요즘은 그 빨래터에다가 물로 이
래 갔다와가지고 그거는 빨아 올려 가지고 마을에 전부 수도 연결해가지고 그 물로
다 썼어

면담자 1 : 그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구술자 1 : 상수도 들어오긴 전에 들어오기도 한 오륙 년 이상 그 물을 쓴 사람 계속 썼어 그
물이 굉장히 좋아 그기 비누도 풀리고 세탁하든 아주 좋고 이랬어 그 당시에는 또
그가 그 물 쓸 때가 없지만 뭐 지금도 여 풀막개 물 받아먹는 사람은 물 좋다고 수
돗물 안 먹고 그 물 먹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면담자 1 : 물이 좋은 산에서 내려오는

구술자 1 : 그렇지 산에 줄줄 내려오는 그 물이었는데 그래가 인제 수도가 인제 많이 그거하
니까 인자 이 자연적으로 인자 없어지고 처음 여기 수도 들어설 때는 밑에 사람은
물로 많이 받는데 우리 우쪽에 있는 사람은 수도 이기 관이 약해 내놓이까 밑에서

잠가줘야 우리 집이 물이

면담자 1 : 아 그 정도로 수압이 옛날에는

구술자 1 : 옛날에는 수도가 들어와도 그때는 수압이 좀 낮았지 근데 요즘은 뭐 전부 쇠로 해 놔놓으니까 수압도 좋아졌고

6. 요식업의 시작

면담자 1 : 그 중국집은 처음에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많으셨을 건데 가게를 생각을 하셨으면은

구술자 1 : 해외 갔다 오고 얼마 안 되가지고 그 저 지금은 계절에 해가 지금 뭐야 안에 생긴 거는 그대론데 거기서 인자 생활을 하다보이게 여 낚시 하는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 그래 느 낚시 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막 욕을 하는거야 아 뭐 같은 마을에 배고파도 뭐 하러 뭐 배 채울게 없다고 막 그때 당시에 여 상회 가봐야 뭐 빵 쪼가리 몇 개씩 여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 술 음료수 뭐 이런 것만 그거 했지 식당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러면 여서 식당을 한 번 해봐야 겠다 그리고 어릴 때도 또 내가 잠깐 아버지 말 안 듣고 도망간 적이 있어가 도망을 가서 서울서 도망을 가가 아무도 아는데 없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이제 중국집에 가서 내가 들어가 가지고 일로 좀 하고 주방에 들어가자 그릇 썩거 주고 이래 하다가 국수 떼는 것도 배우고 뭐 이런 경력이 한 삼 사년 있었어 그때는

면담자 1 : 대장간 하시다가 그럼 중간에 나와 가지고

구술자 1 : 하다가 인자 아버지 하고 빼끼가져 도망가가

면담자 1 : 거기서 그러셨구나

구술자 1 : 그래가 인자 고런 경험도 있고 하이께네 중국집을 먼저 했는데 그 인제 주방장도 여기 와가 속을 썩이고 이래사이께네 결국 한 이년인가 하다가 말았을 말고 다음에 고 자리에서 뭘 했냐 그러면 지금 저 밑에 일미 아구찜에 집 하고 있는 저 처남댁인데 그 처남댁하고 인자 삼계탕집을 하고 그때 이름이 전원 삼계탕 이래가 인자 목각 간판 이만한 거 하나 파가 걸어놓고 고때도 손님이 살살 여 생길정도가 됐는데 요즘 같음 계속 그기 됐을근데 그래가 인자 그 처남댁이 또 뭐고 자기 여 저 큰 처남이 여서 처음 중국집 할 때 우리 거 여 같이 생활했거든

면담자 1 : 기와집에서 같이

구술자 1 : 그래 물 길어 나르고 달고 할 때도 그 처남이 욕도 마이 봤지 봤는데 그 위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이 근처에 방이 다 귀하니까 요즘은 방이 흔한데 귀하니까 그때 우리 밑에 여 아래채 쪽 있는 데가 다섯 칸인가 세를 주고 그때 한 달에 얼마 씩 월세를 받고 그런 식으로 했어 했는데 인제 요즘에선 뭐 방도 흔하고

4-C 전산가든의 시작과 현재

중국집을 그만두고 삼계탕집을 하다가 아구찜을 전문으로 하는 전산가든을 운영하였다. 전산이라는 이름은 학리에서 전산가든이 있는 위치가 밭고개라고 불렀는데 이를 한자어로 하면 밭 전자와 뽕 산자를 붙여서 전산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처남댁과 같이 운영을 하다가 일미 아구찜이라는 가게를 새로 내서 분가했다.

7. 1990년대 전산가든의 시작

구술자 1 : 그래가 인자 이 전산아구찜 식당을 하게 되고 나 해서 인자 전부 사람들이 나갔지 손님 받을 장소 모자라니까 그래 거기 인자 전부 위에 다 다시 손님 다 받고 그 하고 그르이 그때부터 지금 인자 까지 전산가든이니 인제 전산 아구찜 했다가 잠깐이 전산가든 했다가

면담자 1 : 전산가든 아구찜은 원래 어떻게 하셔서 지으 요쪽은 아구가 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술자 1 :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 아구만 전문한게 아니고 오리하고 또 몇 가지를 이렇게 해물하고 여 바닷가니까 인제 이래 해물하는 식으로 인자 아구 장사를 하고 뭐 이래 하다보니까 나주에 손님이 장소는 비좁은데 다 앞아가 한쪽에는 고기 굽고 한 쪽에는 뭐 아구찜하고 이라이 마 주방에서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그래가 하나를 접자 될 접을 것인가 그래 진짜 서인가 그때 처남댁이 요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했으 지금은 분점을 해가 나가가 일미 아구찜 해가 있는데 그 처남댁이가 같이 인자 이야길 하면서 그러면 오리 저런 거는 오리 닭은 한 번 썩 병이 와뿌리면 쉬는 그기 있으니까 안전한 게 해물 쪽이다 그래가지고 아구찜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그 그거는 접어 고기집은 접어뒀지 그이께 처음에는 우리 판을 얼마 전에 이리 다 바꿨는데 구이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마이 썼어 썼다가 인제는 전부 썩 바꿨뿌고 요즘은 인자 할때도 나이가 드니까 그 저 저 여여 식당 일도 되가 몬 하니까 인제 아 며느리도 큰 며느리도 그때 큰 며느리도 와가 일로 거들어주고 이랬을 땐데 그런데 일미 아구찜을 처남댁이 인자 분점을 해가 내놓으고 그 다음에 인자 여서 니가 힘드니까 그땐 둘이가 하다가 혼자 몬 처리해나가 놓으니까 그르이께 며느리가 그러몬 넘가줬뿌라 그래 용돈 얼마 썩 받고 우리는

면담자 1 : 지금 인제 물려 준

구술자 1 : 물려 준거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요즘도 할멈은 할마시는 보몬 뭐 반찬이나 뭐 양념 같은 거는 아직까지 해주고 있어

면담자 1 : 아 같이 이랴

구술자 1 : 아침으로 새벽 한 다섯 시 반 되몬 일라나와가 준비를 해주고 낮에는 저거가 영업하고 그르이 아직까지 그런

면담자 1 : 그 전산가든 처음에 하실 때 그 처음 하실 때 구십 년대 그러면

구술자 1 : 그때 지금 한 이십 칠년 됐나

면담자 1 : 구십 년대 초반 중반 요쯤

구술자 1 : 그래 됐을기요

면담자 1 : 그때 이쪽에 학리에 손님들이 좀 왔었습니까 처음 하실 때 손님 그때만 해도 학리가

8. 전산가든의 이름 유래와 학리마을의 여러 지명 이야기

구술자 1 : 처음에 장사할 때 이 일미 하는 거 처남댁하고 내가 인자 절에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이그 짓기 전에 그 위에 저저 삼계탕하던 기왓집 그걸 그라몬 수리를 하자 손

님 이리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수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인제 위에 했는데 처남댁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함부로 손을 대느니 옛날 사람들 그런 풍습이 있거든 집 수리 뭐 요번에는 뭐 동쪽에는 손이 있고 뭐뭐 남쪽에 뭐뭐 손이 있니 뭐 이런 거 마이 지금도 그리하지만 그리 절에 가서 한 번 물어보자 내를 냈지 그래 내가 고때 당시에 절에 다닐 때 그 우위큰 절에 그 내가 인자 우찌 인연이 되가지고 인자 다니게 됐는데 그 인제 가가 물어보자 인제 이래됐어 내가 다니던 절이니까 가보자 이래가 그래 그 가서 물으니까 그 인자 그런걸 봐주는 스님이 계셔 그 큰 절에는 그런데 가 물으니까 이래 보고 빼드만 우리 여 툽 터를 본 것처럼 무 수리는 절대 하지 마라는 기라 그 우에꺼는 절대 손 대지 말고 밑에 밭 있는데 그 집을 조그마이 하나 지아가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자그마이 하나 지아가 거서 장사를 해라고 그런 날짜를 대줄라케가 날짜 대고 그래 첫째 날 떼질은 요날이 제일 좋은날인데 이게 안 되거든 둘째 날로 해라 그러가지고 그라문 이왕이면 이름도 하나 지아주소 그래 했는데 여 전산이라고 인자 글로 적어 줬는데 처음에 나도 일본 그거라고 전산 이라는 일본인들로 다껴야 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랬는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이께네 그게 아이고 이한 마을인데도 여기는 밭고개 중간 여개는 큰 마을 가운데는 요는 큰막 아까 이야기한 저저 큰 말로 저쪽 편에 저저저 저 지금 세븐업 있는 마트 있는 그쪽에는 풀막

면담자 1 : 아 다달랐

구술자 1 : 어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한 마을에도 다 틀리는거라 그리께 여기 밭고개 이라면 밭전자 고개 이거는 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지역 이름인거라 밭고개 이래 부르니까느 한자 풀이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밭고개가 한문으로 지으면 전산이 되겠구나 그렇구나 하고 인자 그 적어준거는 인자 간판 처음 달 때 간판 뒤에 붙여가지고 간판을 인자 만들어가 올려가 그래가 인자 그 전산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생겼지 그 이전에는 내가 인자 전원이라고 이래가 전원삼계탕 뭐 전원중국집

면담자 1 : 그래도 전자가 다 들어가서 그런 의미도 같이 있었던 것 같

구술자 1 : 있 있었고 그 우물도 보면 여 마을에 제일 우물이 여 한 할매 상회 뒤에 있었는 그 마을 저저저저 이름이 큰 마을이니까 고기 인자 마을 이름 갖다가 큰샘이 그러고 여 입구에 들어오면 고 해안가는 또 뭐라카나 이라면은 고 강대방

면담자 1 : 강대방

구술자 1 : 강대방 여 본마을 저 그라문 뭐 풀막개 뭐 이름 바다가에도 또 지명이 이름이 다 달라 해녀들이 이름이 다르고 그렇듯이 인제 우리 여기도 지역이 그렇드라고 그래서 그거 한자풀이를 하면은 전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전산이라고 인제 이름 불렀지

9. 전산가든과 가족사

면담자 1 : 그럼 그때는 인제 외지인들이 많이 좀 오기 시작할 때 였습니까

구술자 1 : 그때부터 인자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전 시작했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지을 때만 해도 해필 저 왜 짓노 저 무슨 식당을 그러고 여 그거를 하노 이래가 여서 저 그러고 나이께네 한 삼 개월 이때부터 우 막 계속 손님 안 끊기고 계속 밀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라 그리이께 요 밑에 쪽 바닷가가면 집을 전부 이래 여 식당처럼 지안게 그 집 그 그도 그도 점포가 하나 둘 막 생겼는거라 그 당시 막 생기고 아구찜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가 이라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래 몬 버티고 지금 다 문을

달아뿌고 우리만 인제 지금 대를 물리가 지금 이래 하고 있으니까
면담자 1 : 아 인제 삼십년 넘게 이게 유지되는 거 굉장히 대단한 진짜로 대단하신 겁니다
구술자 1 : 그니까 인제 여기 있던 처남댁이도 저 가면은 일미 아구찜이라꼬 그 인제 처남댁
이 인제 여 하다가 인제 그 분점 해가 나가고 그도 뭐
면담자 1 : 양쪽 다 잘 되는
구술자 1 : 그 인제 저거는 화요일 쉬고 우리 수요일 쉬고 이걸 계속 하이까네 일하는 사람들
이 처음에는 교대로 교대로 놀았는데 일하는 애들 마음이 안 편타꼬 못 놀겠다하더
라고 에이 그라먼 그라고 또 뭐 그 하기도 하지만 그 세금 문제도 얼마 이상 뭐 그
기 있으니까 그래 안 맞출라 카면 차라리 놀아뿌리자 그 이상 가뿌면 세금이 월등
많아져뿌이까네 그 뭐 감당을 묻하는 거지 뭐 그때만 해도 연간 십억 이래 이래했으
니까 세금이 뭐 몇 천만 원 썩 지금도 뭐 몇 천만 원이지만 그때 몇 천만 원하고는
다르거든 그래가
면담자 1 : 그 정도로 손님들이 계속 많이 계셨었
구술자 1 : 그렇지 요즘은 뭐 그때보다 마이 떨어지지 저 뭐 코로나 오고 뭐 그 하고 이게 어
렵은데도 생기고 인자 이래하이까네 인자 어느 정도 손님도 마이 분산됐다고 보문
돼지
면담자 1 : 그면 그때 인제 전산가든 인제 시작하실 때 자녀분들은 다 인제 출가 했을
구술자 1 : 예
면담자 1 : 때였습니까 아 그러
구술자 1 : 그때 인자 전산간든을 할 때 인제 우리 애도 뭐 군대 갔다와가지고 마 알바일탈
하는거 해요 이래 일치가 되요
면담자 1 : 아 가정을 만들어서 나가셨다가
구술자 1 : 열아홉 열아홉 살 땐가 이정도 요래요래 해가지고 즈그 학교 땡기는 아 하고 같이
이래 연애를 했나봐 그 뭐 또 이라이께네 뭐 부모가 뭐 즈그 좋다 하는데 글게 우리
도 그래 살아 살은걸
면담자 1 : 그 인제 분가시켜 주신
구술자 1 : 그래가 인제 결혼해가지고 그거하고 하다가 우리 식당한 때 인자 손이 자꾸 모자
라니까 이 들어와가 인제 해라 월급 받고 일해라 그때도 인자 계속 일을 했지 또

4-D 사진을 통해 본 학리마을의 옛 풍경과 추억

전산가든이 있던 밭고개는 과거 지명과 같이 학리 주민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던 구역이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는 전산가든 아래로 해안과 맞닿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학리는
산 쪽으로는 과거에 숲만 있는 지역이었고 그 아래 밭이 있고 제일 아래쪽에 마을을 있는 형
태
였다.

10. 전산가든의 옛 풍경

면담자 1 : 아 그 또 지난 번에 사진 보여줬던 거에 난파선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자녀분
들 어릴 때 사진

구술자 1 : 내 그 함 가져 올까요 저 위에 있는데 내 여서 한다고 생각을 안했는데 [잠시 자리 비우심] 몇 장 하나 챙길까 했는데 큰 게 육 이기 유기가 여기 지금 요때는 내가 나이가 몇 살 땀가 모르겠는데 요때 아마 회사 들어갔을 때고 뭐 요기 지금 없어졌는데 요자리가 지금 보으 차가하고 들어올 때 입구에 왼쪽에 뭐 저저저 그거

면담자 1 : 캠핑카 있는 쪽

구술자 1 : 예 캠핑카 있는 요기요기

면담자 1 : 완전 옛날

구술자 1 : 요기 고 부분이고 여때 요 군인 초소가 하나 있었으 그때는 여 반공 그기 때문에 굉장하 이기 심할 때라 그래 이때 그때 그 군 초소 여기 있었어 그때 있지만은 전부 다 지금 저 풀막개 있는 그 초소도 이때 다 반공 그거 한대꼬 생긴거고 여게 보면 여렇게 연결되는 부부이 거든 보이까

면담자 1 : 그럼 요 안쪽이 학리마을

구술자 1 : 어어 학리마을 요기

면담자 1 : 이게 이까지 나와있었구나

구술자 1 : 요기 지금 군인 초소 있는 지금 그쪽 같은데 그께 요래보면은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요 이래 우려질거거든 요래요래 되가 있으 여기가 내나 그 초소 있는 그 장소 우리 아버지 있는데 보이까 요기가 우리 전산가든에서 요 밑에 저 풍선하고 저 우에 있는 고 지역이라 여기 여 우리 전산가든 여기에서 이쪽 마을로 내려다 봤을 때 그 때 전부

면담자 1 : 진짜 건물이 거의 없는

구술자 1 : 이땐 하나도 없었어 우리집 마을 저 붙어 있고 이땐 완저히 허허벌판이라 이랬고 요땐 인제 오래된 사진이 인제 그 또 이게 인자 우리 전산에서 여기 아까 요거 뒤에 요거 발에 이거 저저 그거 생각 마 여 전산가든 옥상에 사진 뭐냐 공사할 때 찍은 사진인데 여 뒤에 있었어 이기 인제 동서판유리 저 있는

면담자 1 : 지금 예

구술자 1 : 동서판유리 있을 때 거든 그 전부 인제 동서판유리였었어 이때가 옛날에 인자 고 기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면담자 1 : 바로 작업하셨던

구술자 1 : 작업을 하고 할 때 여 우리 장모 또 이때 그런 사진 여기 인제 처음 전산 우리 여 전원가든이라고 했을 때 그거 이랬고 요 사진도 보면 요건 요 건물 안쪽까지도 계속 있으니까 있고 요는 인제 이쪽 편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고 이거는 아까 옛날에 저 밑에 기와집 해외 갔다와가지고 처음 집사람이 샀는 집 지금은 여 앞에 전부 다 건물이 섰는데 이때 여기도 요기 지금 우리 전산 지금 있는 자리 같으면 요기 여 여 여쪽 같은데 요서 지금 요기 전산자린데 이만큼 아무것도 집이 없었는거예요

면담자 1 : 산 쪽으로도 진짜 아무것도

구술자 1 :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은 요거 앞쪽에도 건물이 다 들어서는 건데 전 그때는 요런 형태였고

면담자 1 : 그 요때는 그래도 밭하고 논 농사를 제법 마을에서 짓기는 지었던 것 같은

구술자 1 : 확실히 지었지요 그때는 그때는 인제 우리 마을이 마이 그거 됐고 이건 내나 전산 우리 안쪽에서 찍은 그겁니다 여기가 우물

면담자 1 : 아 원래 우물자리

구술자 1 : 여기 우물자린데 그때 요런 그기 우에 여래 기와를 여 우에 덮어져 있었는데 이때

허물어져가지고 뜯어냈잖아 지금 수돗물이 고기 마 장만하는 딱 고 지역일 고 장소예요 여가 고때 요 우물로 퍼가지고 여 다 스고 그랬을 적에 요기 인자 마을 수도가 그때 요 들어왔을 때 하수도 받아쓸 때 이래 인자 대장간 하던 살림이 이 있었을 살림을 보이 몇 개 있드라고

면담자 1 : 그럼 그 바로 우돌도 다 만드셔가들때

구술자 1 : 내가 작업해가 만든 것은 이걸 마 그때그때

면담자 1 : 아 이기 그 전에 삼계탕

구술자 1 : 이게 그 처음 할 때 삼계탕 지금 여 그 사진은 아들 그때 사진 그기 안 비네 또 보면은 그때 아들 집에

11. 빨래터와 난파선

구술자 1 : 여 사진 그기 고 난파선 있는데

면담자 1 : 제가 그때

구술자 1 : 고기가 바로 내 아까 말하던 마을 빨래터 따 고 그 자리라

면담자 1 : 그때 사진을 찍었습

구술자 1 : 아 찍었어요

면담자 1 : 고 사진만 고때 찍었습 아 요요 요 사진

구술자 1 : 요기 아까 아들 여 걸어올 때 고 도로 여

면담자 1 : 길

구술자 1 : 고기 그 지금 들어오는 입구 고 도론데 고 밑으로 가면 고기 바로 말라 마을 빨래터에서 난파선 바로 앞에 난파선 있는 고기가 빨래터 였다고 그이께 요거 요거 앞에 가 빨래터데 아들 인제 난파선에 놀 때 이때 이대 내 사진 찍았는거 마이 있었는데 애들이 없애뿌리는 바람에

면담자 1 : 이 난파선은 언제 오래 오래 이기 있었던 겁니까 태풍 때문에

구술자 1 : 태풍 때문에 어디서 밀려 들어왔어

면담자 1 : 배가 생각보다 큰 뱃거 같은데

구술자 1 : 요 근처에서 들어온 배가 아니었고 저기 어데서 그때 동서판유리 저 유리 살 때 유리 실고 들어온 아마 유리 가루 들은 그때 모래 그 신크 들으운 뱃데 난파 되가지고 아마 학리로 밀쳐 들어왔을 때구만 요즘 걸으면 지금 빨리 치웠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 환경이니 뭐 이런 그거는 크게 그거를 안했으니까 그냥 막 배가 다 썩을 때까지 이래 나놓고 이랬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 그때 찍었을거구만 여기

12. 가족과 생활에 대한 기억

면담자 1 : 그 학리 계실 때 그러면 자녀분들은 자녀분들도 학교를 요기 잠깐 다니 다니셨습니까

구술자 1 : 그 인제 우리 작은 놈이 여서 그 했고 우리 큰 놈은 울산 그 저저 울산 남 남부민 초등학교가 그때 국민학교가 다니다가 내가 해외 갈 때니까 그대는 인제 저거가 인제 같이 저거 엄마하고 같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서 인제 다시 살게 되고

면담자 1 : 그면 일광초등학교 그때 다니고

- 구술자 1 : 일광초등학교 다니고 작은 놈은 첨부터 아마 그 했는가 기억 좀 까물까물
- 면담자 1 : 여기서 학교 갈 때 자녀분들도 걸어서 다녔습니까 그때는
- 구술자 1 : 여기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화전까지 걸어다녔다가
- 면담자 1 : 화전 마을까지
- 구술자 1 : 그레이께네 겨울에는 뭐 춥고 뭐 여름에는 덥고 그렇게 그때는 다 살은 게
- 면담자 1 : 여기는 보문 그 버스 마을버스 이래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 구술자 1 : 저 마을버스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 그때 여기 그거 하고 도로 그 할 때부터 전국적으로 여 뭐 마을버스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마 들어왔는데 정확한 연도수는 내가 잘 모르겠네
- 면담자 1 : 그럼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그면 차 없으면 걸어 다녔
- 구술자 1 : 거의 걸어다녔지 걸어다 다니고 여 밑에 큰 배 작업하는 사람들은 작업 핸جل 택시로 그때 당시에 택시로 뒤에 다가 막 싣고 안 그라면 좀 마이 잡는 사람들은 트럭을 인자 그거 해가지고 부산 공동어시장 글로 인자 팔러 댕깁지 요 근처는 다 소비를 몬 시켰으니까 그때는 기장 시장도 뭐 그기 없었으니까 그래뿌고 뭐 쪼그마하이 뭐 여 몇 군데 이래 그 했지 요즘처럼 저렇게 많지는 않았거든 몇 집 없었어 그때 그 당시 시장도
- 면담자 1 : 아까 그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뻗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장인어른께서 하실 때도 다 그렇게 판 데 이제 부산으로 가고 막 이렇게
- 구술자 1 : 예 그러고 장인 작업 할 때는 배가 크지가 앓애나놓이까네 열 몇 자 열 몇 자 같으면 뭐 몇 몇 미터나 될란 거 모르겠다 한 자에 삼십 센치니까
- 면담자 1 : 한 삼 사 미터 정도 아 진짜로 그러면
- 구술자 1 : 한 오 메타 되겠네 한 오룩 메타 되는 배에다가 뭐 돛 달아가지고 그래 인자 노를 젓어가 다니고 이라이께네 그때는 작업이 그렇게 마이 못하니까 아까 여서 사진처럼
- 면담자 1 : 아 집에 들고 이렇게
- 구술자 1 :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건어물처럼 그래 해가 인제 장모님이 팔러 다니고 그래 했거든 그때는 이때 당시에는 이래 사진이 마이 있었는데 이제 어데 가봤는지 그기 다 나아났으면 요즘 같으면은 이게 좋은 추억거리가 될 텐데 관리를 잘 문해가지고
- 면담자 1 : 옛날 모습들이 다 완전히 그때랑 달라져가지고 남아있었으면은
- 구술자 1 : 그래
- 면담자 1 : 지금 옛날 기억하시기가
- 구술자 1 : 그 더 좋을텐데 지금 이쪽에 전산 이쪽에 집이 지어져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전원 삼계탕할 땐 이 전산가든이 없었어 없어 여게만 장사를 하는데지 확실히 그땐 물이 귀하니까 인제 여기다 물로
- 면담자 1 : 아 물탱크에 다 받아서
- 구술자 1 : 물탱크로 받아가지고 그래 인자 장사하고 중국집하고 난 뒤에 그 해뿌고 그 전원 삼계탕이라고 인제 이래가 이기인제 전산에 제일 처음으로
- 면담자 1 : 시초
- 구술자 1 : 처음에 초입 때
- 면담자 1 : 그래도 요런 사진들이 남아 있으셔서 이 역사가 아마도 아드님이나 또 며느님이 이어가지고 또 그 뒤에 또 이렇게 여 이어가면 이게 진짜로 예 중요한 역사가 될 거 같습니다

구술자 1 : 그이 때문에 저래되든 손주는 미워도 요즘 뭐 공부를 안하고 돌아 댕기다가 저 그 어마이 밑에 요즘 요새

면담자 1 : 아 일하고 있습니까?

구술자 1 : 알바를 하고 있어

면담자 1 : 그 삼십 년 이어오고 앞으로 또 삼십 년도 이어오고 그래되면 진짜로 나중에 되면 백년 가게가 될 만큼

구술자 1 : 아 뭐 그렇게 돈 잘 벌라고 그라는데 있는 게 즈그가 지금 뭐 공부를 해가지고 있는지 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거도 아니고 지금 가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요즘 또 이 저거뿐만 아이더라도 요즘 보니까 웬만한데 촬영 나온 데 보면 다 대를 내려오더라고

면담자 1 : 맞습니다

구술자 1 : 엄마 하던 거 물리 받고 아버지 하던 것도 물려받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인자 가는 거 같애 뭐

4-E 전산가든의 역사

전산가든에서 아구찜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아귀가 매우 짠 생선이었고 어획량도 많아서 울산, 부산 어시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했다. 처음에는 큰 처형이 일광에서 아구찜을 시작했는데 그곳에 처남댁이 일을 도우러 가서 배운 후 학리에서 처남댁과 함께 동업으로 전산가든 아구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전산가든이 잘 되어 처남댁은 다시 분가하여 일미아구찜을 개업해서 지금 현재는 세 집에서 아구찜을 하고 있다.

13. 아구에 대한 이야기

면담자 2 : 그러면 아까 말씀 처음에 그 아구 하고 할 때 그 아구 하는 거 어디서 가져오셨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구술자 1 : 그때는 울산 그 시장에서 마이 그 하고 지금도 인자 우리 작은놈이 인자 그때는 지가 또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한 번 고기를 사다 날랐는 적이 있었는데 어시장에서 중매인들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그래가 인제 이쪽으로 요즘은 부산서 올라오는데 인제 여 오는 거는 남해 저 삼천포 이쪽에서 고기 잡은 게 부산으로 올라오면 부산에서 인자 일로 올라오고 이라는데 그때 당시에는 울산 저 어시장이 그때 컸고 또 아구가 많이 났고 그래 거기서 이쪽으로 많이 왔어요

면담자 1 : 직접 가서서 그걸 뭐 아니면 중 그 중매인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배달을 해주는

구술자 1 : 예 즈그가 배달해주면 아직까지 우리는 여기서 손질로

면담자 1 : 아 직접으로

구술자 1 :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일미 저 처남댁이는 인제 이래 토막을 내 줄 사람 그때 내가 그 옆에서 전부 작업 하고남은 배 따고 나면 내가 토막 쳐 가지고 인자 작업 해가 주면 저거가 식거가 인자 손님 저 상에 나가고 이랬는데 일미 그 처남댁이는 여자가 되나놓이 이 혼자 인자 몬 해가지고 그서 토막쳐가 줄라꼬 이래 가지고 갔다쓰고 있어요 그 인제 일당은 인제 주야 되지 그서 좀 비싸게 쓰지 우리

카면 조금 비싸게 쓴다고 보면 되지

면담자 2 : 그러면 처음에는 아구찜을 얼마에 이렇게 팔았습니까?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아요 처음에는 가격을 얼마에

구술자 1 : 처음에 같으면 몇 천 원 씩 안했지

면담자 1 : 거의 지금 한 십분의 일 정도 수준

구술자 1 : 한 십분의 일 정도로 그 했고 그때는 십분의 일로 이리 해도 돈이 되게 뭐 세금도
그렇지만 고기값이 그때는 이래 살 때니까 그때는 여 뭐 부산어물이 서울 올라가고
이런 그기 없고 부산에서 소비를 시키야 되는 이런 정도 울산에도 근처에서만 그 할
때고 부산서 서울 올라 갈라카면 그때 열차를 타면은 열 몇 시간 썩 걸렸을 때니까
생물이라고 서울 사람들은 인천에서 안 올라오면은 구경을 mon할 때지

면담자 1 : 활어차가 그때 뭐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술자 1 : 어어 없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서 올라가면 아무리 트럭으로 가지고 빠
르게 올라간다해도 열 시간 이상은 걸렸으야 되니까 그러이까네 이기 고기가 다 상
한다고 보이까네 처리를 mon 하는거이지 가져갔다 못 팔면 그 사람들 뭐 완저이 땅
팔러 장사 해야 될 판이니까 아예 장사도 없었고 그 한데 고속도로 뚫피면서 인자여
기 물이 생물이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마 올라가기 시작했지 그때
는 아구가 거의 버리다시피 막 우리야 그냥 가져오다시피 쉽게 말하면 뭐 공급비 조
금 더 주면 가져오는 그런 시기 그이까 그때는 돈이 된거지

14. 아구찜을 시작하게 된 경위

면담자 2 : 제가 약간 어린 그 신기했던 게 아구찜 자체가 오래된 음식이 아니잖아요 막 이
동네 음식도 아니고 근데 인제 여기서 아구찜이 인제 잘되니까 이게 뭐가 있었는지
가

구술자 1 : 그는 인자 처음에 우리가 그때 그 할 때가 일광 역전 밑에 그 그때 당시에도 아구
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는 장사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집에 무려 인자 마
이 다녔고 그 뭐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버니까 있는 장소에다 그냥 했
으면 됐을 텐데 해운대로 그 사람들이 장소를 이전을 했지 그 사람들이 가뿌렸다고
가뿌고 다시 와가지고 그서 해운대가 장사 안되니까 일광 역전에 다시 왔는데 한 번
떠난 손님이 안 와뿐거지 그래 그 사람들은 나이가 우리가 보다는 많지 지금은 지금
생각하면 많지 우리 젊을 때 그 사람들이 제법 뭐 중늬은이 정도로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 그치 지금 한 칠십 여덟 한 팔십 가까이 됐을 거구만 그 사람들이 그때 인자
우리 먹으로 다니면서 그 하고 달고 이래하다가 일광 그 저저 아구찜 그기가 인제
큰 처형이라

면담자 1 : 아 다 이케 가족 분들이

구술자 1 : 가족이 근데 그 처형이 그 큰 동서하고 이혼을 하면서 뭐 위자료 좀 받아 나온 거
하고 이래해가지고 인자 그서 장사를 시작한게 그때는 이래케 확 크지닌 않았지 크
지는 않았는데 조그마한 지 지금 일광 아구찜 그대론데 그때는 손님이 이렇게 많지
는 않았지 그때 뭐 하루에 올라봐야 뭐 뭐 사오 한 칠팔만 원

면담자 1 : 그래 몇 팀 못 받았을 때

구술자 1 : 몇 팀 못 받고 인제 이래 했을 때 그때 우리 여 일미 아구찜 처남댁이가 거서 인
제 일로 거들어주게 됐어 그때 우리 여 삼계탕 할 때 그라만 여 그때 인제 삼계탕

손님이 마이 없으니까 하루에 열 몇 개 썩 팔아봐야 열 몇 개 썩 그때 삼계탕 뭐 삼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이래할 때니까 열 몇 개 팔아봐야 돈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일 일손이 모자라니까 일미 아구찜 이래 그 처남댁 그 일로 해주기로 돼 있어 그 일로 해주게 됐다가 거기서 인자 큰 조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바람에 큰 조카가 며느리 하고 그 처형이 인제 일로 하겠다 그래가 여기 인자 처남댁에는 인자 손 띠라 이래 됐지 그래했는데 우리 할마시가 인자 언니 아들 빚도 있고 이라니까 한 일 년 한 이 년 더 댔고 있으면 안 되겠나 그래 그 처형이 우리 며느리라 해야지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해야지 안 되겠다 카면 좋다 우리 어차피 장사 하던데니까 여서 해뿌자 그래가 내가 거기 시발점이 됐지 삼계탕 하다 그라고 이자 아구찜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라 그때 인자 오리하고 그때 그래가 마 접목을 해가 첨에 아구찜 하나만 하면 별 거기 없으니까 그때 오리 닭 처음 우리는 삼계탕을 한 또 그거이 있으니까 그때는 인제 여 닭을 내가 춘닭을 사러 다녔어

면담자 1 : 장에 다니신

구술자 1 : 장에 다니고 이라고 또 촌에 가면 이 닭을 키우는 사람이 열 몇 마리씩 있는 그 닭을 내가 사다가 여기 와서 내가 인자

면담자 1 : 실제로

구술자 1 : 만지고 이자 그 해가지고 그때는 삼계탕도 하고 저저저저 백숙

면담자 1 : 백숙

구술자 1 : 그것도 하고 뭐 이래했어 그래가 그때부터 인제 같이 겸업을 하다가 보니까 아 도저히 여러 개는 못하다 그래가지고 인자 반을 포기를 한기 닭하고 오리는 포기하고 아무래도 해물 쪽은 쉽게 말해서 병이 없으니까 심화가 없지 그니까네 인자 그 처남댁이가 일미 아구찜에서 처남댁이가 한 말이 여서 그라면 아구를 전문으로 하자 그래가 그 품목을 없애 뿌리고 그래 돼 처음 여 전장 계속 하게 됐지 그래 하다가 인제 여서 그 해가지고 또 인자 분점을 그 새로 내가 나가고 그래가 지금 인자 두집에서 인자 그니까 세 집이지

15. 아구찜 가게들의 관계

면담자 1 : 네 일광까지 하면

구술자 1 : 일광까지 하면 세집인데 우리는 저저저 이 저 일미는 화요일 쉬고 우리는 수요일 쉬고 일광만 목요일 쉬고

면담자 1 : 그래 다 다른 요일

구술자 1 : 여 왔다가 손님들이 마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데 어때 노는데 마 놓으면 마 어디 서 왔는 면에서 왔는데 말이야

면담자 1 : 맞습니다

구술자 1 : 그 한다고 마 그때는 첨에 똑같이 쉬었어 똑같이 쉬고 똑같이 놀러도 가고 관광도 여 아들 댔고 버스 하나 빌리가 같이 놀러 다니고 이래했는데 어 손님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거라 막 이까지 왔는데 맨 입에 몬 간다 술 내놔라 술이라도 묵고 갈란다 카제 이른 난리를 치더라 가만 인제 세집이 의논을 해가 이래가 안 되겠다 돌아가며 쉬자 그래서 인제 일미 아구찜은 화요일 전산은 수요일 일광은 목요일

면담자 1 : 맞습니다 안 그러면 헛걸음 하면은 사람들 멀리서 와가지고

구술자 1 : 그러니까 인자 오늘도 몇 팀 인자 고 밑에 보냈는데 그 중 노는 사 그중에서 인자

쉬는 사람 아차 이러면 이쪽으로 인자 들어오고 화요일 저기 갔던 사람이 인자 거기
수요일 날 우린 여 하니까 인자 일로 오고 이 로테이션을 인자 이래 손님들이 인자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많이 하고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모르니까는 우리
인자 글로 보내주고 그래 지금 하고 있어요

면담자 1 : 그래도 친척 분들이 하시니까 그게 가맹점

구술자 1 : 가맹점처럼 그때는 같이 놀 때는 재밌었어 일한 세 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어
울리나 놓으면 관광버스 그 큰 거 한대 빌리 놓으면 마 요즘은 그 관광버스 안에서
못 놀라고 하지만 그때는 마 알아서 마 무조건 마 마시고 떠들고 놀고 마

면담자 1 : 노래도 부르고

구술자 1 : 노래도 부르고 완전히 관광 열차지 그거는 그렇게 막 하루 돌고 오고 뭐 그런 식
으로 그때는 같이 놀았는데 요즘은 인자 코로나도 있고 또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
니까 인자 안 되지마는 따로따로 노니까네 아무래도 같이 몬 어울리는 거라

면담자 1 : 모이실 시간이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구술자 1 : 주인들은 뭐 같이 이래 놀러 일하는 사람들 맡겨 놓고 하지만 놀러 땡기는데 옛날
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인자 같이 몬 다니지 그것도 함 보든 내가 이기는 얼마 안되
지 싶었는데 놀러다닐 때 이거는 완전히 마 그 관광처럼

면담자 1 :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 마을 분들입니까 아이면은 다른데서

구술자 1 : 다른데서

면담자 1 : 다 오시는 분들 마을 분들은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구술자 1 : 연세도 많고 배 사업할 때 그 하이까네 몬 오고

4-F 학리마을의 변화

학리마을은 수도와 전기, 도로 등 마을 현대화에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 늦은 동네였다. 일광
에서 학리로 오는 마을 진입로는 원래 달구지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산길이었었는데 1970
년대 이후 수산물 운반 차량의 이동을 위해서 도로가 확장되었다. 전기 역시 1970년대에 들
어와서 그 이전에는 호롱불과 풍로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

16. 간척으로 인한 변화

구술자 1 : 이기 얼마 전에 내가 찍은 사진 같은데

면담자 1 : 우와 사진 잘 나왔

구술자 1 : 이거는 내나 저기 이거 얼마 전에 찍었어 여

면담자 1 : 여가 어디쪽

구술자 1 : 여기 내나 인자 초소 있는 쪽 여기 초소 있는 쪽 그쪽이고 여는 뭐 크게 변한 게
없지 여기 내가 여 저 끝에 여는 변한 게 없는데 저 그날 그 사우만

면담자 1 : 아 여긴 그래도

구술자 1 : 이쪽에는 그 여 저 일미 아구뽀 뒤편 그기에 지금 대관수산이라꼬 있는데 양어장
그때는 양어장이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면담자 1 : 그냥 다 갯바위였

구술자 1 : 어 갯바위였지 전부 갯바위 그 뒤에 전부 이런 갯바위였는데 고 양어장이 들어오

면서 막어가지고 인제 그 양어장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부다 이런 그거였었어 이것도 들어오는 입구에서 내가 찍은 모양이고 내 그날 온다 카길래 내가 또 뭐 찍어왔어 여기 이거 인자 그 들어오는 입구 쪽이고 이걸 건리에서 인제 마을로 보고 찍었는데 그때는

면담자 1 : 요기 이 해안선에 있는 집들이 예전에 없을 그 이 안쪽까지는 물이 들어왔었습니까 다

구술자 1 : 그렇지

면담자 1 : 지금 여기 가게들 있는 요쪽까지 다

구술자 1 : 그렇지 이 가게 지금 요기 저 그런데

면담자 1 : 요 옆이 편의점 있는 고긴 거 같은데

구술자 1 : 편의점 아니고 편의점에서 이 마을로 보고 내가 이 찍었어 찍었는데 요기 옛날에 여 우리 처갓집이라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 이까지 여 지금 방파제가 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십메다 한 십오 메타 까지 바닷물이 차가 있었어

면담자 1 : 아 진짜 그 바로 앞까지 바다

구술자 1 : 그기 여 요 집이 부터 제일 바닷가 처갓집이 제일 바닷가 집이었고 요 집하고 두 개가 지금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 있지 이때는 전부 기와집이었어 아 기와집이 아니고 초갓집 이기 초가집이었는데 옛날에 보면 여여 저저 초갓집 밑에 보든 굽벙이 같은 거 마이 나오고 이랬는데 그 약에 쓴다고 찾아가고 이랬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때 슬레트를 다 바꿨다 그때 그때 안 바꿨으면 아직 까지 초가집이 되가 있을 기지 머

면담자 1 : 진짜 오래된

구술자 1 : 그 이 이거는 이런 건 아직까지 집 그대로

면담자 1 : 나중에 내려가면서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구술자 1 : 그래그래

면담자 1 : 이게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집이구나 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게 의미도 있고 역사도 인제 있고 해서

17. 수도와 도로의 변화

구술자 1 : 요기가 바로 아까 말하던 마을 빨래터 여 저 딱 입구에 들어오면 해수욕장이 있고 입구 들어오면 여 산책도로 있잖아요 고 보면 시멘트 이래 해놔어

면담자 1 : 고기를 한 번 찾아가 보고

구술자 1 : 고 시멘트 밑에 이래 보면은 돌 이래 짜놓은 게 고게 빨래터였어

면담자 1 : 원래 빨래터 아 바다 바로 맞닿았었

구술자 1 : 어 맞닿은데 거 위에서 지금 시온이 생기기 전에는 그서 물이 주 전부 산에서 걸러진 물이 내려오니깐 굉장히 물이 좋았어 좋았고 보면은 이 내 그 말 말한다고 내 한 번 와가 인제

면담자 1 : 감사합니다 선생님

구술자 1 : 찍어봤는데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에 바다로 찍어보니까네 바다 여서 인자 해녀들이 작업을 마이 하는 장손데 찍어 보이 인자 이게 마을 입구가 이기

면담자 1 : 아 여가 정자 있는 거기 그럼 이 도로가 진짜 말 그대로 차 한 대 지나가는

구술자 1 : 그렇지

면담자 1 : 고런

구술자 1 :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보면 돼

면담자 1 : 이거는 그면 산을 깎아 내서

구술자 1 : 완전히 깎아 내가지고 완저이 여기서 이 도로는 다 깎았다고 보면 돼 그니까 여기 산 이 나무가 여기서 요렇게 덮고 이 바닷가에 있는 거 나무들이 위로 덮고 아래가 굴처럼

면담자 1 : 인제 이해가 됩니다 그 지금 폭이 넓으면 거기 안 되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소로면은 이게

구술자 1 : 딱 여기서 여기까지가 본 도론데 지금은 거기 났다고 보면 돼 되겠다 들어오는 입구에 고 정자 있는 그니까 이 마을로 들어오는 이 산에 지금 다 깎았다고 보면 돼 옛날에 이 산에

면담자 1 : 여기 예전에는 요쪽에도 나무들이 전부다 나무들이

구술자 1 : 전부 나무고 막 이래 우거져가 있었어 옛날에 그 할 때

면담자 1 : 본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진짜 이뻐올 거 같습

구술자 1 : 이 나무들이 지금 아직 옛날에 있던 그 나무들이고 여는 지금 다 깎아뺐거 도로 나오면서 도로 하면서 전부 쳐내버렸다고 보면 돼 이게 내나 아까 열매 해수욕장 여 뒷편 여기다 아까 전 여 여 사진 찍는 거 여기가 초소 여 초소자리거든 요기가 초소 자리인데 요즘 야들이 인제 캠핑 여

면담자 1 : 캠핑장 만들어서

구술자 1 : 캠핑 만들어놔고 여기서부터 아까 여 인도 인도 요기 까지가 인도 있는데까지가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는 그러이께 이 나무가 우로 우에 있는 나무가 이래 덮으니까 뭐 리어카 하나 겨우 트럭 지나갈 정도가 배껴 안되니까 그때 도로는 그러이까 이게 완전히 우에는 이래 굴처럼 이래 생겼어 그래 이 마을에 밤에 다니는 사람이 잘 없었어

면담자 1 : 등도 하나 없었을

구술자 1 : 등도 없었고 이기가 마 옛날에 산짐들이 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강다지라 하는 짐승이 막 돌로 막 사람들이 이리 구불러 내려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때 그래가 가지고 겁을 내가 사람들이 마이 안다녔어 밤에 아예 낮에도 여는 들어오면 어둑어둑했으니까 여 양 쪽에 나무가 있어가

면담자 2 : 가 가지여?

구술자 1 : 이기 지금 다 그거 된 겁니다 이 새로운 도로고 요기 있으 인도 하고 옆에 그 가 드레일 쳤는 고기가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전부 다 넓힌 거라 그 당시에 여 새 마을 운동이니 뭐니 해사는 인제

18. 전기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면담자 2 : 전기는 수도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겁니까?

구술자 1 : 전기가 들어올 때가 여기가 전기가 먼저 들어왔지 전기가 먼저 들어오고 그때 새 마을 사업하고 이래 할 그 당시에 사에지클럽 생기고 마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그때 인자 전기가 퍼뜩퍼뜩 이집 저집 한 번에 쭉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이집 저집 이집 저집 이래가 인자 짹 들어왔어 그때는 전봇대가 길 가에 뭐 어찌다가 드문드문 지금 여 저런 전봇대 저기 전에는 나무 나무 전봇대를 쭉 세아가 그래 여 전기가 그

때 들어왔어 없을 때라

면담자 1 : 그때 진짜 얼마 한 얼마 안된

구술자 1 : 그렇지 그때는 얼마 안됐지

면담자 1 : 저 대장간 하실 때도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구술자 1 : 그때가

면담자 1 : 석탄 쓰시고

구술자 1 : 요즘은 인자 풍로를 쓰는데 그때는 불무라꼬 여 손으로 젖는 그기 있어요 그것도 그때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다 그걸 했는데 그때 전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폴르득폴르득폴르득 이래 젖어 가면서 바람을 일으키가지고 그 쓰는 기 있어요 근데

면담자 1 : 진짜 완전 수작업

구술자 1 : 어 수작업이지 그래가 인자 석탄 가지고 그 하고 그때 당시 이 열차가 석탄차 그 거 다닐 때니까 그거를 조개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개탄 그걸 사다가 우리 여 켜지 쓰고 또 이래 열차가 지나간 철로가 쪽 가면 기차가 막 흘러뽀고 막 가는 기 있는데 그걸 주아 모은 사람이 있어 그러믄 형편 어려븐 사람이 그걸 모아가지고 자리에 이리 담아 놓으면 우리가 그걸 사가 쓰기도 하고 그때는 진짜 완저히 뭐 이런 증기차 열차 시대니까 요즘 같음 디젤차 이거도 인자는 디젤도 아이고 전부 전기지 전긴데 고라고 인자 디젤 열차 생기고 뭐 또 전기 차로 바뀌고 그때 그랬어

면담자 1 : 그 일광역에서 그러면 석탄 받아올 때는 기차에서 바로 그 일광역에 그 뭐 석탄을 따로 뭐 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구술자 1 : 그런데 그 일광역에는 그때 당시에 인자 여기서는 전부 쪼는 사람들이고 이 열차가 물을 어디에서 채았나믄 좌천역이라고 그가 좌천역에 지금 아직 없는 인자는 아마 철거했뿌지 아마 그 물 물을 파이프로 해가지고 기차에 물로 실어주는 기 그 저 저저 좌천역이라 그러믄 그 증기기관차 뒤에는 한 칸은 석탄찬거라 석탄은 달고 땡기는거 달고 땡기믄서 저 퍼였고 그 사람들이 인자 수증기를 일으키가 열차를 움직이는데 그때 인제 아들이 인자 쉽게 말하면 돈 벌라꼬 자리를 가지고 그 석탄차에 우 물리가가 막 퍼 담아가지고 훔쳐 오는거지 물 영을 당시에 그뎨 물 영고 그러믄 마 열차 그 여 저 열차 기관 저 저저 기관 그거 하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마 막 욱을 하고 해도 그 사람들도 잡으려 오지는 않아요 그 뭐 다 아니까 뭐

면담자 1 : 그때 어린 시절에

구술자 1 : 그 하고 그 사람들도 뭐 자기 봉급가지고 그거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저거 묵고 산다 싶으니까 뭐 과음만 뻑뻑 질렸지 잡으러오지는 않았어 그래이께네 막 퍼 담아가 막 내려오믄 인제 우리 같은 집 이래 그거 쓰기도 하고 또 가정집에도 또 큰 데는 난로를 석탄 난로 그때 당시에는 석유난로가 아이고 좀 있는 집엔 석탄 난로를 좀 마이 썼다 지금 그 난로 해가 굴도 밖으로 내고 그래가 그 했고 그때 당시도 전부 이쪽에 보면 뭐 십구공탄 그 전부 이쪽에 그때 연료라꼬는 십구공탄 그 쓰고 석유난로 켜는거는 뭐 몇 집 없었어 없었고 전기가 들어오기 저 그때 내가 여기 뭐 장가들 그 시절에는 우리 처갓집에도 전기가 없이 호롱불로 그때 쓰고 이랬었어 그때

면담자 1 : 안 그러면 나무 때고 군불 때고 할 때

구술자 1 : 나무 때갔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근처에 전부 뭐 산이니까 나무 해가 때고 인자 나무를 하러 갈 때는 저 달음산 밑에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때는 이 근처에 워낙 여럿이 나무를 마이 하니까 나무를 그때는 산 주인들이 많이 지켰어 머 못 들어오게 하고 이라이까 저 먼 산에 가가지고 나물 해가 오기도 하고

면담자 1 : 여기서 달음산 앞까지

구술자 1 : 달음산까지 그니까 여자들이 이고 오고 그때는 집집마다 갈대를 여 이런 것처럼
네모 저 냉장고만 할거구만 저걸 이고 와가지고 하리에 한 번씩 그 우리 할마시도
그때 처음 나무하러 마이 다녔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요즘 살기 좋아졌지

면담자 1 : 너무 마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구술자 1 : 옛날 그때 생각하면 좀 그래

4-G 신앙촌과 바다생활의 변화

신앙촌에서 6년 전쯤 학리마을 뒤쪽 산 아래를 둘러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마을 뒷산은 현재 거의 신앙촌 소유라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안도로가 막혀있어서 죽성 쪽에서 바로 오지 못하고 기장을 거쳐서 둘러서 학리로 와야 한다. 과거에는 학리 앞바다에서 해산물이 많이 채취되었는데 신앙촌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급감했다. 특히 자연산 미역은 양식 미역과 가격경쟁력도 떨어져서 거의 채취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9. 신앙촌과 철조망

면담자 2 : 그리고 저기 바로 앞 이기가 신앙촌 거기 짹아요 지금 가보니까 철조망을 짹 둘러
쌌는데 저건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구술자 1 : 시온 저기 한 육년 전인가

면담자 1 :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였네요

구술자 1 : 그때까지만 해도 이삼주 씨가 이 마을에 산 주인이었어 이 아까 들어오는 도로 그 산을 깎아 줄 때 그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시온에서 들어오면서 임마들이 그 앞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이 철망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녀의 산에다가 이 철망을 쳐주는 거라

면담자 1 : 자기 산이 아이고

구술자 1 : 아닌데 그러이 이삼주 씨가 개인적으로 저 단체하고 돈 싸우기가 고발로 해가지고 철거를 시켰다 말이야 그라몬 한 번 철거하는 거라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하고 그 라몬 한 열흘 있으면 또 쳐주는 거라 저거는 노는 시금이 인건 인건비가 안드는 놈들이니까 또 쳐뿌꼬 고발하면 또 거 하고 또 치고 이러이 이 사람이 고발 함 할라케도 이게 머 돈 안들고는 안되니까 뭐 변호사 사야지 뭐 머리가 아프고 그래이 저거가 헐값에 임마들이 먹었뵤다

면담자 1 : 그러면 지금은 조쪽 그 시온에서 저 넘기신 겁니까

구술자 1 : 넘가줘뵤지 어쩔 수 없지 진절머리 나가지고 팔았을거구만 팔았고

면담자 2 : 몇 년 전

구술자 1 : 한 몇 년 뵤을기구만 한 오륙년 이상

면담자 1 : 그러면 아예 이제 철조망이 저렇게 되 그면 철조망 없을 때는 마을 분들이 저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산나물 같으면 가지로 찾

구술자 1 : 그렇지요

면담자 1 : 수확하러 가고 막 이렇게

구술자 1 : 그렇게도 하고 그 뒤에 가면 마을 또 공동묘지가 있어 그런데 요즘은 일마들 뚝

척모하고 그 할 때만 들어가서 열어주지 아예 몬 들어 오게 인제 완저이 아예 왕국을 만들어뿌따게 절마 그랜지 았았으면 이 기장에 죽성에서 이 해안가 도로가 지금 푼피다카몬 이 마을은 굉장히 교통 요지로서 좋아졌을 거구만

면담자 1 : 죽성에서 그래 읍으로 오면 바론데 지금

구술자 1 : 그래 옛날에 지금 여 들어오다 보몬 그거 농원이라고 그 도로가 있었어

면담자 1 : 아예 그 간판은 봤습시다 오늘 오면서 그

구술자 1 : 그 도로가 그때 새마을 그 공사하고 그 할 때 그 도로를 죽성 넘어가는 옛날에는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여 학리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처럼 조그만 했는데 이 도로 확장할 때 인자 전부 새마을 도로 맨크로 그 도로를 다 닦았다고 죽성까지 닦아 났는데 뒤에는 요즘 인자 그 옛날 어른들 인자 죽었췌지만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할 때 이 시온에 자기들이 그거 와서 그 하게 되면 이 도로를 포장을 해 주겠다

면담자 1 : 아 죽성까지 가는 그 도로를

구술자 1 : 죽성까지는 도로를 포장을 해 주겠다 그래놓고 그 뭐 이거 계약 해놓은 이런 것도 세월이 가뿌니까네 았어졌뿌리고 그라이께네 임마들이 철망 인자 딱 막아가지고 마몬 들어오게 함 그래놓고 아예 저거 초소 세워놓고 몬 들어오게 했는데 도로가 막히 빠린거지

면담자 1 :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기장에서 돌아서

구술자 1 : 돌아서와야 되고 그라고 얼마 전에도 몇 년 전만에도 일마들이 우리 마을 입구에 보면 여 쇠말뚝이 두 개 이 서가 있을 거구만 이런 쇠말뚝이 그것도 인마들이 막을라고 달라들었어 그래 마을에서 그 떠드는 바람에 들어오는 입구에 새끼들 느그가 왜 초소를 세우냐 이래가지고 막 떠들고 데모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저거가 몬했지 그만큼 절마들이

면담자 1 : 지금도 그렇게 계속 할려고

구술자 1 :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 그래 하고 얼마 전에 그 저저저 군수 그 한테 저저 해안 도로 저거를 그 오는 입구에서부터 인자 왼쪽으로 쪽 타고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 그 새로 뚫었어 고 뚫은 지는 몇 년 안 돼 한 십팔 년 났나 그래 인자 마을 사람들이 글로 좀 그걸 하고 그 해서 그러이 시온 절마들 때문에 이 마을이 몬 크다꼬 봐야 되지

면담자 1 : 이쪽으로 아예 인제 요쪽하고 요 위쪽은 아예 막혀버린 상태니까

구술자 1 : 그러이까 막혀뿌니까 그러이까

면담자 1 : 길이 요고 하나갖고

구술자 1 : 마을도 지금 막을라고 달라들다 이 새끼들이 그 했으니까 못 막았는데 결국은 이 삼주 씨 땅을 자기들이 사버렸으니까 인자 도로를 넓혀 놔 놓으이 저게 어떨란지 모르지만 우리야 그 할 때는 인마들이 세력을 확 확장시킬라카머는 옛날 약수터 있는데 그 지금 캠핑장 하는 거기다가 초소 세아뿌면

면담자 1 : 아예 입구가 막혀버린

구술자 1 : 이게 뭐 완전히 막혀버린 고립된 마을 되뿌다 그래 절마들이 무서운기 왜냐며는 워낙 떼장들이 많으니 시아 뭐 선거 때 되면 어디 있는 사람들이 일로 전부 퇴근을 해가 이주를 해가 와가지고 마 떼거리 해가 와가 있으니 요즘은 투표권 많은 사람이

면담자 1 : 힘이

구술자 1 : 그 힘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뭐 군의원이고 군수고 저 사람들이 말도 몬 하는 거라 투표권을 절마들이 뭐 그런 식으로 워 몰고 와가 그 했뿌제 그래 이 기장 그 체육관

저거 지을 때도 그 근처에 마 차를 어디서 신도들이 몰고 와가 논에다가 막 짝 못 짓게 막아놓고 이래 데모해가 결국은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보고 그 뒤에 이 뒤에 산을 깎기 시작해가 이 뒤에 있던 산 도로 안 난데가 없더라고 내가 한 번 가보니까 그만큼 그 하는거라 이 옛날에는 대통령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고 요즘은 투표권 그 가주 이 새끼들이 권력 그 행사를 하는거라 그러이게 뭐 정의라 하는커는 없지 정의라카는 거는 없어

면담자 2 : 안 그래도 저번에 비올 때 한 번 왔었는데 그 다 밀어 놓으니까 흙탕물이 바다가 누렁드라고요

구술자 1 : 그러이께네 이 근체 옛날에 수산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 수산물 뭐 전부 큰 처형이 일광 야구찜 장사하기 전에는 요 근처 해삼 뭐 멍게 전복 전부 여서 걷아가 팔러 댕기고 그렇게 생활 했거든 그 처형이 그래했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자꾸 개발로 해뿌고 나이 빨이 내려오자 뭐 이래 이라이 바다에 해초들이 막 죽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20. 자연산 미역 채취의 변화

구술자 1 : 그때 우리 여 대장간 할 때만 해도 옛날에 여 미역은 요즘처럼 줄에다가 양식을 안할 때니까 바닷가에 그 가면 미역이 이래 돌에 달잡아요 그라운 이게

면담자 1 : 돌미역 말씀이십니까

구술자 1 : 돌미역 이게 파도를 치면 이 저저저 우에 굴딱지 있는데 가서 붙으면 이 굴딱지 떨어지면 미역이 다 떨어져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시게라고 하는 그런기 내가 만들어 어찌버리면은 이래 뽕이처럼 이래 만들어주면 넓적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짧대로 한 두 발썹 되는 장대를 가지고 그 돌로 딱아요 하얗게 그 풀이나 굴껍질 뭐 담치 이런 는 거를 싹다 콧버리면 거기 인자 미역이 붙는거라 그라운 이 미역이 잘 안떨어져요 그래서 이 해안 쪽에 그때는 미역 양식 대신에 좀 미역이 유명한 이유가 그래서 마 이 했다고 그래 우리 대장간 할 때도 그 일이 굉장히 많았어

면담자 1 : 그럼 그 그거를 계속 만드셨던 건가요 그거를

구술자 1 : 내가 만들어가지고 주고 하루 쓰면 이기 돌로 자꾸 은대니까 닳아가지고 뭉통해 지면 그걸 내가 또 수리해주는 거라 쪼개나게 날카롭게 그럼 그 다시 그 이튿날 하 른 또 실 실거가 작업하고 그때는 완전히 돌미역 뿐이었지 여기는 근데 인자 그때 당시에 여기 마을에서 김용대 씨라고 그 우리 가문 나이가 한 여 한참 많을 거구만 지금은 그 양반이 살아있을지 그 죽었다 소리 못 들었는데 그 양반이 저저저 지금도 저 밑에 그 가면 그 남은 터가 있긴 있는데 시메타 이래가지고 아까 그 사진 찍은 그 밑에 시멘트이래 해놔는데 거기서 저저저저 미역 기다리를 가지고 씨를 줄어 붙 여가 양식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김용대 씨가 여기서 그 양식하는 기술을 배어 오가지고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기장미역이라는 게 줄 미역이 쭉 그때 부터 나왔어

면담자 1 : 그 양식하시고는 여기 그 인제 돌미역 돌미역은 안 따는

구술자 1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돌미역은 또 돈 되는 기 따기는 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자 이 마을에는 뭐 돌미역 해녀들이 인자 자꾸 숫자들이 줄어들고 바다에 하는 사람이 적고 그래놓고 양식 미역이 워낙 사게 나오니까 뭐 돌미역은

면담자 1 : 경쟁이 안 되는

구술자 1 : 경쟁이 안 되는 거지

면담자 2 :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양식 때문에 자연산 미역이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구술자 1 : 그게 안 되는 것 보다는 가격차이가 그 인건비 이 줄미역 양식을 쫓 하게 되면 하루 몇 톤이라도 걷어들여뿌는데 한 두 사람이 나가면 배가 막 쳐가지고 걷아 들어오는데 이 돌미역은 안 그렇거든 해녀들이 들어가 일일이 작업을 해가 한 망사리 썩 들고 나오면 한 망사리 그 들고 나와 봐야 그 십 몇 키로

면담자 1 : 아예 뭐 그러면 경쟁이 안되는

구술자 1 : 경쟁이 때가 안 되지 근데 인자 대변 쪽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한테 저저 이걸 만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돌미역 이래가지고 따로 또 해가 파는 사람이 있어 그 대변 쪽에는 그레이 양식 미역 돌미역 가격은 월등히 차이 나는데 그 대신에 인자 돌미역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면담자 1 : 아 그러면 이 저 어쨌건 지금도 돌미역을 할라고 하면 그걸 이 기구 도구를 가지고 해야지

구술자 1 : 그렇지

면담자 1 : 돌미역이

구술자 1 : 근데 인자 그냥 여 지금 안 해도 이래 달려가 있는 거는 있는데 해녀들이 아예 안 해와요 그기 무게만 무겁지 돈이 안 되니까 그 머 십 키로 해봐야 여기 여 양식 미역 뭐 삼 사만 원 주면 사는데 여 뭐 조개는 저저 쉽게 말해서 전복이나 해삼 고둥 이런 거 잡으론 쉬 뭐 간단하게도 십 몇만 원 썩 잡아오는데 미역 그 이삼만 원 그 거 건질라고 안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돌미역이 그

면담자 1 : 안하게 되는

구술자 1 : 그 먹을 거는 우리 할매들도 물에 그 하니까 먹을 거는 그 조금 썩 따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팔면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이까

21. 해녀들의 삶의 변화

면담자 2 : 지금도 바다 속엔 그러면 해삼 전복 같은 거 그래도 좀 이케

구술자 1 : 그치 조금 썩은 있는데 옛날에 보든 한 십분의 일 이 귀해지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지 이 옛날에 고둥 뭐 일 키로 잡아와야 몇 천 원 이래 했는데 요새는 뭐 만 몇 천 원 이만 원 썩 한 열 배 이상 귀할수록 비싸져버리니까 그래 인자 그 하고 인자 전복도 자연산 전복을 찾는 사람들은 인자 뭐 세 배 네 배 값을 주고라도 사는데 요 가면 포차에 그 지금 작업하는

면담자 1 : 해녀촌

구술자 1 : 해녀촌 있는 그 포차에도 보면 주로 양식을 다 쓰지 쓰고

면담자 1 : 자연산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구술자 1 :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나오는 거는 인제 자기들 인자 단골손님들 자연산 나오면 연락해주라 이라면 그 사람들이 인자 사다 연락하고 인자 팔고 그런 사람들은 뭐 열 배라도 자연산 먹을라는 거지 그레이께 이 버스 껍질이 보면 전복에 양식은 새파라 무르하니 깨끗하고 아예 씻은 것처럼 매끈한데 자연산은 보면 뭐 풀이 나가 있고 굴 껍질 붙어 있고 이래 있는기 스 나오는 거 보드 그 인제 그런 거 보든 딱 표가 나지 그라고 살도 보든 양식은 무르고 인자 자연산은 저 여물고 오독오독 요 씹으면 생걸

우리 씹어 무으면 오독오독오독 하니 이빨이 나갈 정도로 여물고 거기 그런 차이가 있긴 있어요

면담자 1 : 자연산은 그렇게 시중에서 볼 일이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마트가도 그렇고

구술자 1 : 여기에 오면은 여 몇 군데만

면담자 1 : 간혹가다 그러면은

구술자 1 : 취급을 하지

면담자 1 : 사모님께서도 젊으셨을 때부터 그 물질을 계속 하셨습니까

구술자 1 : 옛날에는 요즘은 인자 여 스펀지로 된 고무 입고 하는데 그때는 이름을 소주 소주 라고 이래가지고 해녀들이 입는 그 옷이 있어 이거 제주도에서 선전할 때 와 보면 옷 까만 옷 이렇게 이거 입고 드러머 지고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도 전부 그때는 그렇게 했어 고무옷 입은 지 얼마 안됐어 저게 한 십 몇 년 됐을 끼구만 아마 근데 요즘은 인자 제주도에서 문화재 맵크로 그걸 인제 활성화시키뿌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여기도 인자 해녀들은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등록된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 이 고무옷 뭐 십만 원 같으믄 마 칠팔 만 원 씩 인자 요즈음 정부에서 인자는 조금은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건 인자 입고 하지 그래이께 옛날에는 해녀들이 여 맨 이런 티 같은 거 입고 작업할 때는 하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겨울에는 추우니까 못하자나요 그라믄 나오는거라 나와가지고 바다에 불 피워 놓고 그 인제 불 찌우고 뭐 그런 몸 녹카가 집에 오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바닷물이 또 차우니까 여름엔 물이 차우니까 또 오래 못 있

면담자 1 : 여기 동해다 보니까

구술자 1 : 이 옷이 티 같이 얇아 놓이 그라는데 요즘은 잠수복을 입으니깐 스펀지 그 옷을 만든 거 입으니까 뭐 두 시간 세 시간 쉽게 하고도 오는거라 지금도 그 하니까 근데 그 이상은 요즘 그 대신 인제 물건이 적으니까 뭐 크게 수입이 뭐 옛날처럼 뭐 일다 그면 못 벌지 요즘은 또 통계청에서도 보니까에 어 우리 할매 보니까네 뭐 얼마 잡고 얼마 잡고 뭐 통계청에 쪽 적어 올리드라꼬 그라니까

면담자 1 : 수확하는 거까지 다

구술자 1 : 수확하는 걸 뭐 얼마 잡고 얼마 잡고 인자 그 통계가 나감으로해서 여 근처에 수산물이 얼마 나오는가 하는 통계가 나오겠지 아마 그러이까네

면담자 1 : 옛날에 처음에 그럼 이기 마을에서 물질 하셨던 분들 해녀분들은 어디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원래 물질을 하셨던 분들입니까

구술자 1 :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인자 몇 사람들이 저 그걸 했고 그 뒤에 인자 여 그도 우리 집 사람들하고 다 친척들인데 지금 다 멀리 가고 안 계신데 그 사람들이 인자 작업을 해 하다가 여서 거기 댔지 [전화] 여보세요 어 오야 어 [전화끊음] 그래 그 그때는 여 성게 또 안장구라고 말뚝 성게 우리 여서는 안장구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말뚝 성게 지금도 인자 일 년에 한 번 씩 수확을 하긴 하는데 그때는 이 말뚝성게가 이 해녀들이 일년 농사나 마찬가지로였지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성게철이 되면은 그걸 잡아가 집에서 전부 알 낳아나 알맹이만 까가지고 그걸 인제 일본으로 수출하지 인자 나가고 그 회사에서 인자 우리 여 해녀들이 잡은걸 전부가 가져 가가 그 알콜 처리 해가지고 그래 수출 보냈다

면담자 1 : 아 다 일괄 그 회사에서 받아서 가져 갔

구술자 1 : 어 그 회사에서 그 수협으로 각 마을마다 경매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는 뭐 얼마를 사겠단 입찰로 보는 거지 그라믄 우리 이쪽 마을에는 키로에 뭐 오만 원이면 오만

원 십만 원이면 십만 원 이런 쪽으로 잡으면 그때는 잡으면 머 우리 할매도 그랬고 한 이삼십 키로 썩 그 저 이거는 까는 사람은 집에서 계속 까고 있고 저거는 잡아다 나르고 그라몬 그 알맹이는 또 인자 회사에서 가져가고 인자 그 수입도 해녀들이 그때는 많았지 그기 굉장히 많았지 근데 요즘은 한 사람 뭐 잡는 기는 삼 키로 잡았니 오 키로 잡았니 이라드라고 옛날에는 몇 십 키로 썩 이래 했는데 인자 머 지금 저번에는 뭐 이 키로 일 키로 이 키로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 수산물이 죽었뿌렸어 전부 인자 여 뭐 빨도 내려오고 뭐 이래되이 이 수산물들이 해초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해초가 죽아뿌리니까 인제 이 몬 사는 거라 그래 개체 수가 자꾸 줄어들어 뿌리고

면담자 1 : 진짜 눈에 띄게 그럼 줄어들었던 거

구술자 1 : 완전히 뭐 한 십년 사이에 여 이 그 됐쨌지

4-H 여담, 노년의 삶과 막걸리 주조

현재 한상기 씨는 전산가든 운영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상태이다. 노년의 삶을 살면서 막걸리 주조하는 방법을 배워서 현재 소량으로 인삼막걸리 등을 만들고 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소규모로 주조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22. 막걸리 주조를 하게 된 경위

면담자 2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 볼게 여기 이 양조장 하신다 했잖아요 막거리 이기 원래 이 마을에서도 옛날에 막 술도 막 집집마다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기 혹시 뭐 그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구술자 1 :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이 각 마을마다 인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학리마을에는 술도가 없었어요 없고 좌천에 시장통에 술도가 하나 있었고 고 칠암 저쪽에 마을이 그때는 어떻게 됐나 하몬 지금은 이 도로가 마이 생기가지고 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졌는데 그때 당시는 기장 시장에서 칠암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거도 도로가 겨우 차 두 대 그 비지끼나갈 그런 도로 밖에 없었어 그 문오송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나 하면 그때 열차를 타러 올라카면은 시내나 어디 다른 외지로 갈라카면은 그 시장을 거쳐 올라와야 돼 고 거기를 넘어서 시장을 거쳐와야 열차 좌천에서 열차를 타고 인자 흠어지고 볼 일 보고 들어갈 때도 또 그렇게 하고 교통 그기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 마을이 문오송이라꼬 이래가 그 나중에 저 가다 보면 알지마는 신평 아 동백 신평 고 다음에 칠암 문중 또 그 우에 이래가지고 또 뭐 그 해 다섯 마을이 한데 모안 마을로 뭐라카면은 문오송 이래 고 전체를 다섯 다섯 마을 합쳐가지고 문오성이라 했는데 그 문오송 마을에 막걸리 주조장이 하나 있었으 그때 내보다 세 살 많은 선배가 신평 그 이름이 신평 저거 동생이 신평인데 그때 이름이 그 저저 일본 이름이었어 그래 찌로라고 그래가지고 가 거서 양조장 이래 일 하러 땡기고 고때 함 있었고 한 오륙 년 전에 이자 치아 인제 막살 놔 뵈는데 우리 일광 저저저 들어오다보면 해수욕장 맞은편에 보면 그 절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절 고 앞에 창고 그기 옛날에 여 우리 일광에서 그 주조장이었으 막걸리 주조장 우리가 거서 막걸리를 사다먹고 이래했는데 내가 그때 해외 갔다 오고 가게 하고 그

하면서 인자 아들 그것도 하고 그라이께네 내가 인자 남는 시간에 그때는 여 몇 년 되지는 않았어 칠팔 년 칠팔 년 전에 내가 그 막걸리 한 게 아니고 이 식초 이 군청에서 한 번 교육하는 기 있어가지고 이 놀기 삼아 가서 배우기 시작한 게 이 식초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 이 식초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식초를 만들라든 인자 순수 막걸리가 필요하니까 그 이자 그때부터 한 육칠년 전부터 막걸리를 담아가 식초 만들고 식초 만들어 식초 만들고 이래가 머 머 이래서 판매는 뭐 할 때도 없고 그 없이나나 목기도 하고 그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께 인자 내가 허가를 내 가지고

면담자 1 : 본격적으로

구술자 1 : 그래 인자 내가 노니 이 전통주를 인제까지 했으니까 해보자 그래가 인자 담기 시작한거라 담기 시작 한데 처음에는 좀 나갈 줄 알고 크기 여 통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나가는 양이 안죽까지 그기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허가를 낼 때 저저저 식약처 식약처에서 나와가 보고 내가 인자 나이가 많으니까 정해진 등록 하지 마세요 등록 하지 말고 세무서 하고 얘기해가 여기만 하세요 와요 이라이까 연세드신 분이 하여튼 장부를 뭐 하고 나오는 거는 함 하고 한 달에 한 번 씩 이 술이 만들어져 나올 때마다 식약처에 올려야 된대요 이 그래 모든 무슨 그기 다 그렇다하면 저거를 거쳐서 또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기 저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합격 맞으면 내가 쉽게 말하면 벌금이 나와 그런기 나오니까네 가급적 판매 하지 말고 마 여 가게에서만 판매를 하고 다른 다른데 팔지 말고 그래서 하세요 그래가 그라든 그라께 내가 뭐 돈 욕심을 부려가 그거 하는 거 아이고 뭐 심심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게 그래가 지금 담아 놓은 게 지금 그래 이 허가를 낸 게 이 막걸리 그 다음에 막걸리 하나만 하니까에 너무 단출한 거 해서 삼을 넣어가지고 그래 인삼 막걸리 그래 두 개를 인자 막걸리에는 팔프로 알콜 보통 이 시중에 나오는 막걸리는 육 프로 오 프로 육 프로 이런데 나는 도수를 좀 올려서 팔 프로 하고 인자 인삼 막걸리는 구 프로 하겠다 그래 이 세무서 등록을 해가 그래 지금 이래 만들고 발효시키고 있는 중이라

23. 막걸리 주조와 미래

면담자 2 : 처음 와서 봤을 때 이 공간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카페처럼 생겼는데 막걸리도 하고 하니까

구술자 1 : 그래 처음에 이기 어떻게 됐나 하면 여 우리 아들보고 내 막걸리하고 그 하계 창고를 조그만 거 하나를 지어라 그래 인자 저 설계 사무실에 가니까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일단 설계 사무실은 들러야 하니까 그 저저 군청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 내 설계 사무를 하니까네 한 오륙백 하면 요 짓겠다 하는거라 그래 땀 그라이께네 내 해라 그래 이 작은놈 보고 인제 내가 옛날에 뭐 사우디 땡길 때도 이런 판넬을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할라꼬 하다가 나이도 있고 이래가 마 너거가 와가 지어라 마 이랬더니 아 요놈이 저거 형수하고 속닥속닥하이 이래가 그때 여 커피집이 없었 커피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여 커피로 해라 아버지가 이래 창고 지아줄라 하는데 형수 니가 투자를 좀 해가지고 여 커피점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집에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갈 거 아이가 이 저저 형수보고 꼬아가지고 그래 이래 한 거 이기 뭐 일억 몇 천만 원 들었다 하고 그래 이거를 지아가 그 처음에는 내가 막걸리 집을 문 했지 문 하고 이래 지아 나 놓으니 그럼 세를 줘라 너거가 밀천은 빼야 될 거 아이가 어차피 커피점 할라했으니까 세를 줘라 그래가 인자 여서 커피점을

인자 세를 줘가지고 했는데 요즘 저 이 여 보다는 여기도 저 앞에도 큰 기 하나 생겼지만 바닷가로 쪽 마이 생겼뿌니까 밥 먹고 요즘 전부 다 글로 가버리고 올로는 안 들어온단 말이야 여 주차를 와도 여 커피 마시러 안 들어오는거라 그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커피점이 생기기 전에는 뭐 그래도 일당이라도 나오니까 했는데 나중에 커피점이 마이 생기니까 여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 인제 문을 닫고 철거를 했뿌거라 그래가 인자 너거가 철거하고 없으니까 내가 쓰께 그래가 인자 여기다 인자 허가를 내가 인자 그래가 작년부터 안 그랬으면 한 사오 년 전부터 내가 했지 그래 우리집 작은놈이 말썽을 그래 부러가지고


면담자 1 : 밖에서 보면 카페처럼 보여서 나중에 이게 정착이 되시면은 여기 인제 술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카페로

구술자 1 : 인자 그렇게 할라고 이 저 지금 우리 여 손녀딸이 할아버지 내가 배우께요 지가 그 저 카페 저런데 알바를 쪽 하러 댕겼는데 어데 여 전통주 그 어데 그 하는데 지가 알바를 함 갔는 모양이라 그래 놓이 그 보니 이 막걸리도 인제 요즘은 소믈리에가 생기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칵테일 해가 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걸 지가 보니까네 아 지도 생각있겠다 싶은 그기 들었겠지 그래 할아버지 제 막걸리 배우께요 그래 니 언제 시간 나거든 해라 나도 혼자 하니 너거가 하면 아무래도 낫지

면담자 1 :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막걸리

구술자 1 : 그래서 이래 쪽 내려 오는 거를 일지를 적어 났어 왜냐하면 저거가 보고 쉽게 하라고 옛날에는 안 적었는데 요즘은 저 이렇게 적어가 적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시간 온도 체크 하는 거하고 뭐 밥은 몇 시간 찌고 그해라 이런 식으로 인자 이래 쪽 여기 요고는 무슨 누룩 쓰고 요거는 무슨 누룩 쓰고 무슨 누룩 쓰고 인자 누룩 마다 이게 맛과 향이 달라지죠 막걸리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거는 산성 누룩도 쓰고 이거 백년 된 데서 나오는 누룩이 있는데 전통주 누룩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비싸 근데 술맛은 좀 특이하게 잘 나오게 여

5. 신한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9년 학리 출생 - 1970년대 학리마을 어촌계장 - 미역 양식장, 어업활동 등 - 현재 학리마을 노인회장
---	---

목 차

개 요

상세목록

5-A 마을 현안과 자기소개

1. 1960년대 학리마을 미역 양식 및 본인 사업
2. 학리마을 최근 해안 생태계 오염과 현안
3. 자기 소개 및 가족 구성원 소개

5-B. 학리마을 소개

4. 학리마을 과거 초, 중등학교 취학
5. 학리마을 노인 구성 및 노인정 운영

5-C. 신양촌 이주와 학리마을

6. 1970년대 신양촌 이주와 마을 변화
7. 신양촌 마을 공동어장 구입 및 마을 진입도로 보상 등
8. 미군포탄처리장과 마을 주변 토지 신양촌 매수
9. 신양촌 철조망과 마을 고립

5-D. 젊은 시절 어업활동과 어촌계장 임무 수행

10. 젊은 시절 어업활동과 양식 사업 실패
11. 학리항 바다 매립과 방파제 건설
12. 1970년대 어촌계장 임무와 도 수산과 수산물 단속 일화

5-E. 학리마을의 어업과 별신굿

13. 학리마을 어업 변화
14. 학리마을 별신굿

5-F. 연좌제 고통과 개인적인 삶

15. 처갓집 큰 처남, 작은 처남 월북, 납북으로 인한 연좌제 고통

16. 개인 건강 관리

5-G. 학리마을의 시설, 문화, 의료 등

- 17. 학리마을 과거 풍경- 주거 형태, 전화, TV
- 18. 군생활과 미군불발탄 처리장
- 19. 개인 건강 문제와 학리마을 의료 체계
- 20. 학리 옛날 전설, 민담과 방파제 공사 연관성

□ 개 요

- 구 술 자 : 신한호
- 면 담 자1: 김민화
- 면 담 자2: 권진오
- 면담주제 : 학리마을 어업활동과 신양촌 이주로 인한 변화
- 면담일자 : 2021년 9월 3일 (금) 13시
- 면담장소 : 학리마을 노인회관
- 면담차수 : 1차

신한호는 1939년 학리 출생으로 1970년대 초 학리마을 어촌 계장을 맡아서 학리항 부두 매립과 방파제 건설에 관여하였다. 또 신양촌 이주로 인해서 마을 진입로 문제, 기장으로 이어지는 신양촌 도로 폐쇄 등 신양촌과의 여러 송사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현재는 학리마을 노인회장으로 마을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구술을 통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학리마을의 변화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상세목록

<1차> 2021년 9월 3일

5-A 마을 현안과 자기소개

신한호는 1939년 학리마을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학리마을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토박이로서 학리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구술하였다. 특히 1970년대 학리마을의 변화와 신양촌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구술했다.

1. 1960년대 학리마을 미역 양식 및 본인 사업

구술자 1 : 이장님이 바닷가 놀러갔드만 그래 지가 대충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빠진 게 있는가 모르겠다고…….

면담자 1 : 네.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전화가 안 오면 안 오는 가했드만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가 와서.

면담자 1 : 네. 죄송합니다.

구술자 1 : 학리동네 할기 뭐 있어? 지금 현재 시온에 다 뺏기불고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는데…….

면담자 1 : 그 어촌계장님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산 가든 사장님하고 또 누구…어느 분 했었지? 이장님은 인터뷰는 안하고 말씀만 전해 들었고, 굿하셨던 김영희 할머니, 김용대 할아버지, 옛날에 양식하셨던 그 미역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는 마을 회장님, 부녀회장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장님께서 연세 있으시고 하니까 위험할 것 같다고 해서 미루다가 뒤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구술자 1 : 예방접종도 다 했으니까네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이고

면담자 2 : 촬영을 원하지 않으시면 얼굴 안 나와도 되고,

구술자 1 : 얼굴 나와도 괜찮아. 마스크 끼고 있는데

면담자 2 :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벗고 하셔도 되고.

구술자 1 : 괜찮아, 멀리서 왔는데 그럴 수가 있나.

면담자 1 : 혹시나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제일. 저희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술자 1 : 김용대 그 사람 뭐라 카드나?

면담자 1 :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군청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용대라는 이름이 나와 가지고 그때 이장님께 여쭙보니까 양식하던 분이라고 해서 양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찾아본 지가 한 달 좀 된 거 같습니다. 60년대 중반 요때 본인께서 양식을 종묘를 받아가지고 양식을 시작해가지고, 마을하고 옆에 동해안 쪽으로 퍼져나갔다고 양식이. 고런 얘기들 위주로 해서 그리고 사업하셨던 얘기 그런 거

구술자 1 : 그때 처음에 육십칠 년돈가 요래 가지고 진흥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로프가 안 나오고 새끼줄로 이래 새끼 굵은 줄 팍 놓은 거 안 있어? 새끼줄로 그것 돌 밑에 서방파제 앞에 시험 이래 해가지고 크게 달고 그랑진 앉았는데, 그기 성장이 가능하고 사업 전망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지는 그래가지고 육십팔 년도에 조그마한 배양장을 하다가 나는 칠십 년대에 지금 현재 일미아구점 집에 거기 땅을 갔다가 육십 평 넘게 양산군에서 불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배양장하고. 그때는 여럿이 많이 했어. 그때는 붐이 확 일어났을 때고. 하기는 부지런히 했는데 돈복이 없으니까네 안 돼데, 실패했어. 그래가 결국 쫓딱 망했어. 하면 실패를 하고, 그래 젊으니까 욕심을 내 가지고 자꾸 더 하고 더하고…….

면담자 1 : 크게 할려고 하니까…….

구술자 1 : 크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정치망 어장에 이 상호 영감쟁이, 정치망 어장 사업하는데, 거기다 양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7만인가 얼마를 감았어, 선원, 뱃사람 들하고 했는데 그때서 와 미역을 채취할 때쯤 되니 중동전쟁, 무슨 전쟁이야? 그기?

면담자 1 : 아, 베트남전쟁?

구술자 1 : 베트남 말고, 그 중동에.

면담자 1 : 걸프전, 1차 걸프전.

구술자 1 : 거기 일어나가지고 유류파동이 일어나니까. 기름값이 올라 붓고 이라니께 한 차 캐 가지고 부산에 가니까네 차비나고 적자고 이래서 그래 뭐시 안돼재, 하는 일마다, 그 래가지고 지금 현재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요모양 요꼴로 흘러가고 있는데 …….

2. 학리마을 최근 해안 생태계 오염과 현안

면담자 1 : 학리에 계속 쪽 계셔서 학리에 대해 제일 잘 아신다고 해서 이장님께서, 이번에 방문하게 된 목적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청 밑에 부산시사편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부산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거기서 이번에 학 리마을하고 북구 화명동에 가면 대천리라고 있습니다. 대천마을이라고. 고기 두 마 율이 오래된 마을이고 옛날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 지금 마을들이 옛날 집들 이 다 없어지고 새로 건물들 짓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구술자 1 : 지금도 많이 변했어. 학리도. 펜션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거기 보자. 십팔 년도, 십칠 년도? 십팔 년도? 펜션 들어서고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이라니께네. 그 우째 서 군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어. 펜션이 오페수를 갔다가 이래 빨아올려서 다 른 데로 보낸다해쥬지만 지난 번에 같이 정화 한 거를 만든다고 해쥬지만 그래도 바다로 내려 온다고. 물이 안 내려 올 수가 없는기라. 지금 현재 우리 그 학리에 전에는 한 사 년 전만 해도 저녁으로 밥 먹고 나가가지고 낚시질 하든 장어 이런 게 말이야 한 아홉 마리씩 낚고 열 시나 열한 시쯤 되면 돌아오고 그랬는데, 나[나 이]가 많으니까 오래는 못하고, 그래 했는데 인제는 그거 없어.

면담자 1 : 아, 안에도 물고기가 아예 잘 안 나고.

구술자 1 : 맥아리 같은 거 콩치 같은 거 한 번씩 왔다 가고, 고등어 새끼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작년인가 재작년이다. 나가 문어 낚고 이랬는데, 지금 은 도다리도 낚고 이래 낚시질 해가지고

면담자 1 : 오[목소리가 커짐], 씨알이 제법, 요 바로 앞에서 낚았습니까?

구술자 1 : 응, 서방파제 앞에서 낚고 그랬는데. 문어 낚은 건 어디 가뽏노? 안 나오네. 바꿀 때가 됐다.

면담자 1 : 씨알이 제법 굵은대요?

구술자 1 : 문어를 갔다가 재작년에는 그래도 일 키로 반짜리 서너 마리 잡고, 일 키로짜리하 고 이렇게 낚아가지고 묵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가보니 ‘니 온나?’ 인사도 안 하 대.[웃음]

면담자 1 : 물이 그 정도로 많이 안 좋아지긴 안 좋아졌나 보네요.

구술자 1 :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고 세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이래 되니까네 독소가 바닷물 에 흐르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장자 같은 데 그런 데서 겨르치 같은 거, 노래미 같 은 거 다른 어종이 들어와 산란을 하고 이랴게 했는데, 지금은 그 부화가 안 돼는 기라, 산란이 안 돼. 그러니까네 자꾸 어종이 멸종. 큰일이지. 어촌이 앞으로 살기 가 큰일이라. 학리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반농반어라서 농촌이 좀 많고 어업 하는 사람이 좀 적고 이랬는데 그때는 참 다 잘 살았어. 논이 저쪽에 기장 저쪽으 로 말이지, 일광 신도시 위치한 데 거기로, 농지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농사짓고 이랬는데, 그때는 농꾼도 많고 이라니까 지금도 요 풍물이 요 창고, 그 고방 안에 있고 창고 안에 있어. 해마다 보름 때 되면 지신포이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랴 게 하고 참 담합도 잘 되고 멋진 마을 이었는데, 천구백칠십삼 년도에 신앙촌이 여

기 딱 들어오고부터는 마 지금은 참말, 완전히[목소리가 커짐] 산에도 못 올라가고…….

면담자 1 : 저희도 봤습니다. 철조망 쳐 놓은 거 봤습니다.

구술자 1 :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침도 캐 묵고, 참 망게라든지 버섯도 이래 하고 말야, 나무도 해다 날라가가 때고 그때는 나무를 주로 연탄 같은 기 없고, 보일러가 없다야 이가 가스가 없으니까. 그래 해가지고 살고 이랬는데 참, 신앙촌 말만 하든 참말,

면담자 1 :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쭙보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술자 1 : 부락 경위가 그렇다 말이다.

3. 자기 소개 및 가족 구성원 소개

면접자 1 : 부산 근현대 구술 자료 수집 사업 학리마을 다섯 번째 구술자인 신한호 선생님을 모시고 첫 번째 구술녹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구월 십 일 금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오후 한 시입니다. 장소는 학리마을 노인회관입니다. 자 그러면 신 한호 선생님을 모시고 학리마을 구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한호 선생님은 학리마을 지금 노인회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리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학리마을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쪽 거주하셨다고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리마을이 지금 모습하고 많이 변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어린 시절에, 예를 들면 학교 다니기 전이나 학교 다니시면서 이 학리마을의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하고는 어떻게 달랐는지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1 :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지. 그때는 삼성까지 나오는데 비포장도로라. 일광국민학교까지 사 키로가 되는데, 우리가 걸어 다니고 그랬어. 여 초등학교 땡기는 아들이 뽀뽀고 걸어서 땡기니께네, 운동회하면은 거의 일 등이라. 일 등이라 수영도 다 잘하고. 바닷가에 이래 방파제도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어놔놓니까네 어릴 때는 놀기도 좋고. 그때는 뭐 어종도 풍부하고 농사 지어가지고도 그랬는데, 크기 부자는 없어도, 마 만석꾼 천석꾼은 없어도 보편적으로 먹고사는 데는 크게, 뭐 보릿고개 이런 거 많이 안 느끼고 살았어.

면담자 1 : 선생님, 가족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셨습니까? 어릴 때.

구술자 1 :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집사람이 죽고, 아들[아이들] 지금 현재, 아들 둘이 딸 한나데, 딸은 연락 전부 다 두절되고, 마 나 혼자 편안하게 여 있어.

면담자 1 :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형제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여기 사실 때,

구술자 1 :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우리 집이 요 옆에 요기 있었는데

면담자 1 : 중간쯤에 있습니까? 바닷가 쪽에?

구술자 1 : 나가면 바로 앞쪽에 거기 살았어, 지금 현재 집이 뜯어 붓고 새로 짓고 이랬는데. 농기는 많이 나아도 나하고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서 이만 살았어. 옛날에는 농사도 짓고 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 학리 동네에서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부자라고 할 정도로

면담자 1 : 아버지께서 배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구술자 1 : 예. 안 에렵게[어렵게] 살았어.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독한기가 없고 편하게 살았는데 물질 모르고 살다보니까네 결국은 지금 현재 험한 세상에 이렇게 말단 인

간이 되가고…….

면담자 1 : 아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어려서 아버지 배도 타고 나가시고 하셨습니까?

구술자 1 : 배를 그 부친이 받아랑 배도 하고 이랬는데, 가에 등글발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거들라고 하고 그렇게 했어.

면담자 1 : 아, 그때는 고기가 많았습니까?

구술자 1 : 많았지.

면담자 1 : 뭐 어떻게 보통, 예전에는 장어 이런 거 많이 낚았습니까?

구술자 1 : 장어 많이 잡았지. 장어를 그때는 범선, 풍선, 그 돛단배 그거 가지고 노 저어서 가는데, 사람이 너이썸 서이썸 이래 가가지고 하는데, 낚시 바뀐을 많이 안 가져가. 한 다섯 바뀐, 바뀐 수로.

면담자 1 : 아 다라이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낚아도 고기 많이 잡아오고 그랬는데, 지금 가문 한번 어업 나가면, 이백 바뀐, 삼백 바뀐 썸 이래 가져가서 부리고. 옛날에는 노를 저어가꼬 낚시를 놓으믄 손을 가지고 일일이 낚 던지고 손으로 땡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낚시 놓을 때, 배 뒤에 그 거서 골에서 낚시 탁 낚가지고 여서주믄, 둘만 있어주믄 착착착착 그대로 풀로 달리는, 놓는기라. 기계로 땡기고 말야, 지금은 전부 편하게 기계화 되 가지고 참참 좋아. 옛날에 우리가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믄 그때는 참 너무 무지하게, 그때는 뭐 또 기계화도 안 되고 근근이 참 마 이래 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했지.

면담자 1 : 고기 낚으신 거는 낚아가지고 집에서, 어디 파시기도 파셨습니까?

구술자 1 : 주로 기장 시장에 가져가서 팔고, 요새는 이래 뭐 받아가지고 도매인 있고 이랬는데, 그때는 전부 다 개인 소매라.

면담자 1 : 그럼 기장시장까지 이고 가셔가지고?

구술자 1 : 이고 지고 기장 고개로 넘어가가지고 팔고 오고.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차가 없었다.

면담자 1 : 그때는 여기 차가 아예 안 들어왔습니까? 학리에는?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구술자 1 : 어릴 때는 차가 잘 안 들어오지. 차가 있을 때는 내 어릴 때 중학교 땡길 때 군인들 저그 차? 위생 사업하는 차, 커다란 거 그거 뭐야, 짚차 말고 큰 거?

면담자 1 : 육공트럭 같은 거? 트럭 커다란 거

구술자 1 : 위생 사업한다고 사람들 실어 나르고 이러믄 그 집에 올라고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치마[처마] 밑에 숨고[웃음], 학교는 동래에서 나왔거든. 동래 중학교.

면담자 1 : 아, 동래중학교 다니셨어요. 중학교 가실 때는 여기서 어떻게?

구술자 1 : 걸어서 역에까지 갔지. 열차로 동해남부선 열차 타고.

면담자 1 : 동해남부선 타시고 동래역에 내리셔서 통학하셨습니까? 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동래 중학교셨으면 공부 잘하신 거 아닙니까?

구술자 1 : 뭐 잘 하기는.

면담자 1 : 그때 동래중학교 동래 고등학교는 제가 듣기로 최고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1 : 그 좀 부지런히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될건데, 꿈도 없고, 그냥 마 학교 갔다오믄 뛰놀고 이런 데만 눈 뿜지. 사회에 바깥에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믄. 그런 거를 눈여겨 보지도 안 하고 그대로 마, 학교는 가도 뭐 꿀담배기지 뭐 하하.

5-B. 학리마을 소개

신한호는 일광초등학교 졸업 후 동래중학교에 입학해서 동해남부선을 이용해서 일광역에서 동래역으로 등하교를 했다. 당시 학리 학생들은 대부분 일광초등학교를 나왔다. 현재 같이 있던 동료,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학리마을 경로 회원은 46명 정도가 등록된 상태이다.

4. 학리마을 과거 초, 중등학교 취학

면담자 1 : 그래도 그 당시 동래중학교 나오면 그 당시 동래중학교 나오셨으면 진짜로 수재셨을 것 같은데. 아, 하나 여쭙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일광 초등학교 나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광초등학교 다닌 학생들이 여기 학리하고 일광 학생들도 일광 초등학교 갔을 거고 또

구술자 1 : 옛날에는 칠암분교가 없을 때는 칠암 문호섬 그쪽 아도 오고 이랬는데, 거기 인자 칠암분교 생기고 나서부터는 갈라져가지고 문호섬 저쪽 아들은 칠암 분교 가고, 이 쪽에는 그러니까네 저기 원당, 원당도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원당, 청강, 용천, 용천 풀짜기, 하정, 이천, 삼성, 거동, 학리 이런 마을이 요런 초등학교 땡겼는데, 제일 숫자가 많기는 이천이 많고 그다음 학리가 많고 이랬지.

면담자 1 : 이천이 그때 사람이 좀 많이 살았네요?

구술자 1 : 이천은 동서로 갈라져가 있잖아, 많으니까.

면담자 1 : 거기 혹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저 삼덕마을 사람들도 그쪽 일광초등학교에 일부 다니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구술자 1 : 다 다녔어.

면담자 1 : 아, 다 다녔습니까. 선생님 계실 때 삼덕마을에 있는 친구들도 다 있었습니까?

구술자 1 : 동생들도 많고, 근데 인제 뭐시 바빠 가지고 글런고 다 가뿔고 없어.

면담자 1 : 참 오래 계셨으면 좋은데…….

5. 학리마을 노인 구성 및 노인정 운영

구술자 1 : 이래 있으면 며칠, 우리 동네도 내 나이 지금 현재 나가 팔십 서이라 카면 다 안 먹어 주더라 다. 그래가지고 한 애 살아있고 내 우에 경로 회원이 김학일, 박용수, 박영곤, 김영갑이는 나보다 한 살 많고, 여기는 두 살 많고. 고래 살아있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지금 인자 박제학이라고 해군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구십 한 살 고령인데 살아있어. 고다음에 인자 팔십 서이는 나하고 최종걸하고 둘이 있고, 그 밑에는 마이 없어. 그 밑에도 다 가뿔고 없고. 둘인가 있는데…….

면담자 1 : 남자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신다고.

구술자 1 : 근데 43년생부터는 좀 많이 있어. 요 경로 회원이 지금 46명이거든. 46명인데, 코로나 바람에 신규 접수를 안 하고 이래 있는데, 코로나 해제되면은 내가 방송을 해 가지고, 만 65세 이상 된 사람 무조건 가입 신청하러 오라고 그래 할 계획이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경로당에 협조를 안 하더라도. 등록만 해 놓고 그래도 경로당 관심도 좀 가져지고 그럴 텐데. 안 하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람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보면 전일부터 그라거든. ‘경로당 그 뭐 볼 거 있다고’ 요 오면 얼마나

좋아 참. 운동기구도 있제, 또 원탁에 앉아가지고 화토도 치고 커피 맘대로 마시고 술도 맘대로 마시고, 또 한 번씩 절약한 돈 가지고 말이야, 빼가지고 백 원 빼기 치거든. 치른 들어가면 백 원 빼고, 점 나면 많이 나면 쓰리고 넣거든. 빼고 이래가지고 그래 좀 모아 가지고 나가 전부다 체크해 가지고 한 번씩 회식하러 나가고 그라운 한 번씩 맛있는 거 뭐 짜장면도 사먹고 오리도 사와가지고 여기서 끓여가지고 먹고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이 참 그랬는데. 코로나 바람에 못 오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라 한다. 죽을라케.

면담자 1 : 계속 집에만 계셔야 되니까, 오셔가지고 어울리시면 좋는데…….

구술자 1 : 나도 인제 두 시에 하자는 걸 한 시로 땡기자는 이유는 하고 나쁜 낚시 갈까 싶어서.

면담자 1 : 아~,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이런 날도 낚시 괜찮습니까?

구술자 1 : 응, 바깥에 해가지고 담가 놓고 세월 낚고 그런 거지. 시간 보내고.

5-C. 신양촌 이주와 학리마을

신양촌이 1970년대 이주하면서 마을 주민들 소유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당시 시온(신양촌)은 공장 건설 등을 위해서 마을공동 어장을 매입하기도 했다. 삼성에서 학리마을까지 포장도로 건설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는 마을 외곽으로 신양촌 소유의 땅 경계에 철조망이 설치되었다. 신한호는 신양촌과의 여러 문제들로 소송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6. 1970년대 신양촌 이주와 마을 변화

면담자 1 : 그러면은 그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니실 때, 마을에 산에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바다도 물론 가셨겠지만 산에 요 뒤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신양촌 들어오기 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신양촌 들어오기 전이신 것 같은데…….

구술자 1 : 신양촌 들어온 데가 73년도. 73년도부터 내가 어촌계장했거든. 어촌계장을 한 십년 너머 이래.

면담자 1 : 그때는 산 요 뒤에가 어땠습니까? 지금은 철조망 쳐있고 뒤에 다 저 안에는 깎아 놓고…….

구술자 1 : 뒤에 참 좋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아침 시간 있으면, 일요일 아침에 학교 안 갈 때는 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웅변 연습한다고 고함도 지르고 그랬어.

면담자 1 : 그때는 산에 주인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구술자 1 : 산주는 있어도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관리를 안 하는 기라. 만약에 나무를 베어 간다거나 이라르는 자기 땅 주인에게 손해를 주는 일은 보든 그거는 안 되고, 아들이 마 놀러땡기고 이라는 거는 말도 안 했어.

면담자 1 : 뒤에 다 마을 분들이 주인들이고?

구술자 1 : 다 마을사람들이. 그 신양촌 말만 하든 내가 어촌계장 할 때, 그때 신양촌하고 일동 공동어장을 갖다가 자기들 합의를, 서류를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재철 공장 짓고 마 이런다고. 그걸 한 일 년 간 시비를 했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때는 어촌계가 부락에 속해 있고, 지금은 어촌계와 별도로 되가 있

는데, 부락에 속해 있고. 내가 무슨 교육을 간다던가 무슨 뭐 어데 다른 접대비라던지 이런 거 시키고 할 때는 부락회장인데 청구서 여 가지고 받고 이랬는데. 결국은 합의를 보는데, 난 현찰로 내놔라. 만약 일 억을 내놔라. 그때는 일 억도 크다꼬. 칠십 몇 년도에

면담자 1 : 공장 짓는 대신에 인제 보상을 해라 그래 됐네요.

7. 신앙촌 마을 공동어장 구입 및 마을 진입도로 보상 등

구술자 1 : 일동 공동어장을 가져가는 대신에

면담자 1 : 아, 저 바다도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까? 바다를 자기들이 필요로 할 이유가, 거기 도 자기들도 양식을 하려고 그랬나?

구술자 1 : 저그는 그거를 연해는 맘대로 그게 계획을 세우고 항을 만들고 말이야, 재철 공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그도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그래 가지고 삼성서 학리 오는데 여기 비포장도로라서. 비만 오면 흙밭이 젖고 이래가지고. 그 새끼들 참 유명한 놈들이라. 부락에 돈은 우리가 없고 인력과 장비가 있으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뭐냐? 회관 새로 지어주고 바다 앞에 조금 매립 손대 주고. 그래가지고 제일 큰 기 삼성서 학리마을 입구까지 확장 그거라. 아스팔트 포장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팔 메타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마 총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뭐 혼자서 안 된다카니 되지도 안하고 그래 뭐 총회에서 ‘좋다 마 뭐’, 그때는 일종 공동어장 거기에 작업이나 하고 우뭇가사리 뜯고, 물애끼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거기 소중한 줄 별 모르고, 응? 우선 뭐 그하니까 합의 보자고 해가지고 합의 도장을 찍었는데, 결국은 그걸 이행 안 하문, 저그 여 회관 짓고 여 조금 한 것도 저그가 안 지었어. 우리가 다 군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점유권 확정 소송 해가지고 십칠 년도인가? 내가 개발위원장할 때 소송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부지청가가지고. 저그는 딱 틀이 짜져가 있고 우리 여는 촌에 뭐 똑똑한 사람이 있나. 뭐가 있노? 지금 같으면은 참 아닌 게 아니라, 어디 하소연도 하고 이라지만, 그 뭐 계란 가지고 바윗돌에 부딪히는 거 한 가지라.

결국은 항소를 해가지고 변호사 선정해서 대법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래 해라’하든지, 판정이 안 나면 그 마 ‘그대로 이행해라’ 이렇게 해보는 모양이라. 골치가 아프니까네. 지금 인자 수산벽보에 보면 일종 공동어장은 개인이 가질 수가 없도록 되가 있다고. 그기.

면담자 1 : 당연히 그래 해야 될건데. 바다를 누가 개인한테…….

구술자 1 : 그 말만 하문 진짜 다 죽고. 지금은 인자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은 다 죽고 없어. 젊은 아들 보기에 미안해 죽겠어. 참 그때 나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내가 연좌제 걸려가 있었기 때문에, 처가 집 바람에 그 간첩 미신고자 이래가지고 요시찰 인물로 돼가 있어. 말 못하고 한참 이래 합의를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뭐 전산가든 앞에 좀 나오라 카더라고. 차 타고 턱 가니까 경상남도 경찰국장인데, 경찰국장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때는 뭐 국장이라니 국장인지 알지, 지금 같으면 ‘신분증 내봐’ 이라지만, 또 내가 죄인이고 이러니까, ‘우짜든지 당신 말이지 짜다로 신분도 안 좋고 하니까 잘 적당히 해가지고 해 줘라 말이야 마’ 이라고 마 가뽀는 기라. 나 참 말 못한다.[헛웃음] 나 참 어렵게 살았어.

면담자 1 : 그때는 저 포장도 안 해준 거였습니까?

구술자 1 : 안 했어. 그래가지고 군에서 했어. 기장군에서 했는데…….

면담자 1 : 그럼 약속한 걸 지킨 게 하나도 없네요?

구술자 1 : 없어. 그런데 점유권 확정 소송하는데, 합의서 해 난 거 저그한테 불리한 거는 검은 걸로 딱딱 끄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출해 났어. 근데 우리 여기에도 사본을 놔 났는데 그 뭐 어느 이장이 그랬는가 팔아먹었בות는가 서류가 없어. 서류를 보관해 났으면 그거를 가지고 싸움을 걸고 할 텐데…….

8. 미군포탄처리장과 마을 주변 토지 신양촌 매수

면담자 1 : 저기는 미리 계획을 해 놔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를 가지고 있어서.

구술자 1 : 금마들은 시온이 저기 포대산이 이기 옛날에 왜정시대에 포 부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기라. 들어와 있다가 거기에 포진지가 있는데, 그래가 해방되고 난 뒤에 일본사람들 가붓고 난 뒤에 이걸 국방부 소속으로 잡아 논기라. 국방부가 인수해 붓는 기라. 땅을 인수했는데 국방부 잡아노니까 미팔군 폐탄처리장이 포탄 못 쓰는 거 그런 거 할 데가 별 없거든. 여기는 바닷가고 참 좋단 말이야, 사람들 마을도 좀 똑똑 떨어져가 있고. 여기 폐탄처리, 폭탄 찌끄레기 가져와가지고 막 터주고 이랬는데 이놈시끼들 미국놈들이 빵커[병커] 이거를 전부다 빵아뽀기라 그래 흔적이 별로 없어, 나쁜 것도 없어. 그래 매, 흙더미만 돼가 있었지 산이. 산이 인자 후보지가 돼가 있어 놔노니까네 박태선이 저쪽에 부촌에 거기 있다가 부촌 거기서 말이야 ‘다른 데로 옮기라’카고 이러니께네 부촌 그런 데는 아무래도 시내 사람들이 되놔 놓으니까 까끄랍다 아이가? 그래서 ‘어디 좋은데 없나?’ 카고 그러다가 국방부 소속 후보지가 있거든. 그런데 여기다 해방되고 뭘 해 났냐 카문 부락민이 개간을 많이 했어. 개간을 전부다 딱 해가지고 봄 되면 보리 때 되면 보리 수확해 가지고 가마니, 가마니 짚어지고 내려오고, 가을되면 고구마 해가지고 집에 참 애끼도록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2의 제주도라 했어. 우리가. 그만큼 좋았는데. 그 때 칠십삼 년도에 학리의 장 씨하고 기장의 송 씨하고 둘이가 달라들어, 붙여가지고 신양촌서 매수를 했는 기라. 좀 이래 ‘그거 해라’, ‘개간 한 사람들에게 평당 이백 원씩 주고, 돈을 쳐가지고 눈대중 쳐가지고 얼마 씩 주고, 그 도장 받아 오너라’ 이래 된거야. 만약에 그래 안 하문 하나도 못 받거든. 뺏긴다. 요런 전제 조건, 그 때는 이백 원도 크고 그니께네, 그 녀[남]의 땅에 개간 해가지고 잘 지어묵고 돈 준다 하니께네 할 수 없이 전부다 백지에다 도장을 다 찍은 기라. 다 찍고 인수하고 그랬는데, 그 백지 도장을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육본에 가 가지고 조작을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때 육 여사가 있을 때라. 육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할 때. 육 여사가 있을 때 육 여사하고 신양촌하고 참 친했거든. 박태선이 하고. 그래가 이것을 불하를 딱 받아뿌니까네 불하를 받으니까 땅이 참 크다아이가? 그때부터는 부촌에서 땅 팔은 돈 가지고 여 와가지고 논 평당에 삼천 원 씩, 기장 이쪽에 있는 거. 우리 문중 답도 기장 쪽에 있었는데, 우리 육촌 형님이 삼천 원에 팔았대 카대.

면담자 1 : 칠십 년대 삼천 원이면 제법 큰 돈

9. 신양촌 철조망과 마을 고립

구술자 1 : 큰돈이라 하고 전부 다 팔아 불고 밭이고 밭이고 전부다 몰수를 했는기라. 그레 남은 거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산리 하나 남은 거는 15만 원씩 주고 인수해 가고 그러니까네 지금은 별천지, 지그 땅 다 된 기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라고 철조망을 다 치고. 우리가 그 뭐 사람이 보면 외부 사람이나 지방 사람들이 보든 참 흉물스럽거든, 그레 이북에 뭐 빨갱이들이나 38선에 경계선이나 그렇게 철조망 치지 이런 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를 많이 했어. 그런데도 현재 관청에서는 사유지에 즈그 땅에, 즈그 천한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면담자 1 : 저기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마을을 아무것도 모르고 둘러보는데 철조망이 죽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마을에? 처음에 군부대인 줄 알았어요.

구술자 1 : 이 안에 선산도 있는데 거기도 새끼들이 쳐가지고 드갈 때는 문 열고 들어가고 그 런다. 인마들만 안왔으면 우리 지역이 참 살기 좋은 곳이야. 그라문 부산시에다 참 건의를 해가지고 송정리, 해운대, 송정, 이쪽에 봉수로 이래 월전으로 이래가지고 해안도로 이래 참 잘 닦아 놓고 여기에 광안리 맨키로 바다 거 말이야 다리 놔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멋지지 진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해맞이 간절 맞이 가서 보고 이랬는데, 아 이 새끼들 그도 못 가게 하고 막아 불고 저러는 거 야.

면담자 1 : 아, 요기 안쪽에.

구술자 1 : 그레 내가 총무부 부장하고 싸움하고 이랬는데, ‘이놈의 새끼들 내 가만 안 놔들 거다, 이 새끼들.’ 근데 하든 뭐 하노, 내가 말하는 거 알아 묵지도 안 하고. 마 젊 을 때 같은데 혈기도 넘치니까 그것을 갖다고 선동을 해가지고 참 진정서라도 넣 고, 청와대라도 이렇게 하소연이라든지, 강서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같은데 하소연이라도 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라카니 젊은 아들도 말 안 듣고.

면담자 1 : 지금은 아예 저쪽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구술자 1 : 지금은 신앙촌하고 잘 안돼. 전에는 이놈 시끼들이 두렵게 생각하고 어려더마니, 요새는 어찌 된 게

면담자 1 : 아예 귀를 달아버렸나?

구술자 1 : 배짱이야. 누구 하나 보고 돈만 바라고 이런 사람들 매수를 딱 해 가지고. 첩보원 을 딱 맨들어 놓고. 그레가지고 부락에 조그만 일 이거하면 전부다 다 안다. 거울 앞 쳐다 보고 있듯이 다 보고. 문제점이 많다. 그라고 또 옛날 사람들은 부락에 참 이래 같이 이래가지고 부락이라카고 이래싸면은 화합이 잘 되고 헌신적으로 뭉신가 남 위해서 봉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참 사회 가 그러니까 그렇지, 마 니 하든가 말든가 이렇다.

5-D. 젊은 시절 어업활동과 어촌계장 임무 수행

젊은 시절 신한호는 원양어선을 타려고 했지만 당시 집안 문제로 허가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미역 양식과 어업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1970년대 학리 어촌계장을 하면서 학리 향 매립과 방파제 건설을 주도했으며, 수산물 단속 등 여러 마을 현안을 해결했다.

10. 젊은 시절 어업활동과 양식 사업 실패

면담자 1 : 어디든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에 칠십 년대 요때는 뭐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신 겁니까? 어업을 하셨는지?

구술자 1 : 어업, 어업 했어.

면담자 1 : 계속 배 나가셨습니까?

구술자 1 : 내가 칠십 년도 그 이전에 육십칠 년도에 총로다에 제생창 상계 계급계 보다가 그 래가지고 나 참 바닷가 살고 땡깁싸다가, 기록계 이렇게 보든 다른 아들은 하나 보 든 하루 종일 잡고 있는데 나는 마 한 시간이면 파바박 끝내뿔고 창고 가 배 다 하고 이래놓니. 본과장이 밖에 딱 보든말야 일하는 능력을 알거든. 내가 육십칠 년 도 말에 내 친구 문수하고 금수하고, 금수는 기관장이고 문수가 선장인데, 그 연안 선 배, 타러 가자카는 기라. 그때 극동냉동에 처녀 출항하는 거 알래스카에 연어잡 이 간다고. 가자카는데 그래 가자 말이야. 갔다 오면은, 난 항구까지 갔다오면 니가 갑판장하고 손 맞추자 이라대. 그래 가지고 내가 회사에 사표 내고 나오니까네, 박 정희가 막 안 된다고 그래 쫓는데 안 되기는 되기는 내 하기 싫어 마는데 어쩔거 야. 그래가지고 나와 가지고 선원수첩 신청해 놓고 선원조회 전부터 해놓고. 배에 가서 일까지 했어, 내가 보망을 잘 하거든. 애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배와 가지 고, 어짜노 빨리 해라 이래 쫓는데, 그래가지고 한바철이 올라가니까 2층에 오라카 는기야 ‘과장인데 올라가 보소’이라대. 서류를 내 선원조회 서류 내놓는데 빨간 줄 이 두 개 딱 그어져 있는 거야. ‘당신은 대통령 뺨이라도 선원수첩 내줄 수 없고 배도 못 간다. 집에 가서 농사나 짓고 바닷가 배나 타고 그게 제일 제격이라.’ 그 향만계, 계단을 우에 내려 오는지 모르고 집에 와가지고 노다지 술을 먹고 울고 불 고 하는데 마음은 내가 잘 못해가지고,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장가를 잘 못가가지 고 그래된 걸 갖다가 누굴 원망하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뭐시든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좀 놀다가 제일무역에, 무역회사가 여 아나고 받고 이러는 데 와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일하다가, 여수에 현장소장으로 가라하카대. 그래 가가지고 현장소장으로 한창 이래 싸니까 회사가 망해뿔다 카는 거야. 내 재수가 없을라카이. 할 수 없이 그래 정리를 하고 집에 딱 오니까 할 게 있나, 그때 미역 한창 붐 일어났을 때라.

면담자 1 : 그게 칠십 년도 정도?

구술자 1 : 그래. 칠십 년대도에. 배양장 지어 가지고 땅을 인자 그 금수면 가까이 사가지고, 지금 현재 아구찜 집에 일미아구찜 집에 그 땅, 내 땅이었어.

면담자 1 : 아 거기에 배양장을 만드신 거예요?

구술자 1 : 만들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사무실에서 집에 온 게 몇 번 안 된다. 밥도 먹으려 안 왔어. 현미경만 내 보고 말야. 잘 카워 가지고 바다에 내놓으면 꽃소금같이 확 피는데 이제 돈 댔다 그래 생각하고 연락해 딱 해놓고 사람들이 오가지고 또 이러 면 하나도 없고, 썩 다 죽어 붓고. 희한하게 안 되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그라 하다가 지금 마 부모가 물려준 재산 썩 털어 묵어뭇고. 다 팔아 가지고 빚 좀 갚 고, 내 벌여가지고 사면 안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천만에.

면담자 1 : 그때 다른 분들도 다 양식이 뭐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까?

구술자 1 : 사업은 운이 따라야 돼.

면담자 1 : 같은 바다인데 학리에도 그때 뭐 제법 많았다고 들었는데,

구술자 1 : 제법 많았어, 용대, 장철영 씨하고 용대 동생 종학이 하고 조합장 하던 사람, 그라

고 또 양식은 어촌계 공동 사업도 하고 그래가 많이 했어.

면담자 1 : 그럼 그때는 뭐 이렇게 수확해서 파신 분들도 있습니까?

구술자 1 : 그때 뭐 돈 조금, 그 당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됐어. 중간에 돈이 좀 되고 이랬지. 근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한 사람은 일본 같은 데 이런 데는 일본에 한 사람들은 일본에 수출품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공장도 짓고 하니까네 판로가 개척되고 이러니까. 너무 어리석고 너무 그 생각이 모자라서, 참. 마 그때 탈탈 털고 마 밖에 나와 가지고 다른 짓을 했으. 근디 그 한국 유리 공장 생겨가지고 그리 가고 그래도, 거기 갈 생각도 없었을까? 참 이상하지, 사람이 그렇게 될라카든 참 팔자라.

면담자 1 : 한국유리에 옛날 이천 분들 많아 갔다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구술자 1 : 이천도 가고 학리도 여 가고

면담자 1 : 학리 분들도 제법 갔습니까?

구술자 1 : 많이는 안 갔어. 몇 명 갔어. 그리고 공장 생활하고 월급쟁이 생활했으.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래 될 건데. 지금은 인자 이런 생각을 하든 머리 아프고, 아예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내 운명이고 팔짱데, 훨훨 털고 마 그때그때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고 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지금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시각도 좋고 청각도 좋고 다 좋은데 다리가 조금 아파서 짝대기 집고, 요새 내 병원에 댕기고 그래 해.

면담자 1 : 건강하신 겁니다. 저 여든 셋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술자 1 : 어? 밖에 나가든 다 그래 안 본다.

11. 학리항 바다 매립과 방파제 건설

면담자 1 : 저도. 건강하셔가지고. 연세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그 여기 학리가 앞에 젊으실 때는 바다가 요까지 매립이 안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1 : 저기 만물상 앞에 그기 매립이 만물상 앞에 요렇게 되가 있었거든. 물이 찰랑찰랑 나오도록 돼 있고 집이 요래 요래 있고 자갈밭이라. 요래가지고 전부 자갈밭이라. 그래 가지고 그때 내가 어촌 계장할 때 도에 여 과장인데, 학리 방파제 이거 호항 공사를 해줄라카대, 그래 가니까네 공사를 설계해냈는데 요래 요래 해 냈는 기라.

면담자 1 : 여기를 매립한다고?

구술자 1 : 매립하는데 브로크 놔 가지고 그래 한다 해서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차라리 할라카거든 바로 질러라 자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로 가지고 짝대기 끄어준 게 그래가지고. 그때 장차영이 이장질하고 어촌계 총대가 노정민이 하고 어촌계장 나하고 이래 서이. 그때 도청이 어땀었냐 하든 서대신동 그 뭐야?

면담자 1 : 아 그때는 경남이었으니까. 예.

구술자 1 : 경남 도청이 거기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공사를 어떻게 할 거야?’ ‘1톤 차를 불러가지고 착착착 나가지고 막으는 공사 되잖아 말이야’, ‘안은 어떻게 매립할 거야?’ ‘안은 마 연탄재 같은 거 넣고 차츰차츰 막으는 되지’ 하고 ‘이래 안 해주면 내 안 한다’하고 배짱을 탁 내니까 여 과장 ‘니 그럼 자신 있냐?’이라는 기라. ‘그래 해주라, 설계 마 변경해 주라’ 이래. 그래가지고 이래 끄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호항 공사를 했는 기라. 했는데 영성해운 이상석이 사장이 와가지고 ‘어촌계장님, 이거 어떻게? 지게차 가지고 브로크 지게차 가지고 들고 놓고 요래 하든 차츰차츰 자꾸 놔가든 막아질까요?’ 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여 하다

가 지게차가 물에 폭 빠져 붓는 기라. 하하하[웃음]

면담자 1 : 수심이 제법 깊었을 것 같은데 여기

구술자 1 : 수심이 한 3메타[m] 이래 되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네 사람 전체 다 나오라 하고 방송을 하고 배 두 척, 세 척 묶어가지고 끌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뺨스 바람으로 기치고 이래가지고 동네사람 아, 어른할 것 없이 다 나와었어. 그래가 그 지게차를 들어 올렸는 기라. 그래 이사장이 ‘와, 니 대단하다 참 진짜’

면담자 1 : 와! 바다에서 지게차를 건져 올리는

구술자 1 : 결국은 그래 가지고 막아 놓으니까네. 요도.

면담자 1 : 그때 그럼 공사는 완전히 다 하신 겁니까?

구술자 1 : 그지. 첫 공사라. 처음에. 여기도 하고 차츰차츰 나아가지고 다 막고 이쪽에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 향이 요렇게 되고.

면담자 1 : 지금처럼 요런 모양이 된 게.

구술자 1 : 동방파제, 저쪽에 아 있어. 이쪽은 서방파제고. 동방파제 거기는 없었거든. 장차영이 이장할 때 내 하고 둘이서 이동항 승인 받을 라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때 이후 락이가 정보부장 할 때, 그때 일광 사람, 저 용정 있는 사람이 그 정보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 나는 모르지. 지는 장 서방이 이장이 우리 조카 사운데, 마 지는 잘 아는 기라. ‘아저씨’ 마 이라대. 서울역에 딱 내리니 검은 짚차[지프]가 짹 와가지고.

면담자 1 : 모시고 간 겁니까?

구술자 1 : 그냥 뭐 정보부에 바로 들어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고, 마 ‘어떻게 왔냐’ 해서 그래 이래 왔다카이, 그때 박순천이 국회의사장 할 때라, 그래 찾아가고 이래 했는데, 대변이 지금 맨키로 안 것고 그때 사업이 좀 소극적으로 이러니. 대변향이 이동항 돼 있는데, 대변하고 학리 하고는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안 된다. 내려가라’

면담자 1 : 아, 하나 있으니까.

구술자 1 : 그래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아무 것도 없었다. [웃음]

면담자 1 :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럼 매꾸고 나서 요기 있던 집들은 그대로, 요 집들이 만물상이 있고 이런 집들입니까?

구술자 1 : 요 만물상이 있었고, 그때는 기와집이고 초가집이 있었는데 일광수산횃집 여도 새로 지었고. 새로 많이 지었어.

면담자 1 : 여기 매꾼 데는 이제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구술자 1 : 그래 인자 여 매꾸 가지고 지금 현재 어구, 어선 작업장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지어 줘 가지고. 전부다 해져가 있잖아.

면담자 1 : 그러면 요기 그 매립하시기 전에는 배들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구술자 1 : 배들이 바깥에 여 댔어. 전부 다.

면담자 1 : 매립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구술자 1 : 여 안에는 못 들어왔지.

면담자 1 : 밖에 대 놓고 실어서 날랐겠네요.

구술자 1 : 그래가 연탄재를 버리고 이래 가지고, 여는 물이 항상 고기가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아도 빠지믄 건져 주고 이래쫘다.

면담자 1 : 완전히 매립되는 데는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구술자 1 : 걸렸지. 수협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면담자 1 : 아 이렇게 해서 매립이 됐구나!

구술자 1 : 그 많이 변했뿌지.

12. 1970년대 어촌계장 임무와 도 수산과 수산물 단속 일화

면담자 1 : 칠십 년대 어촌계장 십 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십 년 하시면서 또 뭐 일들이, 예를 들면 사고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까 그때?

구술자 1 : 그때는 우리가 부락에 저인망 거대 고리 부정 사업이. 그 저인망 내내 고대고리라 카는 거. 그거를 했는데, 배가 서른다섯 척인가 이렇게 많았어. 그리고 잉카 돈이 되니까, 부정거래라 해 가지고 마 참 군이고 도이고 어데서 차가 와가지고. 배 고 뜨른 차타고 이때다 하고.

면담자 1 : 아 그때는

구술자 1 : 하루는 집에 와 밥을 묵고 있으니까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팔딱 팔딱 팔딱 뛰고 굿이라. 마당에 와가지고 “와 그러느냐?”하니까네 “아이고 어촌계장요, 도 수산과 하고 합동으로 단속 와가지고 열여섯 척이! 선창에 배 댔다고 잡혔다”고 하는 기라. 적발되 가지고 잡혔는데,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레가지고 “내려가 봅시다”하고 손가락 놓고 딱 갔다. 가니까네 황보 집에, 지금 황보 집 앞에 거기에 딱 있는데, 하필 여과장하고 몇이 많이 있어. 매년 있는데 금마들 대번에 나가 가니까, “어촌계장 니 인마 도둑놈 고수 아닌가?”이라는 기라 여과장이. 그레 가만히 들으니까. 바깥에 배는 못 들어오는 게 천지라 해췄고 그레가지고 “에라, 새끼들, 내가 도둑놈 고수면 니는 도둑놈 괴적 놈이라” 카고 돌이 모가지 잡고 싸움을 했는데. 싸움을 하면 치고 박고 할 듯이 고향을 지르고 싸움을 하니까 사람들이 배짱이 튼다이가 짹. 여자들이 팔딱팔딱 뛰고 “와 어촌계장 저 와 저러노? 미쳤나? 단속한 사람을 잡고 말이야”,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린다”케 싸면서 굿을 죽여 싸니. 그레 내가 원강 내가 막 싸리 시비를 걸고 이래 하니까 포청 사람이 가בות. 일광으로 올라갔어. 일광으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부정업을 하니까 협회가 잘 되가 있다. 계죽맹키 이래가지고 잘 되가 있는 기라. 그레 총무를 불렀다 아이가. “응배야, 돈 보따리 준비하라.” 해가지고 “내강 니강은 먼저 올라가자, 일광에 올라가자. 어디 있는고 찾아보자” 이렇카니 가니까네 일광 삼정 부산 여인숙에 진을 치고 떡 있는 기라. 떡 들어갔다 가니 “뭐하러 왔노?” 이러는 기라. “뭐 하라로 오야? 사람이 그레 놓고 가문 내가 섭섭하다 아이가. 삼정 다방에 전화해서 커피 좀 가 오라 캐라” 이라고 삼정 다방 전화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뒤에 한참 앉아 놀다가. “야, 니강 내강 싸움했는데 화도 풀고 목이나 적시러 가자” 말이야. “한잔하러 가자” 그때는 참 어두울 때다. 마 좋다 가자 하대. “응배야 저 달집에 전화해가지고 문 걸어 잠그라 캐라” 하고, 그때는 어촌계에서 학리마을에, 일광도 학리 사람 아니른 장사도 안 된다. 그마들 돈이. 개도 지알을 물고 땡긴다 할 정도로 그랫어. 그러니까네 “학리 어촌계장이니 바꿔라” 바꿔주니, “어이, 달집에 너희 오늘 문 걸어잠가라. 손님 여 한 여 네 명이 간다”이라니까 “알았습니더” 하대, 전부 다 준비해놓고 택시 타고 즈그 단속 온 사람들 다 싣고 우리 학리서는 내하고 응배하고 선주 대표 서 인가? 그레 갔어. 가니 여자들, 아가씨들 다섯 인가 있는데, 전부 다 한복 입고 딱 기다리고, 상 딱 차려 놓고 안 있나. 거기서 밤새 두드려 먹고 놀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오가지고 “이왕 잡은 거 한 뢰 척만 해라 마. 공동으로 우리 벌금 할게.” 이래가지고 마 무마시키고. 그냥 저그 ‘예, 예’이랬으은 바깥에 있는 배들 못 들어오고 끝까지 그거라.

면담자 1 : 그럼 고기 다 내버려야 되고.

구술자 1 : 치고 박고 싸움할 정도로 이라니까네. 야 시방 나중에 큰일 나겠다, 지그도 옛날에 내강 다 거래가 있고 이라니까네. 전부 다 그 물 안 먹은 사람 없어, 술 안 먹고[웃음]

면담자 1 : 서로 다 안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술자 1 : 그러니까 “니네나” 하고 그러지.

면담자 1 :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까? 단속 막 오고.

구술자 1 : 그래그래 살아 온 거지, 다. 어째 다, 수산과에서도 오고 이래 참 많이 그랬어.

면담자 1 : 근데 학리마을이 큰 마을이긴 해도 배가 서른 척이 넘게 올 정도면

구술자 1 : 그때는 참 많이 했어.

면담자 1 : 그래 고기가 많이 났던 겁니까?

구술자 1 : 그때는 고기가 흔했고, 그때는 저인망을 안 하다가 했거든. 그때 배를 와 이렇게 많이 했나 카문 수협에서 보조로, 오 톤짜리 보조로 갔다가 용자를 해줬는 기라. 그러니까 니도 내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를 대고. 다른 데서 사 오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면담자 1 : 배가 이래 많이, 고기를 그래 많이 잡으면 다 팔려나간 때가?

구술자 1 : 한때는 부산판장으로 갔어. 그때는 위판되고.

면담자 1 : 아 자갈치 위판장, 부산어시장으로 바로 나갔습니까? 와~ 진짜로 그럼 그때는 동네 사람들 다 살만했을 때였네요? 배 가지신 분들은.

구술자 1 : 파랑 불고 비 오고 이러믄은 고기 집이고 술집에는.

면담자 1 : 사람들이. 배가 안 나가니까.

구술자 1 : 부산, 저기 술집 여기는 아가씨들 오문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계장 집에 올라 오너라”이래가지고 가문 아가씨 선 봤다고 인사시키고 내가 많이 데리고 가고 이러니까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 사는 데 참.

5-E. 학리마을의 어업과 별신굿

학리마을은 과거부터 어업 활동으로 수확물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는 마을이었다. 어업활동이 위험성은 있었지만 수입이 농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부를 축적한 마을 사람들이 많았다. 이와 함께 학리 별신굿도 마을 어업의 번성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주변 마을과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13. 학리마을 어업 변화

면담자 1 : 혹시 배 나가셨다가 사고 나거나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구술자 1 : 사고도 많이 났지.

면담자 1 : 태풍 불고 이래가지고.

구술자 1 : 태풍 불고 그래가지고. 주로 작업하다가 줄에 말려가지고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 떨어가지고 물에 떨어져가 죽는 사람도 있고.

면담자 1 : 마을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까? 진짜 바다가 위험하긴 해도 돈이 그래도 되시니까 이게.

구술자 1 : 그때는 고기도 많이 났고 이랬는데, 인자는 돈이 안 된다. 지금은 기계화 해가지고 더 어구도 많이 뿌리고 그래해도 많은 고기 못 잡아.

면담자 1 : 그래도 지금도 제법 배가 있는 거 같은데…….

구술자 1 : 지금도 많아. 지금 한 스물 몇 척 돼. 근데 이 근동에서는 제일 많다 학리가. 어촌계 중에. 그래 여기는 또 그래도 우리 학리 부락은 아엠프[IMF]가 왔을 때도 아엠프가 어떤 건 지 몰랐다 아이가. 그러니 워낙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일할라 하는 사람들은 낚시 저거, 낚시 밖에 있는 그걸 갖다가 정리 해주고 한 바꾸에 사천 원씩 이래 받으든 열 바꾸면 사만 원 아이가. 그럼 백 바꾸 이렇게 한 달 거 모으면, 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돼지만 모아노른 많은 기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 아이가. 나도 놀고 있으니 심심하고 하니까 한 번씩 한다. 그것 가지고 용돈 쓰고 이른다. 그니까 자식들한테 손 그거, 여력도 안 되지만은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면담자 1 : 배가 없으셔도 그래도 먹고 사시는 거는 다들 마을 분들이 어느 정도 배와 관련된 일 하시면서,

구술자 1 : 다 편하게 산다.

면담자 1 : 다행이네요.

구술자 1 : 옛날부터 크게 만석꾼, 천석꾼은 없어도 다 고래 산다.

면담자 1 : 그게 좋은 마을인 거 같습니다. 가난한 분들 안 계시고.

구술자 1 : 아~ 참 좋았어. 그때 우리 학교 땡기고 이럴 때는 회관 앞에, 명절 때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참…….

14. 학리마을 별신굿

면담자 1 : 아 맞다! 굿을 여쭙보려고 했는데

구술자 1 : 응?

면담자 1 : 굿, 여기서 계속 굿을 했지 않습니까? 정월에. 어렸을 때 굿이 있었습니까?

구술자 1 : 굿을 했어.

면담자 1 : 그때는 어떻게 어린 시절에 봤던 굿의 모습은…….

구술자 1 : 그때는 군에서 문화재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럴 때는 부락에서 십시일반으로 살 같은 거 이런 거 걷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선을 하고 이랬는데, 하면은 배선하면 인자 세 집에 굿 장부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 하는데, 옛날에는 돈이 크게 그리 많이 안 들고 무당들 와가지고, 참 옛날에 그 우리 애릴 때부터 그걸 시작했는데 근래 몇 년도 부르고 이천 년도 말고, 천구백 몇 년도부터, 군에서 지금 현재 삼천만 원 지원해주지. 삼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군에서 인자 문화재로 이래가지고 그래가 했는데, 공수, 대변, 학리, 이천, 칠암…….[떠올리는 중]

면담자 1 : 동백 아십니까?

구술자 1 : 동백은 안 하고. 공수에 하고 대변, 두호, 학리, 칠암, 이천. 여섯 개 부락에. 육 년 만에 한 번 씩 돌아가거든. 일 년에 한 번 씩 다 못하고.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부락이 할 차렌데, 계약까지 다 이렇게 무당 그, 그 사람 (XXX) 와가지고 하기로 하고 이랬는데 코로나 바람에 못한다. 무기한 연장해라 그거 코로나 끝나고는 하자. 그래가 안 하고 있어.

면담자 1 : 어릴 때는

구술자 1 : 우리는 인자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해마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배선하는 데 자금을 한 사천 만 원 예금해놓고 있어. 항상 비축을 해놨다 아이가.

면담자 1 : 행사를 할 때 혹시

구술자 1 : 군에서 지원을 해 줘도

면담자 1 : 부족하니까?

구술자 1 : 모자를 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몇 시간 있으면 일일이 다 쓰고 계산서

면담자 1 : 계산서, 지출한 거 다 내야지 않습니까. 서류도 다 만들어야 되고. 어릴 때는 많이 보러 가셨습니까? 어머니, 할머니 따라서.

구술자 1 : 우리 집에서도 제사도 모시고 그래 했어. 또 어촌계장하면 거 가고.

면담자 1 : 계장 하실 때. 거의 그러면 계장 하실 때는 계속 거기서 굿할 때는 계속 계셨습니까?

구술자 1 : 굿할 때는 계속 거 있지.

면담자 1 : 옛날에는 진짜 크게 했다고 들어가지고.

구술자 1 : 크게 하다가 이천십육 년도 했나? 우리가 배선을 했나? 이럴 때 경로회장이었으니까 거가 있고 그랬지. 인자는 코로나 끝나는 안 할 거라. 나 다리도 아프고 젊은 사람 땀겨 줘야지. 마 뒤에서 보고 공문으로 이렇게 해라 시키고. 너무 또 잡고 있으면. 몸도 아프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자꾸 한 해 한 해 틀리네.

5-F. 연좌제 고통과 개인적인 삶

처갓집의 큰 처남과 작은 처남이 1966년도에 월북, 남북으로 인해서 정부 감시기관에 끌려가 고난을 당했다. 이로 인해서 젊은 시절 회사 등 공식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른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젊은 시절부터 개인 사업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5. 처갓집 큰 처남, 작은 처남 월북, 남북으로 인한 연좌제 고통

면담자 1 : 그래도 진짜 정정하신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구술자 1 : 운동을 많이 하거든.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저 방파제 가가지고 맨발로 한 어떨 땐 일 키로씩 걷고 하는데, 지금도 맨발로 걷고 이라는데. 또 약을 항상 내 몸을 내가 관리를.

내가 젊을 때 육십육 년도 일월 십일 일날 결혼을 해가지고 육십육 년도 유월 삼십 일날 새벽에 작은 처남이, 큰 처남이 내려와 남북해 가버린 바람에. 그래가지고 처갓집 일 바람에 내가 신고하고 막 그거 했었는데, 결국은 부산에 삼 부두에 일본서 물건 가져오고 풀어놓고 온다카니께네 기다리자, 기다리자 해가지고 그래 미신 고자로 되가지고 그래 고생을 하고. 일판호하고 유명세하고 딱 와가지고 이장까지 양 어깨 잡고 끌고 가가지고 역전에 앞에 호송여관이 있었어. 호송다방하고 이랬는데, 여관 데리고 가서 방 안에 딱 넣고 권총, 실탄 다 빼고 뒤꾸마리 돌려가지고

뒤꾸마리로 밤새도록 다섯 번 기절했다. 죽겠더라. 죽을라 했다. 그렇게 고문당하고 또 거기서 전부 조사 다 받고 경상남도 정보과에 불러 가 가지고 거긴 패진 안 하더라. 근데 삼일공사, 현대극장 앞에 삼일공사, 그 옛날에 방첩대 거 있었다. 그 오라케서 끌려갔는데, 야~ 진짜 거는 지하에 딱 가니 철문 철그덕 잠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지금 현재 참 내가 눈에 들어와 선택을 잘못 해가지고, 장가 잘못 가서 지금 이래 된 건데, 내 정보 형사들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소상히 다 전부다 다 빠짐없이 다 진술을 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를 또 고문을 당하고 때린다 카문은 여서 죽고 나가지 살 나고 가기 쉽잖다. 입 깨물고 죽어 불기다.”이라 카니, 엄포를 냈지. 서류 딱 들쳐보더니. 몇 가지 문대. 진실대로 고대로 딱 이야기 하니께, 한 두 시간 있다가 “나가라”카문서 보내줬지. 말도 몬 하고.

시온에 그 박동맹이 동생 박윤명이하고 항고 집에서 그때 계약이 어긋난다고 안 해준다고 내가 데모한다고 말이야 선동해서 데모할거라고 이라니까, 고 앉아서 딱 고 이야기하고 ‘윤명이 니 이라면 신앙촌 우리 학리마을에 난 나와서 데모 할거다’ 이래 하니까 그 정보형사 김 형사가 옆에 있다가 탁 끊고 나와서 “형님, 데모 선동 하면 당장 잡아간데이. 하지마소” 그 길로 나가서 소주로 나발 불고.

면담자 1 : 가족이 무슨 죄라고 그때는 진짜.

구술자 1 : 신고, 간첩 미신고자 이래가지고 요시찰 인물이 돼 있는 기라. 내가 그래. 그라니 케네 연좌제 딱 걸려가지고 꿈쩍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어데 직장 생활이고 뭐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냈어. 장필영이가 대위로 제대를 해가지고 예비군 중대장했는데, 중대장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그럼 뭐 미급 아니라도 사급도 소대장 할 수 있으니까네 선정하라 카대. 그래가지고 소대원들이 전부 그때 예비군들이고. 그 래가지고 나를 선정해가지고 딱 올리니까네 파출소 지소장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 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예비군 소대장을 할 수 없다. 정 그 하면은 부소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일로 맡기고 소대장은 다른 사람 시켜라”이라대. 박은경이 소대장 하고 내 부소대장 해 갖고 그래 일은 내가 다 처리하고. 그만큼 그래 고통을 겪었어.

면담자 1 : 하나가 계속 살아오시는 계속 영향을 줬었군요.

구술자 1 : 인자는 연좌제 해제가 되고 이라니까네 괜찮지만은 그때는 어디가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근데 그 고문당하고 이래도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한약 같은 거 이래 건재당 가가 지어와 가지고 내 손으로 다려가지고 많이 먹어. 봄 되면 부전에 건강. 거기 건재당에 가가지고 내가 약을 몇 병, 녹용하고 이래 인삼하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열 몇 가지 빼가지고 주라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56만 원 나오대. 집에 가와 가지고 이걸 한포를 갖다가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술에 넣어가지고

16. 개인 건강 관리

면담자 1 : 직접 달여서 드시는 거네요?

구술자 1 : 직접 달여 가지고.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약이 변할까 싶으면 또 다시 끓여가지고 페트병에 넣어가 먹는데, 지금은 다리가 아프니까네, 저거하고 녹용, 두충, 우슬, 백초, 갈근, 엄나무, 감초. 그래가지고 대추하고서, 대추하고 생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달여 가지고 어제 다 먹었어. 밥 먹고 한 그릇씩 마시는 거기 차 마시듯이 마시니까네. 소화도

잘되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허전해 가지고 안 되겠다. 전화해가지고 보내 줄라 해. 달여야 겠대.[웃음]

면담자 1 : 정정하신 거 같습니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해서.

구술자 1 : 회도 많이 먹고 그런다. 바닷가 가서 운동 갔다오면 배들이 저그가 있으믄 고기 뭐 만 원짜리 하나 주면서 “팔아라” 이럼서 회거리를. 돈 보고 주나 어데. 주면 집에 가가지고 손수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먹고. 어떤 사람은 깨을 맞아서[게을러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나는 안 그래.

면담자 1 :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

구술자 1 : 고기 낚으러도 가가지고 낚으면 쪼매라도 낚으면 반찬하기도 하고. 몸 관리를 식 생활은 신경 많이 쓴다. 밥도 찹쌀, 멍쌀 일 대 일 해가지고 까만콩 넣어서 먹는 지가 벌써 한 이십 년 넘거든. 까만콩 넣어 먹으면 그래가지고 이발소 가면 머리술이 머리가 참 이거하다 카고 이러대. 그래가지고 요즘은 표고버섯하고 도라지하고 이래 섞어가지고 먹으니까 감기가 안 오대. 참 좋아.

면담자 1 : 보통 약도 본인이 직접 잘 안 달여 드시지 않습니까? 귀찮기도 하고 일도 많고 해 가지고 확실히.

구술자 1 : 처음에 안 달이고, 제일 처음에 기장에 대진약국하는 친구가 그 죽고 난 뒤에 그 동생이 시장에 건재당 약 파는데, 거기서 약을 지어와 가지고 “오빠 이거 집에서 달이지 말고 중탕 집에 댕기소[말기소]. 우리 한 이십 년간 거래를 하는 데인데” 그 래가지고 댕겨 가지고 달여 왔는데 하필 그때 내 조카가 약을 사와가지고 달였어. 집에서 달였는데, 집에서 달인 약하고 그거 하고 이래가지고 먹어 보니까 중탕집 약은 약이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댕겨. 손수 달여 가지고. 만들어가 지고 가스 요즘 좋겠다.

5-G. 학리마을의 시설, 문화, 의료 등

학리마을에 1970년대 방파제를 건설하고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어업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전기와 전화가 들어온 것은 그 한참 후였다. 학리는 이후 마을에 큰 변화가 없어서 의료 시설, 학교 등도 일광과 기장으로 나가서 이용을 해야 했다.

17. 학리마을 과거 풍경- 주거 형태, 전화, TV

면담자 2 : 사진에 있는 게 옛날 학리 모습인가요?

면담자 1 :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할 때?

구술자 1 : 공사하기 전에.

면담자 2 : 여기는 아까 설명해 주신

구술자 1 : 그래, 브로크 나가지고 그거 해놓 거.

면담자 2 : 아, 그때는 물이 들어왔었구나!

구술자 1 : 이기 인자 옛날에 브로크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안에 이래 공간이 있잖아. 이 걸 맥혀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저쪽에도 서방파제 등대있는데, 저쪽에 있거든.

면담자 1 : 여기가 한국유리 쪽입니까?

구술자 1 : 한국유리고. 부락이 요래 있었단 말이야.

- 면담자 1 : 갯바이가 다 놔져있었구나. 초가집이 그래도 있구나.
- 구술자 1 : 초가집 개량해가지고 슬레이트 해 가지고 전부다 하고.
- 면담자 1 : 옛날에는 산도 다 보이고 이쁜 동네였습니다.
- 구술자 1 : 지금은 다 매립해 붓다.
- 면담자 1 : 네, 이쪽은 전부다 매립이.
- 구술자 1 : 옛날 이거 사진 찍어가라.
- 면담자 1 : 사진 찍어가겠습니다.
- 구술자 1 : 저게 밑에 학리 제단.
- 면담자 1 : 저 나무 관리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책에 찾아보니까 나무관리하시는 분이 원래 있으셨다고 하던데…….
- 구술자 1 : 저 나무 관리를 안 하고 그때 지정 보호수가 안 되가 있어. 근래에 저 위에 꺼까지. 한 몇 년 안 돼. 나무가 관리를 안 해가 놓니까네 다 부러진 기라. 부러진 거를 시멘트도로 떼우고 가지를 많이 치고. 요변에 또 저 나무 말고 포구 나무 거기 짚어가지고 남의 가정집 덮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에 신청해가지고 가지치고 안전하게 작업을 했어.
- 면담자 1 : 저 나무도, 옛날에는 저기서 제사를 모셨습니까?
- 구술자 1 : 저 위에 할배 제단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전부다 모셔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아이가. 배선도 저서, 그기서 한다 아이가.
- 면담자 2 :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연극도 막 하고 했다던데.
- 면담자 1 : 학교에서 오시면은 연극 같은 것도 하고 공연도 하고
- 구술자 1 : 옛날에 회관 짓기 전에 기왓집 이래 해가지고 회관이 있었어. 크게 이 터에. 그때는 그 학교 댕기는 아들하고 청년들이 그때는 많았어. 많아놓니까네 명절 때 할 거 없고 하니까네 청년절 같은 것도 하고
- 면담자 1 :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하고
- 구술자 1 : 젊은 사람들이.
- 면담자 1 : 그러면 동네분들 다 와가지고 같이 보고 했던 겁니까?
- 구술자 1 : 저녁에 하문 와가지고 보고[웃음]
- 면담자 1 : 그때는 TV나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 구술자 1 : 그런 거 없지.
- 면담자 1 : 그렇구나!
- 구술자 1 : TV 놓은 지가 ‘여로’하고 그때 TV 한참. 우리 부락에도 여기 한 다섯 집이가 셋 집인 가 있을 때 우리 집에도 TV 큰 거 사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면 마루에 평석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마당에 놔놓고 여로 보러 오면. 엄마는 받이 많아니까네 고구마 이런 거 가마떼기 했다 아이가. 저녁 되믄 바로 수안 가가지고 아들 준다고 구경 보러 온 아들 주고. “엄마 그 뭘라꼬 삶는 거?”하면 “배고픈 아들 간식으로 준다”카면서 선심 쓰고 이라니까.
- 면담자 1 : 그때는 정말 정이 많았을 때 였던 거네요.
- 구술자 1 : ‘여로’ 그때 되면 보러 와가지고 마당이 뽐뽐하고.
- 면담자 1 : 마을에 TV가 거의 없었을 때니까.
- 구술자 1 : 전화도 그때 몇 대 없었는데, 우리 집 전화는 사오일영인데, 칠이일 국에. 전화 안 넣고 있을 건데, 우체국장이 최영국이라고 학교 후배라. 그래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전화 하나 여 줄게, 쓰소.” 그래 여주대, 전화도 몇 대 없었는데,

면담자 1 : 전화 들어온 것도 칠십 년대?

구술자 1 : 칠십 년대 더 되지.

면담자 1 : 그 뒤였습니까?

18. 군생활과 미군불발탄 처리장

구술자 1 : 세월이 참 너무 빠르다. 내가 육십일 년도에 군대가가지고. 안동서 군대 생활했는데, (XXX) 건설공병대대 삼 중대. 위생병으로 근무를 했어. 처음에 삼성공 시설수리반에 공병할 거까지 교육받고 와가지고 그래했는데, 옆 부대 딱 팔려가 있으니까네, 막 그 위생병하던 영도 김 병장인데, 영도 사람인데 “그래 니” 그때는 이 중대도 잡아갈라 카고 전부 다 잡아갈라 케쥔는데, “니 제일 편한 군대 생활 하려믄 위생병 오라.”이래가지고 위생병 보직 받아가지고 대대본부 의무과가지고 일주간 교육받고 와가지고 그대로 위생, 의무실에 앉아 있으니까네, 중대장 오더니 계급장 떼라 하대. 하사계급 달아라 해서[웃음] 쫓병 때부터 하사 달고. 왜 그라믄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일반 하사 달고 봉급 타먹기는 6개월간 타 먹고 나왔는데 그 전에 벌써 달고. 그 때문에 그런 쫓매 상식이 있으니까 내 몸 관리를 내가 해.

면담자 2 : 어렸을 때 미군 폭발장 처리장 있었을 때 미군들하고 마을하고는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구술자 1 : 미군들하고는 그때 거의 우리 여서는 사람들이 몰랐어 그래. 알았으면 피해자들 그거 피해보상도 주고 이래 했는데, 여도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 많이 다치고. 참말. 손 날라가고. 눈 실명된 사람도 있고 이런데. 하나도 신청을 안 하니까 못 받았다. 지금 같으면 다 하지만은 그때는 많이 죽었어. 사람이.

면담자 2 : 그냥 막 가져와서 터뜨리고 가버리고 이런 식이었습니까?

구술자 1 : 그냥 터짜부고 그냥 가룻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재가지고 폭발시키고

면담자 2 : 마을에서도 폭발 소리가 들리고 이랬습니까?

구술자 1 : 이 집이 들썩들썩했다.[웃음] 집 무너진 다 카고 그랬다. 요새 같으면 그래 못하지. 옛날에는 마. 그래도 폐탄 쇠 주워가지고, 찌끄러기 폭탄 쇠 조각, 조각이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래도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랬다.

면담자 2 : 지금 같으면 소음 공해가

구술자 1 :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다. 서너 방씩 터지면 집이 흔들흔들한다.

면담자 2 : 밤에도 하고 그랬습니까?

구술자 1 : 야간에는 어떤 때도 하던데 야간에는 잘 안 해.

19. 개인 건강 문제와 학리마을 의료 체계

면담자 2 :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다리는 어디가?

구술자 1 : 여. 처음에는 협착증이라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온대 마을 병원에 어데 안 가 본데 없이 땡기면서 통증클리닉 주사도 맞고 이래했는데. 금년에 이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카고 이래쥔대. 효성시티 병원이 우리 부락하고 자매결연 맺어가 있었거든. 거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니까네 고 놈의 원장이 “아이고 회장님 전에는 신실하더니만 와 이래 파썩 늙었는교?” “나가 있는데 늙지.

어쩌라고” “이래 아파”하니께 입원해가지고 엠알아이 찍고 엑스레이 찍고 씨티 찍고 피검사 검사 전부다 했다 아이가. 입원해가 있으니까 저녁에 육 층에 올라갔는데, 칠 층에 올라가니까 간호실에 보니 모니터 안 있나? 거기다가 검사한 거 전부다 넣어가지고 보자 카대. 쪽 이래 보더니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크게 심하지는 안 한대, 무슨 약을 먹지요?” 이라대. 독한 약을. 내가 “고종사촌 동생이 다리 아프다 카니까네 사천에서 상성약국에서 지어와 가지고 약을 갖다가 지어와 가지고 주더라고. 그걸 먹으니까 괜찮고 아픈 게 괜찮고 쪼매 있으면 아프고. 그렇대. 그래 그 약을 내도록 먹고 또 내가 그 약을 주문해가지고 먹고. 그제 한 삼 년간, 사 년간 먹고 이랬는데. 그 약이라” 카니까. “아이고 그 약이 사약이라” 카문서. 약 끊기로 하고. 약 처방 해가지고 일주일간 주사 놓고 퇴원하고. 그래 올 때 마지 못해가지고 엠알아이 사진하고 전부다 찍은 거 복사해서 줄라 했다. 그래 돈 만 원 줄라 카대. 씨티판을 가져와가지고. 이상해서 기장병원에 신경과가 잘 한다 해서. 그 찾아갔다. 찾아가니 씨티판 내놓고 보니까 “다른 데는 별 이상 없는데 머리 한번 찍어봅시다” 이러는 기라. 우짜든지 병명을 찾아내야 되야 되니까, 머리 여 사진을 찍으니까 혈관이, 정맥이 맥혀. 맥히기 직전이라. 쪼그라들어가가지고 내가 봐도 눈에 표가 나대. 그래가지고 거서 박원준 원장이 여쭙에 동의의료원에 있다가 왔다 카대. 근무하다가. “동의의료원에 소견서 써 줄 테니 가서 시술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야 된다. 안 하든 중풍이 오든지, 뇌졸중이 오든지 오니까네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이튿날 동의의료원에 갔다아이가. 가니까네 삼 과 신경과에, 일 과, 이 과, 삼 과가 있는데 삼 과에 딱 들어가니까 신병국이라. 병국이 이름이. 담당 과장이. 그래서 대번 가가지고 그랬지. “어디 신 씨예요?” 영상 신 씨라 카대. 영산 신 씨면 그러면 “파가 어째 되는데?” 그러니까 파는 모른다 암말도 안 하대. 그러면 “몇 대 손이고?” 이러니까네. 삼십사 세라 하는 기라. “아이고 나 삼십 대손인데, 한참 내 손주뻘이네. 손주라 하지 말고 할아버지라 하지 말고 아버지 하던지 부르기 좋은 대로 존칭을 쓰고 그래가지고 해라.” 전부다 이래 그래가지고 집에 왔다. 검사해가지고. 오월 사 일날 다시 오라카대 가니. 그래가지고 주사 놔가지고 검사하고 정맥 검사하고 요월 사 일날 시술로 했다 아이가 거기서. 링을 여 뚫어가가지고 넣대. 하는데 간호사는 내 머리에 얹아가지고 자꾸 머꼬 이래 찔는기라. 아프냐? 괜찮긴 하다고. 나가 있으니까 즈그 기록지에 나가 안 나오나? 만 팔십일 세로 나오대. 내가 삼십구년 년 십이월 이십 일생이까네, 삼십구 년 십이월 이십 일이 되야 만 팔십이 세가 되는 기라. 팔십일 세로. 나가 팔십삼 살이나 되니까네 많으니까네 저그도 시술할 때 신경쓰인다 아이가. 잘 견디고 “아이고 시술 잘 뒀습니다” 카고 거기서 일주일간 입원해 있다가 “집에 갈란다” 카고 과장이 올라왔다. “내 집에 할 거니까네 일상 할 거 없재?” 이라니께 “약만 먹고 그러소.” 그래 와가지고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통근치료하라 하대. 기장에 갔다 아이가. 박원준이가 그 사람도 신경과 잘 알거든. 지가 발견했으니까네, 시술을 했으니까네 내가 이래가 왔는데, “마 어르신 가지 말고 인자 여서 치료합시더.” 그럼 동의의료원에 지가 전화한다 카대. 그래 매일 땡긴다 아이가. 땡겼는데 요새는 가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거는 땡겼는데 무릎 여기가 아픈기라. 사진 찍어 보드만은 물이 들었다고 물 빼고 이랬는데 그냥 마 하는데까지 해보자.[웃음]

면담자 2 : 지금은 이렇게 병원 나가면 되는데 옛날에 학리에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구술자 1 : 여는 병원 없지.

면담자 2 : 옛날에는 다치거나 이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구술자 1 : 다치면 그냥 된장 바르고 응급실 가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랬지.

면담자 2 : 보건소도 없고

구술자 1 : 보건소는 기장군에 있지 여 없다아이가.

면담자 2 : 기장까지 나가야 이제

구술자 1 : 내가 전에 와가지고는 주사 놔주고 이랬어. 그래 했는데 한번 주사 놓다가 쇼크가 딱 일어나가지고 식겁하고 부터는 다 뿌아[부썹서] 내어뱉다. 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20. 학리 옛날 전설, 민담과 방파제 공사 연관성

면담자 2 :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옛날이야기 길에서 바위 굴리는 이야기, 짐승. 전설 중에 길에다가 밤에 사람 지나다니면 돌을 굴러갖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구술자 1 : 무슨 이야기고?

면담자 1 : 옛날이야기 중에 그런 마을에 이야기가 있다고 책에서 보니까 밤에 사람들 걸어가면은 동물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학리에 있어가지고.

구술자 1 : 저쪽에 갈갈이. 지금 현재 고양이과 비슷한 거. 그때 삼송 가면 그런 게 많았어. 짐승이 내려오고 그랬어.

면담자 1 : 다른 산에는 옛날에 호랑이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던데

구술자 1 : 여서는 호랑이는 못 보고 주로 갈갈이 그기 인자.

면담자 1 : 지금으로 치면 삶 이런 거?

구술자 1 : 그게 내나 탁이지.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철조망 처가 노니 노루 같은 거 고랑이 [고라니] 같은 거는 한 번 쓱 뛰 넘어와 가지고 여 와가지고 밭 이런 데 뜯어먹고 그래. 그래가지고 밭에 저서 잡은 놈, 틀 놔가지고 잡아와 가지고 경로당 가와 가지고 날 거로 먹고 삶아가 먹고 그랬지. 맛있대.[웃음]

면담자 1 :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1시간 반 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구술자 1 :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데.

면담자 1 :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일단 녹음은 마무리하고. 사실 한 분 한 분 마을에 살아오셨던 분들의 얘기가 결국에 마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도 작업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학리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매립을 했다. 몇 년도에 매립을 했다 이런 거는 기록에 남아있는데 처음부터 다 한 게 아니고 브로크 막아가지고 물이 아직 저런 사진처럼 남아있고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메꾸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안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작업들은 하는 거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요구했던 것도 요런 부분들이어가지고 마을 분들 찾아 뵙고.

구술자 1 : 구덕터널 뚫을 때 돌 나온 거 갖다가 위상석(XXX)이 와가지고 우리 배양장 밑에 거다가, 이 돌이 넓었거든, 거다 재다 이래 카는 기라. “안 된다. 이거를 갖다가 내 어디 잡혀갈 일 있나?” 어촌소(XXX) 밑에 거 다가 산더미 같이 재놔거든. 근데 그 기 사진에, 항공사진에 찍힌 기라. 찍혀가지고 도에서 올라 오라 카는 기라. 떡 갔어. “와 그 팔아먹을라 놔 놔나? 와 그래 놔나?”카니 “팔아 먹을 게 아니라. 앞으


로 방파제 공사하면 쓰려고 모아 났다. 구덕터널에서 돌 나온 거” 그래 “그걸 어떻게 믿노?”이라니까네 “못 믿겠으면 기다려 봐라. 기다려 보든 만약에 팔아먹거든 쇠고랑 채가 잡아넣고.” 그 돌을 갖다가 전부다 방파제 썼다아이가.

면담자 1 : 구덕터널에서 이까지 돌을 실어 날랐던 겁니까?

구술자 1 : 그때는 버릴 때가 없사 놓니까네.

면담자 1 : 그럼 그걸 방파제 공사할 때 전부다 넣어서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서. 이런 것들이 마을의 역사가.

6. 윤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생 - 학리에서 17세부터 해녀 활동
---	--

목 차

개 요

상세목록

6-A 학리마을 해녀의 삶

1. 바다오염과 해녀 활동
2. 현재 학리마을 해녀 활동
3. 해녀 활동 시작
4. 해산물 판매와 학리마을
5. 마을 농업
6. 그 외 해녀 활동(미역 수확)
7. 제주 해녀와 학리 해녀

6-B 해녀 활동과 학리 어업

8. 해녀 활동과 어장
9. 학리 어업

6-C 기타 사항

10. 학리 해녀 사고

□ 개 요

- 구 술 자 : 윤달금
- 면 담 자1: 김민화
- 면담주제 : 학리마을 해녀의 삶
- 면담일자 : 2021년 9월 4일 (토) 14시
- 면담장소 : 윤달금 해녀 할머니 댁
- 면담차수 : 1차

면담은 학리마을 윤달금 해녀 할머니 댁 거실에서 2021년 9월 4일 토요일 14

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윤달금은 1951년 생으로 현재 학리에 남아 있는 22명의 해녀 중 한명이다. 17세 때부터 해녀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5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일광 신도시 등이 학리 주변으로 들어서면서 해양오염 등의 이유로 학리 해녀 활동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의 생애사를 통해서 학리마을 해녀의 삶을 이해하고 내수면 해양생태계의 오염과 변화가 해안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세목록

<1차> 2021년 9월 4일

6-A 학리마을 해녀의 삶

윤달금은 1951년 학리에서 태어나 학리 토박이로서 학리의 변화와 학리 해녀의 삶을 구술에 담았다. 학리마을 해녀들은 현재 22명이 남아 있다. 이들은 해녀계를 구성해서 과거부터 해녀 공동 작업 등의 활동을 했으며 최근에는 해양 오염으로 인해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해산물 채취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바다오염과 해녀 활동

면담자 1 : 부산 근현대 구술 자료 수집 사업 학리마을 여섯 번째 구술자이신 윤달금 해녀 할머니를 모시고 첫 번째 구술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구월 사 일 토요일이고 현재시간은 십사 시입니다. 장소는 윤달금 해녀 할머니 댁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면담자 1 :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구술자 1 : 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가지고 돌도 오염이되니까 돌이 썩어가지고 석화돌 맨키로 그래 됐더라구. 요 방파제 해는 저기도 놀래기 나뭇잎 미끼 거기 던져져서 전 석화가 되는 기라. 석화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뭐라 하니깐 당신들 땅 샅소? 물을 샅소? 이래 하고 우리한테 대드는 기라

면담자 1 : 낚시하는 사람들이

구술자 1 : 어. 낚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당연히 세금 주고, 우리 세금 내거든. 군에다가 세금 내고, 학리부락에서 일 년에 형사계약이거든 백만 원씩 여주고 이래 다하거든. 너무 해묵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해녀들 진짜 힘든다. 그래가 우리가 그 뭐꼬 전복 종패사업을 우리가 하거든. 이천육 년도 돼서 했는데 해가지고 자꾸 죽어부는 기라. 우리가 가가지고 상바리도 잡아내고 불가사리도 잡아내고 다 잡아내고 하는데 밤에 안 지키면 안 되는 기라. 고무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남자들이 불켜놓고 해간다고

면담자 1 : 해도질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술자 1 :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키는데 저녁에 일곱 시 되거든 한 아홉, 열 시나 되거든 온다.

어데 그거 내 지켜지나 이래 오는데, 물애끼로 이래 해가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참말로 바다 가도 돈 십만 원 따기 힘들다 우리는.

면담자 1 : 안 그래도 오다보니까 여기 바다가 오염되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한 거 같더라고요. 플랜카드 여기 붙어있던데, 현수막 여기 오니까.

구술자 1 : 플랜카드 붙어있는 그거는 원자로 저서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이천칠 년도 되서 저거를 시작을 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날 이때까지 보상을 안 주는 기라. 안 주고 내 미루는 기라. 내 미루기 때문에 요번에 데모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여놔는데 코로나 때문에 데모를 못한다 이래해 가지고 접어가 있거든. 우리가 아래도 연단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쪽 들으니께 거도 거도 사정이 있는 기라. 우리는 우리대로 남은 사람 하는 말이 죽기 전에 돈을 만져보고 죽겠나? 이래 하는 사람들 천지다. 마을 칠십, 팔십 묵는 사람이 안 그래 하겠나. 다 얼마나 손이 쥐어 보고 안 죽겠나? 하는 사람들 천지다. 그런데도 안 주는데 자기 돈으로 자기 안 주는데 우리가 간다고 주나? 안 준다 아이가. 그렇다 학리 동네는 말도 못한다.

그렇고 여 학리동네는 커피숍 너무 많이 들어서가지고 그 오물도 그리 내리는 거 우리가 맨날 며칠 가가 찜해가지고 또 이거 군으로, 우리 군에고 시에고 몇 번씩 다 갔다왔다. 올라가가 배수 해둘라고 배수해가지고 한군데 받아 가가지고 기장으로 올라가고 이라거든. 이래하고 하니께 좀 쾌안는데, 바닷가 안에 여는 밑에 들어가면 전 쓰레긴기라. 그니까 우리가 물애끼를 몬 해먹겠는게 전에는 들어가면은 낙지같은 것도 있고 전복도 있고 이랬는데, 도저히 소라 오데 조금 잡아봤자 혈에 가지고 5천 원씩 이래하재 이래하니께 너무 물애끼도 단가가 올라야 우리도 물에 가면 신이 나고 이러는데 더러운 돈 오, 육만 버리고 돈 십만 원 버리기도 힘든데 그런데 가면 진짜 참 우리 물애끼 할 곳이 없다 곳이 없다 여기 학리사람들은. 너무 안타깝다. 그거를 보면 진짜 참말로 어데 수협에서 우리를 봐주나 어데 군에서 봐주나. 군에서 봐주는 건 지원금. 우리 고무옷, 우리 돈으로 가지고 칠만이천 원 내면 거기서 이십칠만 원인가, 이십팔만 원인가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군에서 그거 지원 받아주고. 또 하나는 산소호흡 안 있나? 산소호흡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정관 산소호흡이 있대. 정관 가가지고 우리는 서너 번 받았는데 여 안 간 사람 한 번도 안 갔거든. 그거 인자 지원이 되고 군에서 별 지원해주는 것도 없어. 없는 데 경력 최고인 사람 낮은 망 어업증 복사해 달래서 줬는데 그거 주면 요번에는 병원비라도 싸게 안 나오겠나 이래 하드만은 모르지 우짤랑고 모르겠고.

2. 현재 학리마을 해녀 활동

면담자 1 : 마을에는 몇 분 정도 해녀 할머니들이, 해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구술자 1 : 우리 해녀 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사람이 스물 둘이.

면담자 1 : 학리에만 스물두 분 계십니까?

구술자 1 : 어. 스물둘인데, 낮은망 어업권 가진 사람이 51인가 52인가 이렇다

면담자 1 : 나머지 서른 분 정도는 물질 안 하시는 겁니까?

구술자 1 : 물질 안한다. 전혀 안해. 안하고 우리 종패 사업한 사람만, 전복 사업한 사람만 물에 가는데 전복 사업한 사람도 물에 이래 가는 사람은 전복할 때만 들고오, 우리 맨코로 사철 댕기는 사람이 사철 댕기는 사람이 열 명도 안 댕긴다. 사철 내 댕기

거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땡기거든. 그래 땡기는데 고 열에도 안 될기다.

3. 해녀 활동의 시작

면담자 1 : 진짜 거의 다 안 계시네요. 처음에 아까 열일곱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물질을 배우신 겁니까?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구술자 1 :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하고 서이가 옛날에는 망아리도 없고 통, 요새 같은 고무통 아니까? 옛날에는 나무로 안 만들었나? 그거를 가지고 요 바닷가 갔는데 우리 친구 둘이는 돈 하는데 나는 하더라구.

면담자 1 : 아 잠수를?

구술자 1 : 어! 나는 하더라구. 나는 이래 내려가는데 친구 둘이는 돈 내려가더라꼬.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내려가는데 와 나는 안 내려가지도' 이러는 기라. 이것도 뭐시 어찌 됐나부다 그래해가지고 배운 게 이때까지 배워지는 기라.

면담자 1 :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고 그러신 게 아니고 혼자서

구술자 1 : 배우고 그런 거 없어, 없는데 우리 친구 서이 가가지고 둘이는 돈 하는데 내 혼자 했다니께 그래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했다가.

면담자 1 : 그러면 그때는 다른 마을 분들 중에는 해녀가 따로 있기는 있었나요?

구술자 1 : 많이 있었어. 그때는 오십 명인데 하는 사람도, 땡기는 사람도 있고 땡기고 이래 했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땡겼지 많이 땡겼는데 그래 인자 다 돌아가시고 나이 많아 돈하고 이래 하니께 마 인자 해녀증만 가졌다 그거빼지 물에는 전혀 안 땡기거든 물에 땡기는 사람은 저거 종패 사업하는 사람도 마 종패 사업할 때 불가사리 잡을 때 나오고 전복 할 때 나오고 그 이상은 안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철로 땡기거든 사철로 열서인가 열둘인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사철로 땡기는 기라 사철로 땡겨가 이래하고 하는데, 아이고 그것도 많이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께 너무 속상한 기라.

면담자 1 : 많이 잡히고 이래야 될건데.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오십 년 넘게 물질을 하셨네요

구술자 1 : 오십 년 넘었지. 물질한지가. 그만큼 오래 했다.

4. 해산물 판매와 학리마을

면담자 1 : 아이들 다 키우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옛날에는 그러면 물질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은

구술자 1 : 잡으면 여름에는 일광해수욕장에 저 가가지고 판다아이가. 칼, 도마 전부다 가가지고 초장 가가지고 이고 가가지고 판다아이가. 팔면 거기서 이래 감독하는 사람들이 막 짜려보고 이래하거든. 이래해도 마 거서 판다아이가 우리가. 팔아야 돈이 되지 그때는. 팔고 이란다 아이가. 이래 하고 이래하는데, 그래 안 하몬 기장시장에 가기도 팔고

면담자 1 : 거까지고 지고 이고 가시는 겁니까?

구술자 1 : 짐을 이고, 기장시장에. 그때는 우리는 일광해수욕장 땡길 때만 해도 차가 없었어. 기장도 걸어가야 돼. 걸어가몬 이거 그때는 시계도 없는 집도 천지였다. 시계 없어 가지고 요 산길로 걸어가몬 마 희안한 꼴 다 본다. 산길로 저래 걸러가몬 기장시장

에 떡 가 앉아 있으믄 암만 해서도 날이 안 서는 기라. 그래 시계가 있으면 몇 시 인지 보고 가면 되는데, 날이 안 서는 기라. 그때도 그래그래 해가지고 말도 몬 한 다 물애끼 한 거. 몬 팔아서도 애, 팔아서도 애. 마 이런데, 기장 들어가면 좀 있으믄 한숨 실컷 있는데 기대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날이 선다. 그때는 시계도 없고 그 시절에 우리가 물애끼를 배워가지고 그시절에 다 고생하고 골병들고 이랬다. 그 래 주고 해수욕장 가서 많이 판다. 해수욕장 와가

면담자 1 : 그때는 해수욕하러 많이 왔습니까?

구술자 1 : 어. 해수욕 많이 했지. 그때는 했지. 그때는 한 다라이 이고 가고 이라면 돈 몇 씩 사고 오거든. 기장시장에 파는 것보다 수월거든. 그래가지고 기장시장에는 우리 가 낮에 해가지고 가고 이라는데 미역하고 모라[노리]를 많이 했거든. 그니께 각 전 으로하거든. 여럿이 열 썩, 열다섯 명씩 이래 모아가지고 각전을 해놓으니께. 열다 섯 명이 다 이거 미역이나 노리[김] 이고 팔러 가야해 기장시장. 그래가지고 산 넘 어 산 넘어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고 이룬다. 아따 옛날에는 옛날 말 하믄 골병든다.

면담자 1 : 상상도 못하는, 저도 82년생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저는 그래도 넉넉하게 자랐 던 세대라 가지고 할머니가 살았던 그 세대 배고픈, 저희 아버지도 말씀하셨는데 배굼아가면서 사셨던 그 세대의 얘기를…….

구술자 1 : 그니께 그때는 질이 나있나 사람 많이 땡기는 요기도

면담자 1 : 여기 길이

구술자 1 : 요 길도 요만 있는데, 우리 밭이 많이 들어갔다. 길 내는데. 요 사람 많이 밖에 못 땡겨. 그런데도 길도 넓키고 이래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돈이 안 버려져서 그기 탈 이지.

면담자 1 : 예전에 기장 넘어가실 때는 일광으로 안 넘어가지고

구술자 1 : 여기 산, 산

5. 마을 농업

면담자 1 : 아이고, 감사합니다. 피곤한데 저희가……. 그럼 옛날에도 밭농사를 하셨습니까? 밭도 하고 바다도 나가고 이래 하신 겁니까?

구술자 1 : 바다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랬다 아이가.

면담자 1 : 요즘은 무슨 농사 지으십니까?

구술자 1 : 요즘에는 꼬치 해가지고 다 몰라였고. 꼬치대 뽑아 어제 뽑았다 뽑고 인자 김장, 김장 김치한다.

면담자 1 : 김장배추

구술자 1 : 응 그거 할라꼬 전부 해놓고.

면담자 1 : 옛날에는 뭐를 주로, 벼 심으셨습니까?

구술자 1 : 뭐?

면담자 1 :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젊을 때는

구술자 1 : 마늘 많이 했다. 마늘 많이 숨갔다. 마늘 많이 숨가 가지고 이 밭 전체다 마늘 숨 갔거든. 전체다 숨가 가지고 인자 사람 사가지고 숨그고 팔 때도 사람 사가지고 팔 고 이랬는데, 마늘도 원채 자주 하니까 마늘이 되고 해가지고 몬 하겠어. 내가 작 년에 숨그고 재작년도에 숨갔는데, 키웠는데 마늘 되서 내가 몬해가 올해 마늘 안

심는다. 이제 쪼맨씩 사서 먹으면 되지 뭐. 이제 편케 살라고 인자 쪼맨씩 쪼맨씩 한다. 많이는 안 한다.

6. 그 외 해녀 활동(미역 수확)

면담자 1 : 그리고 하나 여쭙볼게, 해녀 할머니들 중에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으십니까?

구술자 1 : 제주도 오신 사람 있었는데 죽고 없다. 죽고 없다.

면담자 1 : 그분이 처음에, 처음이라면 그렇지만 해녀를 오래하셨던 더 오래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더 연세 많으셨던 분들 할머니보다

구술자 1 : 제주도?

면담자 1 : 예. 뒤에 오신 분들 입니까?

면담자 1 : 뒤에 오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제주도 가가 해녀를 모집을 해가 나왔는 기라. 모집을 해가 나와 가지고 아버지가 옛날에 선두도 하거든. 선두도 하면서 모집을 해가지고 해녀를 모집을 해갖고 많이 댔고 나왔어. 나와 가지고 한 스무 명 가까이 여서 해녀질 많이 했어. 했는데 자기가 나가 많으니까 자동으로 고향으로 가더라고 별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더라고. 가는 사람 잡을 거가 어쨌거고. 다 가고 여기서 둘이가 있었는데 둘이 다 돌아가셨다. 그래 여는 전부 다 육지사람 뿐인 기라. 육지사람 뿐이다. 제주도 사람 없다

면담자 1 :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정착하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셨나 봅니다.

구술자 1 : 없어, 없어. 한 사람 여 살다 결혼해가지고 그 아저씨도 먼저 죽고 아지매도 죽고 이랬다. 그기빠 없어.

면담자 1 : 그러면은 지금도 해초 작업들 많이 하십니까? 지금은 안 하십니까?

구술자 1 : 지금 해초 작업 그런 거 안 한다. 전혀 안 한다. 안 하고 와 한번 썩 남향 사람들이 해삼, 전복 이런 거 몬하는 사람들은 가세써 그거 뜯어가지고 말라가지고 팔기는 판다. 그거는 인자 전에는 근으로 했드만은 인제 키로 작업을 하거든. 키로 오천 원씩, 육천 원씩 파는 사람 있다 요새도.

면담자 1 : 그냥 옆에서 조금씩 작업하시는 거네요.

구술자 1 : 어, 있다, 있다. 우리는 그런 거 손 안대지. 그거 뜯어가지고 돈 몇 푼 하겠다 싶으는기, 마 쪼매다도 해물회하든 꽤안고 이래 하는데

면담자 1 : 미역은 어때요? 옛날에 미역은, 제가 듣기로 돌미역이 옛날에 잘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구술자 1 : 돌미역 있다. 돌미역은 한 손에 십오만 원씩 이래 받거든. 십오만 원씩 받고 작년까지 부터 미역 그기 혈해가지고 한 손에 칠만 원씩, 육만 원씩 받는다. 근데 그거도 여기서 서이서, 너이서 어부를 나가지고, 배로 타고 가가지고 배 하타되가지고 망사리로 올려가지고 붓고 또 한껏 차면 또 올려가 붓고 이래하거든. 그것도 한 2, 3 일 하면 그것도 끝난다.

면담자 1 : 얼마 안 나오니까?

구술자 1 : 끝나고 여기에 둘이가, 둘이가 겨울되든 미역해가지고 기장시장에 파는 사람있거든. 그 우동심인데, 내도록 팔고 달고 하는 사람있다.

면담자 1 : 옛날에도 미역 하셨습니까? 젊으셨을 때.

구술자 1 : 젊을 때 미역 했지. 우리 각전이라고 있거든. 요 구역 탄 사람하고 요 구역 탄 사

람하고 요 구역 판 사람하고 이래 하거든.

면담자 1 : 아 다 나눠져 있습니까?

구술자 1 : 응 구역마다 다 틀리거든. 열이든 열이, 다섯이든 다섯이, 요래 짜가지고 하거든. 그래 하기 때문에 넘어가지고 많이 팔고 기장시장에 가가 생 거로 많이 판다. 묵가가지고 많이 판다. 그때는 각전이 있싸놓으니까 열이 요리도 열이 이래이래 해가지고, 요 구역은 이 사람이 하고 저 구역은 저 사람이 하고 딱딱 구역이 딱딱 정해져가 있었거든. 인자 그런 게 없어졌다. 없어지고 미역도 전에 만큼 안 달고 옛날만 틈 안 달고 한 이년 전부터 돌미역이 다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해가 나와 가지고 넘어가지고 한 손에 십오만 원 푼 받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막 미역이 헐해지더라 칠만 원씩, 오만 원씩 이래하고. 와 그래 가격이 헐해지는지 몰라. 그런데 배민 저 쪽으로도 돌로 실라가지고 실라가지고 돌미역이 많이 나오는 갑대. 그래가 많이 파는 갑드라.

면담자 1 : 학리는 그 작업을 안 합니까?

구술자 1 : 안 한다. 우리가 한번 할라꼬 엄두를 냈거든, 한 며칠씩 할라고 했는데, 그거도 맘이 맞아야 되지 맘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더라.

면담자 1 : 힘들어가지고, 예전에는 마을사람들 전부다 나와 가지고 하고 그랬다고 들었었는데

구술자 1 : 그래! 그래 했기 때문에 구역, 구역이 있다 안 하나 내가. 옛날에는 ‘물 싣는다’ 하거든 여 말로. 물 싣는다 그게 실게 질. 물 싣는다. 그게 옛날에는 많이 싣었거든. 땀기면서 열이면 열이 이 구역 하는 사람만 가가 싣고 이래 했는데 인자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졌다.

면담자 1 : 다들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구술자 1 : 응 그니까 연세도 많고 이래 하니께 힘이 딸린 그거 할라카나 안 하지.

면담자 1 : 지금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 물질 배우는 사람 없습니까?

구술자 1 : 아무도 없다. 우리 밑에 육십 몇이고? 육십너이가 둘이가 제일 애기다. 제일 애기다. 육십 둘이가 싫으다. 그다음에 팔십살 묵은 사람이 둘이 있다 아! 서이 있다. 서이 있고 이래 다 있다.

면담자 1 : 대부분이 70대 이상이신 분들이네요!

7. 제주 해녀와 학리 해녀

구술자 1 : 또 물어봐라!

면담자 1 : 예. 그러면 제주도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물질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구술자 1 : 그래! [목소리가 커지며] 그래 배울라고, 내가 텔레비 틀어 보고 있거든. 우리도 제주도 견학도 몇 번씩 갔어. 견학도 가고 인천도 교육받으러 삼 박 사 일, 오 박 육 일도 땡기고 이라거든. 제주도 사람 진짜 잘하더라.

면담자 1 : 물질 잘합니까?

구술자 1 : 어, 진짜! 그래가 제주도는 가니께 해녀들이 단체가 되가지고 회센타 같은 거 쳤대. 쳤려가지고, 오늘은 이 조가 드가문 다른 조는 물애끼 해가지고 또 갔다 넣고 교대 교대로 하더라고. 그거를 보고 우리도 학리 저런 거 하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드는데 우리는 학리는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거기 잘 안 되

는 모양이라. 그니까 그런 거는 포기해야 해.

면담자 1 : 저 밑에 해녀촌의 가게들은 거기도 다

구술자 1 : 거는 포장마차 아이가? 포장해서 포장마차 한다. 열동.

면담자 1 :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해녀 할머니들이셨습니까?

구술자 1 : 해녀 집 하나고, 하나 안 있드나? 해녀 집 해냈지? 고 한 사람 있다.

면담자 1 : 나머지 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구술자 1 : 고 하나 있다. 해녀 집 고계 하나 있다.

면담자 1 : 그러면 요즘도 물질하고 나오시면은 시장에 갔다 파십니까?

구술자 1 : 아니 거기.

면담자 1 : 거기, 해녀집에?

구술자 1 : 해녀집에 팔고 그 또 많다고 한 이틀만 갔다 두면 요새 코로나 바람에 사람이 없다 아이가? 한 이틀만 갔다두도 물건을 안 살라 한다. 그니까 기장시장에 가가 기장시장에 팔고 이른다.

면담자 1 : 파는 것도 정말 일인 거 같아요.

구술자 1 : 파는 것도 힘들다. 코로나 이거 바람에

면담자 1 :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구술자 1 : 그니까! 너무 안 사니까.

면담자 1 : 그럼 젊었을 때 자녀들 키우시면서 삼십, 사십 대 지나오시면서 계속 물질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을 분들 중에는 어머님들 배 나갈 때 미끼 작업 그런 것도 하시던데

구술자 1 : 아! 미끼하는 사람 있어. 우리는 미끼 그런 거 안 한다. 미끼 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하고 물애끼 하는 사람 서인가 너인가 하는 사람은 보라성계철 되면 한 삼, 사 일만 하면 그 작업한 값도 안 나오거든, 안 나오고. 온 우리는 열 서 이 이런 사람들은 순전한 물애끼만 하거든. 그런 거 손 안 댄다.

면담자 1 : 다른 거 아예, 젊으셨을 때부터

구술자 1 : 어어, 젊을 때는 걸렸다, 걸렸는데 저거를 걸리고 나니까 이 다리가 병신되는 기라.

면담자 1 : 아 계속 앉아서 작업하시니까.

6-B 해녀 활동과 학리 어업

학리 어업활동은 현재도 해녀의 연안 해산물 채취, 배를 이용한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8. 해녀 활동과 어장

면담자 1 : 그 어촌계처럼 해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술자 1 : 어촌계

면담자 1 : 어촌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녀 모임이

구술자 1 :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있고 해녀는 해녀대로 있고. 해녀는 낮은망 어업권있으니까

고거는 고거대로 있고. 그리고 경연채라고 울산해양경찰서 그거로 내놔대. 내가지고 전부 발급받으라고 해갖고 다 받았거든. 그거를 요번에 ‘낮은망 어업권 복사해 줄라’ 하더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께 ‘암만해도 어데 아프면 도움을 조금 주겠심다.’ 이러면서 그래 하더라고.

면담자 1 : 복지혜택을 줄라고. 예전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구술자 1 : 아무것도 없지.[목소리가 커지면서] 물질은 아무것도 없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이래 있다. 아무것도 없었다. 중간에 와가 이래 있지 아무것도 없었다.

면담자 1 : 그렇구나. 젊은 사람들이 여기도 와가지고 배우고 하면 이어지면 좋겠는데

구술자 1 : 그래, 여기는 배우는 사람 없다.

면담자 1 :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만약 안 하시면 바다를 버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구술자 1 : 버리는 한가지지. 그리고 바다를 버리게 돼가 있다. 신앙촌서 못 들어온다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아들 배워가지고 어데서 우째 해먹을 기고

면담자 1 :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요즘 배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전에는 걸어서?

구술자 1 : 걸어서 간다. 질이 잘 나가 있거든.

면담자 1 : 일미아구집 그 앞으로 해서 걸어가시는 겁니까?

구술자 1 : 그리 간다. 일미아구집 있는데 그리 간다. 그리 가는데 요새는 뭇뭇 배없이 몬가고 바다 휘가지고 나와 가지고 걸어서 넘어 가고 이룬다 아이가. 다리 아픈 우리는 그래 하지도 못한다. 몬하고 물로 갓으로 갓으로 걸어갔으면 걸어갔지 그래 하지는 몬한다.

면담자 1 : 옛날에도 전복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까?

구술자 1 : 어 많이 탄다. 옛날에는 물에 가면 전복 이런 데 한껏씩 잡아오고 이룬다.

면담자 1 : 물이 진짜 깨끗했나 보네요.

9. 학리 어업

면담자 1 : 학리가 어촌이다 보니 배 타는 분들이

구술자 1 : 그래! 그라고 직장 생활하든 돈 매이니께네 배 한 번씩 가든

면담자 1 : 옛날에 진짜 배 잘 됐다고 그러시던데

구술자 1 : 그래그래! 그래한다아이가. 그니께 배 탈라하지 직장 다닐라 하겠나. 옛날에는 그래 했다.

면담자 1 : 그때는 배 가진 집이 인기가 많았을 거 같습니다. 선장집?

구술자 1 : 선장이 괴기 잘 잡아오면 기 푼다 아이가 그때만 해도

면담자 1 : 결혼도 막 자식 있으면 시키려 하고 그랬을 거 같습니다. 배 가진 집들이 대부분 부자였습니까?

구술자 1 : 어! 지금도 배 가진 집들이 전부다 부자다. 옛날부터 해놓으니께. 그리고 온 옛날에 배한 사람들은 배도 전부 감독시켜 붓고 돌아가시붓고 없고 젊은 사람만 인자 전부다 배 한다.

면담자 1 : 지금 예를 들면 이십 대나 삼십 대 중에

구술자 1 : 배 타는 사람들 없다. 이십 대 삼십 대는 없어

면담자 1 : 자녀들은 다른 데 공부 보내고

구술자 1 : 없어. 다 없어

면담자 1 : 힘든 일이어가지고

구술자 1 : 그래, 배로, 선주지만은 자기 배지만은 자숙 배 태울라고 하겠나?

면담자 1 : 아무래도 힘든 일이니까.

6-C 기타 사항

학리 해녀 활동 중 사고에 대한 이야기로 구술을 마무리했다.

10. 학리 해녀 사고

면담자 1 : 아이고, 다들 컸구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만 더 드리고 정리를, 한 시간이 넘어가지고. 해녀 분들 중에 마을에서, 배타시는 분들도 중간 중간에 안 좋은 사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해녀 분들 중에도 예전에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구술자 1 : 있다. 내가 같이 사람 한번 보자, 서이 너이 다섯이가 물애끼를 했는데, 해녀질을 했는데, 서이는 요앞에 방파제 여하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요쪽에 추광이 있다. 추광이라고 했는데, 나는 거서 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말이 내한테 ‘내 한 망사리 했다 나간다.’이래 하더라고. 내가 ‘야’이람서 물에서도 대답하고 이랬는데 물에서 이래 한번 보니까 홍아리만 떠가 있고 사람이 잠[자맥질] 오는 게 안 보이는 기라.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기 안 보이는기라. 이래가 있는데 내가 소름이 딱 끼치더라고. 내 몸에서. 내가 물애끼로 멀리 떨어져가 있는데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하필 우리 작은 아들이 내보고 ‘나오라’ 하더라고 ‘와’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됐는데 잡시다’ 이러는 기라. 그래 내가 홍아리 끌고 미역 한 망사리 해가지고 끌고 이래 오면서 돌에다 서가 또 봤어. 또 보니까 드름박만 있고 사람이 없는 기라. ‘아이고, 이기 무슨 일이고’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나와 가지고 아들이 기다리고 싹고 나는 걸었어. ‘너 조 앞에 가가 있거라’ ‘초서 앞에 가가 거가 기다리라, 내가 물어보고 갈게’ ‘해녀들 나오고 했드나?’하니께 ‘엄마 서이가 나와 있더라’ 이러는 기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가다가 ‘시전이 나왔는교?’하니께 ‘안 나왔다’ 이러는 기라. ‘아이고 시전이 없데이’ ‘홍아리만 떠가 있다. 없다’ 이러는 기라. 그래 부랴부랴 했는데 심장마비인데 바로 돌무리다. 서면 오래 밖에 안 된다. 즈그 죽을라 카니 명이겠지. 근데 다리에 물 있제? 그기 감아져가 있는기라. 그래가지고 해안경찰서 다오고 올리니께, 그기 물이 감기니까 다 내려가부더라고 배에서 올리니께. 물이 얼마나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그 하는 사람이 다이빙하는 사람이 배 타고 와가지고 그래가 던지고 그래 죽었다. 죽은 지 몇 년 된다. 그래 내 한 삼, 사 개월 물에 안 갔다. 안 땡겼다. 자꾸 머리 속에서 뱅뱅 도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울산해안경찰서서 두 번 조사받고, 내가 보거리가 나가 그랬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왜, 왜 자꾸 조사를 하냐고’ ‘조사를 해야 빨리 신체를 치울 거 아닌교’ 그 말도 맞아. 그래 내가 이래이래해서 내가 먼저 가가 있으니까 물해러 그리 왔더라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내한테 ‘간다’ 이래하고 갔는데 간다하고 휘갔는 사람 그래 됐담서 내보고 ‘무슨 원한이 있는가’ 묻고 이러는 기라. ‘그런 거 전혀 없다면서 왜 그런 거를 묻느냐’하면서 내가 막 이래 신경질내고 이래 싸니께, ‘그래, 물어본다’면서

면담자 1 :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구술자 1 : 그래 ‘사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동네 그래 하고 처음 죽었다.

면담자 1 : 예전부터 그런 사고들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1 : 없었지, 없었다. 처음 죽었다.

면담자 1 : 배타시는 분들은 종종 사고가 있었다고

구술자 1 : 배타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지. 손도 다치고 마마 옛날에는 우리 아저씨 동기인데 사람이 배로 했다. 배로 했는데 저기 동기는 배에서 왜 방줄 안 있나? 그기에 쇠가 이마이 큰 거 안 달려있나? 거기서 치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배에서 사고 많이 난다. 그래 죽고 이랬다.

면담자 1 : 해녀 분들은 다행히 일이 없으셨네요.

구술자 1 : 그래, 해녀 분들은 그래하고는 더 조심 더 한다. 배 있는데 안 가고 조심 많이 한다 인자.

면담자 1 : 요기서 인터뷰하는 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구술자 1 : 네[웃음] 나도 감사합니다

[별첨] 구술 관련 서류

- 구술자료 활용 및 이용동의서
- 구술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구술자 검독 확인서

1. 김영희

구술자 신상 명세서

사업명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면담자	오철석 14:50
			면담일시	2021.8.5(목) 14:30
이름	김영희		생년월일	1945.6.7. (음력/양력)
주소	기장		출생지(고향)	포항
연락처 (자택) (핸드폰)			성별	여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시기	활동 내용		
		동해안 뱃신굿 전행과		
* 연구에 도움이 될 인물 소개(이름, 연락처 등)				
* 면담자 기록사항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선택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8월 5일

성명: 김영희 (원)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년 8월 5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김 영희 (원)

면담자 성명 : 오 현석 (원)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김 영 희 (서명)

2021년 11월 27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2 회	3 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2. 권중태

구술자 신상 명세서

사업명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면담자	권중태
			면담일시	2021. 7. 29. 11:00 ~
이름	권 중 태		생년월일	1955. 1. 23 (음력 1월 13일)
주소	기장군 일광면 학리동대로 98		출생지(고향)	학리
연락처	(자택) (핸드폰)		성별	남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시기	활동 내용		
	1996 - 2002	학리 기장계장		
	2010 - 2012	"		
	2019 - 2021	"		
* 연구에 도움이 될 인물 소개(이름, 연락처 등)				
* 면담자 기록사항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선택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7월 29일
성명: 최종재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년 7월 29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면담자 성명 :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권영대

2021년 11월 27일

제한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내역	항의 및 분량	총 / 회	2 - 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3. 김용대

구술자 신상 명세서

서명명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면담자	조현석
			면담일시	2021. 12. 13
이름	김 용 대		생년월일	1938. 10. 1 (음력/양력)
주소	기장		출생지(고향)	기장
전화처	(가택) (핸드폰)		성명	김
주요 약력 및 활동사항	시기	활동 내용		
		최초 비엣 양식		
		최초 다사바 양식		
		학리에서 비엣 공보 배양장 운영		
* 연구에 도움이 될 인물 소개(이름, 연락처 등)				
* 면담자 기록사항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학구 대전마을/가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출생지, 연락처(지역,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사항(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청영세서에 기재 [선택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3월 10 일

성명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년 8월 10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정영애

면담자 성명

문현석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형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중의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김동대 
2021년 8월 27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 회	그 외 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4. 한상기

구술자 신상 명세서

사실명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특구 대원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연락처	공 헛 스
			연락처	2021. 8. 18 12:00 (월/일)
이름	한 상 기		생년월일	1950. 11. 17 (음력/양력)
주소	부산시 기장군 일곡면 학리 16		출생지(고향)	학리
연락처 (가택) (핸드폰)			성별	남
주요 자력 및 활동실적	시기	활동 내용		
		학리에서 대장간 운영		
		" 칠산개천 운영		
* 연구에 도움이 될 인물 소개(이름, 연락처 등)				
* 연담자 기록사항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특구 대전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차액,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사항(존인 형제자매 성명, 직계 가족사항 및 연락처), 주요 학력 및 활동사항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선택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요로부터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8월 10일
성명: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작품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년 8월 18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설명 : 한상기

면담자 설명 : 오준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실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한승이 (인)

2021년 11월 27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행시 및 문답	총 1회	2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5. 신한호

구술자 신상 명세서

사업명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면담자	신한호
			면담일시	
이름	신한호		생년월일	31.12.20 (음력/양력)
주소	기장군 일광면 학리3길1-1		출생지(고향)	학리
연락처	(자택) (핸드폰) 010-9323-1212		성별	남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시기	활동 내용		
		학리 지촌제강 역관		
		현제 학리마을 노인회장		
* 연구에 도움이 될 인물 소개(이름, 연락처 등)				
* 면담자 기록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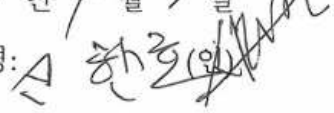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선택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9월 3일
성명: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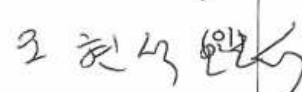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 년 9 월 3 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한 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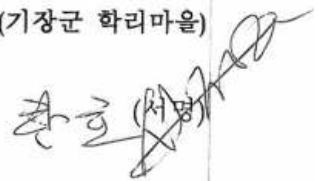
면담자 성명 :  조 현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신  (서명)

2021년 11월 27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1 회	2 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6. 윤달금

구술자 신상 명세서

사업명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면담자	오현석
		면담일시	2021. 9. 4
이름	윤 달 금	생년월일	51 / 12. 5 (음력/양력)
주소	학리	출생지(고향)	학리
연락처	(자택) (핸드폰)	성별	여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시기	활동 내용	
		학리에서 해녀 활동	

* 연구에 도움이 될 인물 소개(이름, 연락처 등)

* 면담자 기록사항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선택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윤달금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년 9월 4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오 현석 

↕
면담자 성명 : 윤 달근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윤 달금 (인명)

2021년 11월 21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 회	/ 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부록]
마을 관련 자료 사진

| 주요시설

	
<p>마을회관 및 경로당 외부</p>	<p>마을회관 및 경로당 내부</p>
	
<p>청년회, 어촌계 사무실</p>	<p>학리마을 표시석</p>
	
<p>부녀회 사무실</p>	<p>학리쉼터</p>

	
마을버스정류소(학리항 앞)	마을버스정류소(전산가든 앞)
	
환경방사선측정소	환경방사선측정소 안내문
	
학리 방파제	학리 해양경찰서 분소
	
학리 해녀촌	학리항 선박 접안시설



기장수협 학리위판장



학리마을 집입로



할매 상회



학리 교회

| 마을 예전 모습과 새마을운동



현재 학리항 접안 시설



현재 학리항 방파제와 등대



해안 난파선



전산가든 1980년대 당시



학리항 매립 전(노인회관 소장)



학리항 매립 중(노인회관 소장)

| 주요 사건



해녀 해안 출입로 폐쇄



마을 공동묘지 및 장군나무 출입로 폐쇄

| 주요 문화유산



당산나무



당산나무



마을 제당



마을 제당 표지판



마을 제당 주소



마을 상여집



미역 종묘 배양장 터



미역 종묘 배양장 내부

| 주요 행사 동해안 별신굿



동해안 별신굿 공개행사 단체촬영



동해안 별신굿 공개행사 무대1



동해안 별신굿 공개행사 무대2



동해안 별신굿 공개행사 무대3



동해안 별신굿 공개행사 축연 장면



동해안 별신굿 공개행사 시작 장면

| 마을 전경



학리항과 일광, 고리 원전이 보이는 해안



마을 뒤편 신앙촌 철책



마을 뒤편 신앙촌 철책 원경, 근경



신양촌 철책에서 바라본 마을, 경고문
